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이지혜
김은정·최인선·이철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보고서 2025-3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공감과어울림 세종인쇄정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11-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36>

발|간|사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며 구조적 저출생 문제의 심화를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사회 전반에 향후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이 갖는 의미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근거와 해석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단기적 변동과 구조적 변화가 혼재된 출생통계의 특성상, 반등의 실질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10월에 공개된 출생통계 미시자료 등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등 흐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출생아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과 시사점이 향후 저출생 대응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지혜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 김은정 부연구위원과 최인선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으며, 제3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자문위원으로 큰 도움을 주신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와 원내 최선영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2015~2024년 출생통계 분석	15
제1절 출생아 수 추이 및 시계열 분석	17
제2절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분석: 인구-출산을 분해	31
제3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분석: 팬데믹 전후 비교	62
제4절 2024년 출생통계 추가 분석	69
제5절 소결	81
제3장 출생아 수 증가의 인구-혼인-출산율 변화 분해	85
제1절 개요	87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89
제3절 출생아 수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	94
제4절 2023~2024년 출생아 수 증가 요인 분해	106
제5절 2024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요인 탐색	113
제6절 소결	123

제4장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및 분석	127
제1절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개요	129
제2절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여건 분석 ...	133
제3절 저출생 정책별 인지도 및 중요도	162
제4절 향후 출산 의향 및 최근 가치관 변화	179
제5절 소결	193
 제5장 2024년 출산율 반등 원인 분석 - 동태패널모형 구축 및 분석 ..	197
제1절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199
제2절 지역별·연령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219
제3절 소결	2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33
제2절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9
 부 록	255
부록 1 조사표(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	255
부록 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273
 Abstract	28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론	13
〈표 2-1〉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19
〈표 2-2〉 연도별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5~2024년)	22
〈표 2-3〉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 분기별	23
〈표 2-4〉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 분기별 더미 포함	25
〈표 2-5〉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 월별 자료	28
〈표 2-6〉 연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32
〈표 2-7〉 15~49세 모(母)의 출생아 수, 인구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35
〈표 2-8〉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1)	39
〈표 2-9〉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2)	41
〈표 2-10〉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	43
〈표 2-11〉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효과 분해(팬데믹 전/영향기 대비 '24년) ...	46
〈표 2-12〉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2023~2025년 분기별)	47
〈표 2-13〉 혼인 건수의 변화 - 인구 및 혼인율 변화 분해	48
〈표 2-14〉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51
〈표 2-15〉 연도별 모(母)의 출산 횟수별 출생아 수 추이	53
〈표 2-16〉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	55
〈표 2-17〉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 및 출산율 효과 분해 - 출생순위 고려	59
〈표 2-18〉 팬데믹 전후 연령대별 출산율 수준 비교	66
〈표 2-19〉 팬데믹 전후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비교	69
〈표 2-20〉 연도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15~2024년)	70
〈표 2-21〉 연도별 모(母)의 혼인 구분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71
〈표 2-22〉 부모의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72
〈표 2-23〉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2015~2024년)	75
〈표 2-24〉 모(母)의 국적별 평균 결혼생활 기간(2015~2024년)	76
〈표 2-25〉 모(母)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78
〈표 2-26〉 모(母)의 직업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80

〈표 3-1〉 2023~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변화 분해	106
〈표 3-2〉 2023~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변화 분해(계속)	111
〈표 4-1〉 조사 대상자(법률훈 및 사실혼 여성) 구분 및 대상자별 설문 구성	130
〈표 4-2〉 전체 응답자의 기초 인구학적 특성 요약표(2024년 말 기준)	132
〈표 4-3〉 집단별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비교	134
〈표 4-4〉 집단별 혼인 상태 및 자녀 출산 특성 비교	136
〈표 4-5〉 집단별 주거 형태 및 가구소득 수준 비교	138
〈표 4-6〉 집단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139
〈표 4-7〉 출생아 부모의 특성에 따른 2024년 출산 여부 분석 결과	142
〈표 4-8〉 출생아 부모의 특성에 따른 2024년 출산 여부 분석 결과 - 부(父)의 직장유형 추가	143
〈표 4-9〉 계획 임신 여부	145
〈표 4-10〉 2024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46
〈표 4-11〉 정부 정책이 2024년 출산 결정에 미친 영향	147
〈표 4-12〉 정부 정책이 2024년 출산 시기에 미친 영향	148
〈표 4-13〉 코로나19가 출산 시기에 미친 영향	149
〈표 4-14〉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	150
〈표 4-15〉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주된 이유	151
〈표 4-16〉 주로 돌보는 사람	152
〈표 4-17〉 양육의 어려운 점	153
〈표 4-18〉 2024년 출산 전후 취업 상태 변화(본인)	154
〈표 4-19〉 2024년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	155
〈표 4-20〉 2024년 출산 전후 취업 상태 변화(배우자)	156
〈표 4-21〉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본인)	157
〈표 4-2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본인)	158
〈표 4-23〉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배우자)	159
〈표 4-2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배우자)	159



〈표 4-25〉 주 평균 근로시간(본인)	160
〈표 4-26〉 주 평균 근로시간(배우자)	161
〈표 4-27〉 본인의 평균 가사 및 돌봄 담당 비율 정도	161
〈표 4-28〉 일·가정 양립 만족도(현재 취업 중인 응답자 기준)	162
〈표 4-29〉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2024년 추가 출산자 대상 이전 출산과 비교)	163
〈표 4-30〉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165
〈표 4-31〉 양육·교육·돌봄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168
〈표 4-3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171
〈표 4-33〉 집단별 2023년 정책 평균 인지도	174
〈표 4-34〉 2023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2024년 출산에의 영향 분석 결과	176
〈표 4-35〉 저출생 대책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중요한 정도	177
〈표 4-36〉 향후 출산 의향	179
〈표 4-37〉 향후 출산 시기	180
〈표 4-38〉 향후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	180
〈표 4-39〉 향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181
〈표 4-40〉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	182
〈표 4-41〉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중요도	183
〈표 4-42〉 결혼에 관한 인식(2025년 현재 기준)	185
〈표 4-43〉 자녀에 관한 인식	187
〈표 4-44〉 성역할에 관한 인식	188
〈표 4-45〉 2025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향후 출산 의사와의 관계 ...	190
〈표 4-46〉 2025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향후 출산 의사에의 영향 분석	191
〈표 5-1〉 주요 변수 설명	204
〈표 5-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분석기간(2000~2024년)	210
〈표 5-3〉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분석기간(2012~2024년)	212



〈표 5-4〉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차분GMM 결과) - 거시변수 추가	215
〈표 5-5〉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출생순위별	217
〈표 5-6〉 시도별 출생아 수 추이	219
〈표 5-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21
〈표 5-8〉 도시 규모별 분석 결과	222
〈표 5-9〉 출산율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지역별 출산율 활용	226
〈표 6-1〉 “결혼해야 한다” 긍정 비율	240
〈표 6-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 비율	241
〈부표 1〉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혼인을 포함	273
〈부표 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고용률 및 주거부담률 추가	275
〈부표 3〉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 추가	277
〈부표 4〉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사교육비 및 결혼 가치관 추가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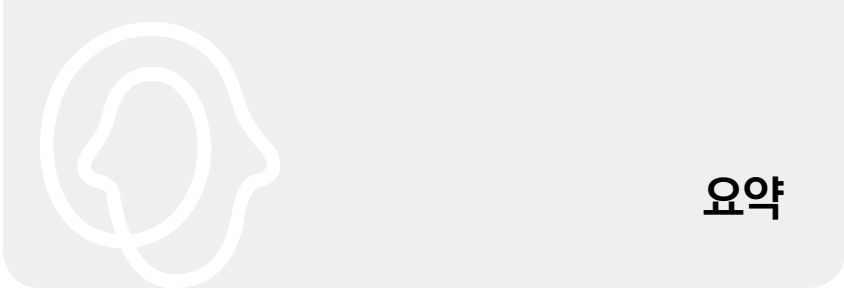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4년)	17
[그림 2-2] 2015년 이후 출생아 수 변화 추이	18
[그림 2-3]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20
[그림 2-4] 분기별 출생아 수 추이(2015년 1사분기~2025년 2사분기)	21
[그림 2-5] 분기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1)	24
[그림 2-6] 분기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2)	25
[그림 2-7] 월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5년 6월)	26
[그림 2-8] 월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29
[그림 2-9]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추이	31
[그림 2-10] 출생아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2015~2024년)	33
[그림 2-11] 15~49세 연령대별 여성인구 수 및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34
[그림 2-12] 2015년 대비 연도별 출생아 수 변화 누적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 ...	38
[그림 2-13] 2015~2024년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 ...	39
[그림 2-14] 2024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증감의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분해	42
[그림 2-15] 팬데믹 전/영향기 평균 출생아 수와 2024년 출생아 수 비교	45
[그림 2-16]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50
[그림 2-17] 연도별 모(母)의 출산 횟수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53
[그림 2-18] 출생아 수 증감률의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분해(출생순위 고려) -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분 기준	54
[그림 2-19] 출생아 수 증감률의 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 분해 - 출생순위 고려	58
[그림 2-20]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2000~2024년)	63
[그림 2-21] 연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2015~2024년)	64
[그림 2-22] 모(母)의 각세별 출산율(2018~2024년)	65
[그림 2-23]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 팬데믹 전/영향기/2024년 비교	66
[그림 2-24]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비교(2018~2024년)	67
[그림 2-25] 팬데믹 전후 평균 누적출산율 비교	68
[그림 3-1] 2015~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95

[그림 3-2] 2015~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96
[그림 3-3] 2015~2024년 25~39세 여성인구	97
[그림 3-4] 2015~2024년 25~39세 5세 연령층별 여성인구	98
[그림 3-5] 2015~2024년 25~39세 유배우 여성 비율	99
[그림 3-6] 2015~2024년 25~39세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100
[그림 3-7] 2015~2024년 25~39세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101
[그림 3-8] 2015~2024년 25~3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102
[그림 3-9] 2015~2024년 연령대별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103
[그림 3-10] 2015~2024년 25~39세 유배우 여성 중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	105
[그림 3-11] 2015~2024년 20~49세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106
[그림 3-12]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109
[그림 3-13] 2015~2024년 연령별 여성 혼인 건수	115
[그림 3-14]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	117
[그림 3-15]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인구	118
[그림 3-16] 2015~2024년 연령별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 비율	119
[그림 3-17] 2015~2024년 연령별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 비율	120
[그림 3-18] 2015~2024년 연령대별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	122
[그림 5-1] 연도별 연령대별 주요 변수 추이	207
[그림 5-2] 지역 구분별 합계출산율 추이(2015~2024년)	222
[그림 5-3] 연도별 시도별 연령대별 출산율	223
[그림 6-1]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추이(2020~2025년 2사분기)	238
[그림 6-2] 가임기 여성 수의 변화(2020~2040년, 2022년 추계)	239
[그림 6-3] 25~44세 여성인구 중 기혼 및 무자녀 여성 비중	242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는 빠른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23.8만 명으로 9년 만에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하며(전년비 3.6%, +8,289명) 출생아 수 추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가데이터처(2025. 2. 26)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 요인으로 코로나19 시기의 기저 효과,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 혼인율의 증가, 예코뽐 세대('91~'95년생)의 주 출산 연령대 진입 및 30~39세의 출산율 증가,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정책의 효과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원인과 향후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출생통계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반등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기반의 향후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2024년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의 특징은 9년 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 30~34세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증가, 혼인 외 출생아 수 역대 최대치 기록(전년비 +약 3천 명), 평균 결혼생활 시작-출산 기간이 팬데믹 출산 연기 해소로 소폭 축소(2년 미만 비중 증가, 외국인 모(母)의 부분 영향),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015~2024년 출생아 수 시계열 분석 결과, 2024년을 추세에 포함한 모형(in-sample)에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추세 대비 출생아 수 추가 하락분이 2024년 반등으로 소폭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기간 누적 증감

2 2024년 출생아 수 변동 원인 분석

분 약 △890명~△6천 명). 다만,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 출산율의 경우 2024년 30대 이상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 대비로는 상승했으나 2022년 대비로는 미흡한 수준이며, 팬데믹 전후 비교에서도 35~44세에서 팬데믹 이전 및 영향기 대비로 소폭 증가(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021년 이후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30대 진입으로 가임여성 인구수가 증가하여 2024년 30대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변화를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여 영향을 파악하였다. 전년 대비 2024년 출생아 수의 증가(약 8천 명)는 30대 출산율 변화(+1.5만 명) 및 30~34세 인구 변화(+2천 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 인구 감소로 1.8천 명, 25~29세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약 1.7천 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유배우 여부 및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심층분석 결과,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약 2만 명),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2.5천 명)였으며, 유배우 여성 비율(-1.5만 명)과 가임여성 인구(△762)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유배우 여성 출산율 중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약 6.3천 명),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6.3만 명),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구성(+6.8천 명)이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증가한 인구학적 요인은 팬데믹으로 누적된 혼인 지연 현상의 해소로 유배우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신혼부부의

증가가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출산의 선택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의향이 강하거나 양육 여건이 양호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 출산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로 혼인이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적 인구 현상으로 해석된다.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결과(25~44세 여성 2,064명 대상, 2024년 출산자 1,003명 포함), 2024년 출산자들은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의지, 연령 및 건강,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지원,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을 결정했으며, 추가 출산자는 첫 출산자보다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출산자 중 코로나의 영향 받은 비중은 8.7%(첫 출산 9.2%, 추가 출산 7.4%)이며, 정책의 영향 받은 비중은 9.2%(첫 출산 8.4%, 추가 출산 11.5%)이다. 2024년 추가 출산자는 첫 출산 당시보다 결혼·출산·주거지원 및 양육·교육·돌봄 정책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외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변화 체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에의 영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양육비/교육비 부담,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 주거 안정성, 육아시간 확보 가능성, 연령 및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휴가·휴직의 유연한 사용, 누구나 휴가·휴직 사용, 틈새 돌봄 보장, 부부 간 가사·양육 동등 분담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유자녀 가구에서는 유자녀 및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015~2024년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인구학적, 경제·사회학

4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적 요인 등을 반영한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출산율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며, 팬데믹 기간 대비 2024년에는 감소세가 더 줄어들었다. 혼인율, 여성고용률, 주거비 부담, 정책지원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했으며, 2024년 출산율 변화에서는 특히 30대 초반 여성과 첫째아 출산율의 회복이 두드러져,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혼인과 출산의 보상 효과와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팬데믹 이후 연령대별 혼인율의 증가, 30대 여성인구 수 및 30대 출산율의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은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이상으로의 반등을 위해서는 혼인율 및 유배우 여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혼인-출산의 연계가 강한 상황에서 혼인 건수는 2024년 22.2만 건으로 전년비 14.8% 증가했고 2025년에도 증가세에 있어 향후 몇 년간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30대 진입으로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인구는 2024~2030년까지 7년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30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저해 요인 파악 및 추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2000년 이후 주 출산 연령대인 25~44세의 여성인구 중 기혼 비중은 감소세에 있고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증가세에 있어, 혼인율이

증가해도 유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 증가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저출생 정책의 추가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추세의 유지를 위해서는 학업-취업-혼인-출산의 생애 단계별 이행이 강한 우리나라의 구조하에서 생애 단계, 연령대별, 출산순위별 출산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25~29세의 출산 장려가 아닌 출산을 하락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일자리 및 주거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0대 초는 혼인 및 출산 결정의 주된 연령대로 혼인 및 출산 이행을 원하는 경우 어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30대 인구의 증가가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데, 해당 코호트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성, 육아 지원,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 출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등이 주요해 보이며, 30대 후반은 고령산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난임·고위험 의료지원과 추가 출산 및 자녀의 긴 학령기 동안의 돌봄 부담 완화 지원, 재취업/경력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 전후 여성 일자리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중장기 일·가정 양립의 성평등 및 생애 기획이 가능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계층별·집단별 출산율 변화 추이 파악 기반의 정책 설계도 필수적이다.

2024년 이후의 출생아 수 추세 분석 및 향후 정책 효과성 측정을 위해 생애 전환 사건(혼인, 출산 등)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코호트·계층별·집단별·지역별 패널 자료 및

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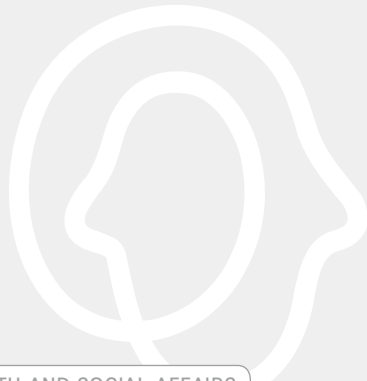
조사자료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 경제·고용 및 산업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저출생 정책 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저출생, 출생아 수, 출산 반등, 연령대별 출산율, 출산결정요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오던 출생아 수가 2024년 2사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15년 43.8만 명(합계출산율 1.24명)에서 매년 전년 대비로 감소하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23.0만 명(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에서 2024년에는 23.8만 명(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하여, 향후 출생아 수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5. 2. 26)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가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 혼인율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코로나19 시기의 기저 효과, 예코뿔 세대('91~'95년생)의 주출산 연령대 진입 및 30~39세의 출산율 증가,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정책의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랜 하락 추세가 반전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의미 있지만, 2024년의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의 시작인지,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혹은 일시적인 변동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출생아 수 반등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는 30대 인구의 증가는 2021년 이후 예코뿔 세대의 30대 인구 진입에 기인하는데, 2022년 이후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30대 초의 혼인 건수 및 혼인율이 증가하고 있고, 2024년에는 30대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

적으로는 2024년 30~34세 여자 인구는 16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30~34세 출산율(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17년 이후 급락세에서 2024년 반등하여 70.4명을 기록(전년비 6.0% 증가)했다. 에코붐 세대가 인구수의 양적 증가 외에도 혼인 및 출산 행태에 있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심층분석이 필요하며, 저출산 연령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저출생 대응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청년 주거안정 강화 방안’(국토교통부, 2023. 11. 24) 및 2024년 상반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19) 등의 추가적인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적 노력이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및 추세 전환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성 분석과, 향후 출생아 수 증가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기반의 결과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2024년 단년도의 출생아 수 증가 자료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몇 년간의 출생아 수 추세 관찰 및 관련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한다. 대체 방안으로 2024년 출산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정책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향후 출산 결정에 필요한 정책 수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팬데믹 기간 전과 영향기, 그리고 2024년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비교를 통해 혼인 및 출산 연기분의 해소 정도, 30대 인구의 증가 및 혼인·출산 행태 변화,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및 저출생 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혼인을 및 출산율의 상승, 향후 몇 년간 지속될 30대 인구수의 증가, 저출생 정책 추

진 노력, 관련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의 최근 변화 등을 기초로, 향후 출생아 수 반등 이후 증가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선 2024년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의 반등이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보상 효과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저출생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출생아 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2015년 이후 추세선과 실측치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2024년 반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2024년 출생아 수 증감 요인을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2015년 이후 급락기, 2020년 이후 팬데믹 영향기, 2024년 회복기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고, 출산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결혼생활 기간, 교육 수준 및 직업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2024년 출생아 수의 변화를 이해한다.

제3장에서는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혼인으로의 이행을 추정하여,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변화를 유배우 여성 출산율, 무배우 여성 출산율, 자녀수별 출산율 등의 인구학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이행, 유배우 무자녀에서 유자녀로의 이행, 자녀수별 출

산율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는지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2024년 출산자를 포함한 25~44세 사실혼 및 법률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2024년 출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2024년 첫 출산과 추가 출산 결정에의 출산자의 인구·사회·경제적인 특성 외에도 팬데믹의 영향과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2024년 출산자들의 현재 양육 여건 및 일·가정 양립 여건 등을 확인하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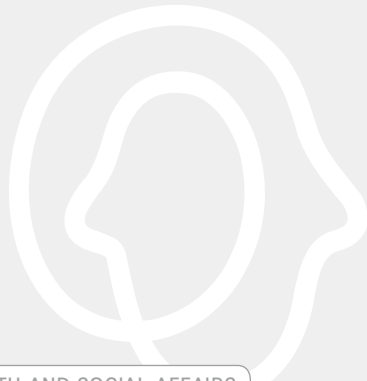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연령별, 출산순위별, 지역별 출산율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동태패널모형을 구축하여 혼인율, 고용률, 주거비 부담, 가족 지출 비중 등 거시경제 및 사회정책 요인과 출산율 변화 간의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2015년 이후 시기별 특징, 30대의 영향 및 2024년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추세 반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2024년 이후의 출생아 수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론

구분	주요 내용	방법론
제1장 서론	연구 개요 및 구성	-
제2장 2015~2014년 출생통계 분석	2015~2024년 출생아 수 추이 분석,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변화 분석, 부모 특성별 출생아 추이 분석 등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기반 기초통계 분석, 시계열 분석, 인구-출산율 분해 분석 등
제3장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혼인-출산율 변화 분해	여성인구 수, 유배우율, 유배우 여성 출산율, 무배우 여성 출산율 등의 요인별 기여 분해 분석	인구-혼인-출산율 분해 분석
제4장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및 분석	2024년 출산자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 출산결정요인, 정책 및 팬데믹 영향 파악 25~45세 유배우자의 향후 출산 의향 및 정책 수요, 가치관 변화 등 분석	설문조사, 로짓모형 분석 등
제5장 2024년 출산율 반등 원인 분석 - 동태패널모형 구축 및 분석	2015~2024년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산율 및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 변화에 미친 구조적 영향 분석	차분 GMM, 시스템 GMM, 고정효과 모형 등의 동태패널모형 분석 등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향후 출생아 수 추세 반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전문가 자문 등

출처: 저자 작성.



제2장

2015~2024년 출생통계 분석

제1절 출생아 수 추이 및 시계열 분석

제2절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분석:

인구-출산율 분해

제3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분석: 팬데믹 전후 비교

제4절 2024년 출생통계 추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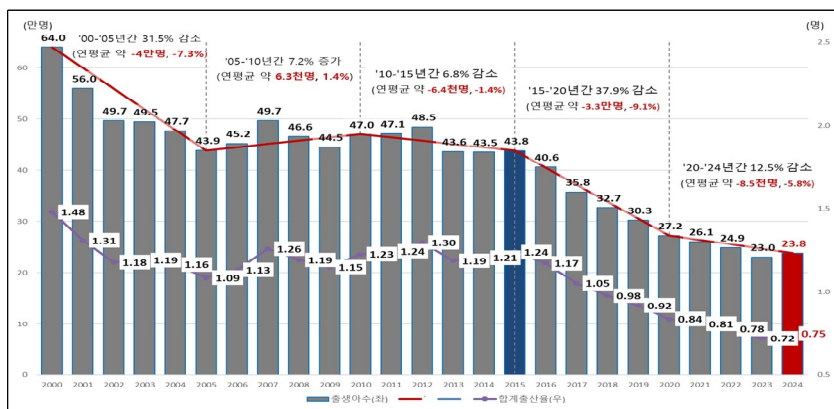
제5절 소결

제2장 2015~2024년 출생통계 분석

제1절 출생아 수 추이 및 시계열 분석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 명에서 2002년 5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후 2015년까지 연평균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왔다. 2015년(43.8만 명) 이후에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238,317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8,289명, 3.6%)하며 추세 반동의 기대를 높였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1.24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 2024년 0.748명으로 전년 대비 0.0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2025.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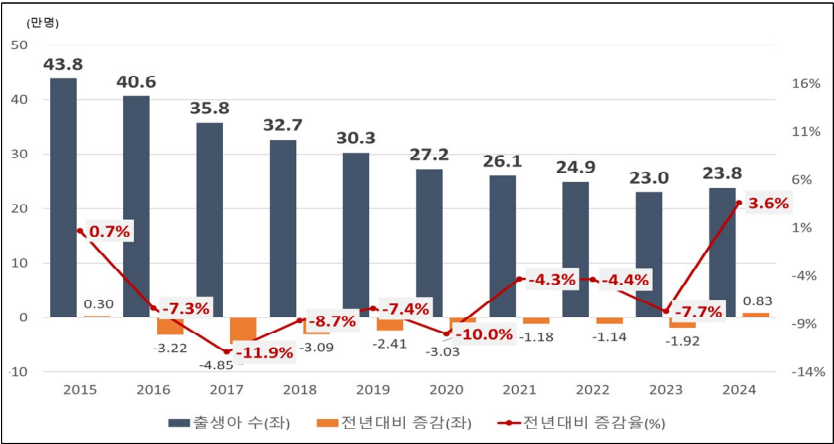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5~2020년까지 출생아 수는 연평균 약 7.6% 감소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에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세가 있었으나, 이전보다는 감소 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비 3.6% 증가를 나타냈다.

[그림 2-2] 2015년 이후 출생아 수 변화 추이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015년 이후 출생아 수의 변화 양상에서 팬데믹 기간 및 2024년의 출생아 수가 추세에서 벗어난 움직임이었는지를 시계열 추세선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¹⁾ 출생아 수의 추세선을 도출하기 위해 2015~2024년 연도별 출생아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시계열 모형을 로그 선형 2차 함수로 가정하였다. 2015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연도로 올수록

1) 시계열 모형 분석은 민인식, 최필선(2016)을 참고하였으며, 생성형 AI의 프로그래밍 코딩 제안 참조.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를 반영하였으며, 모형은 기준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적합하였다. 즉, 2015~2023년을 기준 시기로 하고 2024년을 추세에서 벗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모형 1(out-of sample)과 추가로 2023년의 급락을 더미로 포함한 모형 2(out-of sample), 2015~2024년을 기준 시기로 하여 2024년을 추세 내에서 설명하는 모형 3(in-sample)으로 구분하였다. 기본 분석 모형 및 모형 적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birth_t) = \beta_0 + \beta_1 t + \beta_2 t^2 + \epsilon_t$$
$$\epsilon_t \sim i.i.d.N(0, \sigm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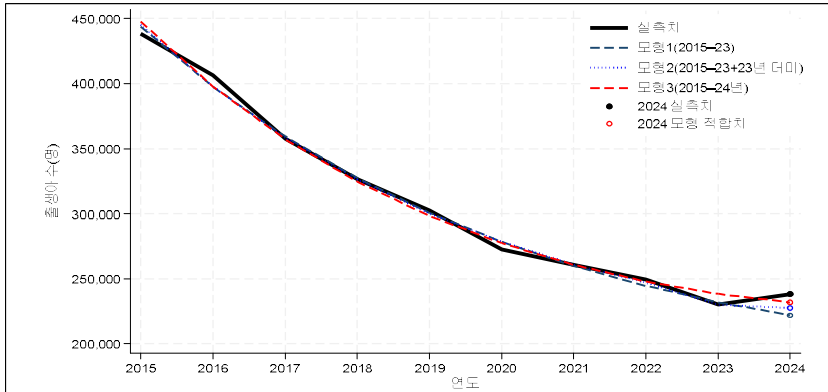
〈표 2-1〉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구분 (종속변수=ln (출생아 수))	모형 1 (2015~2023년) out-of-sample		모형 2 (2015~2023년) out-of-sample		모형 3 (2015~2024년) in-sample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t	-0.11***	0.01	-0.12***	0.01	-0.12***	0.01
t ²	0.006***	0.00	0.005***	0.00	0.006***	0.00
팬데믹 추가 충격 (‘23년)	-	-	-.03	0.03	-	-
상수항	13.00***	0.01	13.01***	0.01	13.01***	0.02
R ²	0.9961		0.9966		0.9923	
관측치	9 (2015~2023년)		9 (2015~2023년)		10 (2015~2024년)	
‘20(‘21)~‘24년 추세선 대비 누적 증감분	13,660 (‘20~‘23년 대비)~ 19,755명 (‘21~‘23년 대비)		6,493 (‘20~‘23년 대비)~ 12,630명 (‘21~‘23년 대비)		-890 (‘21~‘23년 대비)~ -5,902명 (‘20~‘23년 대비)	

주: * p<0.10, ** p<0.05, *** p<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3]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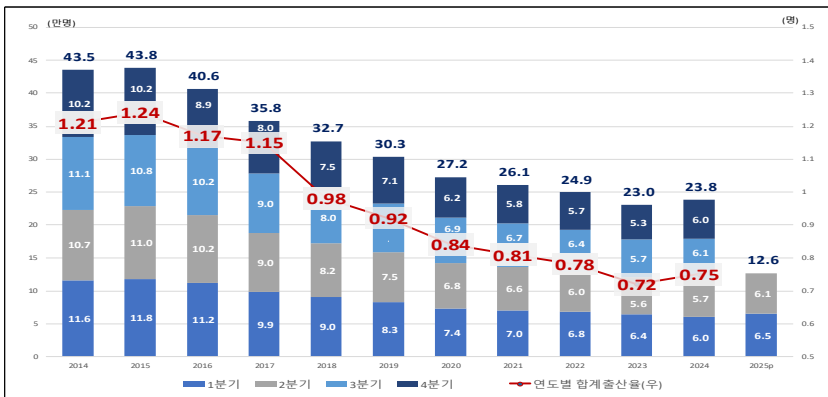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모형 1~3의 적합 결과 2015년 이후 약 -10~-12%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차항이 양(+)으로 유의하여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시계열이 2024년까지 가용하기 때문에 모형 1~3의 기준 시기에 따라 2024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2024년 반등이 저점 회복인지 혹은 추세 전환인지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간의 추가 관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5~2023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을 판단하는 모형(1과 2)은 2024년을 과소예측하여 2024년 반등을 과대평가하는 예측 편이가 크다. 2015~2024년 자료 기반의 모형(3)은 편이가 작고 반등을 2023년 일시적 충격 이후의 정상화 수준으로 보여준다. 또한 해당 모형은 잔차 백색성 및 자기상관 진단(Newey-West Test 결과 및 AIC/BIC 개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반등은 저점 정상화나 하락세 둔화로 해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3을 기준으로 팬데믹 기간(‘20년 또는 ‘21~’23년)의 추세선 대비 하락분과 2024년의

추세선 대비 증가분을 비교하면 2024년 반등은 팬데믹 기간의 추세 대비 초과 감소분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15~2025년 2사분기까지의 분기별 출생아 수 추이도 2024년 1사분기까지 매 분기 전년 동기비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2024년 2사분기부터는 전년 동기비 증가로 돌아서며 2025년 2사분기 현재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 평균 출생아 수(=연간 출생아 수/4 분기)도 2015년 11.0만 명에서 2023년 5.8만 명(역대 최저치)까지 낮아 졌다가 2024년 6.0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림 2-4] 분기별 출생아 수 추이(2015년 1사분기~2025년 2사분기)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34로 초저출산 수준에서 2016년 1사분기 이후 2024년 1분기까지 매 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로 감소해 왔다. 2024년 2사분기부터는 전년 동분기 대비 0.01명 증가한 이후 2025년 2사분기 현재까지 전년 동기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은 매 분기 0.80명 미만을 기록했으며, 2025년 1사분기와 2사분

2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기의 합계출산율도 2024년 동분기보다는 높아졌으나 2022년과 2023년 동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2024년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실적은 2022~2023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로 보여지며, 2024년 출생아 수 및 증감률을 해석함에 있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 수치와의 비교로 인해 2024년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 높게 보이는 기저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2〉 연도별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5~2024년)

(단위: 만 명,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합계출산율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0.49
1사분기	11.8	11.2	9.9	9	8.3	7.4	7	6.8	6.4	6.0	-5.7
(전년동기비)	1.7%	-4.7%	-12.3%	-8.9%	-7.5%	-11.4%	-4.7%	-2.5%	-5.8%	-6.1%	-48.7%
합계출산율	1.34	1.3	1.17	1.08	1.02	0.91	0.88	0.87	0.82	0.76	-0.58
2사분기	11	10.2	9	8.2	7.5	6.8	6.6	6	5.6	5.7	-5.3
(전년동기비)	2.8%	-7.1%	-12.5%	-8.4%	-8.1%	-9.5%	-3.1%	-9.0%	-6.7%	1.2%	-48.4%
합계출산율	1.24	1.19	1.05	0.98	0.92	0.85	0.82	0.75	0.71	0.72	-0.52
3사분기	10.8	10.2	9	8	7.4	6.9	6.7	6.4	5.7	6.1	-4.7
(전년동기비)	-2.3%	-5.6%	-12.3%	-10.2%	-8.4%	-6.5%	-3.4%	-3.6%	-11.5%	7.9%	-43.4%
합계출산율	1.22	1.18	1.05	0.96	0.89	0.84	0.82	0.8	0.71	0.77	-0.45
4사분기	10.2	8.9	8	7.5	7.1	6.2	5.8	5.7	5.3	6.0	-4.2
(전년동기비)	0.6%	-12.5%	-10.4%	-6.9%	-5.3%	-12.7%	-6.2%	-2.1%	-6.7%	13.4%	-41.5%
합계출산율	1.15	1.03	0.94	0.89	0.85	0.76	0.71	0.7	0.66	0.75	-0.40
분기 평균	11.0	10.2	8.9	8.2	7.6	6.8	6.5	6.2	5.8	6.0	-45.6%
월평균	3.7	3.4	3.0	2.7	2.5	2.3	2.2	2.1	1.9	2.0	-45.6%

주: 2025년 1사분기 6.5만 명(합계출산율 0.82명), 2025년 2사분기 61.0만 명(합계출산율 0.76명)으로 각각 2023년과 2022년 동분기와 유사한 수준.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기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선을 추정하여 2024년 반등을 설명한 시계열 모형 분석에서도 연간 데이터 기반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 적합 결과, 2015년 이후 분기 평균 2~4%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감소 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을 2023년 저점 이후의 정상화로 해석한다면 (모형 3-1), 2024년의 출생아 수의 증가는 팬데믹 기간의 추세선과 비교하여 발생한 감소분을 -6,973~-9,794명 정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5년 2사분기까지로 확장하면 추세선 대비 -1,614~+1,207명으로 2024년 이후 출생아 수의 증가로 팬데믹 기간의 추세 대비 감소분을 일부 상쇄 혹은 증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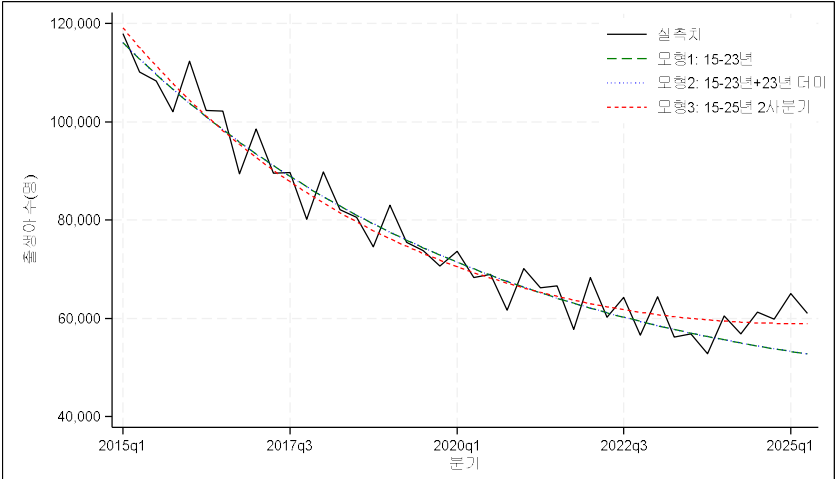
〈표 2-3〉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 분기별

구분 (종속변수=ln(출생아 수))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t	-0.03***	0.00	-0.02***	0.00	-0.04***	0.00
t ²	0.00***	0.00	0.00***	0.00	0.00***	0.00
23년 터미	-	-	-0.00	0.04	-	-
상수항	11.7***	0.01	11.7***	0.03	11.7***	0.03
R ²	0.9486		0.9486		0.9413	
# of obs.	36 (‘15~23년)		36 (‘15~23년)		42 (‘15~25년 2분기)	
‘20(‘21)~‘24년 추세선 대비 누적 증감분	23,345 (‘20~‘23년 대비)~ 28,713명 (‘21~‘23년 대비)		23,259 (‘20~‘23년 대비)~ 28,629명 (‘21~‘23년 대비)		-6,973 (‘21~‘23년 대비)~ -9,794명 (‘20~‘23년 대비)	

주: * p<0.10, ** p<0.05, *** p<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5] 분기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1)



출처: 저자 작성.

분기 모형에서는 계절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기별 더미도 반영하였다.

$$\ln(birth_t) = \beta_0 + \beta_1 t + \beta_2 t^2 + \sum_{q=2}^4 \delta_q D_q + \epsilon_t$$

D_q 은 분기 더미, $\epsilon_t \sim N(0, \sigm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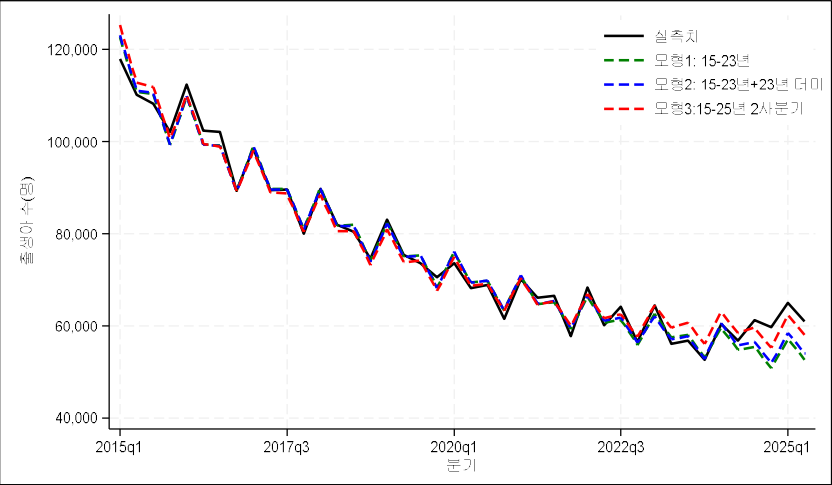
분기별 더미를 추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증가했으며, 2024년의 반등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모형 3-2) 2020년 이후의 추세선 대비 증감분 대비 -8,578~-12,351명 정도로 초과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의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사분기까지의 반등분을 고려하여도 추세 대비 전체 증감분은 -2,932~-6,705명으로 팬데믹 기간의 추세선 대비 추가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반등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어야 한다.

〈표 2-4〉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 분기별 더미 포함

구분 (종속변수=ln(출생아 수))	모형 1-2		모형 2-2		모형 3-2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t	-0.03***	0.00	-0.03***	0.00	-0.03***	0.00
t ²	0.00***	0.00	0.00***	0.00	0.00***	0.00
'23년 더미	-	-	-0.02	0.02	-	-
2사분기 더미	-0.07***	0.01	-0.07***	0.01	-0.07***	0.01
3사분기 더미	-0.05**	0.01	-0.05**	0.01	-0.05**	0.02
4사분기 더미	-0.13***	0.01	-0.13***	0.02	-0.12***	0.02
상수항	11.8***	0.01	11.8***	0.01	11.8***	0.02
R ²	0.9907		0.9910		0.9794	
# of obs.	36 ('15~'23년)		36 ('15~'23년)		42 ('15~'25년 2분기)	
'20('21)~'24년 추세선 대비 누적 증감분	15,367 ('20~'23년 대비)~ 21,709명 ('21~'23년 대비)		10,202 ('20~'23년 대비)~ 16,623명 ('21~'23년 대비)		-8,578 ('21~'23년 대비)~ -12,351명 ('20~'23년 대비)	

주: * p<0.05, ** p<0.01, ***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6〕 분기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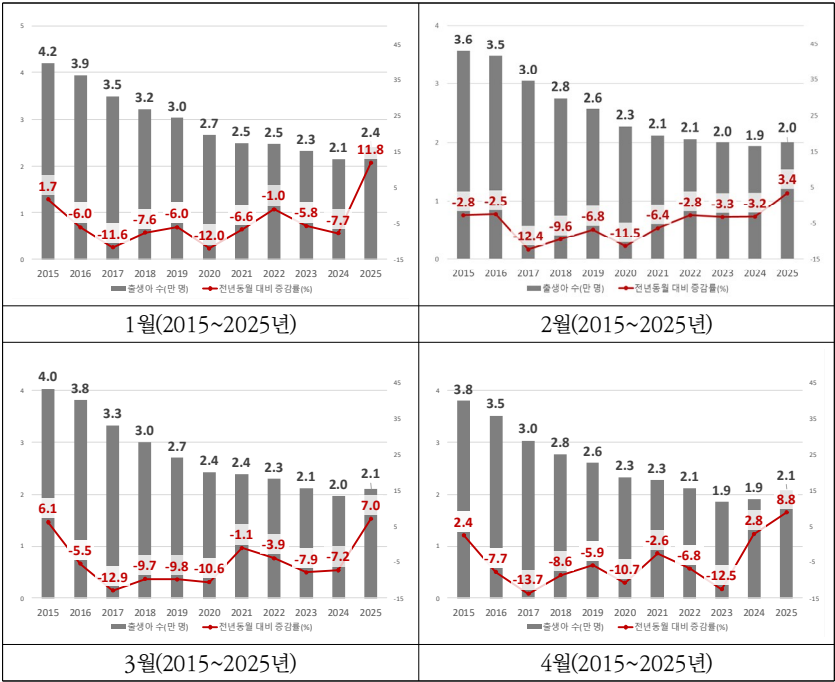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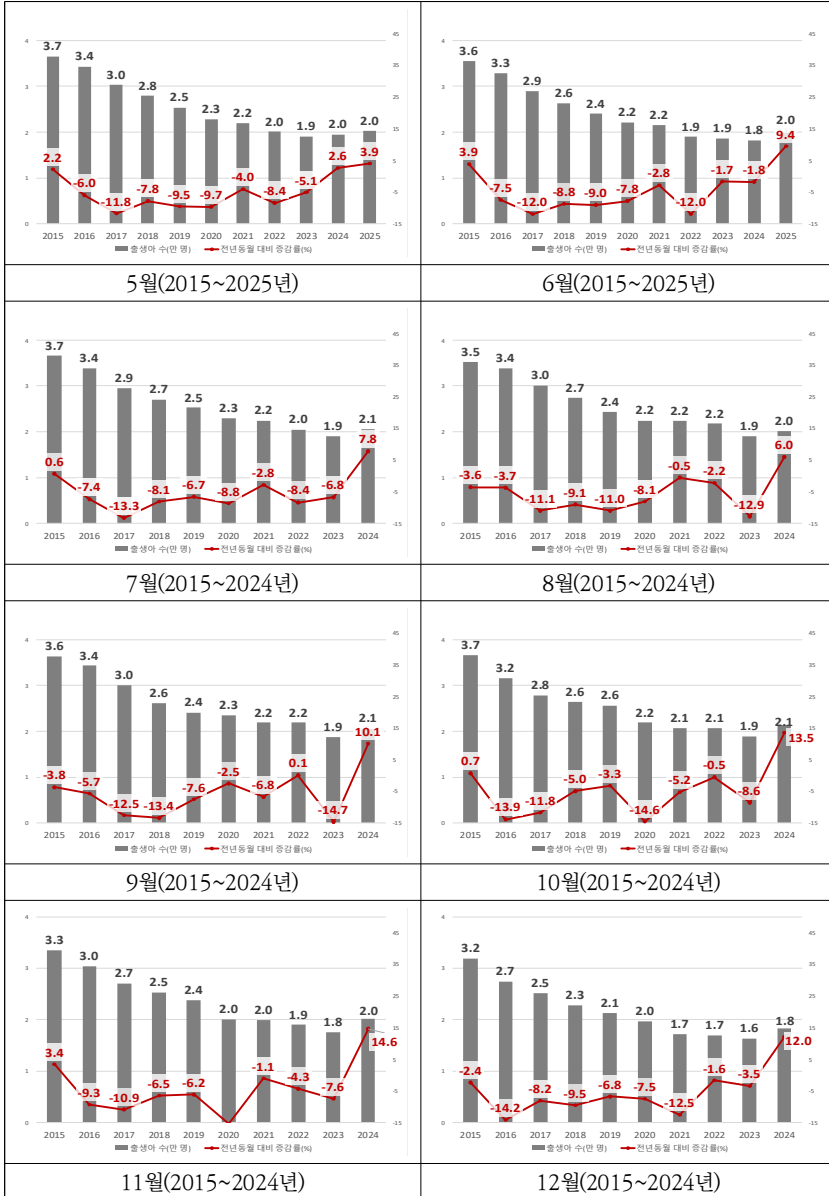
2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월별 출생아 수 추이는 2015년 이후 매월 감소세에서 2024년 4월 이후 2025년 6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 다만, 이 수치들도 2022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로 보인다. 월평균 출생아 수(=연간 출생아 수/12개월)는 2015년 3.65만 명에서 2023년 1.92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1.99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림 2-7] 월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5년 6월)



2) 해당 기간 중 2024년 6월(전년 동월비 1.8% 감소)은 예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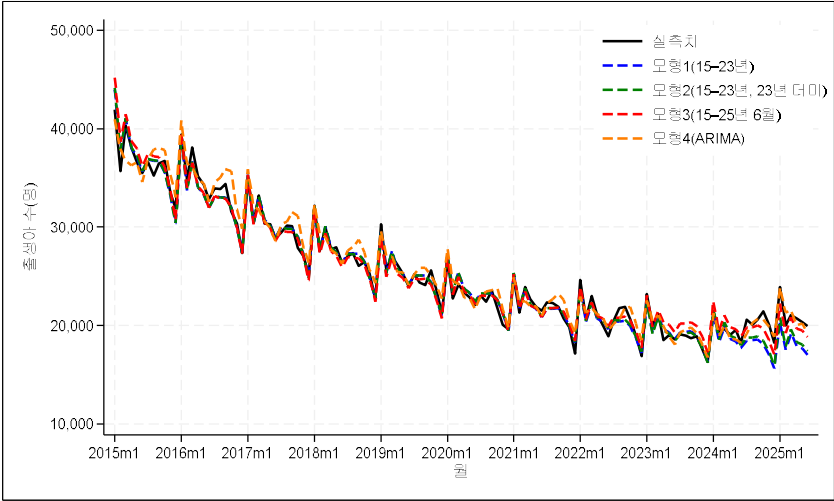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종속변수= ln(출생아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ARMA L.ma							-0.49***	0.08
ARMA12 L.ma							-0.93**	0.30
σ							0.09	0.00
R^2	0.9863		0.9865		0.9751		Log likelihood = 247.5558 Wald $\chi^2(2)=54.45$ (p<0.001)	
# of obs.	108 (‘15~23년)		108 (‘15~23년)		126 (‘15~25년 6월)		126 (‘15~25년 6월)	
’20(‘21)~ ’24년 추세선 대비 누적 증감분	15,894 (‘20~’23년 대비)~ 22,231명 (‘21~’23년 대비)		11,316 (‘20~’23년 대비)~ 17,725명 (‘21~’23년 대비)		-8,320 (‘21~’23년 대비)~ -12,111명 (‘20~’23년 대비)		-6,519 (‘21~’23년 대비)~ -13,229명 (‘20~’23년 대비)	

주: * p<0.10, ** p<0.05, *** p<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8] 월별 출생아 수 추세 - 시계열 모형 적합 결과



출처: 저자 작성.

모형 1~3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월평균 3~5%씩 출생아 수가 감소해 왔으며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출생아 수가 연중 가장 많은 1월보다 2~12월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며 12월이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모형 3을 기준으로 2024년 이후 반등한 출생아 수는 팬데믹 기간 대비 약 -8,320~-12,111명, 2025년 6월까지의 증분합은 -2,500~-6,500명 정도로 2020년 이후의 추세 대비 감소분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추정 결과, 단기 이동 평균항(MA(1))과 1년 주기의 계절 이동 평균항(SMA(12))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전월의 충격이 약 절반 정도 반전되고 전년 같은 달의 충격이 거의 완전히 상쇄되는 강한 계절성을 의미한다. 모형의 안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³⁾ 2024~2025년의 출생아 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급등이라기보다, 코로나 기간 중의 일시적 저점에서 벗어나 계절적 흐름이 회복된 정상화 수준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간 및 분기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2024년 반등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관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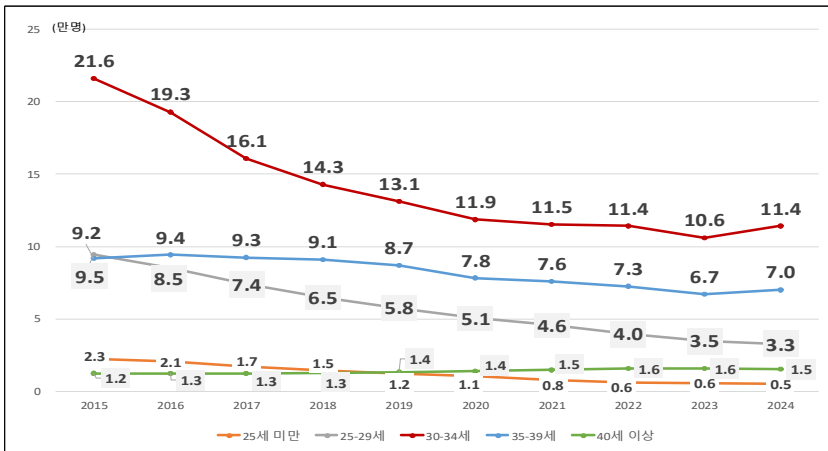
3) 잔차의 표준편차(σ)는 0.031, 월별 변동은 약 $\pm 3\%$ 수준으로 모형이 안정적으로 적합되었으며, 전체 모형은 Wald $\chi^2(2)=54.45(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로그우도(Log likelihood)=247.56으로 수렴 안정성이 확인됨.

제2절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분석: 인구-출산율 분해

1.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추이

출생아 수를 모(母)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40세 미만의 출생아 수는 감소해 왔는데, 특히 25~34세의 출생아 수는 매년 10% 정도씩 크게 하락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30세 이상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2024년에는 30~34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2천 명(7.8%), 35~39세 연령대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8천 명(4.1%) 증가하며 전체 출생아 수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2020년 이후 30대 인구가 많아져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30대의 출산율이 회복되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9]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추이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표 2-6〉 연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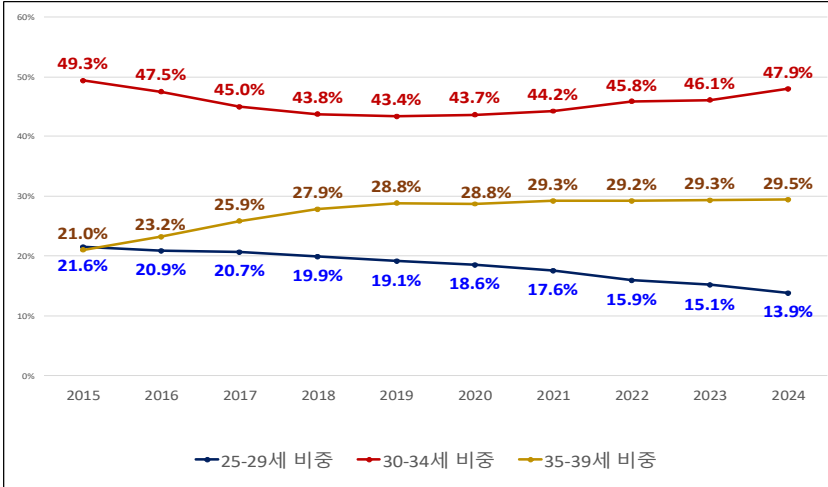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p	'15~'24 증감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24세 이하	2.3	2.1	1.7	1.5	1.3	1.1	0.8	0.6	0.6	0.5	-1.7
(전년비)	-4.1%	-7.7%	-17.6%	-15.5%	-15.1%	-15.1%	-23.1%	-21.0%	-11.8%	-4.2%	-76.2%
25~29세	9.5	8.5	7.4	6.5	5.8	5.1	4.6	4.0	3.5	3.3	-6.2
(전년비)	-1.6%	-10.1%	-12.9%	-12.2%	-11.1%	-12.5%	-9.6%	-13.3%	-12.3%	-5.2%	-65.1%
30~34세	21.6	19.3	16.1	14.3	13.1	11.9	11.5	11.4	10.6	11.4	-10.2
(전년비)	-2.2%	-10.8%	-16.5%	-11.2%	-8.2%	-9.5%	-3.0%	-1.0%	-7.1%	7.7%	-47.2%
35~39세	9.2	9.4	9.3	9.1	8.7	7.8	7.6	7.3	6.7	7.0	-2.2
(전년비)	12.0%	2.4%	-1.8%	-1.7%	-4.2%	-10.3%	-2.7%	-4.6%	-7.2%	4.1%	-23.7%
40세+	1.2	1.3	1.3	1.3	1.4	1.4	1.5	1.6	1.6	1.5	0.3
(전년비)	5.3%	1.8%	-1.1%	1.9%	6.5%	1.2%	8.8%	7.1%	-0.9%	-3.6%	23.3%
35+의 비중	23.9%	26.4%	29.4%	31.8%	33.4%	33.8%	35.0%	35.7%	36.3%	35.9%	12.0%p

주: 전체 출생아 수는 모의 연령미상 포함. 연령대별 출생아 수 및 고령산모 비중 산출 시에는 연령미상 제외.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l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체 출생아 중 모(母)의 연령대가 30~34세인 경우가 전체의 43~49%로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로 30~34세 모(母)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2020년 이후 30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출생아 수도 증가하여 2024년에는 전체의 47.9%를 보였다. 같은 기간 20대의 출생아 수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5~49세 고령산모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며 2015년 23.9%에서 2024년 35.9%로 9년간 약 12.0%p가 높아졌다. 한편, 2024년 고령산모의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고령산모의 비중은 30~34세 출산모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표 2-7〉 참고).

[그림 2-10] 출생아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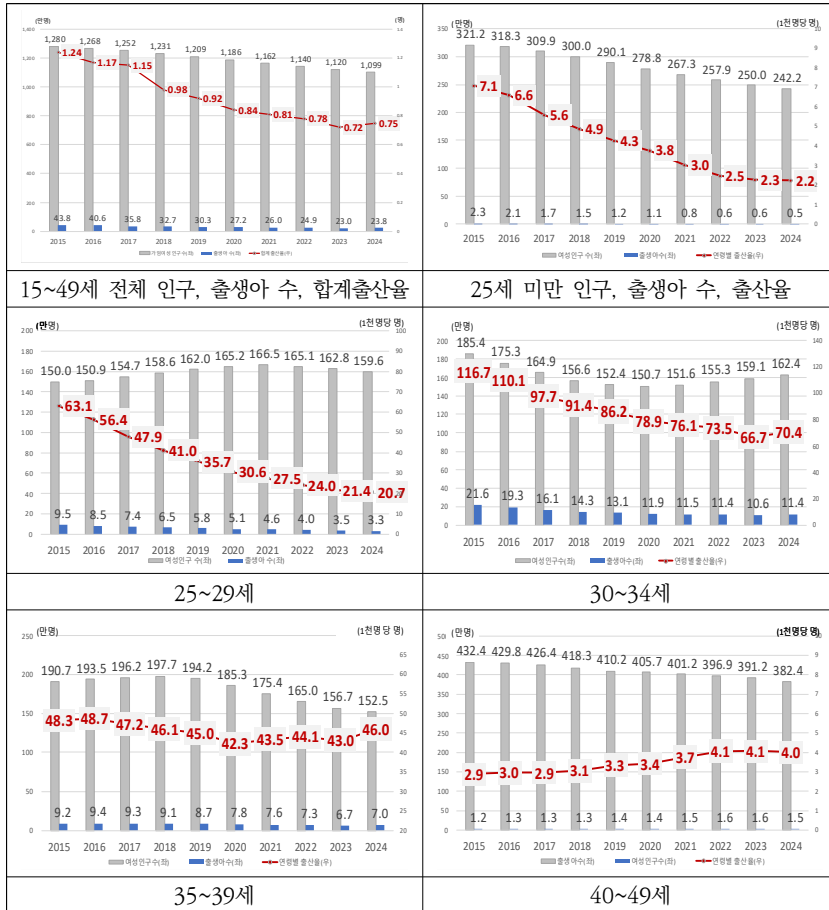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 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의 추이는 모(母)의 인구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母)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15~49세 모(母)의 인구수, 출생아 수, 여성인구 대비 출생아 수인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5~49세 인구수는 2015년 1,280만 명 수준에서 2024년 1,099만 명까지 매년 감소해왔으나, 에코붐 세대(’90~’95년생)의 영향으로 해당 인구가 20대, 30대인 기간에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 이후에는 30~34세 인구가 매년 전년 대비 2% 정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30대에서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다 2024년에는 30대에서 전년 대비 3.0명 정도 증가했다.

34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그림 2-11] 15~49세 연령대별 여성인구 수 및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7〉 15~49세 모(母)의 출생아 수, 인구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만 명)	전체 (전년비)	43.8 0.7%	40.6 -7.3%	35.8 -11.9%	32.7 -8.7%	30.3 -7.4%	27.2 -10.0%	26.1 -4.3%	24.9 -4.4%	23.0 -7.7%	23.8 3.6%
	15~19세 (전년비)	0.2 -13.4%	0.2 -13.6%	0.2 -20.0%	0.1 -12.6%	0.1 -16.2%	0.1 -16.3%	0.1 -41.3%	0.1 -16.8%	0.0 -9.2%	0.0
	20~24세 (전년비)	2.1 -3.1%	1.9 -7.0%	1.6 -17.3%	1.3 -15.6%	1.1 -15.1%	1.0 -15.0%	0.8 -20.9%	0.6 -21.3%	0.5 -12.2%	0.5 -6.0%
	25~29세 (전년비)	9.5 -1.6%	8.5 -10.1%	7.4 -12.9%	6.5 -12.2%	5.8 -11.1%	5.1 -12.5%	4.6 -9.6%	4.0 -13.3%	3.5 -12.3%	3.3 -5.3%
	30~34세 (전년비)	21.6 -2.2%	19.3 -10.8%	16.1 -16.5%	14.3 -11.2%	13.1 -8.2%	11.9 -9.5%	11.5 -3.0%	11.4 -1.0%	10.6 -7.1%	11.4 7.8%
	35~39세 (전년비)	9.2 12.0%	9.4 2.4%	9.3 -1.8%	9.1 -1.7%	8.7 -4.2%	7.8 -10.3%	7.6 -2.7%	7.3 -4.6%	6.7 -7.2%	7.0 4.1%
	40~44세 (전년비)	1.2 5.3%	1.2 1.6%	1.2 -1.1%	1.2 1.8%	1.3 6.6%	1.3 1.8%	1.5 8.8%	1.6 7.3%	1.6 -1.0%	1.5 -4.4%
	45세+ (전년비)	0.03 4.5%	0.04 9.5%	0.04 0.0%	0.04 6.5%	0.04 2.2%	0.03 -17.3%	0.04 7.8%	0.04 -0.8%	0.04 4.6%	0.04
15~49세 여성수 (만 명)	전체 (전년비)	1,280 -0.9%	1,268 -0.9%	1,252 -1.2%	1,231 -1.7%	1,209 -1.8%	1,186 -1.9%	1,162 -2.0%	1,140 -1.9%	1,120 -1.8%	1,099 -1.9%
	15~19세 (전년비)	156.5 -2.0%	152.3 -2.7%	145.1 -4.7%	137.4 -5.3%	130.6 -4.9%	122.5 -6.2%	115.3 -5.9%	113.0 -2.0%	112.7 -0.2%	111.7 -0.9%
	20~24세 (전년비)	164.7 2.1%	166.1 0.8%	164.8 -0.8%	162.6 -1.3%	159.5 -1.9%	156.3 -2.0%	152.1 -2.7%	144.9 -4.7%	137.2 -5.3%	130.4 -4.9%
	25~29세 (전년비)	150.0 -1.1%	150.9 0.6%	154.7 2.5%	158.6 2.5%	162.0 2.1%	165.2 2.0%	166.5 0.8%	165.1 -0.8%	162.8 -1.4%	159.6 -2.0%
	30~34세 (전년비)	185.4 -4.6%	175.3 -5.4%	164.9 -6.0%	156.6 -5.0%	152.4 -2.7%	150.7 -1.1%	151.6 0.6%	155.3 2.5%	159.1 2.4%	162.4 2.0%
	35~39세 (전년비)	190.7 0.2%	193.5 1.5%	196.2 1.4%	197.7 0.8%	194.2 -1.8%	185.3 -4.6%	175.4 -5.3%	165.0 -5.9%	156.7 -5.0%	152.5 -2.7%
	40~44세 (전년비)	216.6 -2.2%	209.2 -3.4%	202.3 -3.3%	195.0 -3.6%	189.7 -2.7%	190.1 0.2%	193.0 1.5%	195.6 1.4%	197.1 0.8%	193.7 -1.8%
	45세+ (전년비)	215.8 1.7%	220.6 2.2%	224.1 1.6%	223.2 -0.4%	220.5 -1.2%	215.6 -2.2%	208.2 -3.4%	201.3 -3.3%	194.1 -3.6%	188.8 -2.7%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명)	전체 (전년차)	34.3 0.5	32.0 -2.2	28.6 -3.5	26.5 -2.0	25.0 -1.5	23.0 -2.1	22.4 -0.5	21.9 -0.6	20.5 -1.3	21.7 1.1
	15~19세 (전년차)	1.6 -0.2	1.4 -0.2	1.2 -0.2	1.1 -0.1	1.0 -0.1	0.9 -0.1	0.5 -0.3	0.5 -0.1	0.4 0.0	0.4 -0.1
	20~24세 (전년차)	12.5 -0.7	11.5 -1.0	9.6 -1.9	8.2 -1.4	7.1 -1.1	6.2 -0.9	5.0 -1.2	4.1 -0.9	3.8 -0.3	3.8 -0.1
	25~29세 (전년차)	63.1 -0.3	56.4 -6.7	47.9 -8.5	41.0 -6.8	35.7 -5.3	30.6 -5.1	27.5 -3.1	24.0 -3.4	21.4 -2.7	20.7 -0.7
	30~34세	116.7	110.1	97.7	91.4	86.2	78.9	76.1	73.5	66.7	70.4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년차)	2.9	-6.6	-12.4	-6.3	-5.2	-7.3	-2.9	-2.6	-6.8	3.7
	35~39세	48.3	48.7	47.2	46.1	45.0	42.3	43.5	44.1	43.0	46.0
	(전년차)	5.1	0.5	-1.5	-1.2	-1.1	-2.7	1.2	0.6	-1.0	3.0
	40~44세	5.6	5.9	6.0	6.4	7.0	7.1	7.6	8.0	7.9	7.7
	(전년차)	0.4	0.3	0.1	0.3	0.6	0.1	0.5	0.4	-0.1	-0.2
	45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전년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출산율(명)		1.24	1.17	1.1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전년차		0.034	-0.067	-0.120	-0.075	-0.059	-0.081	-0.029	-0.030	-0.057	0.03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년 이후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30대 진입으로 가임여성 인구가 증가했고 최근 30대 출산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연령대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여성인구 수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여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이 가임여성 인구수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출산율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출생아 수는 가임기 연령별 여성인구와 연령별 출산율(=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연령별 여성인구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TB_t = \sum_a p_{a,t} \times r_{a,t} = \sum_{a,k} p_{a,t} \times r_{a,k,t}$$

TB_t 는 t 기의 전체 출생아 수, p 는 여성인구 수, r 는 연령대별 출산율, a 는 15~49세 5세 단위 연령 그룹, k 는 출산순위(첫째아=1, 둘째아=2, 셋째아 이상=3)

이를 활용하여 전년 대비 당해연도 출생아 수의 변화는 전년도의 연령별 출산율은 유지된다고 가정하에 당해연도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로

발생하는 출생아 수 변화분(가임여성 인구수 변화 기여분), 전년도의 여성인구 수는 유지되고 당해연도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로 발생하는 출생아 수 변화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TB &= TB_t - TB_{t-1} \\
 &= \frac{\left(\sum_{a=15}^{49} p_t^a \times r_{t-1}^a - \sum_{a=15}^{49} p_{t-1}^a \times r_{t-1}^a \right)}{\text{가임여성 인구수 변화분 (인구 효과)}} + \frac{\left(\sum_{a=15}^{49} p_{t-1}^a \times r_t^a - \sum_{a=15}^{49} p_{t-1}^a \times r_{t-1}^a \right)}{\text{연령대별 출산율 변화분 (출산율 효과)}} \\
 &= \frac{\sum_a (P_{a,1} - P_{a,0}) r_{a,0}}{\text{가임여성 인구수 변화 효과 (인구 효과)}} + \frac{\sum_a P_{a,0} (r_{a,1} - r_{a,0})}{\text{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출산율 효과)}} + \frac{\sum_a (P_{a,1} - P_{a,0}) (r_{a,1} - r_{a,0})}{\text{상호작용}} \\
 &= \frac{\sum_{a,k} (P_{a,1} - P_{a,0}) r_{a,k,0}}{\text{인구수 효과}} + \frac{\sum_{a,k} P_{a,0} (r_{a,k,1} - r_{a,k,0})}{\text{출산율 효과}} + \frac{\sum_{a,k} (P_{a,1} - P_{a,0}) (r_{a,k,1} - r_{a,k,0})}{\text{상호작용}}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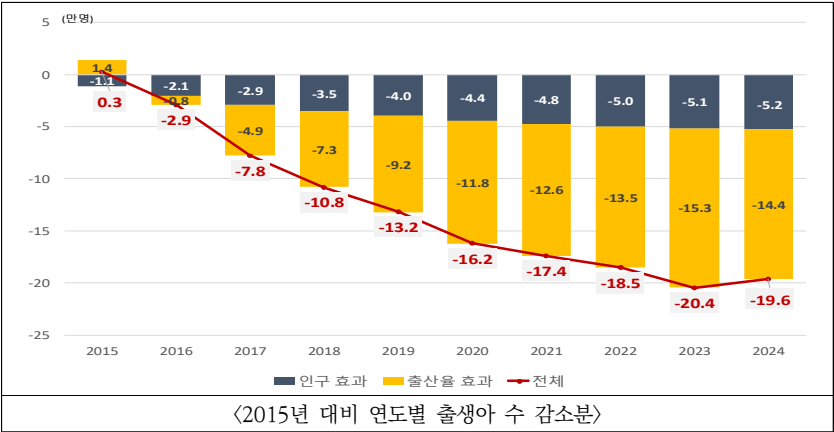
여기에서 상호작용 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항목 간 균등배분과 비례배분 방식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의 비중에 따라 해당 항목에 비례 배분하였다.⁴⁾

위 산식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매년 출생아 수의 증감분을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와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2-8>과 같다. 2015년 대비 매년 출생아 수의 감소에 있어서 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8만 명에서 2024년 23.8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감소

4) Kitagawa(1955), Das Gupta(1993), Andreev et al.(2002)의 방법론을 참고함. 2024년 상호작용 항의 값은 전년 대비 약 8천 명의 출생아 수 증가 대비 약 1%(약 100명) 수준임.

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가임여성 인구의 축소로 인한 5.3만 명의 감소와 인구 효과를 제외한 연령대별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14.5만 명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전체 약 20만 명의 감소 중 여성 가임인구 감소가 설명하는 부분이 26.9%, 출산율 감소가 설명하는 부분이 73.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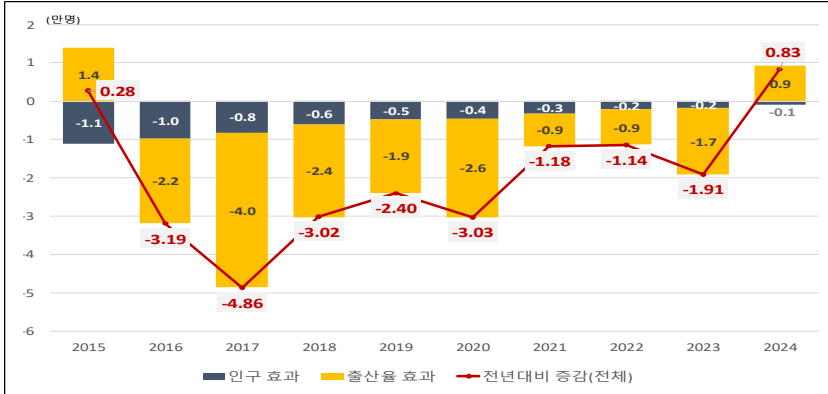
[그림 2-12] 2015년 대비 연도별 출생아 수 변화 누적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매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가임여성의 인구 축소로 인한 기여분은 줄어들어 왔으나, 인구를 제외하고도 연령대별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2023년과 비교하여 30대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인구 제외 출산율 기여분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3] 2015~2024년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년 대비 증감분을 100으로 하여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2024년은 2023년 대비 8,258명의 출생아 수가 증가했는데 이를 100으로 했을 때 인구 변화가 -10.7, 출산율 변화가 110.7로 나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98.9, 35~39세가 33.4의 기여를 하여 전년 대비 증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20대와 40대 초에서는 음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1)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p
출생아 수 (만 명)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전년 대비 증감분(만 명)	0.28	-3.19	-4.86	-3.02	-2.40	-3.03	-1.18	-1.14	-1.91	0.83
①인구(만 명)	-1.11	-0.98	-0.83	-0.61	-0.47	-0.45	-0.33	-0.22	-0.17	-0.09
②출산율(만 명)	1.39	-2.21	-4.04	-2.42	-1.92	-2.58	-0.85	-0.91	-1.75	0.91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p
전년 대비 증감분에 대한 인구와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①+②=100)										
①인구	-390.4	30.7	17.0	20.0	19.7	14.7	27.6	19.5	8.7	-10.6
②출산율	490.4	69.3	83.0	80.0	80.3	85.3	72.4	80.5	91.3	110.6
전년 대비 증감분에 대한 연령대별 기여도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100	100 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¹⁾
15~19세	-11.7	0.8	0.8	0.7	0.8	0.7	3.7	0.7	0.1	0.4
20~24세	-23.3	4.3	6.9	8.2	8.4	5.7	17.5	14.8	3.9	-3.6
25~29세	-56.9	29.7	22.1	28.3	29.2	23.2	40.9	53.9	25.8	-22.3
30~34세	-166.1	74.8	68.4	60.2	49.7	41.4	30.5	9.0	41.1	97.5
35~39세	344.4	-7.0	3.5	4.4	15.9	30.4	16.6	30.5	27.9	34.9
40~44세	21.9	-0.7	0.3	-1.0	-3.6	-0.8	-10.0	-9.2	0.8	-7.6
45~49세	0.9	-0.1	0.0	-0.1	0.0	0.2	-0.2	0.0	-0.1	0.5

주: 1) 기여도 해석 시 2015년과 2024년은 증가이고 다른 해는 감소였음을 유의.
2) 전체 출생아 수는 모(母)의 전 연령(15세 미만과 50세 이상 포함) 및 연령 미상을 포함하나, 분해분석에서는 15~49세의 출생아 수(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 미상 제외)를 대상으로 함.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2018~2024년간 매년 출생아 수의 변화를 인구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한 상세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인구 기여분과 출산율 기여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오다가 2024년에는 출산율 기여분이 증가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의 출생아 수는 2023년과 비교하여 약 8.3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가임여성 인구수의 기여분이 전년 대비 880명 감소, 인구 효과를 제외한 출산율 증가 기여분이 전년 대비 8,921명 증가로 나타났다. 전체 증감분(8.3천 명)을 100으로 했을 때 인구 기여도가 -10.5%, 출산율 기여도가 107.2%이다. 세부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의 8.3천 명의 증가 중 30~34세 출생아 수 증가가 전년 대비 8.3천 명, 35~39세 출생아 수 증가가 전년 대비 2.7천 명이나, 다른 연령대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증가분을 상쇄했다. 이를 연령과 연령 제외 출산율 기여로 구분해 봤을 때,

30~34세 인구 증가로 인한 출생아 수 증가는 전년 대비 2.2천 명, 인구 제외 출산율 증가는 전년 대비 6천 명이다. 35~39세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8천 명이 감소했으나 인구 제외 출산율의 증가가 전년 대비 4.7천 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7천 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여기에서 인접한 2개의 연령대인 30~34세와 35~39세의 인구 효과가 유사한 크기로 양(+)과 음(-)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30~34세 인구는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35~39세 인구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인구 효과에 30~34세 인구의 출산 비중이 35~39세보다 높은 인구 비중 효과에 기인한다(〈표 2-9〉 참고).

〈표 2-9〉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변화 분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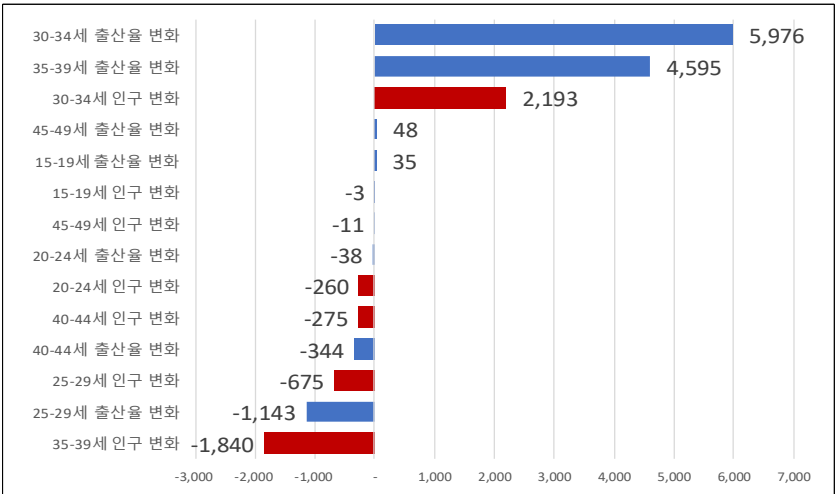
구분	'18	'19	'20	'21	'22	'23	'24
출생아 수(만 명)	32.7	30.3	27.2	26.1	24.9	23.0	23.8
전년 대비 증감분(명)	-30,209	-23,964	-30,290	-11,760	-11,358	-19,128	8,258
①인구	-6,051	-4,714	-4,464	-3,250	-2,211	-1,657	-871
②출산율	-24,158	-19,250	-25,826	-8,510	-9,147	-17,471	9,129
전체 출생아 수 증감분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30,209	-23,964	-30,290	-11,760	-11,358	-19,128	8,258
15~19세	-215	-193	-189	-416	-81	-17	32
20~24세	-2,438	-1,973	-1,690	-2,012	-1,620	-730	-298
25~29세	-8,826	-7,175	-7,192	-4,849	-6,076	-4,872	-1,818
30~34세	-17,671	-11,684	-12,421	-3,616	-1,120	-8,124	8,169
35~39세	-1,341	-3,781	-8,982	-2,076	-3,523	-5,246	2,755
40~44세	261	833	242	1,187	1,062	-154	-619
45세+	21	9	-58	22	0	15	37
① 전체 모(母)의 인구수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6,050	-4,714	-4,462	-3,249	-2,211	-1,657	-871
15~19세	-77	-62	-65	-50	-10	-1	-3
20~24세	-206	-251	-223	-251	-343	-313	-260
25~29세	1,818	1,357	1,154	383	-378	-547	-675
30~34세	-7,877	-3,795	-1,441	729	2,839	2,719	2,193
35~39세	736	-1,615	-3,906	-4,252	-4,509	-3,626	-1,840
40~44세	-443	-344	27	203	202	124	-275
45세+	-1	-4	-8	-11	-12	-13	-11

4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18	'19	'20	'21	'22	'23	'24
㉔ 전체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24,159	-19,250	-25,828	-8,511	-9,147	-1,7471	9,129
15~19세	-138	-131	-124	-366	-71	-16	35
20~24세	-2,232	-1,722	-1,467	-1,761	-1,277	-417	-38
25~29세	-10,644	-8,532	-8,346	-5,232	-5,698	-4,325	-1,143
30~34세	-9,794	-7,889	-10,980	-4,345	-3,959	-10,843	5,976
35~39세	-2,077	-2,166	-5,076	2,176	986	-1,620	4,595
40~44세	704	1177	215	984	860	-278	-344
45세+	22	13	-50	33	12	28	48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4] 2024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증감의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분해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좀 더 간단하게는, 출생아 수의 변화율은 근사적으로 연령대별 인구수 증가율과 연령대별 출산율 증가율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도 설명이 가능하다. 출생아 수는 연령대별 가임여성 인구수와 연령대별 출산율의 곱이므로,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변화율은 $(1 + \text{인구수 변화율})(1 + \text{출산율 변화율}) - 1$ 이며, 이는 근사적으로 인구수 변화율 + 출산율 변화율로 볼 수 있다.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3.6%의 증가는 15~49세 인구의 전년 대비 1.9% 감소와 15~49세 모(母)의 출산율의 5.6% 증가로 설명된다. 30~34세 모(母)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8% 증가했는데, 인구증가율 2.0%와 출산율 증가율 5.6%의 근사합으로 볼 수 있다.

$$TB = \sum_a P_a \times asfr_a$$

$$\frac{\Delta TB}{TB} \approx \frac{\Delta P}{P} + \frac{\Delta asfr}{asfr}$$

출생아 수의 상대적 변화율은 근사적으로 인구 변화율과 출산율 변화율의 합

〈표 2-10〉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체	43.8만	40.6만	35.8만	32.7만	30.3만	27.2만	26.1만	24.9만	23.0만	23.8만
증감률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인구										
증감률	-0.9%	-0.9%	-1.2%	-1.7%	-1.8%	-1.9%	-2.0%	-1.9%	-1.8%	-1.9%
출산율										
증감률	1.6%	-6.5%	-10.8%	-7.1%	-5.7%	-8.3%	-2.4%	-2.5%	-6.0%	5.6%
연령대별 출생아 수 변화 분해 결과										
25~29세	9.5만	8.5만	7.4만	6.5만	5.8만	5.1만	4.6만	4.0만	3.5만	3.3만
증감률	-1.6%	-10.1%	-12.9%	-12.2%	-11.1%	-12.5%	-9.6%	-13.3%	-12.3%	-5.3%
인구	-1.1%	0.6%	2.5%	2.5%	2.1%	2.0%	0.8%	-0.8%	-1.4%	-2.0%
출산율	-0.5%	-10.7%	-15.1%	-14.3%	-12.9%	-14.2%	-10.3%	-12.5%	-11.0%	-3.4%

44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0~34세	21.6만	19.3만	16.1만	14.3만	13.1만	11.9만	11.5만	11.4만	10.6만	11.4만
증감률	-2.2%	-10.8%	-16.5%	-11.2%	-8.2%	-9.5%	-3.0%	-1.0%	-7.1%	7.8%
인구	-4.6%	-5.4%	-6.0%	-5.0%	-2.7%	-1.1%	0.6%	2.5%	2.4%	2.0%
출산율	2.5%	-5.7%	-11.3%	-6.5%	-5.7%	-8.4%	-3.6%	-3.4%	-9.3%	5.6%
35~39세	9.2만	9.4만	9.3만	9.1만	8.7만	7.8만	7.6만	7.3만	6.7만	7.0만
증감률	12.0%	2.4%	-1.8%	-1.7%	-4.2%	-10.3%	-2.7%	-4.6%	-7.2%	4.1%
인구	0.2%	1.5%	1.4%	0.8%	-1.8%	-4.6%	-5.3%	-5.9%	-5.0%	-2.7%
출산율	11.7%	0.9%	-3.1%	-2.4%	-2.4%	-6.0%	2.8%	1.4%	-2.3%	6.9%
40~44세	1.2만	1.2만	1.2만	1.2만	1.3만	1.3만	1.5만	1.6만	1.6만	1.5만
증감률	5.3%	1.6%	-1.1%	1.8%	6.6%	1.8%	8.8%	7.3%	-1.0%	-4.4%
인구	-2.2%	-3.4%	-3.3%	-3.6%	-2.7%	0.2%	1.5%	1.4%	0.8%	-1.8%
출산율	7.7%	5.2%	2.3%	5.5%	9.6%	1.6%	7.2%	5.8%	-1.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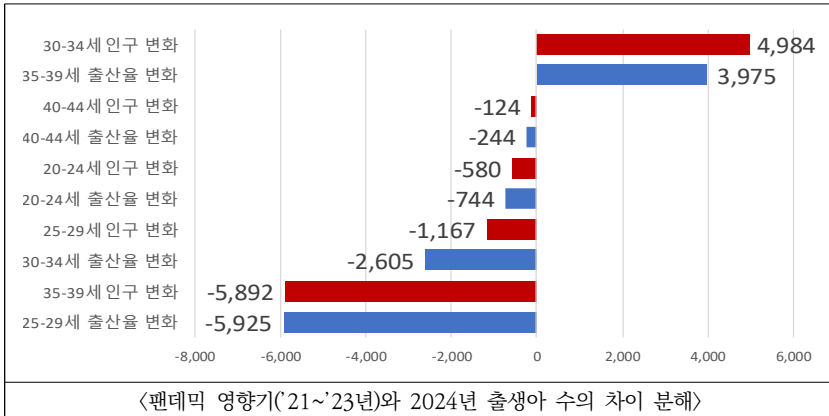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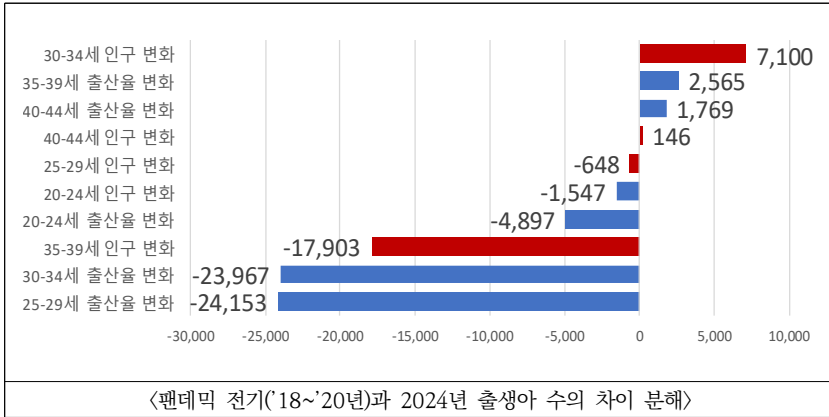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간을 팬데믹 전후로 구분하여 2024년 출생아 수 변화가 팬데믹 전후 대비 인구 및 출산율 효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9세 기준 팬데믹 전기('18~'20년)의 평균 출생아 수는 300,361명이며 2024년 출생아 수는 238,192명으로 그 차이는 -62,169명이다. 이를 5세 단위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면 전체 차이는 약 6만 명의 감소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전기와 비교했을 때 30~34세 인구 변화가 7,100명, 35~39세 출산율 변화가 2,565명, 40~44세 출산율 변화가 1,769명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25~34세의 출산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은 팬데믹 전('18~'20년) 수준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영향기로 볼 수 있는 2021~2023년 평균 출생아 수인 246,472명과 비교했을 때도 2024년 출생아 수는 8,280명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수치적으로 팬데믹 영향기의 출생아 수 규모만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및 출산을 변화로 구분해 보면,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30~34세 인구와 35~39세 출산율이 팬데믹 영향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5] 팬데믹 전/영향기 평균 출생아 수와 2024년 출생아 수 비교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표 2-11〉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및 출산율 효과 분해(팬데믹 전/영향기 대비 '24년)

구분	팬데믹 이전('18~'20) 평균(300,361명)과 '24년 출생아 수(238,192명) 비교		팬데믹 영향기('21~'23) 평균(246,472명)과 '24년 출생아 수 비교	
전년 대비 증감분(명)	-62,169	100.0	-8,280	100.0
①인구	-13,021	20.9	-2,810	33.9
②출산율	-49,148	79.1	-5,470	66.1
전체 출생아 수 증감분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62,169	100.0	-8,280	100.0
15~19세	-672	1.1	-6	0.1
20~24세	-6,444	10.4	-1,325	16.0
25~29세	-24,801	39.9	-7,091	85.7
30~34세	-16,867	27.1	2,380	-28.7
35~39세	-15,338	24.7	-1,917	23.2
40~44세	1,915	-3.1	-368	4.4
45세+	38	-0.1	47	-0.6
① 전체 모(母)의 인구수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13,021	20.9	-2,810	33.9
15~19세	-109	0.2	-7	0.1
20~24세	-1,547	2.5	-580	7.0
25~29세	-648	1.0	-1,167	14.1
30~34세	7,100	-11.4	4,984	-60.2
35~39세	-17,903	28.8	-5,892	71.2
40~44세	146	-0.2	-124	1.5
45세+	-60	0.1	-25	0.3
② 전체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49,148	79.1	-5,470	66.1
15~19세	-563	0.9	1	0.0
20~24세	-4,897	7.9	-744	9.0
25~29세	-24,153	38.9	-5,925	71.6
30~34세	-23,967	38.6	-2,605	31.5
35~39세	2,565	-4.1	3,975	-48.0
40~44세	1,769	-2.8	-244	2.9
45세+	98	-0.2	72	-0.9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3년 이후 분기별로 봤을 때도 2024년 2사분기부터 전년 동기비 증가로 전환했는데, 전체 분해 요인 중 30~39세의 출생아 수 증가의 기여도가 크다. 또한 30~34세 인구와 30대의 출산율 변화로 인한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비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2〉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2023~2025년 분기별)

구분	'23 1/4	'23 2/4	'23 3/4	'23 4/4	'24 1/4	'24 2/4	'24 3/4	'24 4/4	'25 1/4 p	'25 2/4 p
출생아 수 (만 명)	6.4	5.6	5.7	5.3	6.0	5.7	6.1	6.0	6.5	6.1
전년 동기비 증감분(천 명)	-3.9	-4.0	-7.4	-3.8	-4.0	0.7	4.5	7.0	5.3	3.9
①인구	-1.2	-0.9	-0.8	-0.4	0.0	-0.5	-0.5	-0.2	0.7	0.4
②출산율	-2.7	-3.1	-6.6	-3.4	-3.9	1.1	5.0	7.3	4.6	3.5
전년 동기비 증감률	-5.8%	-6.7%	-11.5%	-6.7%	-6.2%	1.2%	7.9%	13.4%	8.8%	6.9%
①인구	-1.7%	-1.5%	-1.2%	-0.6%	-0.1%	-0.8%	-0.8%	-0.4%	1.1%	0.7%
②출산율	-4.0%	-5.2%	-10.3%	-6.1%	-6.1%	2.0%	8.7%	13.8%	7.6%	6.2%
전체 출생아 수 증감률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동기비 증감분	-3,936	-4,002	-7,410	-3,810	-3,965	656	4,491	7,038	5,312	3,945
15~24세	-348	-149	-175	-105	-10	-98	-145	-56	-142	-98
25~29세	-1,492	-1,118	-1,475	-788	-1,027	-533	-306	54	174	85
30~34세	-1,472	-1,532	-3,368	-1,752	-911	1,250	3,444	4,390	2,578	1,761
35~39세	-700	-1,251	-2,177	-1,115	-1,618	297	1,465	2,612	2,454	1,917
40~49세	76	48	-215	-50	-399	-260	33	38	247	280
① 전체 모(母)의 인구수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동기비 증감률	-1,153	-878	-787	-360	-39	-468	-459	-219	681	396
20~24세	-95	-19	-49	-42	-70	-98	-86	-56	-23	-39
25~29세	-200	-183	-204	-134	-109	-175	-226	-224	-102	-112
30~34세	588	567	664	593	848	445	450	438	849	648
35~39세	-1,326	-1,095	-1,081	-726	-595	-571	-441	-319	-7	-7
40세+	-120	-147	-116	-50	-113	-68	-156	-58	-36	-94
② 전체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동기비 증감률	-2,733	-3,104	-6,633	-3,428	-3,925	1,131	4,953	7,258	4,587	3,535
20~24세	-267	-131	-130	-65	63	0	-63	0	-120	-60

48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23 1/4	'23 2/4	'23 3/4	'23 4/4	'24 1/4	'24 2/4	'24 3/4	'24 4/4	'25 1/4 p	'25 2/4 p
25~29세	-1,315	-953	-1,297	-664	-928	-366	-82	286	279	199
30~34세	-2,022	-2,056	-3,942	-2,293	-1,710	792	2,943	3,882	1,679	1,087
35~39세	671	-167	-1,163	-407	-1,056	900	1,957	2,993	2,463	1,925
40세+	201	203	-101	0	-294	-195	197	98	286	384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출생아 수 증가에 약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 건수의 변화도 동일하게 인구와 혼인을 변화로 구분해 보면 2022년부터 30~34세의 인구 증가의 효과와 30대의 혼인을 증가가 관찰된다. 혼인과 출산의 연계가 강하고 평균 결혼-출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혼인의 증가가 2년 후인 2024년 2사분기부터 30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살펴본 연령별 출생아 수 분해 분석은 출생통계상 출생아 수 추이에서 확인 가능한 연령대별 인구 효과와 출산율 변화만을 다루었다.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나 혼인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전환(혼인), 유배우 무자녀에서 유자녀로의 전환, 유배우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전환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제3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2-13〉 혼인 건수의 변화 - 인구 및 혼인을 변화 분해

(단위: 만 건)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p
혼인 건수	30.3	28.2	26.4	25.8	23.9	21.4	19.3	19.2	19.4	22.2
전년 대비 증감분	-0.3	-2.1	-1.7	-0.7	-1.8	-2.6	-2.1	-0.1	0.2	2.9
①인구	-0.5	-0.4	-0.2	-0.2	-0.1	-0.1	-0.1	-0.1	-0.1	-0.1
②혼인율	0.3	-1.7	-1.4	-0.5	-1.7	-2.5	-2.0	0.0	0.3	3.0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p
전년 대비 증감률	-0.9%	-7.0%	-6.1%	-2.6%	-7.2%	-10.7%	-9.8%	-0.4%	1.0%	14.8%
① 인구	-1.7%	-1.3%	-0.8%	-0.7%	-0.6%	-0.5%	-0.4%	-0.5%	-0.4%	-0.5%
② 혼인율	0.9%	-5.5%	-5.1%	-1.8%	-6.7%	-10.5%	-9.6%	0.1%	1.6%	15.5%
전체 혼인 건수 증감분 - 여성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	-0.27	-2.12	-1.72	-0.68	-1.85	-2.57	-2.10	-0.08	0.20	2.88
15~19세	-0.04	-0.02	-0.05	-0.01	0.00	-0.12	-0.07	0.02	0.03	0.00
20~24세	-0.04	-0.26	-0.26	-0.17	-0.25	-0.37	-0.25	0.01	-0.05	0.01
25~29세	-0.24	-0.90	-0.66	-0.33	-0.88	-0.74	-1.07	-0.46	-0.33	0.86
30~34세	-0.16	-0.83	-0.79	-0.28	-0.57	-0.52	-0.45	0.24	0.37	1.63
35~39세	0.16	0.02	0.04	0.10	-0.11	-0.40	-0.22	0.04	0.08	0.37
40~44세	0.01	-0.10	-0.04	-0.03	-0.04	-0.15	-0.01	0.05	0.06	0.04
45~49세	-0.03	-0.02	0.01	-0.02	-0.04	-0.15	-0.05	-0.03	-0.02	-0.02
① 여성인구 수 변화 효과										
전년 대비 증감분	-0.53	-0.39	-0.21	-0.18	-0.15	-0.12	-0.09	-0.10	-0.08	-0.09
15~19세	-0.01	-0.01	-0.01	-0.02	-0.02	-0.02	-0.01	0.00	0.00	0.00
20~24세	0.05	0.02	-0.02	-0.03	-0.03	-0.04	-0.04	-0.04	-0.05	-0.05
25~29세	-0.13	0.07	0.26	0.24	0.19	0.16	0.05	-0.05	-0.09	-0.11
30~34세	-0.45	-0.53	-0.52	-0.41	-0.21	-0.08	0.04	0.16	0.15	0.14
35~39세	0.01	0.04	0.04	0.03	-0.05	-0.14	-0.14	-0.15	-0.12	-0.07
40~44세	-0.04	-0.05	-0.03	-0.04	-0.03	0.00	0.01	0.02	0.01	-0.01
45~49세	0.01	0.02	0.01	0.00	-0.02	-0.02	-0.02	-0.02	-0.01	-0.02
② 여성의 연령대별 혼인율 변화 효과										
전년 대비 증감률	0.28	-1.66	-1.43	-0.48	-1.73	-2.50	-2.04	0.02	0.32	3.01
15~19세	-0.03	0.00	-0.04	0.00	0.01	-0.11	-0.07	0.02	0.03	0.01
20~24세	-0.09	-0.28	-0.25	-0.14	-0.22	-0.34	-0.22	0.07	0.00	0.06
25~29세	-0.11	-0.95	-0.88	-0.55	-1.05	-0.90	-1.11	-0.41	-0.25	0.99
30~34세	0.29	-0.32	-0.29	0.13	-0.37	-0.44	-0.48	0.08	0.21	1.47
35~39세	0.15	-0.02	0.00	0.08	-0.05	-0.27	-0.09	0.20	0.22	0.46
40~44세	0.03	-0.05	0.01	0.03	-0.01	-0.15	-0.02	0.04	0.06	0.07
45~49세	-0.05	-0.05	-0.01	-0.02	-0.03	-0.13	-0.02	0.01	0.01	0.00

주: 50세 이상 결과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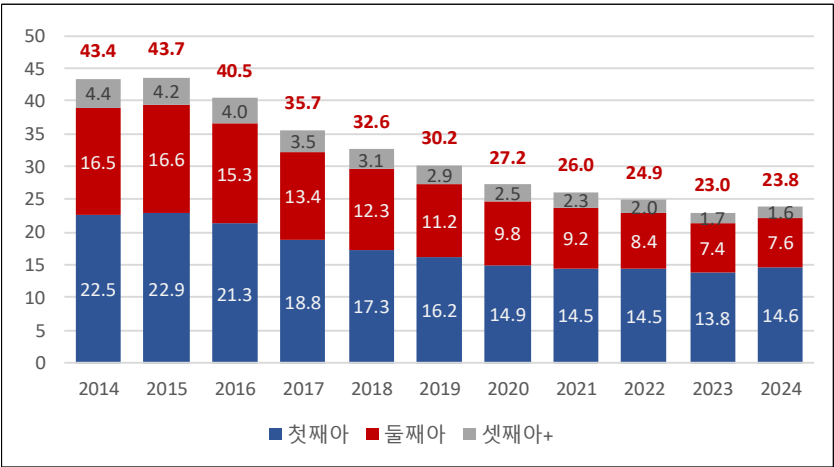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연령(5세)별 혼인, 2025. 9. 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3&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분석: 모(母)의 인구-출산율 분해 분석

출생아 출생순위별로도 2015년 이후 모든 순위에서 출생아 수는 감소해 왔으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 대비 2024년 첫째아 수는 7,765명(전년 대비 5.6%), 둘째아 수는 1,508명(2.1%)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폭 반등했다. 첫째아 수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1.6만 명씩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완화되어 14.5~14.6만 명 수준을 유지(2023년 제외)하고 있다. 둘째아 수는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연평균 1.1만 명씩 감소했었는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분 중 다테아 417명을 제외하고도 1,09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은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3천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008명 감소하면서 1.6만 명을 기록했다.

[그림 2-16]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태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다태아 수 자체는 매년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6,16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2017년 이후 1.3~1.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영향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12,6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며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태아 비중도 전년 대비 0.3%p 하락했다. 2024년에는 30대 여성의 다태아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13,461명(전년 대비 839명, 6.6% 증가), 전체 출생아 수 대비 5.7%를 기록했다. 출산순위별 다태아의 수 및 비중도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표 2-14〉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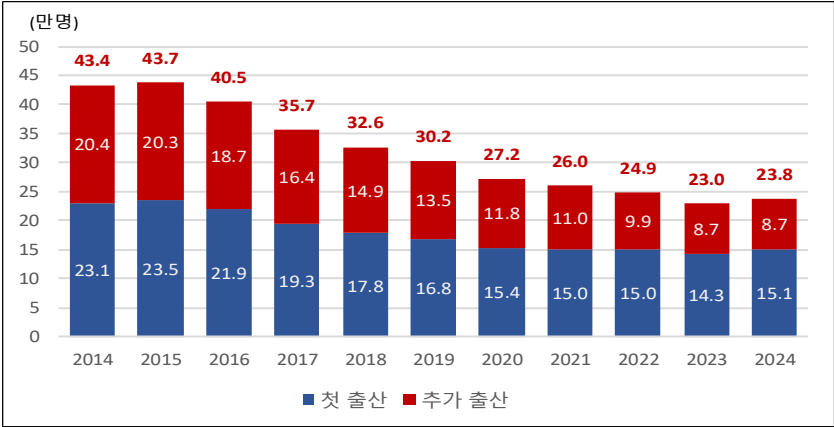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다태아 수	1.62	1.57	1.39	1.37	1.39	1.33	1.40	1.45	1.26	1.35	-16.6%
다태아 비중	3.7%	3.9%	3.9%	4.2%	4.6%	4.9%	5.4%	5.8%	5.5%	5.7%	2.0%p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첫째아	22.9	21.3	18.8	17.3	16.2	14.9	14.5	14.5	13.8	14.6	-8.3
(전년비)	1.4%	-6.9%	-11.8%	-8.0%	-6.1%	-8.1%	-2.8%	-0.1%	-4.6%	5.6%	-36.1%
다태아 수	0.58	0.57	0.51	0.51	0.52	0.49	0.53	0.55	0.49	0.52	-10.9%
다태아 비중	2.5%	2.7%	2.7%	2.9%	3.2%	3.3%	3.6%	3.8%	3.5%	3.6%	1.0%p
둘째아	16.6	15.3	13.4	12.3	11.2	9.8	9.3	8.4	7.4	7.6	-9.0
(전년비)	0.5%	-8.1%	-12.4%	-8.2%	-9.2%	-12.3%	-5.4%	-9.3%	-11.4%	2.0%	-54.3%
다태아 수	0.76	0.75	0.65	0.64	0.67	0.64	0.67	0.69	0.61	0.65	-15.0%
다태아 비중	4.6%	4.9%	4.9%	5.2%	6.0%	6.5%	7.3%	8.3%	8.2%	8.5%	4.0%p
셋째아+	4.2	4.0	3.5	3.1	2.9	2.5	2.3	2.0	1.7	1.6	-2.6
(전년비)	-2.9%	-6.6%	-11.8%	-12.0%	-7.1%	-12.0%	-9.0%	-11.8%	-14.7%	-5.8%	-61.7%
다태아 수	0.27	0.26	0.22	0.22	0.21	0.20	0.20	0.20	0.17	0.18	-33.3%
다태아 비중	6.3%	6.5%	6.4%	7.1%	7.2%	7.8%	8.8%	9.9%	9.6%	11.0%	4.7%p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출산순위별 비중											
첫째아 (전년차)	52.3% 0.4%p	52.5% 0.2%p	52.7% 0.1%p	52.9% 0.3%p	53.7% 0.4%p	54.8% 1.1%p	55.7% 0.9%p	58.2% 2.5%p	60.2% 2.0%p	61.3% 1.2%p	+9.0%p
둘째아 (전년차)	38.0% -0.1%p	37.7% -0.3%p	37.5% -0.2%p	37.6% 0.1%p	36.9% -0.8%p	35.9% -0.9%p	35.5% -0.4%p	33.7% -1.8%p	32.3% -1.4%p	31.8% -0.5%p	-6.1%p
셋째아+ (전년차)	9.7% -0.4%p	9.8% 0.1%p	9.8% 0.0%p	9.4% -0.4%p	9.5% 0.0%p	9.2% -0.2%p	8.8% -0.5%p	8.1% -0.7%p	7.5% -0.6%p	6.8% -0.7%p	-2.9%p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태아를 포함하여 모(母)의 출산 횟수에 따라 첫 출산과 추가 출산으로 구분하여 출생아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4년 첫 출산의 출생아 수는 151,404명으로 전년 대비 8,084명(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이 역대 최저치(전년비 -7,123명 감소)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첫 출산을 연기했던 부분이 일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첫 출산의 출생아 수는 2023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 출산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3만 명씩 감소해 왔으나, 2024년에는 86,826명으로 전년 비 181명 증가했다.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기했던 추가 출산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총 출산 자녀수 감소로 전체 출생아 중 첫 출산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 증가 등으로 첫 출산 중 다태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7] 연도별 모(母)의 출산 횟수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5> 연도별 모(母)의 출산 횟수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첫 출산과 추가 출산											
첫 출산	23.5	21.9	19.3	17.8	16.8	15.4	15.0	15.1	14.3	15.1	-8.3
(전년비)	1.6%	-6.8%	-11.8%	-7.9%	-5.7%	-8.0%	-2.5%	0.1%	-4.7%	5.6%	-35.4%
다태아 비중	5.0%	5.2%	5.3%	5.7%	6.3%	6.5%	7.1%	7.4%	6.9%	6.9%	1.9%p
추가출산	20.3	18.7	16.4	14.9	13.5	11.8	11.0	9.9	8.7	8.7	-11.6
(전년비)	-0.4%	-7.9%	-12.2%	-9.2%	-9.3%	-12.5%	-6.7%	-10.4%	-12.1%	0.2%	-57.2%
다태아 비중	2.2%	2.3%	2.3%	2.4%	2.6%	2.8%	3.1%	3.4%	3.2%	3.4%	1.3%p
첫 출산과 추가 출산 비중											
첫 출산	53.6%	54.0%	54.1%	54.5%	55.4%	56.7%	57.7%	60.4%	62.3%	63.6%	9.9%p
(전년차)	0.5%p	0.3%p	0.1%p	0.4%p	1.0%p	1.2%p	1.1%p	2.7%p	1.9%p	1.2%p	
추가출산	46.4%	46.0%	45.9%	45.5%	44.6%	43.3%	42.3%	39.6%	37.7%	36.4%	-9.9%p
(전년차)	-0.5%p	-0.3%p	-0.1%p	-0.4%p	-1.0%p	-1.2%p	-1.1%p	-2.7%p	-1.9%p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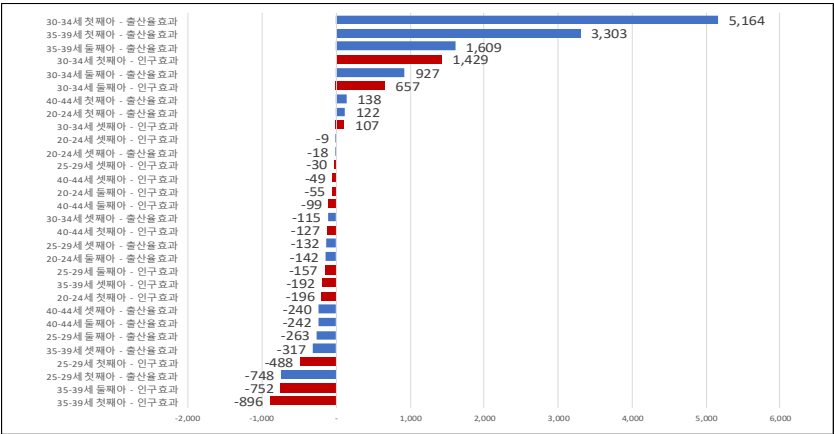
주: 미상 제외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 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를 연령대별·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확장하여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증감을 인구수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령별·출산순위별 출산율은 각 연령대별 전체 인구 대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특정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산율의 합은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 합과 같고, 첫째아가 있는 인구 중 추가 출산에 대한 출산율(출산 진도비)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출생아 수의 8,258명의 증가는 30대의 첫째아 출산율 변화와 30대의 둘째아 출산율 변화, 30~34세 인구 변화가 전년 대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25~29세의 인구 및 출산율과 35~39세의 인구 변화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출생아 수 증감률의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분해(출생순위 고려) -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분 기준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10.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6〉 출생아 수의 변화 -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 분해

구분	'18	'19	'20	'21	'22	'23	'24
출생아 수(만 명)	32.7	30.3	27.2	26.1	24.9	23.0	23.8
전년 대비 증감분(명)	-30,209	-23,964	-30,290	-11,760	-11,358	-19,128	8,258
① 인구	-6,050	-4,714	-4,462	-3,249	-2,211	-1,657	-871
1순위	-3,049	-2,142	-1,797	-1,242	-709	-560	-286
2순위	-2,482	-2,019	-2,024	-1,511	-1,093	-797	-409
3순위	-519	-553	-641	-496	-409	-300	-176
② 출산율	-24,159	-19,250	-25,828	-8,511	-9,147	-17,471	9,129
1순위	-11,990	-8,342	-11,332	-2,946	636	-6,033	8,049
2순위	-8,494	-9,286	-11,722	-3,796	-7,494	-8,774	1,912
3순위	-3,675	-1,622	-2,774	-1,769	-2,289	-2,664	-832
전년 대비 증감분에 대한 인구와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① 인구	20.4	19.8	14.9	27.4	19.6	8.6	-10.7
② 출산율	79.6	80.2	85.1	72.6	80.4	91.4	110.7
전체 출생아 수 증감분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30,209	-23,964	-30,290	-11,760	-11,358	-19,128	8,258
15~19세	-215	-193	-189	-416	-81	-17	32
1순위	-244	-135	-196	-374	-83	4	30
2순위	25	-54	5	-36	-4	-16	4
3순위	4	-4	2	-6	6	-5	-2
20~24세	-2,438	-1,973	-1,690	-2,012	-1,620	-730	-298
1순위	-1,942	-1,483	-1,086	-1,622	-1,239	-243	-74
2순위	-429	-492	-536	-316	-349	-432	-197
3순위	-67	2	-68	-74	-32	-55	-27
25~29세	-8,826	-7,175	-7,192	-4,849	-6,076	-4,872	-1,818
1순위	-6,009	-4,887	-4,631	-3,297	-3,506	-2,896	-1,236
2순위	-2,298	-2,180	-2,249	-1,407	-2,124	-1,727	-420
3순위	-519	-108	-312	-145	-446	-249	-162
30~34세	-17,671	-11,684	-12,421	-3,616	-1,120	-8,124	8,169
1순위	-7,216	-4,008	-4,833	262	2,840	-2,781	6,593
2순위	-8,040	-6,512	-6,557	-2,931	-3,168	-4,409	1,584
3순위	-2,415	-1,164	-1,031	-947	-792	-934	-8
35~39세	-1,341	-3,781	-8,982	-2,076	-3,523	-5,246	2,755
1순위	108	-383	-2,462	232	1,062	-869	2,407
2순위	-298	-2,409	-4,617	-1,158	-3,222	-2,757	857
3순위	-1,151	-989	-1,903	-1,150	-1,363	-1,620	-509
40~44세	261	833	242	1,187	1,062	-154	-619
1순위	232	431	90	581	857	187	11
2순위	38	348	224	544	271	-230	-341
3순위	-9	54	-72	62	-66	-111	-289
45~49세	21	9	-58	22	0	15	37

5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18	'19	'20	'21	'22	'23	'24
1순위	32	-19	-11	30	-4	5	32
2순위	26	-6	-16	-3	9	0	16
3순위	-37	34	-31	-5	-5	10	-11
① 전체 모(母)의 인구수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6,050	-4,714	-4,462	-3,249	-2,211	-1,657	-871
15~19세	-77	-62	-65	-50	-10	-1	-3
1순위	-72	-56	-61	-46	-9	-1	-3
2순위	-5	-6	-4	-4	-1	0	0
3순위	0	0	0	0	0	0	0
20~24세	-206	-251	-223	-251	-343	-313	-260
1순위	-151	-181	-160	-183	-242	-219	-196
2순위	-49	-62	-55	-59	-88	-81	-55
3순위	-6	-8	-8	-9	-13	-13	-9
25~29세	1,818	1,357	1,154	383	-378	-547	-675
1순위	1,241	926	788	264	-261	-386	-488
2순위	495	372	312	101	-99	-136	-157
3순위	82	59	54	18	-18	-25	-30
30~34세	-7,877	-3,795	-1,441	729	2,839	2,719	2,193
1순위	-4,172	-2,062	-806	421	1,716	1,710	1,429
2순위	-3,095	-1,464	-536	259	953	861	657
3순위	-610	-269	-99	49	170	148	107
35~39세	736	-1615	-3,906	-4,252	-4,509	-3,626	-1,840
1순위	279	-629	-1,566	-1,776	-1,991	-1,713	-896
2순위	334	-734	-1,749	-1,881	-1,932	-1,483	-752
3순위	123	-252	-591	-595	-586	-430	-192
40~44세	-443	-344	27	203	202	124	-275
1순위	-173	-138	11	83	84	55	-127
2순위	-162	-124	10	76	77	46	-99
3순위	-108	-82	6	44	41	23	-49
45~49세	-1	-4	-8	-11	-12	-13	-11
1순위	-1	-2	-3	-5	-6	-6	-5
2순위	0	-1	-2	-3	-3	-4	-3
3순위	0	-1	-3	-3	-3	-3	-3
② 전체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24,159	-19,250	-25,828	-8,511	-9,147	-17,471	9,129
15~19세	-138	-131	-124	-366	-71	-16	35
1순위	-172	-79	-135	-328	-74	5	33
2순위	30	-48	9	-32	-3	-16	4
3순위	4	-4	2	-6	6	-5	-2
20~24세	-2,232	-1,722	-1,467	-1,761	-1,277	-417	-38
1순위	-1,791	-1,302	-926	-1,439	-997	-24	122
2순위	-380	-430	-481	-257	-261	-351	-142
3순위	-61	10	-60	-65	-19	-4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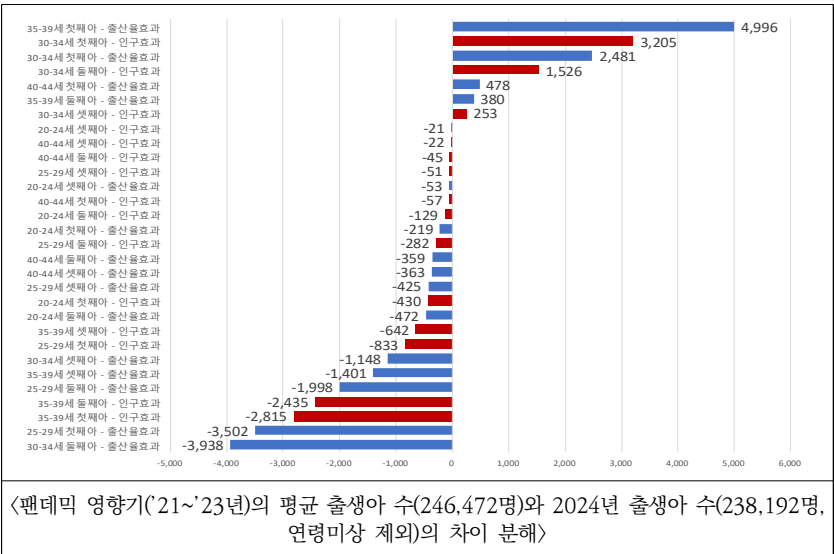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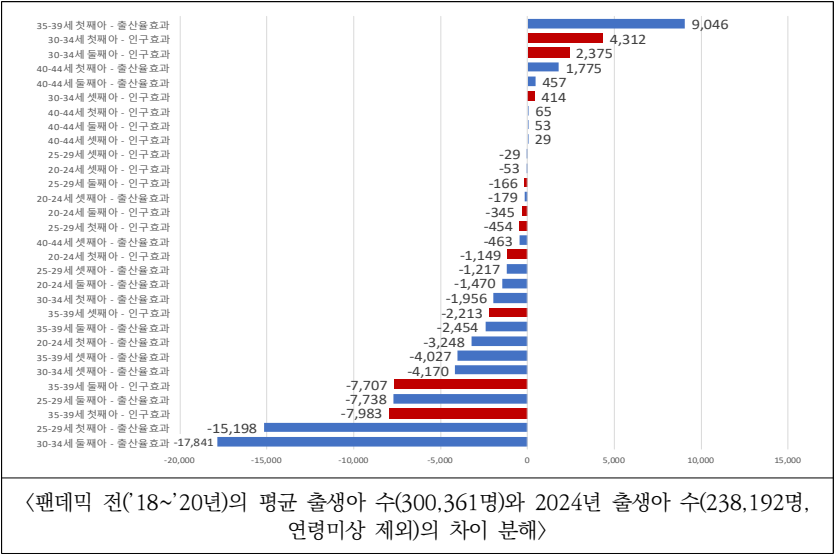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29세	-10,644	-8,532	-8,346	-5,232	-5,698	-4,325	-1,143
1순위	-7,250	-5,813	-5,419	-3,561	-3,245	-2,510	-748
2순위	-2,793	-2,552	-2,561	-1,508	-2,025	-1,591	-263
3순위	-601	-167	-366	-163	-428	-224	-132
30~34세	-9,794	-7,889	-10,980	-4,345	-3,959	-10,843	5,976
1순위	-3,044	-1,946	-4,027	-159	1,124	-4,491	5,164
2순위	-4,945	-5,048	-6,021	-3,190	-4,121	-5,270	927
3순위	-1,805	-895	-932	-996	-962	-1,082	-115
35~39세	-2,077	-2,166	-5,076	2,176	986	-1,620	4,595
1순위	-171	246	-896	2,008	3,053	844	3,303
2순위	-632	-1,675	-2,868	723	-1,290	-1,274	1,609
3순위	-1,274	-737	-1,312	-555	-777	-1,190	-317
40~44세	704	1177	215	984	860	-278	-344
1순위	405	569	79	498	773	132	138
2순위	200	472	214	468	194	-276	-242
3순위	99	136	-78	18	-107	-134	-240
45~49세	22	13	-50	33	12	28	48
1순위	33	-17	-8	35	2	11	37
2순위	26	-5	-14	0	12	4	19
3순위	-37	35	-28	-2	-2	13	-8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10.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팬데믹 전기 대비, 팬데믹 영향기 대비 2024년 출생아 수 감소분을 출생순위를 고려한 연령대별 모(母)의 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팬데믹 전기 평균 대비 2024년 출생아 수는 -62,169명이나, 이 중 35~39세 출산율 변화로 9,046명, 30세 인구 효과, 40~44세 출산율은 증가 효과가 있었고, 30~34세 둘째아 출산율 감소 및 25~29세 첫째아 출산율 감소로 전체 출생아 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영향기 평균 246,472명과 비교해도 2024년 출생아 수는 238,192명으로 8,280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를 인구 및 출산율 변화로 구분해 보면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30~34세 인구와 35~39세 출산율이 팬데믹 영향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8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그림 2-19] 출생아 수 증감률의 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 분해 - 출생순위 고려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10.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7〉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 및 출산율 효과 분해 - 출생순위 고려

구분	팬데믹 이전(300,361명)과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팬데믹 영향기(246,472명)와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비교 기간 대비 증감분(명)	-62,169	100.0	-8,280	100.0
1순위	-15,338	24.7	3,344	-40.4
2순위	-34,895	56.1	-7,739	93.5
3순위	-11,936	19.2	-3,883	46.9
① 인구	-13,019	20.9	-2,810	33.9
1순위	-5,338	8.6	-949	11.5
2순위	-5,815	9.4	-1,372	16.6
3순위	-1,866	3.0	-489	5.9
② 출산율	-49,148	79.1	-5,470	66.1
1순위	-10,000	16.1	4,292	-51.8
2순위	-29,079	46.8	-6,369	76.9
3순위	-10,069	16.2	-3,393	41.0
전체 출생아 수 증감분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비교 기간 대비 증감분(명)	-62,169	100.0	-8,28	100.0
15~19세	-673	1.1	-6	0.1
1순위	-599	1.0	5	-0.1
2순위	-67	0.1	-8	0.1
3순위	-7	0.0	-3	0.0
20~24세	-6,444	10.4	-1,324	16.0
1순위	-4,396	7.1	-649	7.8
2순위	-1,815	2.9	-601	7.3
3순위	-233	0.4	-74	0.9
25~29세	-24,801	39.9	-7,091	85.7
1순위	-15,651	25.2	-4,335	52.4
2순위	-7,904	12.7	-2,279	27.5
3순위	-1,246	2.0	-477	5.8
30~34세	-16,866	27.1	2,380	-28.8
1순위	2,356	-3.8	5,686	-68.7
2순위	-15,466	24.9	-2,411	29.1
3순위	-3,756	6.0	-895	10.8
35~39세	-15,338	24.7	-1,916	23.1
1순위	1,063	-1.7	2,182	-26.4
2순위	-10,161	16.3	-2,055	24.8
3순위	-6,240	10.0	-2,043	24.7

60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팬데믹 이전(300,361명)과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팬데믹 영향기(246,472명)와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40~44세	1,915	-3.1	-368	4.4
1순위	1,840	-3.0	421	-5.1
2순위	509	-0.8	-404	4.9
3순위	-434	0.7	-385	4.7
45세+	38	-0.1	47	-0.6
1순위	49	-0.1	34	-0.4
2순위	9	0.0	19	-0.2
3순위	-20	0.0	-6	0.1
① 전체 모(母)의 인구수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13,019	20.9	-2,810	33.9
15~19세	-109	0.2	-7	0.1
1순위	-101	0.2	-7	0.1
2순위	-8	0.0	0	0.0
3순위	0	0.0	0	0.0
20~24세	-1,547	2.5	-580	7.0
1순위	-1,149	1.8	-430	5.2
2순위	-345	0.6	-129	1.6
3순위	-53	0.1	-21	0.3
25~29세	-649	1.0	-1,166	14.1
1순위	-454	0.7	-833	10.1
2순위	-166	0.3	-282	3.4
3순위	-29	0.0	-51	0.6
30~34세	7,101	-11.4	4,984	-60.2
1순위	4,312	-6.9	3,205	-38.7
2순위	2,375	-3.8	1,526	-18.4
3순위	414	-0.7	253	-3.1
35~39세	-17,903	28.8	-5,892	71.2
1순위	-7,983	12.8	-2,815	34.0
2순위	-7,707	12.4	-2,435	29.4
3순위	-2,213	3.6	-642	7.8
40~44세	147	-0.2	-124	1.5
1순위	65	-0.1	-57	0.7
2순위	53	-0.1	-45	0.5
3순위	29	0.0	-22	0.3
45~49세	-59	0.1	-25	0.3
1순위	-28	0.0	-12	0.1
2순위	-17	0.0	-7	0.1
3순위	-14	0.0	-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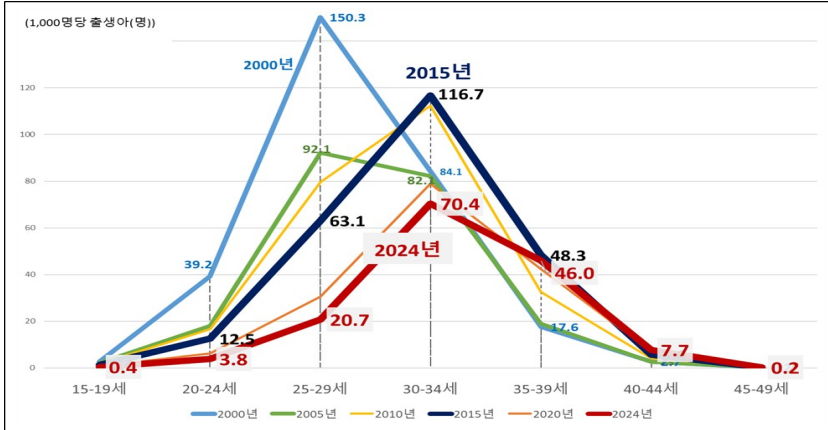
구분	팬데믹 이전(300,361명)과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팬데믹 영향기(246,472명)와 '24년(238,192명) 비교	기여도
② 전체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효과 - 모(母)의 연령대별 분해				
전년 대비 증감분(명)	-49,148	79.1	-5,470	66.1
15~19세	-563	0.9	1	0.0
1순위	-497	0.8	12	-0.1
2순위	-59	0.1	-8	0.1
3순위	-7	0.0	-3	0.0
20~24세	-4,897	7.9	-744	9.0
1순위	-3,248	5.2	-219	2.6
2순위	-1,470	2.4	-472	5.7
3순위	-179	0.3	-53	0.6
25~29세	-24,153	38.9	-5,925	71.6
1순위	-15,198	24.4	-3,502	42.3
2순위	-7,738	12.4	-1,998	24.1
3순위	-1,217	2.0	-425	5.1
30~34세	-23,967	38.6	-2,605	31.5
1순위	-1,956	3.1	2,481	-30.0
2순위	-17,841	28.7	-3,938	47.6
3순위	-4,170	6.7	-1,148	13.9
35~39세	2,565	-4.1	3,975	-48.0
1순위	9,046	-14.6	4,996	-60.4
2순위	-2,454	3.9	380	-4.6
3순위	-4,027	6.5	-1,401	16.9
40~44세	1,769	-2.8	-244	2.9
1순위	1,775	-2.9	478	-5.8
2순위	457	-0.7	-359	4.3
3순위	-463	0.7	-363	4.4
45세+	98	-0.2	72	-0.9
1순위	78	-0.1	46	-0.6
2순위	26	0.0	26	-0.3
3순위	-6	0.0	0	0.0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10.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분석: 팬데믹 전후 비교

다음으로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2024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2000~2020년간 5년 단위 및 2024년의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모의 연령대별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비교해 보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005년까지는 25~29세의 출산율이 연령대별 출산율 중 가장 높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 20대 출산율의 감소, 30대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30~34세의 출산율이 전체 연령대별 출산율 중 가장 높은 형태로 변경되었다. 25~29세의 출산율은 2005년 92.1명(해당 연령대 여성인구 1천 명당)에서 2015년 63.1명, 2024년에는 20.7명(2015년 대비 약 67% 감소)으로 급감했다. 30~34세 출산율은 출산연령 상승에 따라 2005년 82.1명에서 2015년 116.7명으로 높아졌으나, 2015년 이후 30대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여 2024년 30~34세 출산율은 2015년 대비 39.7%가 감소한 70.4명을 기록했다. 35~39세 출산율도 2015년 48.3명에서 2024년 46.0명으로 4.7% 낮아졌다. 그러나 고령산모의 증가 등으로 40대 이상의 출산율은 같은 기간 높아져, 40~44세의 경우 2015년 5.6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여성인구 1천 명당 2.1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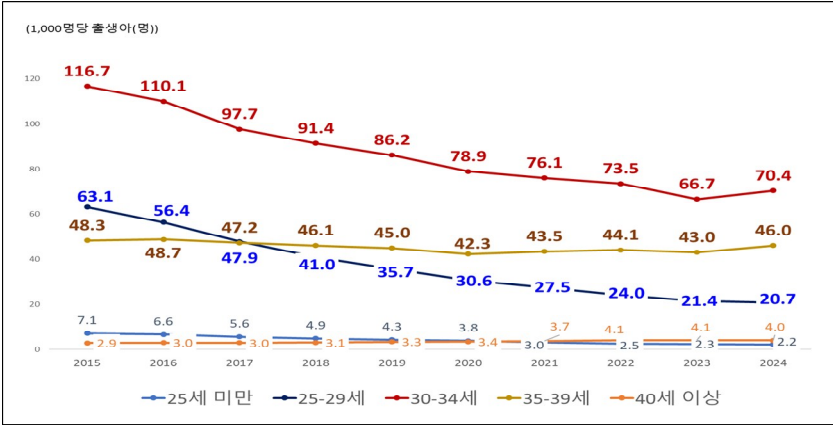
[그림 2-20]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2000~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5~2023년간 매년 전년 대비 35세 미만의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은 감소해 왔으나, 2024년에는 30~34세 출산율(해당 인구 1천 명당 70.4명)은 역대 최저치를 보인 2023년 대비 1천 명당 3.75명 증가했다. 35~39세 출산율(46.0명)도 전년 대비 2.98명 증가(전년 대비 7.0% 상승)했다. 다만, 25~29세 출산율(20.7명)은 전년비로 0.7명 감소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년 대비 5.6% 상승한 30~34세 출산율(70.4명)도 2022년(73.5명) 대비로는 3.1명 감소하여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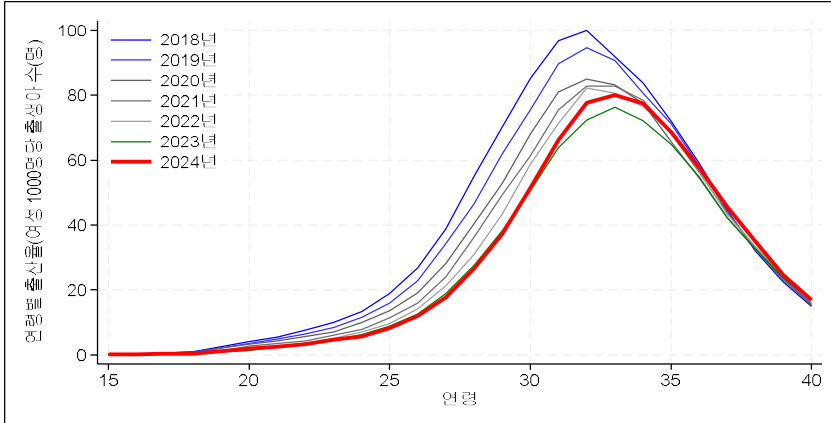
[그림 2-21] 연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2015~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팬데믹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2024년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인지를 추가로 살펴보면, 먼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세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최근 연도로 올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 집중 연령대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출산연령 지연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2024년에는 30대에서 출산율이 2023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2024년에는 반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이전('18~'20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출산연령이 늦춰지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2024년에는 30대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출산 지연분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2] 모(母)의 각세별 출산율(2018~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1993-2024,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팬데믹 기간의 구분을 코로나19 이전(‘18~’19년), 코로나19 충격기(‘20~’21년), 회복 지연기(‘22~’23년), 회복기(‘24년 이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팬데믹 기간의 충격이 먼저 혼인의 지연으로 이뤄지고 출산 시점은 출산 결정 이후 9~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팬데믹 이전(‘18~’20년), 팬데믹 영향기(‘21~’23년), 팬데믹 회복기(‘24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024년 15~49세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일반출산율은 21.7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는 3.2명 감소, 팬데믹 영향기보다는 0.1명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영향기보다는 소폭 회복되었으나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5~29세와 30~34세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 각각 15.0명, 15.2명이 감소했으며 팬데믹 영향기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보여 연령대별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5~39세와 40~44세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 각각 1.5명, 0.9명이 증가했다.

〈표 2-18〉 팬데믹 전후 연령대별 출산율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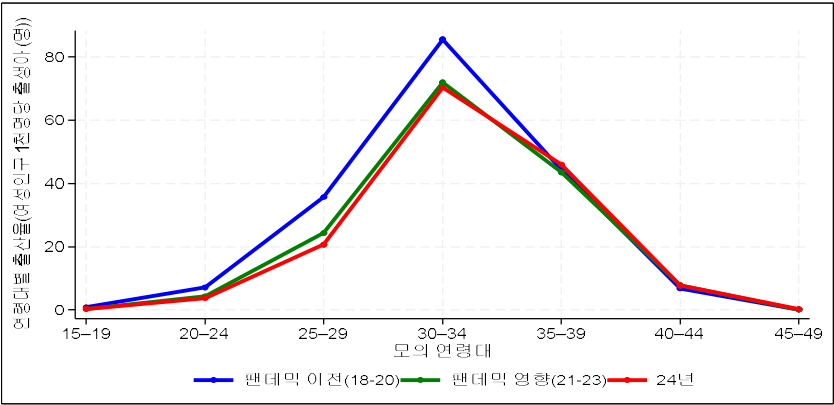
(단위: 명(1천 명당 출생아 수))

구분	팬데믹 이전	팬데믹 영향('21~'23년)		팬데믹 회복기('24년)		
	'18~'20년 일반출산율 (A)	'21~'23년 일반출산율 (B)	팬데믹 이전과 비교 (B-A)	'24년 일반출산율 (C)	팬데믹 이전과 비교 (C-A)	팬데믹 시기와 비교 (C-B)
전체	24.9	21.6	- 3.3	21.7	- 3.2	0.1
20세 미만	0.9	0.4	- 0.5	0.4	- 0.5	- 0.0
20~24세	7.2	4.3	- 2.8	3.8	- 3.4	- 0.6
25~29세	35.7	24.3	- 11.4	20.7	- 15.0	- 3.7
30~34세	85.6	72.0	- 13.6	70.4	- 15.2	- 1.6
35~39세	44.5	43.5	- 0.9	46.0	1.5	2.5
40~44세	6.8	7.9	1.0	7.7	0.9	- 0.2
45세 이상	0.2	0.2	- 0.0	0.2	- 0.0	- 0.0

주: 연령대별 출산율은 15~49세 5세 단위 연령대별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이며, 기간 평균 출산율은 기간별 연령대별 평균 인구와 연령대별 평균 출생아 수를 적용함.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8~2024,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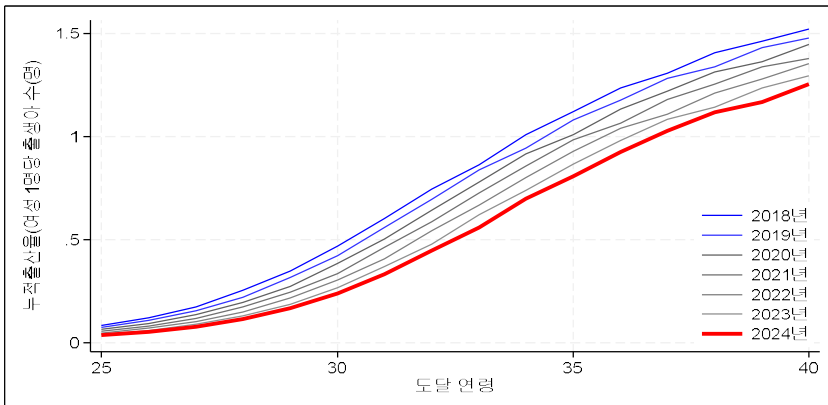
〔그림 2-23〕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 팬데믹 전/영향기/2024년 비교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1993~2024,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0대의 출산율 회복이 누적출산율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8~2024년까지의 코호트별 누적출산율(해당 코호트의 15세부터 해당 연령까지의 각세별 출산율의 합)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2-24]에서 보여주듯 2018년 이후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4년 누적출산율 그래프는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 이후에도 특히 30대의 출산율은 증가했으나, 누적출산율 관점에서 보면 이전 코호트와 비교했을 때 매 연령대별로 누적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던 부분까지 회복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이후에도 각세별 출산율 증가가 이전 코호트 대비 감소했던 정도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누적출산율 측면에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4]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비교(201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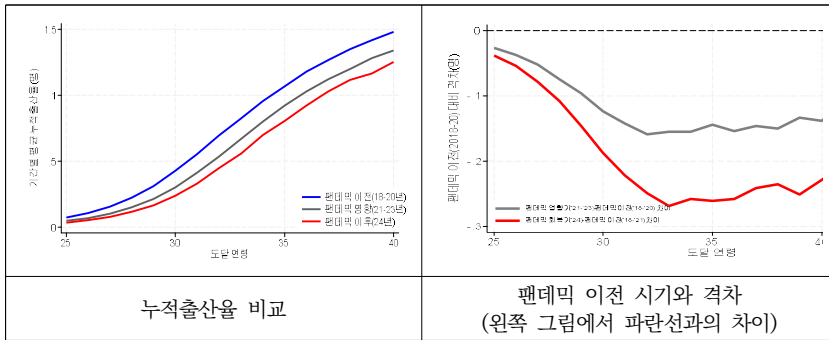


주: 누적출산율은 코호트별 15세부터 도달 연령까지의 각세별 출산율의 합(예를 들면, 2024년 도달 연령 30세인 코호트(1994년생)의 15(2009년)~30세(2024년)까지의 출산율의 합).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1993~2024,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팬데믹 전후로 구분하여 누적출산율의 평균 수준을 비교해 보면, 팬데믹 이전(18~20년)보다 팬데믹 영향기(21~23년), 팬데믹 이후(24년) 기간의 누적출산율 하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감소세는 30대 초까지는 크게 나타나다 32~33세부터는 완화되고, 2024년에는 30대 중반에서 소폭의 회복세가 관찰된다.

[그림 2-25] 팬데믹 전후 평균 누적출산율 비교



주: 누적출산율은 코호트별 15세부터 도달 연령까지의 각세별 출산율의 합(예를 들면, 2024년 도달 연령 30세인 코호트(1994년생)의 15(2009년)~30세(2024년)까지의 출산율의 합).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1993~2024,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팬데믹 전후 기간 중의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의 변화 양상도 살펴보면, 매년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은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팬데믹의 영향기인 2021~2023년에 30대 누적출산율에서 2018~2020년보다 하락 폭이 큰 것이 관찰된다. 2021~2023년에 30~34세의 누적출산율은 전년 해당 연령에 도달한 코호트 대비 -8.1~9.2% 수준에서 2024년에는 -8.1%로 감소율이 줄어들었으나, 2018~2020년의 전년 코호트 대비 감소율보다는 큰 폭이다. 특히 25~29세의 누적출산율은 30대에 비해 전년도 해당 연령대의 누적출산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오고 있어 2024년의 감소 폭이

약간 줄어들이는 했으나, 해당 연령대의 출산 저해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9〉 팬데믹 전후 코호트별 누적출산을 비교

(단위: 명(여성 1명당 출생아 수))

도달 연도	도달 연령: 25~29세			30~34세			35~39세		
	코호트	누적 출산율	전년 대비	코호트	누적 출산율	전년 대비	코호트	누적 출산율	전년 대비
2018	1989-1993	0.197	-9.7%	1984-1988	0.738	-5.3%	1979-1983	1.306	-3.4%
2019	1990-1994	0.176	-10.9%	1985-1989	0.692	-6.2%	1980-1984	1.261	-3.4%
2020	1991-1995	0.153	-12.8%	1986-1990	0.646	-6.7%	1981-1985	1.208	-4.2%
2021	1992-1996	0.135	-11.8%	1987-1991	0.594	-8.1%	1982-1986	1.163	-3.7%
2022	1993-1997	0.117	-13.2%	1988-1992	0.545	-8.2%	1983-1987	1.113	-4.3%
2023	1994-1998	0.102	-13.1%	1989-1993	0.495	-9.2%	1984-1988	1.062	-4.6%
2024	1995-1999	0.091	-11.1%	1990-1994	0.455	-8.1%	1985-1989	1.009	-5.0%

주: 누적출산율은 코호트별 15세부터 해당 연령까지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각 연도별 5세별 누적출산율의 평균으로 제시.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1993-2024,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4절 2024년 출생통계 추가 분석

2024년 출생아 수 통계에서 추이 변화에서의 특징적인 추가분석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통계가 작성된 1993년 27.55세에서 매년 약 0.2세씩 높아져 왔는데, 2024년에는 33.69세로 2015년(32.23세) 대비 1.46세, 2023년(33.64세) 대비 0.05세 상승했다. 2024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의 전년차 수치(0.05세)는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데, 2021~2022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23세, 2022년에는 0.17세 등 출산연령이 높아졌던 부분이 해소되어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팬데믹의 영향하에 있었던 2021년과 2022년의 첫째아 출산연령이 전년 대비 각각 0.32세와 0.27세로 2015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상승 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의 평균연령도 상승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상승폭이 감소하였고, 셋째아에서는 0.04세 낮아졌고, 셋째아 이상으로 봤을 때도 0.05세 낮아졌다. 2024년 기준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연령은 33.08세, 둘째아 출산모는 34.44세, 셋째아 이상 출산모는 35.75세이다. 또한 고령산모의 다태아 출산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태아-다태아 출산모 평균연령의 차이는 매년 커지고 있다.

〈표 2-20〉 연도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15~2024년)

(단위: 세)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전년차)	32.2 0.19	32.4 0.17	32.6 0.20	32.8 0.20	33.0 0.21	33.1 0.12	33.4 0.23	33.5 0.17	33.6 0.11	33.7 0.06	1.46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첫째아 (전년차)	31.2 0.23	31.4 0.17	31.6 0.25	31.9 0.23	32.1 0.24	32.2 0.16	32.6 0.32	32.8 0.27	33.0 0.12	33.1 0.12	1.88
둘째아 (전년차)	33.0 0.20	33.2 0.18	33.4 0.17	33.5 0.18	33.7 0.20	33.9 0.14	34.1 0.20	34.2 0.14	34.4 0.18	34.4 0.04	1.43
셋째아+ (전년차)	34.7 0.08	34.9 0.15	35.0 0.08	35.2 0.25	35.3 0.11	35.4 0.09	35.5 0.12	35.6 0.09	35.8 0.13	35.7 -0.04	0.97
단태아/다태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단태아 (전년차)	32.2 0.19	32.4 0.16	32.5 0.20	32.7 0.19	32.9 0.20	33.0 0.12	33.3 0.23	33.4 0.16	33.5 0.11	33.6 0.05	1.41
다태아 (전년차)	33.3 0.12	33.6 0.28	33.8 0.25	34.3 0.41	34.5 0.23	34.6 0.16	34.8 0.16	35.0 0.21	35.2 0.16	35.3 0.09	1.95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출생신고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을 구분한다. 혼인 중인 부모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95.3%를 차

지하고 있다. 혼인 외 부모의 출생아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2021년까지는 6~7천 명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 비 2천 명이 증가하면서 약 1만 명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전년비 약 1천 명, 2024년에는 전년비 2,970명(27.4%)이 증가하면서 13,82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25세 이상(특히 30~34세는 전년비 +1,854명(41.9%), 35~39세는 전년비 886명(29.1%) 증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혼인 외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결혼 시작 시기 등의 정보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어 사실혼 출산아 부모의 특성은 알기가 어려웠다. 2024년의 혼인 외 출생아의 증가는 혼인 외 출생아 수 증가 추세와 함께 2022년 하반기부터 팬데믹으로 지연되었던 법률혼의 증가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출산 당시에는 혼인신고 지연 등으로 부모의 혼인신고 상태가 혼인 외로 기록되었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추세가 2024년에도 나타나고 있어, 팬데믹 이외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2024년 이후 양상에 대한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표 2-21〉 연도별 모(母)의 혼인 구분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단위: 세)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혼인 중	43.0	39.8	35.1	31.9	29.6	26.5	25.3	23.9	21.9	22.4	-20.6
(전년비)	0.9%	-7.4%	-12.0%	-8.9%	-7.5%	-10.2%	-4.7%	-5.3%	-8.5%	2.4%	-47.8%
비중	98.1%	98.1%	98.1%	97.8%	97.7%	97.5%	97.1%	96.1%	95.3%	94.2%	-3.9%p
혼인 외	0.82	0.78	0.70	0.72	0.70	0.69	0.77	0.98	1.09	1.38	0.57
(전년비)	-3.6%	-4.6%	-10.7%	3.1%	-2.7%	-1.4%	11.7%	27.1%	11.2%	27.4%	69.6%
비중	1.9%	1.9%	1.9%	2.2%	2.3%	2.5%	3.0%	3.9%	4.7%	5.8%	3.9%p

주: 미상 제외(전체 중 미상의 비중은 0.03~0.06%).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는 결혼생활 2년 미만, 2~5년, 5년 이상 등 전 기간에서 2015년 이후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 기간에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결혼생활 2년 미만 기간 내의 출생아 수는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다, 2022년 4분기부터는 감소 폭이 완화되면서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4,433명(5.9% 증가) 늘어났다. 이를 모(母)의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0~34세에서 38,852명으로 전년비 11.0%(30~34세 출생아 수 중 35.7%) 증가하며 2021~2023년간 평균 3.5만 명 수준보다 높았으며, 2020년 3.7만 명보다 높았다. 35~39세에서도 2년 미만 출생아 수는 16,083명(전년 대비 8.3% 증가)으로 202~2023년간 평균 1.46만 명 수준에서 2020년 수치(1.62만 명)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30대의 경우에는 2~5년 기간에서도 전년비 증가했으나, 2022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결혼생활 2년 미만의 출생아 수의 증가로 해당 기간의 출생아 수가 전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35.0%)도 전년비 1.1%p 증가했다. 다만, 최근 결혼 이후 출산 연기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기간 2년 미만의 출생아 수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30~34세 연령 증가에 의한 출생아 수 증가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22〉 부모의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단위: 만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❶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미상 제외)											
출생아 수*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2년 미만	17.06	15.66	13.47	11.40	10.16	9.04	8.09	7.58	7.47	7.91	-9.1
(전년비)	-0.8%	-8.2%	-14.0%	-15.4%	-10.9%	-11.0%	-10.6%	-6.3%	-1.4%	5.9%	-53.6%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비중 (전년차)	39.4% -0.6%p	39.1% -0.3%p	38.2% -0.9%p	35.5% -2.7%p	34.3% -1.2%p	33.9% -0.4%p	31.8% -2.1%p	31.5% -0.3%p	33.9% 2.4%p	35.0% 1.1%p	-4.4%p
2~5년 (전년비)	16.63 2.5%	15.48 -6.9%	13.83 -10.7%	13.00 -6.0%	12.09 -7.0%	10.82 -10.5%	10.39 -4.0%	9.87 -5.0%	8.58 -13.1%	8.65 0.8%	-8.0 -48.0%
비중 (전년차)	38.4% 0.6%p	38.6% 0.2%p	39.2% 0.6%p	40.5% 1.3%p	40.8% 0.3%p	40.6% -0.2%p	40.9% 0.3%p	41% 0.1%p	38.9% -2.1%p	38.2% -0.7%p	-0.2%p
5년+ (전년비)	9.62 0.6%	8.97 -6.8%	8.00 -10.8%	7.72 -3.5%	7.41 -4.1%	6.80 -8.1%	6.93 1.9%	6.62 -4.5%	6.01 -9.3%	6.06 0.9%	-3.6 -37.0%
비중 (전년차)	22.2% -0.1%p	22.4% 0.2%p	22.7% 0.3%p	24% 1.3%p	25% 1%p	25.5% 0.5%p	27.3% 1.8%p	27.5% 0.2%p	27.2% -0.3%p	26.8% -0.5%p	4.6%p
㉑ 2년 미만 - 모(母)의 연령대별											
2년 미만 (전년비)	17.06 -0.8%	15.66 -8.2%	13.47 -14.0%	11.40 -15.4%	10.16 -10.9%	9.04 -11.0%	8.09 -10.6%	7.58 -6.3%	7.47 -1.4%	7.91 5.9%	-9.2 -53.6%
20~24세	1.48 -2.9%	1.37 -7.5%	1.13 -17.4%	0.92 -19.0%	0.74 -18.6%	0.64 -13.6%	0.47 -26.5%	0.36 -24.0%	0.34 -5.0%	0.34 0.0%	-1.1 -77.0%
25~29세	5.69 -1.7%	5.12 -9.9%	4.36 -14.9%	3.59 -17.5%	3.10 -13.7%	2.68 -13.7%	2.31 -13.7%	1.96 -15.3%	1.82 -7.3%	1.73 -4.5%	-4.0 -69.6%
30~34세	7.45 -3.2%	6.69 -10.2%	5.55 -17.0%	4.68 -15.8%	4.20 -10.3%	3.77 -10.1%	3.53 -6.3%	3.50 -0.9%	3.50 0.0%	3.89 11.0%	-3.6 -47.9%
35~39세	2.00 14.1%	2.06 3.1%	2.04 -0.9%	1.89 -7.8%	1.78 -5.6%	1.62 -8.7%	1.47 -9.7%	1.45 -1.5%	1.48 2.7%	1.61 8.3%	-0.4 -19.7%
40~44세	0.27 9.2%	0.27 1.5%	0.26 -2.3%	0.25 -6.7%	0.27 10.1%	0.27 -1.2%	0.27 1.1%	0.29 8.2%	0.30 4.2%	0.30 2.9%	0.05 17.7%
㉒ 첫째아의 부모 결혼생활 기간별 분포											
첫째아 수* (전년비)	22.9 1.4%	21.3 -6.9%	18.8 -11.8%	17.3 -8.0%	16.2 -6.1%	14.9 -8.1%	14.5 -2.8%	14.5 -0.1%	13.8 -4.6%	14.6 5.6%	-8.3 -36.2%
2년 미만 (전년비)	15.6 -0.7%	14.3 -8.7%	12.2 -14.8%	10.4 -14.3%	9.3 -11.1%	8.2 -11.3%	7.4 -10.7%	6.9 -6.0%	6.8 -1.3%	7.2 5.4%	-8.3 -53.4%
비중 (전년차)	69.4% -1.6%p	68.1% -1.3%p	65.8% -2.3%p	61.7% -4.1%p	58.7% -3.1%p	56.7% -2.0%p	52.4% -4.2%p	50.0% -2.4%p	52.1% 2.1%p	52.6% 0.5%p	-16.8%
2~5년 (전년비)	5.7 7.8%	5.5 -3.6%	5.1 -6.7%	5.2 1.7%	5.3 1.4%	5.1 -4.4%	5.3 4.2%	5.3 1.1%	4.7 -11.1%	4.9 2.4%	-0.8 -13.9%
비중 (전년차)	25.3% 1.5%p	26.2% 0.9%p	27.7% 1.5%p	30.9% 3.1%p	33.4% 2.6%p	34.8% 1.4%p	37.6% 2.8%p	38.5% 1.0%p	36.2% -2.4%p	35.5% -0.7%p	10.2%p
5년+ (전년비)	1.2 4.0%	1.2 -0.8%	1.2 0.2%	1.3 5.7%	1.3 -0.4%	1.2 -1.2%	1.4 13.4%	1.6 13.1%	1.5 -2.9%	1.6 5.7%	0.4 37.2%
비중 (전년차)	5.3% 0.1%p	5.7% 0.4%p	6.4% 0.8%p	7.4% 1.0%p	7.9% 0.5%p	8.5% 0.6%p	10% 1.5%p	11.5% 1.5%p	11.7% 0.3%p	11.9% 0.2%p	6.6%p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④ 2년 미만 출생아 수 - 분기별											
2년 미만	17.06	15.66	13.47	11.40	10.16	9.04	8.09	7.58	7.47	7.91	-9.1
(전년비)	-0.8%	-8.2%	-14.0%	-15.4%	-10.9%	-11.0%	-10.6%	-6.3%	-1.4%	5.9%	-53.6%
1분기	4.6	4.4	3.8	3.2	2.8	2.5	2.2	2.0	2.0	2.0	-2.6
(전년동기비)	0.1%	-5.3%	-13.8%	-15.7%	-12.8%	-11.2%	-10.7%	-7.8%	-0.1%	-0.7%	-56.4%
2분기	4.0	3.8	3.2	2.7	2.4	2.2	2.0	1.8	1.8	1.8	-2.2
(전년동기비)	0.3%	-6.4%	-14.3%	-15.5%	-11.8%	-10.4%	-8.6%	-10.9%	-0.3%	4.4%	-54.6%
3분기	4.3	4.0	3.5	2.8	2.5	2.3	2.1	2.0	1.9	2.0	-2.3
(전년동기비)	-3.1%	-6.7%	-13.7%	-18.1%	-10.4%	-7.6%	-10.5%	-5.2%	-4.8%	7.1%	-52.8%
4분기	4.1	3.5	3.0	2.6	2.4	2.1	1.8	1.8	1.8	2.0	-2.1
(전년동기비)	-0.3%	-14.6%	-14.2%	-12.0%	-8.0%	-14.8%	-12.7%	-0.7%	-0.2%	13.7%	-50.3%

주: 출생아 수 및 첫째아 전체(*표시)는 미상 포함. 세부 기간 구분별 출생아 수는 미상 제외.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생아 부모의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출산까지의 평균 기간은 2015년 이후 길어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06년, 2024년은 전년 대비 0.05년 짧아졌다. 분기별로도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매 분기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전년 동기비 0.01~0.09년 정도 짧아졌다. 2024년의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3.619년)은 팬데믹 영향이 적었던 2020년(3.6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순위별로도 첫째아의 부모의 평균 결혼-출산 기간은 2022년까지 매 분기 전년 동기비로 기간이 길어지다 2023년에는 짧아졌으나, 2024년에는 다시 길어지면서 2022년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2024년에 들어서 매 분기 전년 동기비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짧아졌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출산 연기가 2024년에서야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출산모의 연령별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22년부터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표 2-23〉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2015~2024년)

(단위: 년)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①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전체	3.39	3.39	3.42	3.53	3.59	3.62	3.73	3.74	3.68	3.62	0.23
전년차	0.00	0.00	0.02	0.11	0.06	0.03	0.11	0.01	-0.06	-0.06	
1분기	3.39	3.38	3.39	3.49	3.58	3.61	3.70	3.76	3.73	3.63	0.24
전년차	0.00	-0.01	0.01	0.10	0.09	0.03	0.10	0.06	-0.03	-0.10	
2분기	3.47	3.44	3.46	3.56	3.62	3.66	3.76	3.77	3.71	3.63	0.16
전년차	0.02	-0.03	0.02	0.10	0.06	0.04	0.10	0.01	-0.06	-0.08	
3분기	3.38	3.38	3.40	3.54	3.58	3.61	3.73	3.75	3.66	3.65	0.27
전년차	-0.02	0.00	0.02	0.14	0.04	0.03	0.12	0.02	-0.09	-0.01	
4분기	3.34	3.37	3.41	3.52	3.57	3.61	3.74	3.70	3.62	3.57	0.23
전년차	-0.02	0.03	0.04	0.10	0.06	0.04	0.13	-0.05	-0.07	-0.05	
② 출산순위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 첫째아											
첫째아	1.83	1.87	1.97	2.09	2.18	2.25	2.40	2.50	2.47	2.46	0.63
전년차	0.04	0.04	0.10	0.13	0.09	0.07	0.15	0.10	-0.04	-0.01	
1분기	1.81	1.83	1.90	2.07	2.17	2.23	2.35	2.50	2.50	2.47	0.67
전년차	0.06	0.03	0.06	0.17	0.10	0.06	0.12	0.15	0.00	-0.03	
2분기	1.86	1.89	1.94	2.10	2.18	2.29	2.42	2.51	2.49	2.46	0.60
전년차	0.04	0.03	0.05	0.16	0.08	0.10	0.14	0.09	-0.02	-0.03	
3분기	1.82	1.85	1.92	2.09	2.16	2.21	2.39	2.47	2.43	2.45	0.63
전년차	0.04	0.03	0.06	0.18	0.07	0.05	0.18	0.08	-0.04	0.02	
4분기	1.83	1.91	2.13	2.11	2.20	2.28	2.45	2.53	2.43	2.44	0.61
전년차	0.02	0.08	0.22	-0.02	0.09	0.07	0.18	0.07	-0.10	0.01	
둘째아	4.50	4.48	4.47	4.58	4.68	4.76	4.90	4.96	5.02	5.02	0.52
전년차	0.03	-0.02	-0.01	0.11	0.10	0.08	0.14	0.06	0.06	0.00	
셋째아+	7.44	7.34	7.14	7.30	7.25	7.25	7.35	7.37	7.40	7.25	-0.19
전년차	-0.12	-0.10	-0.20	0.16	-0.05	0.00	0.09	0.02	0.03	-0.15	
③ 모의 연령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25~29세	1.99	1.99	2.02	2.12	2.18	2.20	2.27	2.28	2.20	2.18	0.19
전년차	0.00	-0.01	0.03	0.10	0.06	0.02	0.08	0.01	-0.08	-0.01	
30~34세	3.29	3.24	3.22	3.26	3.29	3.30	3.35	3.32	3.24	3.18	-0.11
전년차	-0.04	-0.05	-0.03	0.04	0.03	0.01	0.05	-0.03	-0.08	-0.06	
35~39세	5.11	4.97	4.83	4.87	4.85	4.86	4.94	4.87	4.75	4.66	-0.45
전년차	-0.18	-0.14	-0.14	0.03	-0.02	0.01	0.08	-0.07	-0.12	-0.09	
40~44세	6.66	6.54	6.40	6.41	6.13	6.12	6.14	6.10	6.04	5.94	-0.73
전년차	-0.26	-0.12	-0.14	0.01	-0.28	-0.01	0.02	-0.04	-0.06	-0.10	
④ 모의 연령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 첫째아											
25~29세	1.30	1.31	1.35	1.43	1.49	1.54	1.61	1.65	1.60	1.59	0.29
전년차	0.01	0.00	0.04	0.08	0.06	0.05	0.08	0.04	-0.05	0.00	
30~34세	1.95	1.97	2.02	2.12	2.19	2.26	2.37	2.43	2.37	2.34	0.39

76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년차	0.03	0.02	0.05	0.10	0.07	0.07	0.11	0.06	-0.06	-0.03	0.42
35~39세	2.74	2.75	2.84	2.92	2.97	3.02	3.19	3.26	3.19	3.16	
전년차	-0.03	0.01	0.09	0.08	0.05	0.05	0.17	0.07	-0.07	-0.03	
40~44세	3.45	3.50	3.79	4.04	3.73	3.75	3.86	3.98	3.95	3.99	0.53
전년차	0.05	0.05	0.29	0.25	-0.31	0.02	0.11	0.11	-0.03	0.04	
㉕ 모의 연령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 둘째아											
25~29세	3.28	3.25	3.22	3.35	3.41	3.43	3.47	3.52	3.51	3.51	0.23
전년차	0.03	-0.03	-0.03	0.12	0.07	0.01	0.05	0.04	0.00	-0.01	
30~34세	4.29	4.23	4.21	4.29	4.37	4.41	4.50	4.52	4.56	4.54	
전년차	0.00	-0.06	-0.02	0.08	0.08	0.04	0.09	0.03	0.03	-0.02	
35~39세	5.61	5.50	5.38	5.42	5.47	5.55	5.69	5.70	5.72	5.71	0.09
전년차	-0.11	-0.12	-0.12	0.04	0.05	0.08	0.14	0.01	0.02	-0.01	
40~44세	6.96	6.93	6.79	6.74	6.55	6.63	6.66	6.80	6.82	6.79	
전년차	-0.01	-0.03	-0.14	-0.05	-0.19	0.09	0.03	0.14	0.02	-0.04	
㉕ 출산 횟수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첫 출산	1.87	1.91	2.01	2.14	2.23	2.30	2.45	2.55	2.51	2.50	-0.01
전년차	0.04	0.04	0.09	0.13	0.09	0.07	0.15	0.10	-0.04		
추가 출산	5.14	5.11	5.06	5.17	5.26	5.33	5.45	5.51	5.55	5.49	
전년차	-0.02	-0.03	-0.05	0.10	0.09	0.07	0.13	0.05	0.05		

주: 출생아 수 및 첫째아 수 전제는 부모 결혼생활 기간 미상 포함. 세부 항목 산출 시 부모 결혼생활 기간 미상 제외.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체 출생아의 약 3~4%를 차지하는 외국인 모(母)의 출생아 수의 감소율은 팬데믹 기간('21~'22년) 동안에 내국인 모(출생+귀화 한국인)의 출생아 수 감소율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 국제이동 제한 및 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이들의 결혼-출산 기간도 내국인의 경우보다 크게 길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24〉 모(母)의 국적별 평균 결혼생활 기간(2015~2024년)

(단위: 년)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①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전체	3.39	3.39	3.42	3.53	3.59	3.62	3.73	3.74	3.68	3.62
전년차	0.00	0.00	0.02	0.11	0.06	0.03	0.11	0.01	-0.06	-0.06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② 모의 국적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한국인	3.41	3.41	3.43	3.54	3.61	3.65	3.75	3.74	3.68	
(전년차)	-0.02	0.00	0.02	0.11	0.07	0.04	0.10	0.00	-0.06	
외국인	2.91	2.97	3.00	3.08	3.01	3.06	3.45	3.81	3.71	
(전년차)	0.25	0.06	0.03	0.08	-0.07	0.05	0.39	0.36	-0.09	
② 모의 국적별 출생아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 - 첫째아										
한국인	1.83	1.87	1.97	2.10	2.19	2.26	2.40	2.49	2.46	
(전년차)	0.04	0.04	0.10	0.13	0.09	0.07	0.14	0.09	-0.03	
외국인	1.88	1.89	1.92	2.04	2.05	2.07	2.49	2.85	2.65	
(전년차)	0.10	0.01	0.03	0.11	0.01	0.03	0.41	0.36	-0.20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4년 자료 중 부모 국적은 현재 미공개)

다음으로 모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모든 교육수준별로 출생아 수는 감소해 왔는데, 2024년에는 대졸과 대학원 이상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상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활용하여 모(母)의 교육수준별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2024년 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졸 모(母)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의 감소가 2015년 이후 전체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5~29세 및 30~34세 대졸 모(母)의 출산율 하락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의 고졸 이하 학력에서 출산율의 증가가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 폭도 다른 학력 및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적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해보인다. 여기에서 활용한 교육수준별 인구수는 5년 단위로 공표되는 자료를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2021~2024년 자료를 추정한 자료로, 실제 수치보다 분모가 교육수준별 연령별로는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교육수준별 출산율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78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표 2-25〉 모(母)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전체 (전년비)	43.8 0.7%	40.6 -7.3%	35.8 -11.9%	32.7 -8.7%	30.3 -7.4%	27.2 -10.0%	26.1 -4.3%	24.9 -4.4%	23.0 -7.7%	23.8 3.6%	-20.0 -45.7%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만 명)											
고졸 이하 전년비	10.3 -5.3%	9.1 -11.6%	7.7 -15.6%	6.6 -13.9%	6.0 -10.2%	5.2 -12.9%	4.5 -12.5%	4.1 -9.2%	3.8 -8.0%	3.8 -0.2%	-6.6 -63.4%
대졸	29.9 2.4%	28.0 -6.6%	24.7 -11.5%	22.8 -7.8%	21.2 -7.3%	19.0 -10.0%	18.5 -2.7%	18.0 -3.1%	16.6 -7.4%	17.3 4.3%	-12.6 -42.1%
대학원+	3.3 3.3%	3.1 -5.8%	2.9 -8.6%	2.7 -6.0%	2.5 -5.3%	2.3 -8.8%	2.3 -0.1%	2.3 -3.0%	2.1 -8.9%	2.2 7.9%	-1.1 -33.4%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비중											
고졸 이하 전년비	23.7% -1.5%p	22.7% -1.0%p	21.8% -0.9%p	20.7% -1.2%p	20.1% -0.6%p	19.6% -0.5%p	17.9% -1.7%p	17.0% -1.0%p	16.9% -0.1%p	16.2% -0.7%p	-7.5%p
대졸	68.6% 1.3%p	69.5% 0.9%p	70.1% 0.6%p	71.0% 0.9%p	71.3% 0.3%p	71.7% 0.4%p	73.0% 1.3%p	73.8% 0.8%p	74.0% 0.2%p	74.3% 0.3%p	5.6%p
대학원	7.6% 0.2%p	7.8% 0.2%p	8.1% 0.3%p	8.4% 0.3%p	8.6% 0.2%p	8.8% 0.2%p	9.1% 0.4%p	9.3% 0.1%p	9.3% -0.1%p	9.5% 0.4%p	1.9%p
교육수준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명)											
고졸 이하 전년차	1.51 -0.04	1.37 -0.14	1.19 -0.18	1.06 -0.13	0.99 -0.07	0.90 -0.09	0.83 -0.07	0.80 -0.03	0.79 -0.01	0.86 0.07	-0.65
대졸	1.22 0.04	1.15 -0.07	1.02 -0.13	0.95 -0.07	0.88 -0.07	0.79 -0.09	0.77 -0.02	0.74 -0.03	0.68 -0.06	0.70 0.02	-0.52
대학원+	1.13 0.06	1.08 -0.05	1.00 -0.08	0.95 -0.05	0.90 -0.05	0.82 -0.08	0.83 0.01	0.80 -0.03	0.72 -0.08	0.78 0.06	-0.36
교육수준별 출산율(1천 명당 명) - 고졸 이하											
15~49세	20.7	19.1	17.0	15.5	14.9	13.9	13.1	12.7	12.4	13.3	-7.4
20세 미만	1.7	1.5	1.3	1.1	1.0	0.9	0.5	0.4	0.4	0.5	-1.3
20~24세	55.9	51.2	42.7	36.6	32.0	26.9	22.1	17.4	15.8	15.9	-40.0
25~29세	106.0	90.4	76.5	64.8	58.6	52.4	47.2	43.3	40.6	39.6	-66.4
30~34세	97.2	89.8	78.4	71.3	67.7	64.1	60.9	62.4	63.3	75.0	-22.2
35~39세	36.4	36.8	35.3	33.6	33.0	31.0	30.1	30.8	31.2	33.5	-2.9
40~44세	4.2	4.4	4.4	4.6	5.2	5.4	5.9	6.4	6.9	7.4	3.1
45세 이상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교육수준별 출산율(1천 명당 명) - 대졸											
15~49세	42.0	38.8	34.0	31.2	28.8	25.8	25.0	24.3	22.5	23.5	-18.6
20세 미만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20~24세	5.4	4.8	3.7	3.0	2.4	2.0	1.5	1.4	1.3	1.2	-4.2
25~29세	57.1	51.5	43.5	37.2	31.8	26.6	23.8	20.4	17.8	17.2	-39.9
30~34세	122.2	114.6	100.7	93.8	87.7	79.2	76.1	73.1	65.5	68.2	-54.0
35~39세	52.1	52.0	50.1	48.6	46.5	43.0	44.2	44.6	43.1	45.5	-6.6
40~44세	6.3	6.6	6.6	6.8	7.3	7.3	7.6	8.0	7.6	7.2	0.8
45세 이상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교육수준별 출산율(1천 명당 명) - 대학원											
15~49세	49.0	45.3	40.7	37.7	35.3	31.8	31.5	30.2	27.3	29.3	-19.7
20~24세	3.6	2.7	2.2	1.9	0.8	0.7	1.1	1.1	0.5	0.7	-3.0
25~29세	36.8	32.9	28.5	22.9	20.3	18.4	16.1	14.9	12.7	12.9	-23.9
30~34세	115.1	111.4	103.1	97.9	91.7	81.8	80.3	76.1	66.4	70.3	-44.8
35~39세	60.8	59.6	57.0	56.1	56.1	53.6	56.8	57.0	54.6	60.6	-0.2
40~44세	9.8	9.3	9.3	10.1	10.2	10.1	10.4	10.4	9.9	10.1	0.3
45세 이상	0.3	0.2	0.2	0.3	0.2	0.3	0.3	0.4	0.4	0.4	0.1
교육수준별 15~49세 인구수(단위: 만 명)											
고졸 이하	499.9	478.3	454.1	427.5	401.2	374.4	348.1	325.7	305.1	284.7	-43.1%
대졸	711.8	720.4	727.5	732.3	735.5	738.3	740.2	740.1	739.6	738.8	3.9%
대학원	67.9	69.1	70.4	71.4	72.2	73.0	73.7	74.4	75.1	75.6	11.4%

주: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교육수준별 연령대별 인구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연도별 주민등록통계인구와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2015, 2020년)를 이용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수준별 인구 비중을 공표하지 않는 연도 자료는 선형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함. 출산율 산출의 분모가 되는 '21~'24년 교육수준별 연령별 인구수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1993~2024),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_1&conn_path=I2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0, 성, 연령 및 교육정도, 교육상태별 인구(6세이상, 내국인)-시군구,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모(母)의 직업별 출생아 수 추이 중 2024년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1차 공표에서는 누락되어 2015~2023년까지의 자료로 제시하였다. 인구동향자료에서 출산모가 보고한 직업을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기타 직업, 가사 및 학생 등의 비경활인구로 구분했을 때, 2015~2024년간 여성 고용률의 증가 등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모(母)의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서비스직·농림어업·기능·단순노무 등의 직업을 가진 출산모의 출생아 수는 2015년 대비 2023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리직 및 사무직 출산모의 출생아 수는 약간 감소해 왔다.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관리직과 사무직, 서비스직 등의 출산모의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동향조사 자료에서 출산모의 직업은 자기보고 자료로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2024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관리직 및 전문직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일·가정 양립 등의 여건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팬데믹의 영향 및 출산율 감소세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26〉 모(母)의 직업별 출생아 수 추이(2015~2024년)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체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모(母)의 직업별 출생아 수(만 명)										
관리직/전문직	7.2 4.7%	6.9 -4.0%	6.2 -10.4%	5.9 -5.3%	5.6 -5.0%	5.7 2.4%	5.7 0.2%	5.8 0.9%	6.0 4.0%	-
사무직	6.4 3.2%	6.0 -6.0%	5.3 -11.8%	5.9 10.6%	5.6 -5.8%	5.1 -7.8%	5.2 1.3%	5.2 0.2%	5.3 0.9%	-
서비스직 등	3.3 11.2%	3.2 -3.1%	2.9 -11.6%	4.0 73.2%	4.9 -1.8%	4.5 -8.2%	4.3 -3.4%	4.5 3.3%	4.7 6.1%	-
가사/학생	26.5 -2.2%	23.9 -10.0%	20.0 -16.3%	14.8 -26.1%	13.2 -10.8%	10.9 -17.0%	9.9 -9.7%	8.6 -13.0%	6.1 -29.1%	-
직업별 출생아 수 비중										
관리직/전문직	16.6% 0.6%p	17.3% 0.7%p	18.1% 0.8%p	18.7% 0.6%p	19.1% 0.5%p	21.8% 2.7%p	22.8% 1.0%p	24.1% 1.2%p	27.2% 3.2%p	-
사무직	14.8% 0.4%p	15.1% 0.3%p	15.5% 0.4%p	18.7% 3.2%p	19.0% 0.3%p	19.5% 0.5%p	20.7% 1.2%p	21.7% 1.0%p	23.8% 2.1%p	-
서비스직 등	7.7% 0.7%p	8.1% 0.4%p	8.3% 0.2%p	15.7% 7.4%p	16.7% 0.9%p	17.0% 0.3%p	17.2% 0.2%p	18.5% 1.4%p	21.4% 2.9%p	-
가사/학생	61.0% -1.8%p	59.6% -1.4%p	58.1% -1.4%p	46.9% -11.2%p	45.2% -1.7%p	41.7% -3.5%p	39.3% -2.3%p	35.8% -3.6%p	27.6% -8.2%p	-
(참고) 15~49세 여성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57.2%	57.9%	58.5%	59.1%	59.2%	58.2%	59.2%	61.1%	62.3%	63.5%
실업률	4.4%	4.5%	4.4%	4.6%	4.4%	4.7%	4.2%	3.8%	3.2%	3.3%
고용률	54.7%	55.3%	55.9%	56.4%	56.6%	55.5%	56.7%	58.8%	60.3%	61.4%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연간자료(인가용),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RN.50149711.V2.9>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4년 자료 중 모의 직업구분은 현재 미공개)

제5절 소결

2015년 이후 급락세가 이어지던 출생아 수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감소 추세가 완화되다 2023년에 추가 하락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하였다. 로그 이차방정식 등을 기반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향후 2~3년간의 추가 관찰치가 필요하나 통계적으로 일시적 변동 범위 내에서 2024년의 출생아 수는 추세상 약한 반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이후에도 출생아 수 수준은 20만 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2023년이 역대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기저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절 효과 등을 제거한 분기와 월별 추세에서도 2020~2023년 기간은 출생아 수가 추세선의 아래에 위치하였으나, 2024년 2사분기 이후에는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의 출생아 수가 관측되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의 혼인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2023년에 발생한 일시적 저점에서 출생아 수가 추세상 정상화 혹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30대 초 인구의 증가로 인해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별 출산율이 가임여성 인구수 대비 출생아 수라는 정의에 기반해 전년도 인구 및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기대하는 출생아 수와 실제 출생아 수를 비교하여, 전년 대비 출생아 수의 증감이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와 출산율의 변화 중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증가(약 8.3천 명)는 15~49세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가 출생아 수를 감소(-10.7%)시켰으나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가 증가(110.7%)한 결과이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의 출산율 변화가 약 6천 명, 35~39세 출산율 변화가 약 4.6천 명, 30~34세 인구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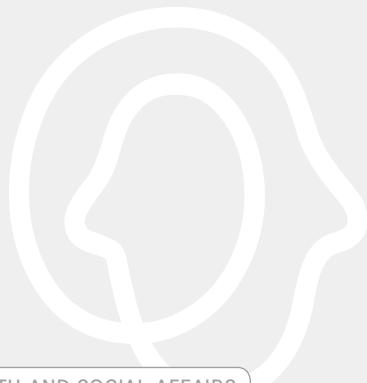
2.2천 명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으나, 35~39세의 인구 감소가 1.8천 명, 25~29세의 인구 및 출산율 변화가 1.8천 명의 출생아 수 감소로 작용했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며 반등을 이끌었다. 이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 첫 출산 또는 추가 출산을 연기했던 부분이 해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 건수 증가(2022년 이후 30대 인구 및 혼인율 증가)가 약 2.5년의 시차를 두고 2024년 2사분기부터 30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출산율 증가는 주로 30대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30~34세 출산율은 2023년 대비 5.6% 증가했고, 35~39세 출산율도 7.0%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출산이 2024년에 들어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실제 결혼생활-출산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2년 이내의 출산 비중이 증가한 것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2023년보다는 증가했으나 2022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팬데믹 전기와 영향기와 비교해 봤을 때 35~39세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출산 연기는 지속되고 있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연령의 증가로 인한 템포 효과를 제외한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정 합계출산율은 산식상 2025년 자료를 포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출산연령의 증가로 인한 구조적 지연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2024년까지의 출산연령을 활용하여 내부 검토한 결과에서는, 연령 조정 후에도 30대 초반에는 회복된 출산 행태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첫째아와 둘째아에서는 여전히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져 구조적 출산 지연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을 단순히 수치적인 증가로만 본다면 회복세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 고용지표, 주거 및 정책 등의 추가 지표가 미쳤을 영향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024년의 전년 대비 3.6%의 출생아 수 증가는 구조적 반등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우나, 팬데믹 시기의 기저 효과와 출산 시기 조정의 정상화 등을 통한 회복 과정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혼인 건수의 회복과 신혼부부 등 출산 가능군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혼인-출산의 이행을 포함한 심층 분석은 제3장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출생아 수 반등을 위해서는 초혼율과 첫째아 출산율이 일시적 회복 수준에서 증가세로의 확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혼인과 출산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들이 최근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해당 요인들이 30대 초반 코호트의 출생아 수 반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제5장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의 일부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3장

출생아 수 증가의 인구-혼인-출산율 변화 분해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3절 출생아 수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

제4절 2023~2024년 출생아 수 증가 요인 분해

제5절 2024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요인 탐색

제6절 소결

제3장 출생아 수 증가의 인구-혼인-출산율 변화 분해

이번 장에서는 제2장의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혼인-출산 이행에 추가하여 출생아 수 증가에서의 여성인구의 증가, 혼인 이행의 변화,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을 추정하여 2024년 출생아 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 개요

2024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에 비해 0.03 높아진 0.75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38,31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89명(3.6%) 늘었다.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60,9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2024년에 나타난 출생아 수 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하락 추세에 반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마침내 출산율 반등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도 제기된다.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2025년에 들어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출생아 수 반등이 그간의 정부 정책 효과를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2024년의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의 시작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30대 여성인구의 증가, 팬데믹 기간 미루어 왔던 결혼과 출산의 실현 등 비교적 일시적인 인구학적 요인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를 전망하기보다, 어떤 요인 때문에 2024년 출생아 수가 반등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출생아 수 증가를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로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장기적인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이철희, 2023b)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임기 여성인구의 변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비중 변화, 무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 등의 요인이 한 해 동안의 출생아 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초 출생아 수 증가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적되는 2022년과 2023년의 결혼 증가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길게는 2015년 이후, 짧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많은 사람이 결혼을 미루었던 것이 이 기간 결혼 증가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배우 여성 인구의 결혼 경향이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시기 결혼 증가로 인해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이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할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여성 비율이 낮아진 현상의 영향도 살펴본다.

이번 장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방법과 여기에 이용되는 변수 생성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3절은 출생아 수를 구성하는 각 인구학적 요인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제4절은 출생아 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제5절은 2021년

이후 결혼 증가의 원인과 그것이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4절에 제시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규명한다.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1.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방법

이철희(2023b)의 연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아 수의 변화를 ① 연령별 가임기 여성인구 변화, ②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변화, ③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 ④ 연령별 무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 등의 요인들로 분해한 바 있다. 그 방법은 선행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그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특정한 연도의 출생아 수는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B^a)를 전체 연령에 대해 더한 것이고, 이는 (식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령별 출산율(B^a/P^a)과 연령별 여성인구(P^a)의 곱을 합산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식 1) \quad TB_t = \sum_{a=15}^{49} \left(\frac{B_t^a}{P_t^a} \right) P_t^a$$

그리고 각세별 여성의 출산율은 해당 연령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무배우 여성 출산율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특정한 연도(t)의 출생아 수(TB)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식 2)} \quad TB_t &= \sum_{a=15}^{49} \left[\left(\frac{M_t^a}{P_t^a} \right) \left(\frac{B_{M,t}^a}{M_t^a} \right) + \left(1 - \frac{M_t^a}{P_t^a} \right) \left(\frac{B_{N,t}^a}{P_t^a - M_t^a} \right) \right] P_t^a \\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P_t^a
 \end{aligned}$$

이 식에서 t 는 연도, a 는 연령, P 는 여성인구, M 은 유배우 여성 인구, B_M 은 유배우 여성 출산아 수, B_N 은 무배우 여성 출산아 수, m 은 유배우 여성 인구 비율, f_m 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 f_n 은 무배우 여성 출산율을 나타낸다.

각세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출생순위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가중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식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연령의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는 해당 연령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의 세 번째 이상 자녀 출산율과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가중치(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여성, 한 자녀 여성, 둘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비중)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식 3)} \quad TB_t &= \sum_{a=15}^{49} [m_t^a (\omega_{0,t}^a f_{m0,t}^a + \omega_{1,t}^a f_{m1,t}^a + \omega_{2,t}^a f_{m2,t}^a) \\
 &\quad + (1 - m_t^a) f_{n,t}^a] P_t^a
 \end{aligned}$$

이 식에서 ω_0 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 가중치, ω_1 는 한 자녀 유배우 여성 가중치, ω_2 는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가중치, $f_{m,0}$ 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f_{m,1}$ 는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 $f_{m,2}$ 는 둘 이상 자녀 유배우 여성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 f_n 은 무배우 여성 출산율을 나타낸다.

출생아 수 변화 분해는 특정한 인구학적 요인이 기준 시점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을 가상의 출생아 수 변화와 실제 출생아 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연령별 여성인구의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편의상 기준 시점을 $t=0$, 비교 시점을 $t=T$ 라고 하자. T 기의 실제 출생아 수는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4) \quad TB_T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P_T^a$$

기준 시점($t=0$)의 각세별 여성인구(P_0^a)가 T 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 출생아 수는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5) \quad TB_T(P)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P_0^a$$

연령별 여성인구의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에 기여한 몫은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6) \quad \Delta TB(P) = TB_T - TB_T(P)$$

그리고 연령별 여성인구의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는 (식 7)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7) \quad \Delta TB(P_0) / \Delta TB = [TB_T - TB_T(P_0)] \times 100 / [TB_T - TB_0]$$

이와 같은 분해는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나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가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유배우 여성 비율이 기준 시점 이후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 시점의 출생아 수는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8) \quad TB_T(m) = \sum_{a=15}^{49} [m_0^a f_{m,T}^a + (1 - m_0^a) f_{n,T}^a] P_T^a$$

그리고 위의 (식 7)과 (식 8)을 변형하여 특정한 연령의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가 출생아 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해 방법은 특정한 연령의 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유배우 여성 출산율,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준 시점의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 시점의 가상적 출생아 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2. 자료

앞에서 설명한 출생아 수 분해의 각 요소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각 연도의 연령별 여성인구,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연령별 무배우 여성 출산율 등이다. 이 가운데 연령별 여성인구는 국가데이터처의 성별·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⁵⁾과 연령별 추계인구⁶⁾(장래인구추계, 2022년 추계)를 이용하여 총조사 연도(2015년과 2020년)에 대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총조사 표본으로부터 각 총조사 연도의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을 추정하고 여기에 연령별 여성인구를 적용하여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인구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여성인구의 연령별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출생순위별 출산 수 등을 이용⁷⁾하여 총조사 연도 사이 기간의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을 추정하였다⁸⁾.

예컨대 $t+1$ 기의 연령 $a+1$ 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는 t 기의 연령이 a 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에 t 기부터 $t+1$ 기까지의 해당 연령의 여성 혼인 건수를 더하고, 이혼 건수와 첫째 자녀 출산 수를 빼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내삽(interpolation) 시행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크기는 기준 시점인 총조사 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였다. 즉 T 기를 총조사 연도라고 할 때, 위에서 설명한 내삽 방식으로 추정한 $T+5$ 기의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와 $T+5$

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 2015, 2020. 2% 표본 인구(제공).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01503.V1.1>

6) “장래인구추계.”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7)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혼인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13504.V3.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5-2024, 이혼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13502.V3.1>

8) 해당 자료를 통합하여 제3장의 표와 그림을 구성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함.

기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에서 얻은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과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없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3절 출생아 수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

1. 분석의 개요 및 출생아 수 변화 추이

이번 절에서는 제2절에서 소개한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임기간은 15세부터 49세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제2절에서 소개된 출생아 수 변화 분해 식에는 15~49세 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유배우 여성 출산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세 미만 여성의 출생아 수는 매우 적어서 이 연령대 여성의 출생아 수 변화를 세밀한 요인으로 분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의 실제 분석에서는 20~49세 여성인구의 출생아 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⁹⁾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심한 일부 인구학적인 요인들의 경우에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단순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39세 여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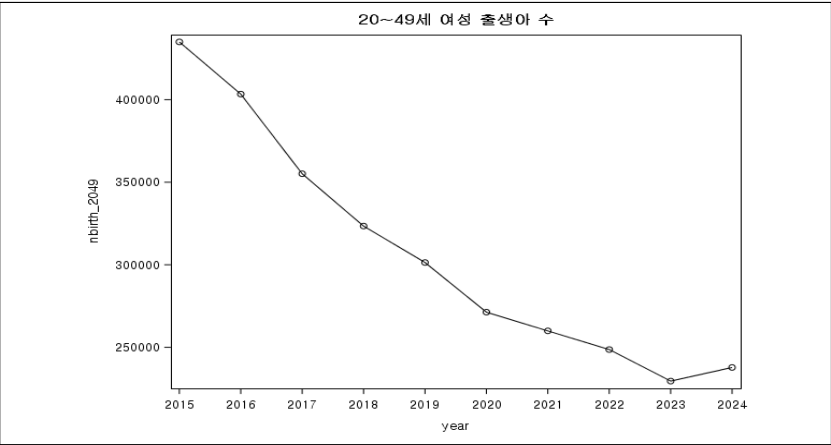
[그림 3-1]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0~49세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43.5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

9) 분석 기간, 20세 미만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의 비율은 1% 미만이었음. 예컨대 2021년에는 약 0.2%에 불과했음(국가데이터처, 2025. 2. 26).

10) 분석 기간, 대다수 출생아가 25~39세 여성에게서 태어났음.

는 이후 8년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 약 23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가장 오랜 기간 연속 하락 기록이다. 출생아 수는 2024년에는 9년 만의 반등을 보이며 23.8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2022년 출생아 수인 약 24.9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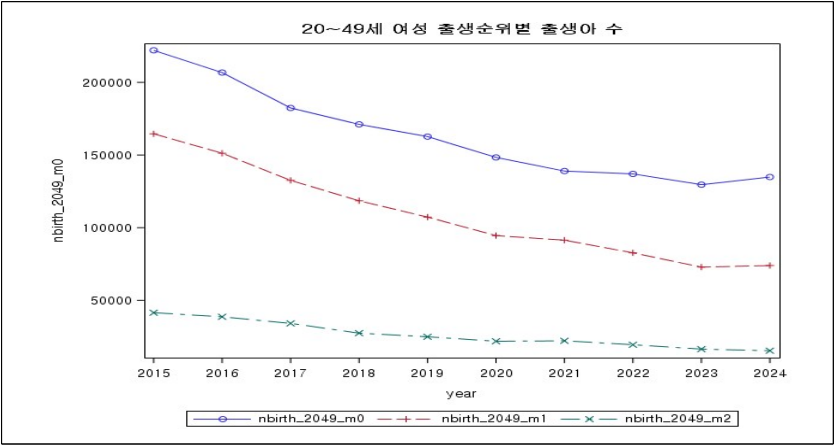
[그림 3-1] 2015~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는 유배우 여성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를 보여준다. 2023년까지 모든 순위 출생아 수가 모두 감소했으나, 특히 첫째와 둘째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의 출생아 수 증가는 주로 첫째아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20~49세 유배우 여성의 첫 번째 출생아 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5,200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 수 증가분의 3분의 2를 설명한다. 20~49세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출생아 수는 이전의 감소 추세를 멈추기는 했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00명 증가했을 뿐이다.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반등하지는 않았다.

[그림 3-2] 2015~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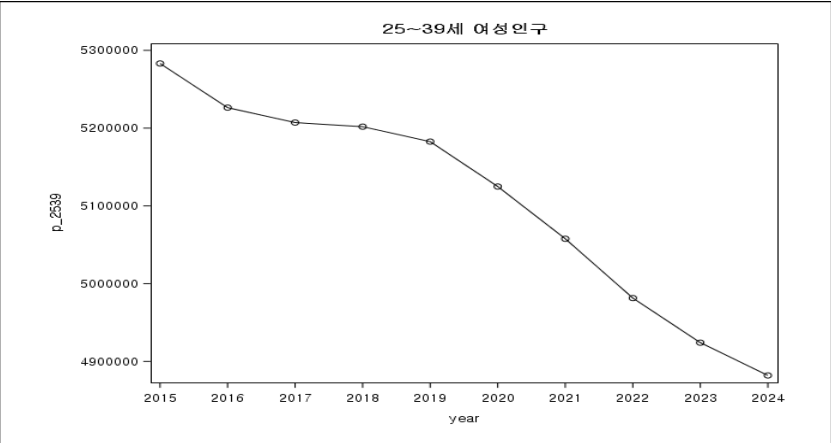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

그렇다면 어떤 인구학적 요인들이 이러한 추이의 출생아 수 감소를 가져왔을까?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이다. [그림 3-3]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5~39세 여성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1년 약 528만 명이었던 이 연령층 여성인구는 줄곧 감소하여 2023년 492만 명, 2024년 48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인구 변화는 2023~2024년 기간을 포함하여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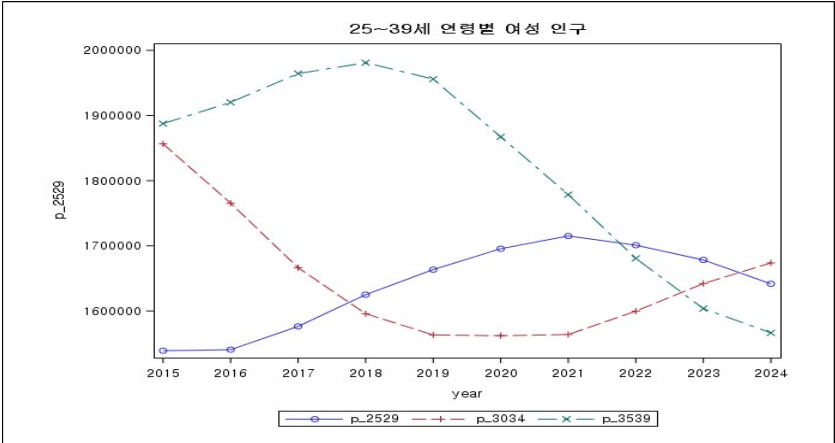
[그림 3-3] 2015~2024년 25~39세 여성인구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여성인구 변화 추이는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4]에 25~29세, 30~34세, 35~39세 여성인구 변화를 따로 제시하였다. 30대 후반 여성인구는 2018년부터 줄곧 감소해 왔고, 20대 후반 여성인구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약 156만 4천 명이었던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2024년 167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30대 초반이 현재로서 결혼과 출산의 주 연령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연령대 여성인구의 증가는 출생아 수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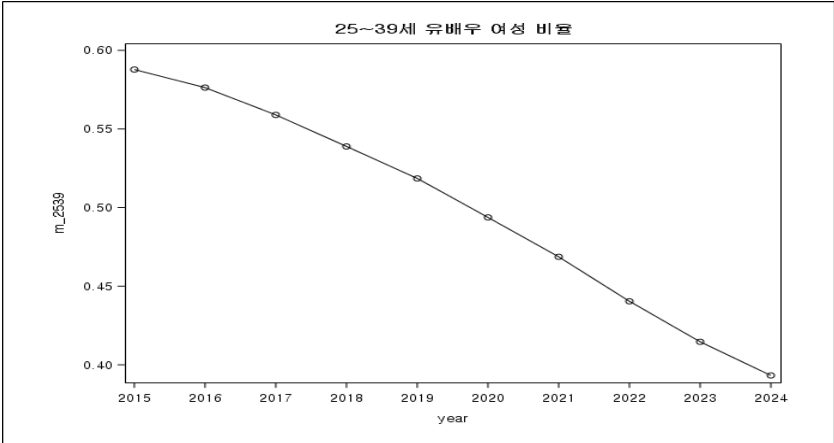
[그림 3-4] 2015~2024년 25~39세 5세 연령층별 여성인구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유배우 여성 비율이다. [그림 3-5]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5~39세 여성 중 유배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결과는 비혼 혹은 만혼 경향의 강화로 인해서 연령층 여성인구 중 유배우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15년 58.8%였던 25~39세 유배우 여성 비율은 줄곧 감소하여 2024년에는 약 39.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이는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도 유지되었다. 2022년 이후 결혼이 증가했으나,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추이를 전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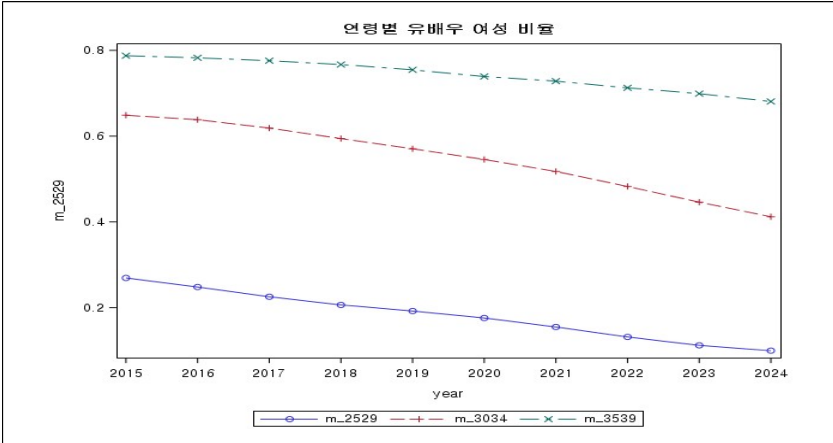
[그림 3-5] 2015~2024년 25~3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에 제시된 세 연령층 유배우 여성 비율 변화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는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은 2015년 26.9%에서 2021년 10.0%로 16.9% 포인트 감소하였고,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64.7%에서 41.2%로 23.5% 포인트 떨어졌다. 각 연령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추이 역시 2023년과 2024년 사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여건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폭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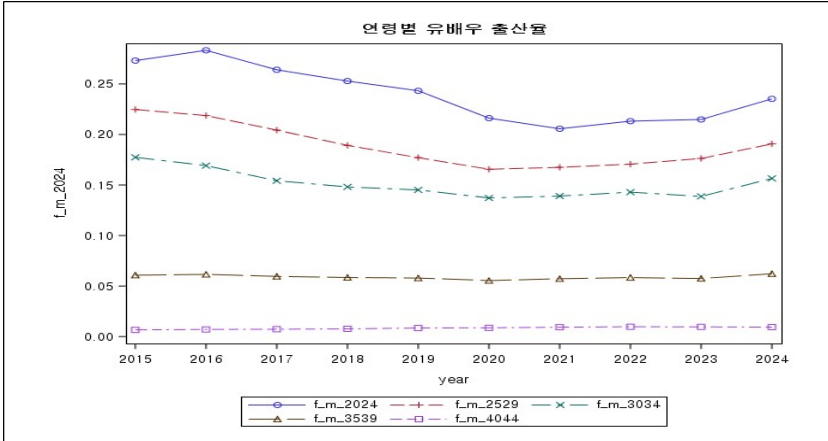
[그림 3-6] 2015~2024년 25~39세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다. [그림 3-7]은 2015~2024년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는 2015년부터 2020년 혹은 2021년까지는 핵심적인 가임기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 혹은 2021년부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알려준다. 즉 20대 초반은 2021년부터, 20대 후반은 2020년부터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2020년부터 증가하다가 2022~2023년 감소하였고, 2023~2024년 다시 높아졌다. 2023~2024년 기간은 이전에 비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2023년 13.9%에서 15.7%로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3-7] 2015~2024년 25~39세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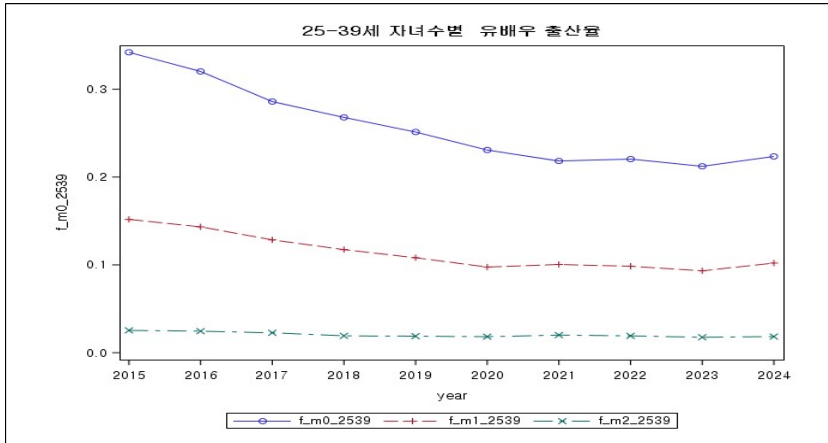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유배우 여성 출산율 구성 요인의 변화

제2절의 분해 방법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로 나누었다. 이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가 달랐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3-8]은 2015~2024년 기간에 대해 자녀수에 따른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추이는 연령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유사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결과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무자녀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과 한 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 것이다. 앞의 [그림 3-2]가 보여주듯이 둘째아 출생은 늘지 않았지만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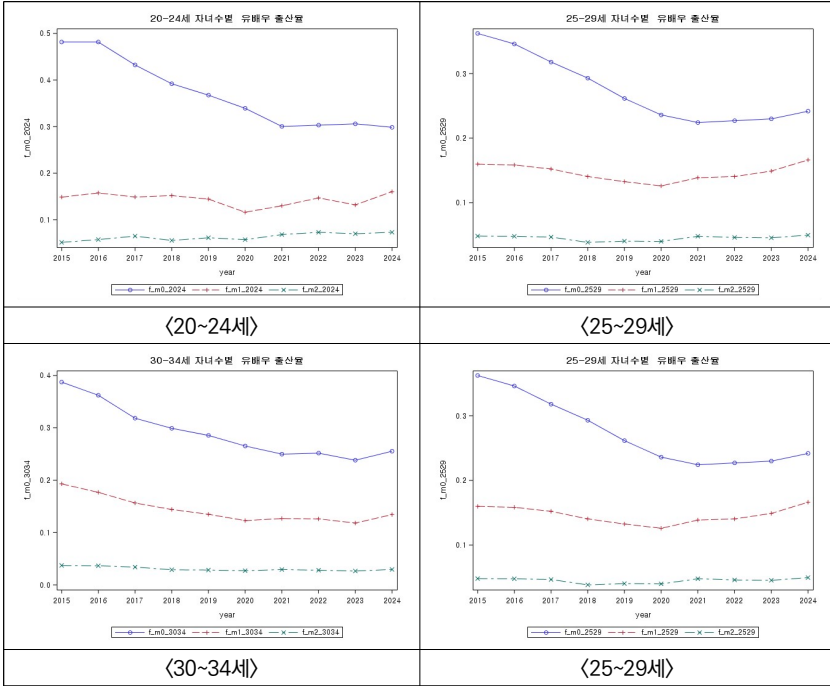
[그림 3-8] 2015~2024년 25~3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부터 [그림 3-12]까지는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4개 연령층 각각에 대해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를 보여준다. 각 연령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 추이는 [그림 3-8]에 제시된 25~3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20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이 2020년 혹은 20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데 비해, 30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은 2020년 혹은 2021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다가 2023년 이후 높아졌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 증가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9] 2015~2024년 연령대별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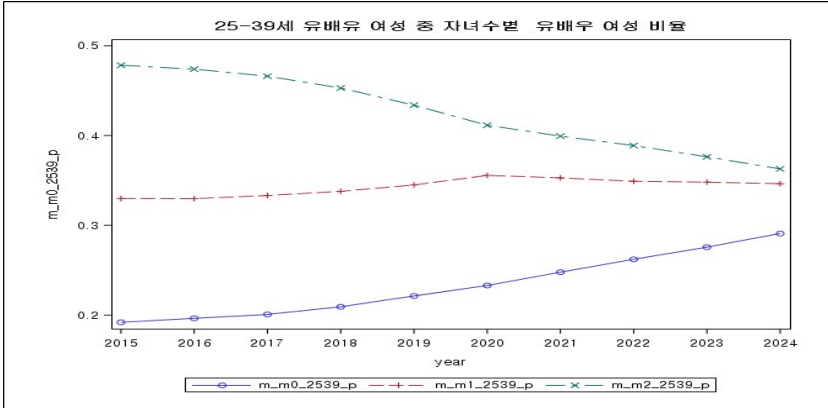
이번 장의 분석이 출생아 수 변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유배우 여성 가운데 각 자녀수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는 (식 3)의 각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앞에 제시된 결과는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즉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가장 높고,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이 그보다 낮으며, 둘 이상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다른 조건(예컨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주어져 있을 때 각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가중치 변화는 전체적

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전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3-10]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5~39세 유배우 여성 중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몇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둘 이상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의 약 48%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약 38%로 떨어졌다. 둘째,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셋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다. 유배우 여성에서 같은 연령층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19%에서 2024년 약 28%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추세는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비중 변화는 다른 조건이 유지되었을 때 전체적인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다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크게 줄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인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의 일부분은 이와 같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구성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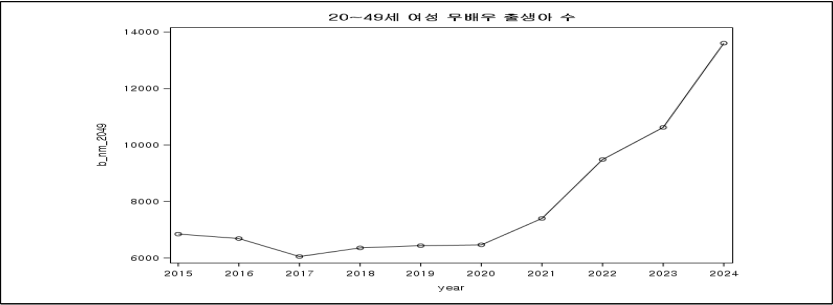
[그림 3-10] 2015~2024년 25~39세 유배우 여성 중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인은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변화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어 왔던 국가로, 무배우 여성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도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혼외 출산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근래에 들어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11]는 2020년까지 7,000명을 넘지 않았던 연간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가 이후 4년간 약 2배 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는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전 기간과 달리 무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가 출생아 수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11] 2015~2024년 20~49세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4절 2023~2024년 출생아 수 증가 요인 분해

1. 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효과

이번 절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을 수량적으로 분석한다. <표 3-1>은 (식 3)을 이용하여 2023~2024년 기간에 대해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변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제시해 준다. 이 표에서 ‘△B 기여’는 분석 기간에 해당 요인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효과(출생아 수 증가 혹은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 ‘기여도’는 출생아 수 감소에 기여한 정도(전체 출생아 수 증가 대비 %)를 나타낸다.

<표 3-1> 2023~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변화 분해

구분	2023~2024년 (△B: 8,226)	
	△B 기여	기여도(%)
① 전체 가임기 여성인구	-762	-9.26
20~24세 여성인구	-292	-3.55
25~29세 여성인구	-738	-8.97
30~34세 여성인구	2,166	26.33
35~39세 여성인구	-1,670	-20.30

구분	2023~2024년 (△B: 8,226)	
	△B 기여	기여도(%)
40~44세 여성인구	-216	-2.63
45~49세 여성인구	-12	-0.14
② 전체 유배우 여성 비율	-14,545	-176.82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	-423	-5.14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	-3,875	-47.11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	-8,559	-104.05
35~39세 유배우 여성 비율	-1,552	-18.86
40~44세 유배우 여성 비율	-135	-1.65
45~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0	0.00
③ 전체 유배우 여성 출산율(〈표 3-2〉의 ⑥+⑦)	19,861	241.45
20~2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335	4.07
25~2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2,363	28.72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12,416	150.93
3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5,086	61.83
40~4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382	-4.65
45~4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44	0.54
④ 무배우 여성 출산율	2,534	30.81
⑤ 오차항	1,138	13.83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는 주지하듯이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기여도가 양수이면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고, 음수이면 출생아 수 증가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에 제시된 결과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였음을 보여준다.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효과(〈표 3-1〉의 ③)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효과(〈표 3-2〉의 ⑦)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의 효과(〈표 3-2〉의 ⑥)를 합친 것이다.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의 효과는 제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산율 수준이 다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를 나타낸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20~49세 여성의 출생아 수는 8,226명 증가했다. 그런데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출생아 수 증가 규모는 실제 출생

아 수 증가의 2.4배에 달하는 19,861명으로 추정되었다(〈표 3-1〉의 ③). 특히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의 효과가 컸다. 이 연령층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의 1.5배에 달하는 12,416명으로 추정되었다. 30대 후반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 규모의 약 62%인 5,086명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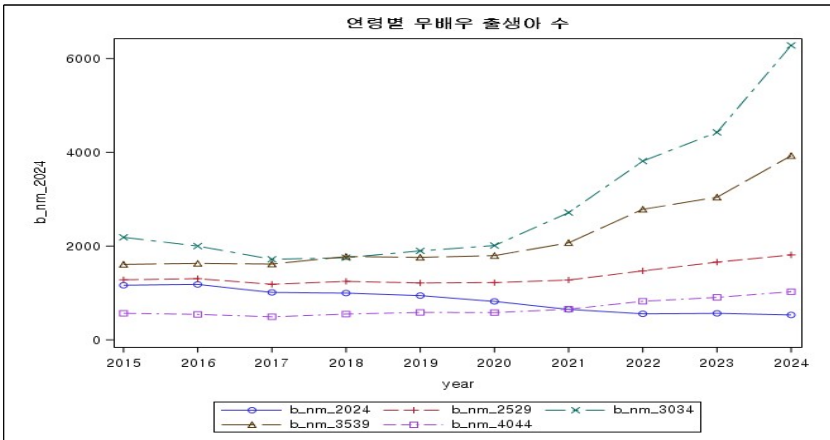
다만,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의 효과로 상쇄되었다(〈표 3-1〉의 ②). 2023년과 2024년 사이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는 출생아 수를 14,545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표 3-1〉의 ②). 여기에는 30대 초반의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가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연령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는 출생아 수를 8,559명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대 후반의 유배우 여성 비율 저하는 출생아 수를 3,875명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의 영향이 없었다면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의 ①). 전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약간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를 762명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효과가 서로를 상쇄한 결과이다(앞의 [그림 3-4] 참고).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를 2,166명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다른 연령층 여성인구 감소의 효과로 대부분 상쇄되었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1,670명 감소시킨 중요한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1〉의 ④ 항목은 20~49세 무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 요인은 출

생아 수를 2,534명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출생아 수 증가(전년 비 약 8천 명)의 31%에 달하는 규모이다.¹¹⁾ 이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그림 3-11]이 보여주듯이 2023년과 2024년 사이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가 빠르게 늘어난 효과를 반영한다. 과거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무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가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이철희, 2012, 2018, 2019, 2023a).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무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2]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는 연령별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2020년 이후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증가는 대부분 30대 여성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30대 초반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는 불과 4년 사

11)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상에서 2024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970명 증가.

이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20대 초반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고, 20대 후반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왜 유독 30대 여성 중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유배우 여성 출산율 구성요인 변화와 무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 효과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효과는 크게 두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영향이다. 이는 무자녀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한 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둘 이상 자녀 여성의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율 변화의 효과를 반영한다. 두 번째 요소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상대적 비중 변화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낸다.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했던 2012~2021년 기간을 보면,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끌어내렸고,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는 이를 일부 상쇄하여 유배우 여성 출산율 감소 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이철희, 2023b).

2023~2024년 기간에는 두 요소 모두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의 ⑤ 항목이 보여주듯이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출생아 수를 13,065명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전체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19,861명 증가)의 약 3분의 2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를 반영한다.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출생아 수를 9,217명 늘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30대 후반과 20대 후반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은 각각 2,658명과

1,993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의 변화 역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3-2>의 ⑥ 항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는 출생아 수를 6,797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3-12]에 드러나 있듯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작아진 효과를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30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0대 초반과 후반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는 출생아 수를 각각 3,199명과 2,428명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의 ⑥에서 ⑧까지 항목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로 인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요인의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기여는 각각 6,268명과 6,289명으로 거의 같았다. 그리고 두 요인의 기여 모두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를 반영한다. 30대 초반 무자녀 유배우 여성과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출생아 수를 각각 4,745명과 3,954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 이상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변화는 출생아 수를 508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2023~2024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변화 분해(계속)

구분	2023~2024년 (△B: 8,226)	
	△B 기여	기여도(%)
③ 전체 유배우 여성 출산율(⑥+⑦)	19,861	241.45
20~2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335	4.07
25~2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2,363	28.72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12,416	150.93
3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5,086	61.83
40~4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382	-4.65
45~4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44	0.54

구분	2023~2024년 (△B: 8,226)	
	△B 기여	기여도(%)
⑥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6,797	82.62
20~24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252	3.06
25~2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369	4.49
30~34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3,199	38.89
35~3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2,428	29.51
40~44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532	6.46
45~4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17	0.20
⑦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합(⑧+⑨+⑩)	13,065	158.82
20~2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82	1.00
25~2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1,993	24.23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9,217	112.04
3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2,658	32.32
40~4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914	-11.11
45~4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28	0.33
⑧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6,268	76.19
20~2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84	-1.02
25~2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1,108	13.47
30~3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4,745	57.68
35~3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863	10.49
40~4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379	-4.61
45~4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16	0.19
⑨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6,289	76.45
20~24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61	1.96
25~2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778	9.46
30~34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3,954	48.07
3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741	21.17
40~44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368	-4.47
45~4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23	-0.28
⑩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508	6.18
20~24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6	0.07
25~29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08	1.31
30~34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518	6.30
35~39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54	0.66
40~44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67	-2.02
45~49세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1	-1.13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5절 2024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요인 탐색

1. 분석의 개요

제4절의 분석 결과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출생아 수 증가는 주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나타났고,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역시 출생아 수 증가의 중요한 보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기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다음 세 요인이 각각 3분의 1씩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이고, 둘째는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이며, 셋째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비중 변화이다.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구학적 변화 가운데 연령별 여성인구 변화,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 등은 그 발생 원인이 비교적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그렇지 않다. 이 변수들은 2010년대 초 이후 10년간 감소해 오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왜 그러한 전환이 나타났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일부의 주장처럼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로 인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선호나 문화적인 규범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 요인의 영향은 추후 엄밀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탐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4절에서 수행한 분해에서 고려하지 않은 질적인 인구구

성의 변화로 인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짚어본다.

첫째로, 이전 시기에 누적된 결혼 지연 현상이 근래에 해소되면서 나타난 결혼의 증가가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경부터 8년 동안 계속해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가족을 형성할 의향은 있지만 이를 미룬 사람들이 누적되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지난 후 많은 사람이 미루었던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혼부부가 늘었고, 유배우 여성 인구 중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신혼부부가 늘면서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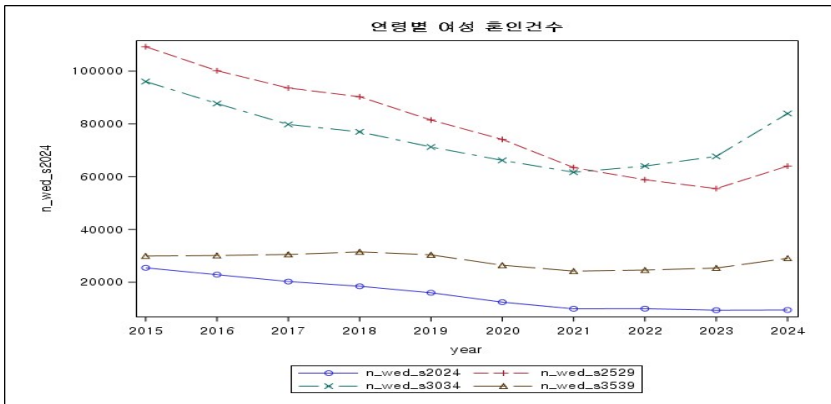
둘째로, 출산의 선택성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변하면서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의 대부분이 자녀를 낳았지만,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 현재는 25~39세 유배우 여성의 거의 30%에게 자녀가 없다.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은 유배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유배우 여성과 선호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아이를 낳고 키울 의향이 강하거나 그럴 여건이 양호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이는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2024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의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가설들과 부합하는 몇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2021년 이후 결혼 증가의 인구학적 요인

먼저 2024년 이전에 발생한 혼인 건수 증가와 이 시기 결혼 증가의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자. [그림 3-13]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별 여성 혼인 건수 변화를 보여준다. 여성 혼인 건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다. 분석 기간 초부터 적었던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고, 30대 후반 여성 혼인 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3-13] 2015~2024년 연령별 여성 혼인 건수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0대 초반 여성 결혼 건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였고, 특히 2023년과 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던 3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도 2021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 이와는 다르게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3년까지 줄곧 하락하였고, 2023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였다. 2021년부터 3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늘면서, 2023년에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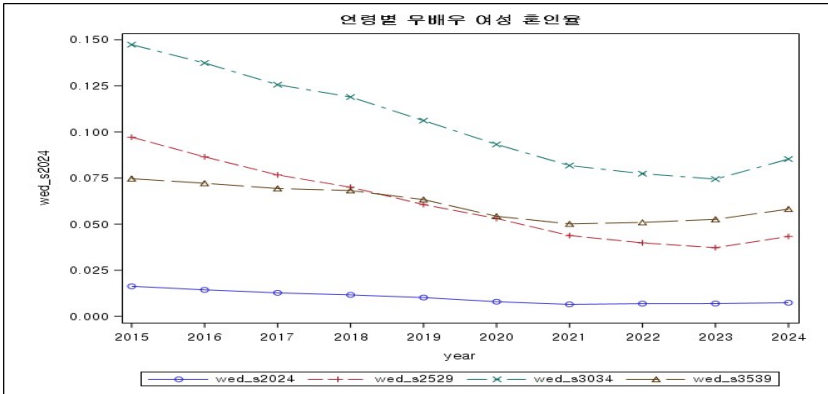
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 증가가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왜 2021년부터 3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혼인 건수는 두 가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변화이다. 결혼할 수 있는 여성 가운데 실제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혼인 건수가 증가한다. 둘째는 무배우 여성 인구의 변화이다.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인구가 늘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혼인 건수가 증가한다.

이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혼인 건수가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을 평가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만약 무배우 여성 혼인율이 높아졌다면 결혼 증가가 정책의 효과나 사회경제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대로 무배우 여성 증가에 기인했다면 이는 비교적 단기적인 인구 현상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혼 증가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무배우 여성 혼인율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3-15]에 제시된 결과는 [그림 3-14]이 보여주는 2021~2023년 나타난 혼인 건수 증가가 무배우 혼인율 증가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특히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 연령층의 무배우 여성 혼인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혼인 건수가 유지되었던 30대 후반의 무배우 여성 혼인율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혼인 건수가 줄었던 20대 후반의 경우 무배우 여성 혼인율 역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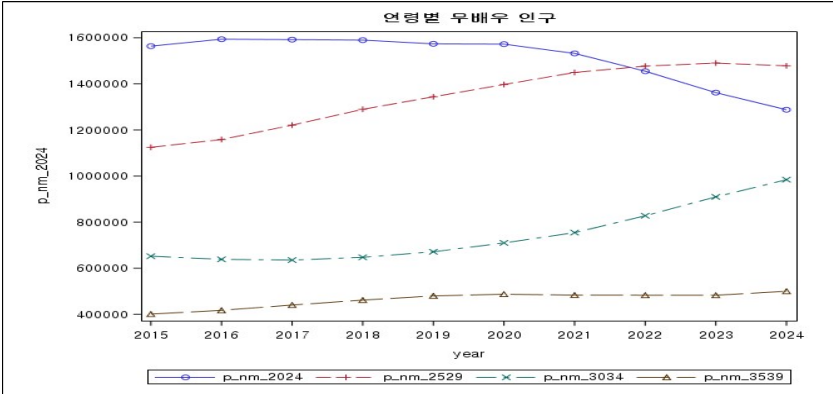
[그림 3-14]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무배우 여성 혼인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가 혼인 건수 증가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5]에 제시된 연령별 무배우 여성 인구 변화 추이는 이를 확인해 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초반 무배우 여성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무배우 여성 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0대 후반 무배우 여성 인구는 이 기간 완만하게 증가했고, 30대 후반 무배우 여성 인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대 초반 무배우 여성 인구는 감소하였다. 이 결과와 [그림 3-14]에 제시된 각 연령대 무배우 여성 혼인율 변화 추이는 혼인 건수 변화 추이를 잘 설명한다.

[그림 3-15] 2015~2024년 연령별 무배우 여성 인구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요컨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2021~2023년 혼인 건수 증가는 주로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증가는 무배우 여성 혼인율 상승이 아닌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된 결혼 감소와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결혼 증가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의 효과보다 근래에 발생한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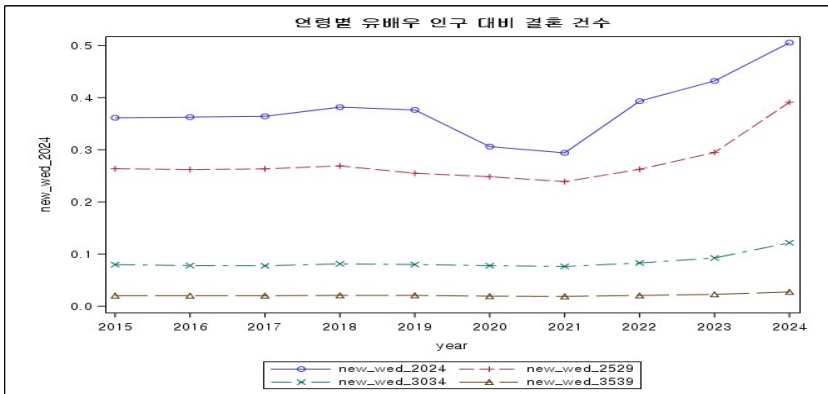
3. 결혼 증가와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

이제 2021년 이후 결혼의 증가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에 미쳤을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결혼 초기에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15년 신혼부부 통계를 분석한 한 연구는 신혼부부 비중이 높은 시

군구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이상림, 이지혜, 2018). 따라서 유배우 여성 인구 가운데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아지면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이후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 연령대 유배우 여성 가운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16]에 연령별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배우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에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비중을 나타낸다. 결과는 2021년을 기점으로 유배우 여성 중 ‘신혼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2021년 7.6%에서 2024년 12.2%로 증가했고, 30대 후반의 경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2.7%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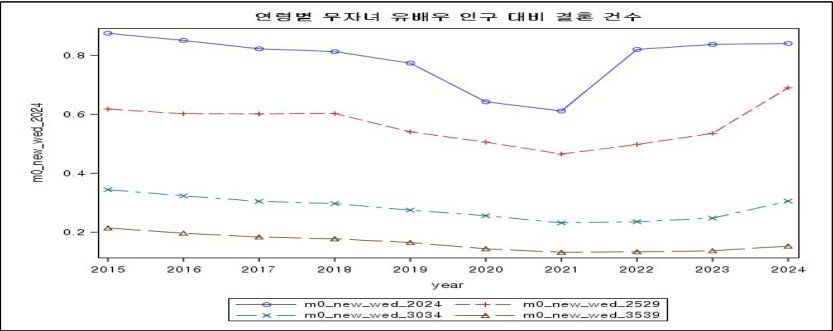
[그림 3-16] 2015~2024년 연령별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 비율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신혼 여성’의 증가는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17]은 결혼 증가로 인해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신혼 여성)’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는 전체 유배우 여성을 고려하는 경우보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 ‘신혼 여성’의 비중 증가 경향이 더 뚜렷해짐을 알려준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2021년 23.1%에서 2024년 30.5%로 높아졌고, 30대 후반의 경우 이 비율이 같은 기간 13.2%에서 15.3%로 올라갔다.

[그림 3-17] 2015~2024년 연령별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혼인 건수 비율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혼인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13504.V3.1>

이처럼 앞에 제시한 결과는 결혼의 증가로 인해 유배우 여성 중 ‘신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그 효과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추후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을 고려해도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 결혼 증가가 2024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의 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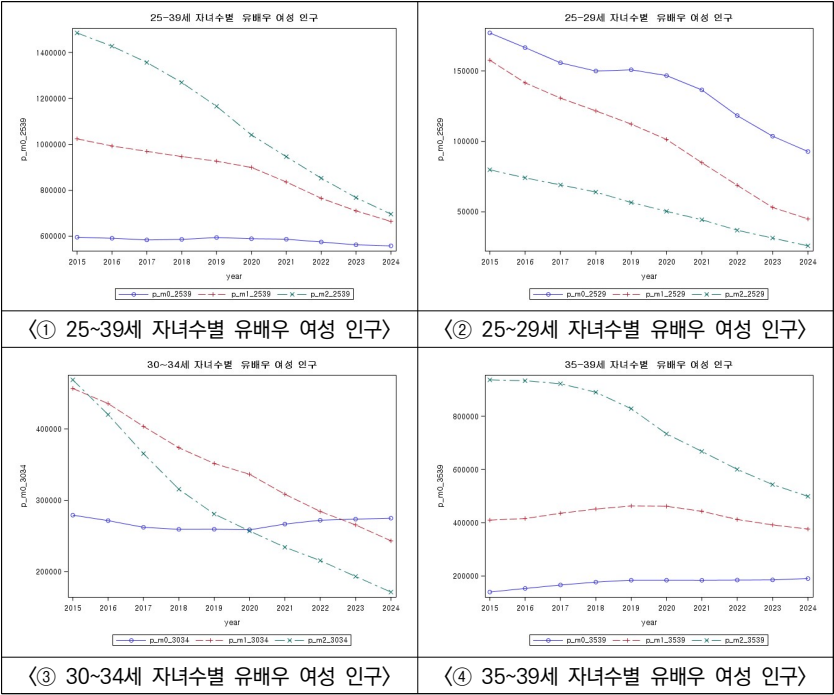
4. 출산 감소와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

제4절에서 제시된 결과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둘째아 출생아 수는 약 1,100명 늘었을 뿐이어서, 이는 그다지 주목받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변화가 출생아 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때는 없었다(이철희, 2023a).

현재로서는 왜 2024년에 이와 같은 새로운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출산 요인의 영향에 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장의 성격에 맞게 이러한 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구학적 요인 한 가지만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를 갖는 사람들의 선택성(selectivity) 증가이다.

[그림 3-18]의 ①은 2015년 이후 25~39세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의 감소 추이를 보여준다. 결과는 자녀를 하나라도 가진 유배우 여성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음을 알려준다.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45%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수는 약 30% 줄었다. 이는 결혼의 감소로 전체 유배우 여성 인구가 줄고, 유배우 여성 인구 가운데 자녀를 낳는 사람의 비율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림 3-18] 2015~2024년 연령대별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



출처: 제2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8] ②~④는 세 연령층에 대해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특히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2024년 현재 이 연령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수는 2015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30대 초반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30대 후반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수는 201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결혼한 후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선택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선호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재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자녀 양육 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선행 연구는 고소득·고학력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2000년대 초부터 소득 4분위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소득 1분위 여성 합계출산율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이철희, 2022; 이철희 외, 2023). 또한 2010년 이후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이철희 외, 2025). 이러한 선택성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제6절 소결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온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하여 2024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에 비해 0.03 높아진 0.75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전년에 비해 8,300명(3.6%) 늘었다. 오랜 하락 추세가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지만, 2024년의 출생아 수 증가가 왜 발생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현상이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의 시작인지, 혹은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는지 이해하는 일은 추후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장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출생아 수 증가를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로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초 출생아 수 증가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적되는 2022년과 2023년의 결혼 증가의 원인과 결과도 분석하였다. 아울러 자녀를 낳는 사람들의 선택성(selectivity) 증가의 잠재

적인 효과도 고려하였다.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해 결과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였음을 보여준다.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출생아 수 증가 규모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의 효과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의 효과로 상쇄되었다. 여기에는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가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의 영향이 없었다면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의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 효과는 다른 연령층 여성인구 감소의 효과로 대부분 상쇄되었다.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의 변화는 모두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 전체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의 약 3분의 2는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에, 나머지 3분의 1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이 두 요인의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기여는 거의 같았다. 그리고 두 요인의 기여 모두 30대 초반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를 반영한다.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도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요인의 출생아 수 증가 효과는 전체 출생아 수 증가(전년 대비 약 8천 명)의 3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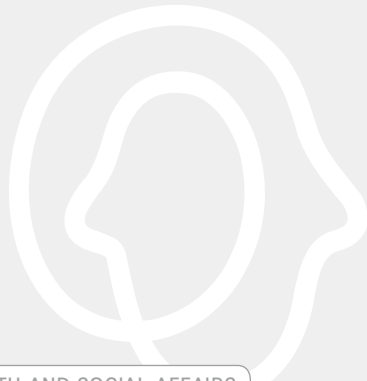
요컨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증가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율 증가였다. 유배우 여성의 자녀수별 비중 변화(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의 효과와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증가 역시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요인들의 출생아 수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은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로 상쇄되었다.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2021~2023년 혼인 건수 증가는 주로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 증가는 무배우 여성 혼인을 상승이 아닌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된 결혼 감소와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2023년 혼인 증가는 유배우 여성 가운데 ‘신혼 여성’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 중 ‘신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에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자녀 출산율을 높인 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2015년 이후 자녀를 하나라도 가진 유배우 여성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45%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수는 약 30% 줄었다. 결혼한 후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는 선택은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선호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자녀 양육 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선

태성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제4장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및 분석

제1절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개요

제2절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여건 분석

제3절 저출생 정책별 인지도 및 중요도

제4절 향후 출산 의향 및 최근 가치관 변화

제5절 소결

제4장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및 분석

제1절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개요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말 기준 만 25~44세 법률혼과 사실혼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과 비교 집단인 2024년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1,061명 등 총 2,064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표본 설계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인구총조사’의 25~44세 유배우(법률혼) 여성의 5세 단위 연령별·지역별 비중을 기준으로, ‘2024년 인구동향조사’의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표본을 설정하였다. 인구총조사의 유배우는 등록센서스 기반의 법률혼을 의미하나, 전체 사실혼 여성인구 통계는 알기 어렵고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미혼 또는 사실혼)의 비중이 5.8%인 점, 미혼의 출산 비중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구총조사의 유배우(법률혼) 비중을 표본 설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표본의 연령대별 비중은 2024년 25~44세 유배우(법률혼) 여성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인 25~29세 4.9%, 30~34세 20.1%, 35~39세 30.7%, 40~44세 44.3%와 일치한다. 여기에 2024년 출산자는 인구동향조사의 출산모(혼인 중 및 혼인 외 전체) 연령대별 분포를 반영하여 25~29세 14.1%, 30~34세 49.7%, 35~39세 30.0%, 40~44세 6.3%의 비중이 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2024년 출산모를 포함한 전체 25~44세 여성의 분포를 반영한 최종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설계하였다(표 4-2 참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로 약 14일간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항목은 ① 인구학적 특성, ② 2024년 출산 결정 이유 및 양육 여건, ③ 정책 체감도 및 영향, ④ 향후 출산 의향, ⑤ 혼인, 자녀, 가족 기능 관련 가치관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¹²⁾

〈표 4-1〉 조사 대상자(법률훈 및 사실혼 여성) 구분 및 대상자별 설문 구성

구분	'24년 출산자		'24년 미출산자	
	① '24년 첫 출산자	② '24년 추가 출산자	③ 무자녀	④ '24년 이전 출산자
(1) 인구학적 특성 가. 연령/교육수준 나. 혼인 상태 다. 가구원 수/자녀수/자녀 연령 라. 거주지/주거 여건 마.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수준	○	○	○	○
(2) '24년 출산결정이유 및 양육여건 가. 출산결정요인 및 영향력 나. 코로나19 영향 다. 정책지원 영향 라. 양육 환경 마. 일·가정 양립 현황	○	○		
(3) 정책 인지도 및 영향 가. 정책 인지도 및 중요도	○	○	○	○
나. 정책 체감도 변화		○		
(4) 향후 출산 의향 및 코로나 영향 가. 출산 의향 나. 출산 결정의 영향 요인 다. 코로나 영향	○	○	○	○
(5) 가치관 가. 결혼/자녀에 대한 생각 나.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	○	○	○	○

12) 설문문항 구성은 김지현 외(2024), 성평등가족부(2023), 박종서 외(2024) 등을 참고하였음.

2024년 말 기준 전체 응답자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7.6세이며, 2024년 출산자는 33.41세, 2024년 미출산자(기존 유자녀와 무자녀)는 37.92세이다.

혼인 상태는 법률혼이 전체 응답자의 87.9%, 사실혼이 12.1%이다. 혼인 연차 평균은 9.26년이며, 2024년 출산자는 평균 3.88년, 2024년 미출산자는 평균 9.69년으로 나타나, 2024년 출산자는 최근 혼인 후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동거 연차 평균은 9.55년, 2024년 출산자는 평균 4.56년, 2024년 미출산자는 평균 9.94년으로, 2024년 출산자가 2024년 미출산자에 비해 동거 기간도 짧았으나, 미출산자에는 기존 유자녀자와 무자녀자 중 일부 동거 기간이 상당히 높은 표본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응답자의 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2명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명(34.0%), 0명(23.2%), 3명 이상(6.4%)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출산자 중에서는 2024년에 첫 출산하여 자녀가 1명인 응답자가 70.7%로 가장 많았고, 2명(24.2%), 3명 이상(5.1%), 0명(0%) 순이었다. 2024년 미출산자에서는 2명(37.4%), 1명(31.1%), 0명(25.0%), 3명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마지막 출산 시기로는 1년 이내(24년 출산자) 7.2%, 1~2년 이내 6.3%, 2~5년 이내 17.2%, 5년 이상인 경우가 46.1%였다.

〈표 4-2〉 전체 응답자의 기초 인구학적 특성 요약표(2024년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미출산자 (기존 유자녀+무자녀)		x ²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2,064)	100.0	(1,003)	100.0	(1,061)	100.0	-
연령							
평균		37.6세		33.41세		37.92세	
25~29세	(191)	4.9	(142)	14.2	(49)	4.2	151.7
30~34세	(700)	20.1	(494)	50.0	(206)	17.8	***
35~39세	(635)	30.7	(303)	29.7	(332)	30.7	
40~44세	(538)	44.3	(64)	6.1	(474)	47.3	
혼인 상태							
사실혼	(246)	12.1	(112)	11.1	(134)	12.2	0.2
법률혼	(1,818)	87.9	(891)	88.9	(927)	87.8	
혼인 연차							
평균		9.26년		3.88년		9.69년	
1년 이내	(246)	6.9	(186)	20.7	(60)	5.8	174.9
1~2년 이내	(228)	6.5	(175)	19.5	(53)	5.5	***
2~5년 이내	(437)	13.9	(320)	36.3	(117)	12.2	
5년 이상	(907)	72.7	(210)	23.5	(697)	76.6	
동거 연차							
평균		9.55년		4.56년		9.94년	
1년 이내	(109)	4.3	(60)	5.9	(49)	4.2	190.5
1~2년 이내	(265)	5.8	(211)	20.9	(54)	4.6	***
2~5년 이내	(573)	15.1	(431)	43.2	(142)	12.9	
5년 이상	(1,117)	74.9	(301)	30.0	(816)	78.4	
자녀수							
0명	(279)	23.2	(0)	0.0	(279)	25.0	107.1
1명	(1,042)	34.0	(710)	70.7	(332)	31.1	***
2명	(627)	36.5	(242)	24.2	(385)	37.4	
3명 이상	(116)	6.4	(51)	5.1	(65)	6.5	
마지막 출산 시기							
없음	(279)	23.2	(0)	0.0	(279)	25.0	
1년 이내	(1,003)	7.2	(1,003)	100.0	(0)	0.0	-
1~2년 이내	(74)	6.3	(0)	0.0	(74)	6.8	
2~5년 이내	(198)	17.2	(0)	0.0	(198)	18.5	
5년 이상	(510)	46.1	(0)	0.0	(510)	49.7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2절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여건 분석

본 절에서는 2024년 출산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징이 미출산자와 다른지를 비교하고, 2024년 출산자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출산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2024년 출생아에 대한 양육 현황과 출산모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확인하였다.

1. 2024년 출산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징

2024년 출산자(〈표 4-3〉의 1-1과 2-1)를 2024년 미출산자(1-2와 2-2)와 비교하여 2024년 출산으로 이행한 집단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첫 출산자(1-1)와 추가 출산자(2-1)의 특징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2023년과 2024년 자녀 유무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눠서 비교 분석하였다. 즉 2023년 기준 무자녀(1)에서 2024년 첫 출산한 집단(1-1, 이하 2024년 첫 출산자)과 2024년 미출산하여 무자녀를 유지한 집단(1-2, 이하 무자녀자), 그리고 2023년 기준 유자녀(2)에서 2024년 추가 출산 집단(2-1, 이하 2024년 추가 출산자)과 2024년 추가 출산하지 않은 기존 유자녀 집단(2-2, 이하 기존 유자녀자)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모든 항목별 응답은 2024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출산자의 결과 지표로 볼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2024년 출산자(1-1과 2-1)의 연령과 배우자의 연령이 미출산자(1-2와 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첫 출산자(1-1)의 평균연령은 33.14세이며 비교 집단인 2024년 미출산 무자녀자(1-2)는 34.98세로 2024년 출산자가 약 1.7세 낮다. 배우자의 연령은 2024년 첫 출산자가 35.0세로 무자녀자

37.0세보다 약 2세 어렸다. 2024년 추가 출산자(2-1)와 2024년 미출산한 기존 유자녀자(2-2)와의 비교에서도, 2024년 추가 출산자는 34.18세, 기존 유자녀자는 38.91세로 24년 출산자의 연령이 더 어렸고, 배우자 연령도 2024년 추가 출산자가 36.6세로 기존 유자녀자 41.5세보다 낮았다. 2024년 첫 출산자(1-1)와 추가 출산자(2-1)의 연령 차이는 약 1세, 배우자의 연령 차이는 약 1.5세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첫 출산자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비중이 추가 출산자보다 높았다.

〈표 4-3〉 집단별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비교

(단위: 명, 세, %)

구분	전체		'23년 말 기준 무자녀(1)					x ²	'23년 말 기준 유자녀(2)					x ²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64)	100.0	(738)	100.0	(279)	100.0	-	(265)	100.0	(782)	100.0	-		
연령														
평균(세)		37.61		33.14		34.98			34.18		38.91			
25~29세	(191)	4.9	(115)	15.7	(32)	10.7	70.0 ***	(27)	10.1	(17)	2.0	88.7 ***		
30~34세	(700)	20.1	(376)	51.5	(108)	37.2		(118)	45.8	(98)	11.3			
35~39세	(635)	30.7	(211)	28.1	(85)	30.9		(92)	34.3	(247)	30.7			
40~44세	(538)	44.3	(36)	4.7	(54)	21.2		(28)	9.8	(420)	56.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38)	11.9	(71)	9.8	(33)	12.1	12.0 *	(42)	15.8	(92)	11.9	1.0		
전문대	(382)	18.0	(147)	20.0	(41)	14.6		(47)	18.6	(147)	19.0			
대학교	(1,241)	58.9	(463)	62.6	(172)	61.7		(153)	57	(453)	57.8			
대학원 이상	(203)	11.1	(57)	7.6	(33)	11.6		(23)	8.7	(90)	11.3			
배우자 연령														
평균(세)		40.02		34.95		37.00			36.58		41.47			
25세 미만	(5)	0.1	(4)	0.6	(0)	0.0	59.6 ***	(0)	0.0	(1)	0.1	93.5 ***		
25~29세	(108)	2.6	(61)	8.3	(18)	6.2		(22)	8.4	(7)	0.8			
30~34세	(469)	13.4	(267)	36.3	(84)	29.0		(66)	25.7	(52)	6.1			
35~39세	(641)	25.2	(282)	38	(89)	31.7		(94)	35.2	(176)	21.8			
40~44세	(585)	40.2	(92)	12.6	(64)	24.0		(60)	22.3	(369)	48.1			
45세 이상	(219)	17.8	(12)	1.6	(20)	7.7		(13)	4.9	(174)	22.7			
모름	(37)	0.8	(20)	2.6	(4)	1.4	(10)	3.5	(3)	0.4				
배우자 교육수준							2.9					1.6		
고등학교 이하	(345)	16.4	(118)	16.0	(53)	19.7		(56)	21.3	(118)	15.2			

구분	전체		'23년 말 기준 무자녀(1)				χ^2	'23년 말 기준 유자녀(2)				χ^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문대	(318)	15.9	(117)	16.2	(44)	15.5		(34)	13.9	(123)	16.1	
대학교	(1,175)	56.0	(435)	58.6	(159)	56.5		(142)	52.7	(439)	55.7	
대학원 이상	(226)	11.7	(68)	9.2	(23)	8.3		(33)	12.1	(102)	13.0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혼인 상태 및 자녀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첫 출산자(<표 4-4>의 1-1)는 무자녀자(1-2)와 비교하여 법률혼 비중이 높고, 평균 동거 연차와 혼인 연차는 짧았으며, 동거-혼인신고까지의 기간은 더 길고, 혼인 및 동거 만족도는 낮았다. 2024년 추가 출산자(2-1)와 기존 유자녀자(2-2)를 비교해 보면, 사실혼과 법률혼 비중은 유사하고, 동거 및 혼인 연차는 5년 이내 비중이 높고, 혼인 및 동거 만족도는 높았다. 자녀수는 2024년 추가 출산자는 2명이 81.1%, 3명 이상이 18.9%인데, 기존 유자녀자는 1명이 41.5%, 2명 49.9%로 상대적으로 기존 유자녀자가 2024년 추가 출산자보다 자녀수 1명의 비중이 높았다. 기존 유자녀자의 마지막 출산 시기는 최근 5년 이내가 약 3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4년 첫 출산자(1-1)와 추가 출산자(2-1)를 비교해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첫 출산자의 사실혼 비중이 높았으나, 그중 약 50% 정도는 2025년 8월까지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거 연차 및 혼인 연차는 낮았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동거-혼인신고 간의 기간은 첫 출산자(9.23개월)가 추가 출산자(5.6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혼인 연차별 추가 분석에서도 혼인 연차 1년의 경우 동거-혼인 기간이 평균 15.4개월, 2년 이내의 경우는 13.7개월, 2~5년의 경우 10.2개월 등으로 나타나 최근 연도로 올수록 동거-혼인신고의 기간이 길

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 후 출산의 비중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추가 분석 결과, 첫째아의 출생 연도에 따른 혼인 신고 후 출산 비중은 2021년생 부모의 경우 86.4%, 2022년생은 83.7%, 2023년생은 81.9%, 2024년생은 82.0%이다.

〈표 4-4〉 집단별 혼인 상태 및 자녀 출산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64)	100.0	(738)	100.0	(279)	100.0	-	(265)	100.0	(782)	100.0	-		
혼인 상태														
사실혼	(246)	12.1	(88)	11.8	(60)	21.0	17.0***	(24)	9.1	(74)	9.3	0.1		
법률혼	(1,818)	87.9	(650)	88.2	(219)	79.0		(241)	90.9	(708)	90.7			
동거 연차(년)														
평균	9.55		3.83		5.08			6.58		11.56				
1년 이내	(109)	4.3	(59)	7.9	(48)	16.2	84.5***	(1)	0.4	(1)	0.1	67.7**		
1~2년 이내	(265)	5.8	(205)	27.7	(50)	17.1		(6)	2.0	(4)	0.5			
2~5년 이내	(573)	15.1	(336)	45.6	(83)	30.2		(95)	36.6	(59)	7.1			
5년 이상	(1,117)	74.9	(138)	18.8	(98)	36.5		(163)	61.0	(718)	92.3			
혼인 연차(년)														
평균	9.26		3.06		4.66			6.09		11.14				
1년 이내	(246)	6.9	(184)	28.1	(59)	25.4	49.2***	(2)	0.8	(1)	0.1	78.1**		
1~2년 이내	(228)	6.5	(162)	24.7	(42)	19.3		(13)	5.6	(11)	1.5			
2~5년 이내	(437)	13.9	(219)	34.0	(54)	24.8		(101)	42.4	(63)	8.5			
5년 이상	(907)	72.7	(85)	13.2	(64)	30.5		(125)	51.2	(633)	89.9			
동거-혼인신고 기간														
평균	6.1개월		9.23개월		9.19개월			5.6개월		5.1개월				
혼인·동거 만족도(10점 만점)														
평균(점)	7.54		7.97		8.22			7.83		7.28				
1~3점	(88)	5.1	(28)	3.6	(5)	1.8	9.6+	(7)	2.7	(48)	6.3	2.5**		
4~7점	(698)	36.3	(219)	30.2	(70)	25.6		(93)	34.5	(316)	40.4			
8~10점	(1,278)	58.6	(491)	66.2	(204)	72.6		(165)	62.8	(418)	53.2			
자녀수														
0명	(279)	23.2	(0)	0.0	279	100.0	-	(0)	0.0	(0)	0.0	-		
1명	(1,042)	34.0	(710)	96.2	0	0.0		(0)	0.0	(332)	41.5			
2명	(627)	36.5	(27)	3.6	0	0.0		(215)	81.1	(385)	49.9			
3명 이상	(116)	6.4	(1)	0.1	0	0.0		(50)	18.9	(65)	8.6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χ^2	'24년 이전 유자녀(2)				χ^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마지막 출산 시기													-
없음 (279)	23.2	(0)	0.0	279	100.0	(0)	0.0	(0)	0.0	(0)	0.0		
1년 이내 (1,003)	7.2	(738)	100.0	0	0.0	(265)	100.0	(0)	0.0	(0)	0.0		
1~2년 이내 (74)	6.3	(0)	0.0	0	0.0	(0)	0.0	(74)	9.1	(0)	0.0		
2~5년 이내 (198)	17.2	(0)	0.0	0	0.0	(0)	0.0	(198)	24.7	(0)	0.0		
5년 이상 (510)	46.1	(0)	0.0	0	0.0	(0)	0.0	(510)	66.3	(0)	0.0		
출산과 혼인신고 순서(첫째아 기준)													2.4
혼인 후 출산 (1,474)	83.2	(604)	82.0			(219)	82.4	(651)	83.3				
동시 (73)	4.2	(34)	4.5			(7)	2.7	(32)	4.2				
출산 후 혼인 (177)	10.5	(58)	8.0			(35)	13.1	(84)	10.6				
사실혼 유지 (61)	2.2	(42)	(5.5)			(4)	1.8	(15)	1.9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집단별 주거 형태 및 가구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2024년 첫 출산자는 무자녀자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세 및 월세, 그리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중까지의 비중이 높았으나 가구소득은 6천만 원 미만 비중이 많았다. 2024년 추가 출산자와 기존 유자녀자를 비교해 보면, 추가 출산자의 농어촌 거주 비중, 전세 및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비중이 높았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상과 중하 이하의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은 6천만 원 미만이 많았다. 2024년 출산자의 가구소득이 미출산자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출산자의 자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및 일자리 이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24년 첫 출산자와 추가 출산자를 비교해 보면, 첫 출산자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 및 혼인 연차가 상대적으로 긴 편인 추가 출산자의 자가 거주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은 추가 출산자의 6천만 원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5〉 집단별 주거 형태 및 가구소득 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64)	100.0	(738)	100.0	(279)	100.0	-	(265)	100.0	(782)	100.0	-
거주지역												
대도시	(869)	39.2	(313)	39.3	(126)	42.3	1.9	(106)	36.8	(324)	38.2	4.7 ***
중소도시	(918)	47.2	(335)	47.5	(117)	43.6		(103)	40.2	(363)	48.6	
농어촌	(277)	13.6	(90)	13.2	(36)	14.1		(56)	23.0	(95)	13.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204)	66.2	(352)	48.3	(146)	53.9	7.6	(150)	55.8	(556)	72.0	9.9 ***
전세	(553)	20.7	(256)	34	(83)	28.5		(79)	30.3	(135)	16.8	
월세	(258)	11.0	(115)	15.7	(40)	14.2		(25)	9.6	(78)	9.6	
기타	(49)	2.1	(15)	2	(10)	3.5		(11)	4.3	(13)	1.6	
거주 형태												
단독주택	(64)	2.8	(21)	3.1	(4)	1.5	4.9	(15)	5.7	(24)	3.2	1.5
아파트	(1,704)	84.7	(586)	79.2	(220)	79.1		(217)	82.4	(681)	87.1	
연립주택	(224)	9.8	(94)	12.7	(39)	13.8		(27)	9.8	(64)	8.2	
오피스텔(가주용)	(54)	1.8	(31)	4.2	(14)	4.9		(3)	1.0	(6)	0.7	
기타(비거주용)	(18)	0.8	(6)	0.8	(2)	0.7		(3)	1.0	(7)	0.9	
가구의 주관적 경제수준												
상	(17)	0.8	(7)	1.0	(1)	0.3	25.1 *	(2)	0.7	(7)	0.9	2.5+
중상	(224)	9.8	(87)	11.9	(20)	6.6		(33)	13.1	(84)	10.6	
중	(1,021)	50.5	(372)	50.3	(135)	48.1		(113)	42.8	(401)	51.5	
중하	(700)	34.7	(233)	31.3	(113)	41.3		(98)	35.9	(256)	32.7	
하	(102)	4.3	(39)	5.5	(10)	3.7		(19)	7.5	(34)	4.3	
가구소득 (연 소득)												
1억 원 이상	(355)	19.5	(102)	13.6	(52)	18.4	16.9 *	(39)	14.7	(162)	20.4	7.7 ***
8천~1억 원 미만	(395)	20.5	(143)	18.9	(51)	18.2		(35)	12.8	(166)	21.6	
6천~8천만 원 미만	(637)	31.5	(223)	30.4	(101)	36.0		(76)	29.1	(237)	30.2	
4천~6천만 원 미만	(375)	16.5	(141)	19.3	(41)	14.6		(63)	24.1	(130)	16.7	
4천만 원 미만	(302)	12.0	(129)	17.8	(34)	12.8		(52)	19.3	(87)	11.1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2024년 첫 출산자는 무자녀자와 비교하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상용근로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무, 임금수준은 월평균 400만 원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첫 출산자의 배우자도 무자녀자보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기업 근무 비중이 높았다. 2024년 추가 출산자와 기존 유자녀자를 비교해 보면, 일하는 비중은 낮고, 상용근로자, 정부기관, 대기업 및 중기업 근무 비중이 높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추가 출산자는 자영업자, 정부기관 종사, 월 임금 400만 원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4년 첫 출산자와 추가 출산자를 비교해 보면, 첫 출산자의 일하는 비중이 추가 출산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첫 출산자의 배우자는 추가 출산자보다 상용근로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표 4-6〉 집단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1-1)		'24년 무자녀(1-2)		x ²	'24년 추가 출산(2-1)		기존 유자녀(2-2)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064)	100.0	(738)	100.0	(279)	100.0	-	(265)	100.0	(782)	100.0	-
경제활동 상태							18.3**					1.8*
일함	(1,304)	64.8	(470)	63.1	(208)	74.0		(141)	53.2	(485)	62.2	
일하지 않음	(760)	35.2	(268)	36.9	(71)	26.0		(124)	46.8	(297)	37.8	
본인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22)	10.2	(32)	6.7	(19)	9.3		(18)	12.2	(53)	10.9	
무급가족종사자	(7)	0.7	(2)	0.4	(1)	0.5		(0)	0.0	(4)	0.9	
상용근로자	(1,057)	76.3	(417)	88.7	(172)	82.2	16.3*	(115)	81.9	(353)	72.8	3.1
임시근로자	(57)	6.2	(8)	1.7	(10)	4.7		(4)	3.0	(35)	7.1	
일용근로자	(10)	1.0	(2)	0.5	(0)	0.0		(1)	1.0	(7)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1)	5.6	(9)	2.1	(6)	3.3		(3)	1.9	(33)	6.9	
본인 직장 유형												
정부기관	(218)	15.5	(90)	19.3	(24)	11.9		(25)	18.8	(79)	16.6	
정부 외 공공기관	(104)	8.4	(35)	7.8	(16)	7.5	27.2*	(12)	8.8	(41)	8.8	1.9
민간 대기업	(219)	14.3	(92)	19.2	(29)	13.7		(28)	18.7	(70)	14.1	
민간 중기업	(245)	17.4	(94)	19.6	(50)	23.5		(27)	18.6	(74)	14.8	

140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민간 소기업	(306)	24.3	(112)	23.8	(50)	23.9		(24)	17.5	(120)	24.6	
개인사업체	(197)	18.6	(44)	9.6	(36)	18.0		(23)	16.4	(94)	19.5	
기타	(15)	1.4	(3)	0.7	(3)	1.5		(2)	1.3	(7)	1.5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274)	25.1	(65)	13.6	(36)	18.2	4.8	(32)	22.7	(141)	28.8	3.6*
36~40시간	(676)	50.3	(266)	56.7	(107)	50.8		(63)	44.2	(240)	49.7	
41~47시간	(117)	8.3	(48)	10.3	(21)	9.8		(12)	8.7	(36)	7.5	
48시간 이상	(237)	16.3	(91)	19.4	(44)	21.2		(34)	24.5	(68)	13.9	
본인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184)	17.8	(40)	8.5	(16)	8.2	9.7	(21)	14.9	(107)	22.4	2.9
200~400만 원 미만	(883)	62.4	(359)	76.7	(151)	72.3		(96)	68.4	(277)	57.3	
400~600만 원 미만	(162)	13.5	(50)	10.4	(32)	15.4		(16)	11.6	(64)	13.0	
600~800만 원 미만	(35)	3.0	(11)	2.3	(2)	0.9		(2)	1.2	(20)	3.9	
800~1000만 원 미만	(24)	1.9	(5)	1.1	(4)	1.8		(5)	3.3	(10)	2.0	
1000만 원 이상	(16)	1.3	(5)	1.0	(3)	1.4		(1)	0.7	(7)	1.4	
배우자 경제활동												
일함	(1,989)	96.1	(713)	96.7	(264)	94.7	2.5	(258)	97.4	(754)	96.5	0.1
일하지 않음	(75)	3.9	(25)	3.3	(15)	5.3		(7)	2.6	(28)	3.5	
배우자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280)	14.6	(87)	12.3	(34)	13.2	0.4	(46)	16.9	(113)	15.2	3.1+
무급가족종사자	(5)	0.1	(3)	0.4	(0)	0.0		(1)	0.3	(1)	0.1	
상용근로자	(1,566)	78.6	(580)	81	(214)	80.5		(183)	71.4	(589)	78.0	
임시근로자	(37)	2.0	(9)	1.3	(4)	1.5		(7)	2.6	(17)	2.2	
일용근로자	(32)	1.4	(11)	1.6	(3)	1.3		(8)	3.3	(10)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9)	3.3	(23)	3.3	(9)	3.6		(13)	5.4	(24)	3.1	
배우자 직장 유형												
정부기관	(237)	10.9	(96)	13.7	(33)	12.7	11.7	(34)	14.3	(74)	10.0	1.7
정부 외 공공기관	(112)	5.8	(43)	6.3	(14)	5.2		(13)	5.0	(42)	5.9	
민간 대기업	(415)	21.2	(149)	20.6	(52)	19.0		(45)	17.1	(169)	22.0	
민간 중기업	(506)	24.4	(192)	26.6	(66)	24.7		(66)	25.6	(182)	24.0	
민간 소기업	(323)	16.3	(117)	16.1	(49)	18.7		(38)	14.8	(119)	15.6	
개인사업체	(367)	20.1	(107)	15.4	(49)	19.3		(57)	21.4	(154)	20.6	
기타	(29)	1.4	(9)	1.4	(1)	0.3		(5)	1.8	(14)	1.8	
배우자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50)	1.9	(20)	2.8	(6)	2.4	56.0 ***	(11)	4.2	(13)	1.6	15.4 ***
200~400만 원 미만	(1,021)	44.0	(438)	61.8	(146)	55.7		(147)	57.7	(290)	38.5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χ^2	'24년 이전 유자녀(2)				χ^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00~600만 원 미만	(628)	36.7	(184)	25.7	(83)	31.4		(64)	24.3	(297)	39.6	
600~800만 원 미만	(169)	10.7	(35)	4.8	(17)	6.2		(20)	7.5	(97)	12.7	
800~1000만 원 미만	(52)	3.7	(6)	0.8	(10)	3.6		(5)	1.8	(31)	4.1	
1000만 원 이상	(45)	2.4	(14)	1.9	(2)	0.7		(6)	2.3	(23)	3.0	
모름	(24)	0.5	(16)	2.2				(5)	2.3	(3)	0.5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출산자와 미출산자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2024년 출산자의 연령, 동거 및 혼인 연차가 상대적으로 낮아 앞의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상의 주 출산 연령대가 30대이고 실제 결혼생활-출산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 비중이 높다는 것과 유사하다. 대도시 거주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비중이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중인 경우가 많았으며, 2024년 출산 등으로 일하는 비중은 미출산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일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정부기관 및 대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근무 비중이 높았다. 다만, 비교 항목들은 모두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2024년 출산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 변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의 범위 및 시간·비용 등의 제약으로 2023년 기준 혹은 출산 결정 시점의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2024년 출산자의 출산 결정 시점은 개인마다 다양하며, 출산 전후의 요인은 변동성이 크고, 비교 집단과의 시점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외에 2024년 출산자의 출산 결정에의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 통계 비교 외에, 2023년의 응답자 연령, 배우자 연령, 혼인 연차, 자녀수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간략히 분석하였다. 모(母)의 연령이 특정 연령까지 높아질수록 출산 확률이 높아지다 이후에는 낮아지는 특성과, 동거 연차가 길어질수록, 2024년 이전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4-7〉 출생아 부모의 특성에 따른 2024년 출산 여부 분석 결과

(종속변수= '24년 출산 여부)	모형 1 ('24년 출산)		모형 2 ('24년 첫 출산)		모형 3 ('24년 추가 출산)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모의 연령	0.74*** (0.22)	0.04*** (0.01)	0.55** (0.28)	0.08** (0.04)	0.91*** (0.33)	0.02*** (0.01)
모의 연령 제곱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2*** (0.00)	-0.00*** (0.00)
동거 연차(기준: 2년 미만)						
2~5년	0.01 (0.17)	0.00 (0.01)	-0.11 (0.20)	-0.02 (0.03)	0.10 (0.36)	0.00 (0.01)
5년 이상	-0.69*** (0.19)	-0.04*** (0.01)	-0.62*** (0.23)	-0.09*** (0.03)	-0.75** (0.37)	-0.02 (0.01)
부의 연령	-0.04** (0.02)	-0.00** (0.00)	-0.06** (0.03)	-0.01** (0.00)	-0.01 (0.03)	-0.00 (0.00)
'24년 이전 자녀수	-0.99*** (0.10)	-0.05*** (0.01)	0.00 (.)	0.00 (.)	-1.04*** (0.21)	-0.02*** (0.01)
상수항	-10.27*** (3.68)		-7.35 (4.67)		-12.92** (5.60)	
Pseudo R ²	0.2459		0.0678		0.1989	
# of obs.	1,922		888		1,034	

주: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결정에서 부모의 일자리 특성 및 가구소득 등이 주요한 변수이나, 본 조사에서는 2023년 말(혹은 출산 결정 시점)의 문항을 포함하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변수로 배우자의 직장 형태로 삼고, 배우자의 직장이 2023년과 2024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 분석하였는데,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 다른 직장 유형보다 2024년 출산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시하였다.

〈표 4-8〉 출생아 부모의 특성에 따른 2024년 출산 여부 분석 결과 - 부(父)의 직장유형 추가

(종속변수= '24년 출산 여부)	모형 1 ('24년 출산)		모형 2 ('24년 첫 출산)		모형 3 ('24년 추가 출산)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모의 연령	0.62*** (0.23)	0.03*** (0.01)	0.46 (0.29)	0.07 (0.04)	0.68** (0.35)	0.02* (0.01)
모의 연령 제곱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1)	-0.00** (0.00)
동거 연차(기준: 2년 미만)						
2~5년	0.03 (0.18)	0.00 (0.01)	-0.11 (0.21)	-0.02 (0.03)	0.21 (0.37)	0.01 (0.01)
5년 이상	-0.66*** (0.20)	-0.03*** (0.01)	-0.54** (0.24)	-0.08** (0.03)	-0.72* (0.39)	-0.02 (0.01)
부의 연령	-0.05** (0.02)	-0.00** (0.00)	-0.07** (0.03)	-0.01** (0.00)	-0.00 (0.03)	-0.00 (0.00)
'24년 부의 직장 유형(기준: 정부기관)						
정부 외 공공기관	-0.77** (0.35)	-0.04** (0.02)	-0.57 (0.44)	-0.08 (0.06)	-1.50*** (0.51)	-0.04*** (0.01)
민간 대기업 (300인+)	-0.42 (0.26)	-0.02 (0.02)	-0.16 (0.32)	-0.03 (0.05)	-1.19*** (0.35)	-0.04*** (0.01)
민간 중기업 (50~299명)	-0.28 (0.25)	-0.02 (0.02)	-0.09 (0.31)	-0.01 (0.05)	-0.89*** (0.31)	-0.03** (0.01)
민간 소기업 (5~49인)	-0.41 (0.27)	-0.02 (0.02)	-0.20 (0.34)	-0.03 (0.05)	-1.07*** (0.35)	-0.03*** (0.01)
개인 사업체 (5인 미만)	-0.50* (0.27)	-0.03* (0.02)	-0.43 (0.34)	-0.06 (0.05)	-0.86*** (0.33)	-0.03** (0.01)

(종속변수= '24년 출산 여부)	모형 1 ('24년 출산)		모형 2 ('24년 첫 출산)		모형 3 ('24년 추가 출산)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기타	0.89* (0.53)	0.07 (0.05)	- -	- -	-0.51 (0.81)	-0.02 (0.03)
'24년 이전 자녀수	-1.01*** (0.10)	-0.05*** (0.01)	- -	- -	-1.23*** (0.23)	-0.03*** (0.01)
상수항	-7.57* (3.94)		-5.22 (4.98)	844	-8.00 (5.97)	
Pseudo R ²	0.2583		0.0751		0.2186	
# of obs.	1,853		844		1,001	

주: 1) 출산 결정에서 부모의 일자리 특성 및 가구소득 등이 주요한 변수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2023년 말(혹은 출산 결정 시점)의 문항을 포함하지 못함. 다만, 참고용으로 2023~2024년간 부(父)의 일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2023년 부(父)의 일자리 특성 변수의 대체변수로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해석에 유의 필요.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2024년 출산 결정의 영향 요인

2024년 출산자를 대상으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된 출산결정요인 및 정책별 영향,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현재의 양육 여건 및 일가정양립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4년 출산자는 총 1,003명이며 이 중 다태아를 포함한 첫 출산자는 738명(73.6%), 추가 출산자는 265명(26.4%)이다. 2024년 출산자를 대상으로 계획 임신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024년 출산 여성은 ‘계획했음’이 66.9%로 ‘계획하지 않았음(31.1%)’보다 높았다. 출산 횟수별로 살펴보면, 첫 출산인 경우 계획한 경우가 70.0%로 추가 출산인 58.3%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 4-9〉 계획 임신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	100.0(1,003)	100.0(738)	100.0(265)	24.7**
계획했음	66.9	70.0	58.3	
계획하지 않았음	31.1	28.0	39.3	
모르겠음	2.1	2.0	2.4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3) ‘24년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약 3.3%임. 첫 출산 중 다태아 비중은 3.8%, 추가 출산 중 다태아 비중은 1.8%임.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대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본인 출산 의지(4.24점), 배우자의 출산 의지(4.20점), 본인·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4.09점),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부담 지원(3.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결정 요인이 출산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첫 출산자와 추가 출산자 간의 본인 출산 의지, 배우자의 출산 의지, 본인·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경제적 안정, 본인 직장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가능성,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 사회적인 분위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첫 출산자보다 추가 출산자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의 모든 영향 요인은 첫 출산자에게 영향이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족/친인척의 돌봄 지원,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첫 출산보다 추가 출산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고려할 때 돌봄 지원이나 제도의 영향이 첫째아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2024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T
전체 응답자 수(명)	100.0(1,003)	100.0(738)	100.0(265)	
본인 출산 의지	4.24(2.65)	4.31(0.94)	4.11(1.06)	-2.75**
배우자의 출산 의지	4.20(2.53)	4.30(0.90)	3.97(0.90)	-4.83***
본인·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4.09(2.66)	4.14(0.99)	3.85(1.02)	-3.90***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부담 지원	3.85(2.84)	3.85(1.05)	3.78(1.09)	-0.86
주거 안정	3.81(2.86)	3.82(1.09)	3.69(1.04)	-1.74
경제적 안정	3.80(2.80)	3.83(1.05)	3.59(1.05)	-3.12**
본인 직장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가능성	3.70(3.45)	3.77(1.27)	3.53(1.29)	-2.29*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	3.60(3.28)	3.43(1.29)	3.80(1.12)	4.31***
정부의 저출생 정책	3.57(3.18)	3.54(1.19)	3.62(1.15)	0.87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3.24(3.23)	3.20(1.25)	3.19(1.16)	-0.13
사회적인 분위기, 주변(친구, 동료)의 출산 분위기	3.20(3.42)	3.18(1.27)	2.99(1.27)	-2.03*
가족·친인척의 돌봄 지원	3.14(3.68)	3.07(1.39)	3.13(1.39)	0.59

주: 1) 가중치를 부여함.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없음’ 제외.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정부 정책이 2024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살펴보면, 현금성 지원(3.63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3.28점), 돌봄 지원(3.18점) 순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출산 횟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추가 출산보다 첫 출산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이었고, 추가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돌봄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앞의 〈표 4-10〉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표 4-11〉 정부 정책이 2024년 출산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T
전체 응답자 수(명)	1,003	738	265	
현금성 지원(출산축하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3.63 (2.77)	3.64 (2.83)	3.60 (2.58)	-0.53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28 (3.39)	3.34 (3.37)	3.12 (3.38)	-2.30*
돌봄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3.18 (3.10)	3.11 (3.13)	3.36 (2.93)	2.97**
의료 지원(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2.93 (3.28)	3.00 (3.29)	2.75 (3.23)	-2.80**
주거 지원(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임대 등)	2.72 (3.28)	2.71 (3.29)	2.72 (3.26)	0.13
일자리 및 취업 지원(사업 대출 지원 등)	2.40 (3.03)	2.37 (3.03)	2.47 (3.02)	1.22

주: 1) 가중치를 부여함.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정부의 정책이 2024년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90.8%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정책 지원에 맞춰 출산 시기를 늦추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 앞당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출산순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추가 출산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지원이 출산 시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5%로 첫 출산(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2〉 정부 정책이 2024년 출산 시기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	100.0(1,003)	100.0(738)	100.0(265)	2.8
예, 정부 정책 지원으로 출산 시기를 늦춤	5.5	4.8	7.5	
예, 정부 정책 지원으로 출산 시기를 앞당김	3.7	3.6	4.0	
영향을 미치지 않음	90.8	91.6	88.5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2024년 출산자에게 코로나19가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8.7%가 코로나로 인해 출산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첫 출산인 경우 9.2%, 추가 출산인 경우 7.4%가 코로나로 인해 출산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나,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34.21세(첫 출산자는 34.06세, 추가 출산자는 34.73세)로 2024년 전체 출산자의 평균 연령(33.42세)보다 약 1.2세 정도 많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2024년 말 기준 동거 및 혼인신고 연차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길었고, 첫 출산자의 경우에는 동거-혼인신고 간의 차이도 10.2개월(1.17개월)로 영향받지 않은 집단 9.1개월(0.73개월)보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혼인신고와 출산 결정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 결과, 추가 출산자 중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 둘째아-첫째아와의 출산 간격이 약 36개월로 나타났는데, 2023년에 둘째아 출산한 경우에는 그 간격이 52개월, 2022년에는 38개월이었다. 2023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며 둘째아-첫째아의 출산 간격이 길어졌으나, 2024년에는 추가 출산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코로나19가 출산 시기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세, 년)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x ²
전체	100.0(1,003)	100.0(738)	100.0(265)	0.8
평균연령(세)	33.42	33.14	34.18	
동거 연차(년)	4.03	3.29	6.05	
혼인 연차(년)	3.34	2.52	5.55	
동거-혼인 차이	8.2개월	9.2개월	5.6개월	
출산을 미룸	8.7	9.2	7.4	
평균연령(세)	34.21	34.06	34.73	
동거 연차(년)	5.05	4.54	6.83	
혼인 연차(년)	4.13	3.37	6.45	
동거-혼인 차이(년)	0.93	1.17	0.38	
영향을 미치지 않음	91.3	90.8	92.6	
평균연령(세)	33.34	33.05	34.14	
동거 연차(년)	3.93	3.17	5.99	
혼인 연차(년)	3.27	2.44	5.48	
동거-혼인 차이(년)	0.66	0.73	0.52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시기 동안에 출산 계획을 조정한 경험 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7% 정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다수는 해당 기간에 출산 계획이 없었거나(50.4%),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43.5%)고 응답하였다. 조사 시점(2025년) 기준 자녀수가 1명인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앞당긴 경우(78명)가 8.4%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 해당 집단이 시기를 조정하여 출산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 중 2020년 출산자는 2.5%, 2021년 출산자는 13.3%, 2022년 출산자는 13.1%, 2023년 출산자는 5.2%, 2024년 출산자는 10.9%, 2025년(8월 기준) 출산자는 5.4%이며, 2020년 이전

출산자는 약 52% 정도인데, 이들은 현재까지 추가 출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 기준 자녀수 2명 이상인 응답자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2020년 이후 출산자의 비중은 약 49.1%이며, 2021년 이후 출산자의 비중은 약 39.1%이다. 그리고 현재 무자녀인 경우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산 시기를 조정하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비중은 4.1% 정도이다.

〈표 4-14〉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χ^2
전체	100.0(2,064)	100.0(1,054)	100.0(772)	100.0(238)	-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을 미루었음	4.9	6.5	3.9	4.1	76.4 ***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을 앞당김	1.1	1.9	1.0	0.0	
아니오,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43.5	50.4	44.4	29.3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당시에는 출산 계획이 없었음(해당 없음)	50.4	41.1	50.7	66.6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주된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이 28.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미래 불확실성’(17.9%), 병원 이용의 어려움(16.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1자녀 집단은 감염 불안(33.8%), 미래 불확실성(24.4%) 순이고, 2자녀 이상 집단은 감염 불안(21.7%), 일·가정 양립 환경 변화(18.9%)이고, 무자녀는 감염 불안(29.7%), 병원 이용 어려움(28.4%), 경제적 불안정(20.1%)이었다. 무자녀

집단은 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자녀 이상 집단은 돌봄과 관련 요인(일·가정 양립 환경 변화, 돌봄 기관 운영 중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χ^2
전체(명)	100.0(134)	100.0(78)	100.0(46)	100.0(10)	
감염에 대한 불안	28.9	33.8	21.7	29.7	20.9
병원·산부인과 이용 어려움	16.9	15.7	14.2	28.4	
경제적 불안정	12.3	9.7	12.9	20.1	
돌봄·보육기관의 운영 중단	6.3	3.0	13.3	0.0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환경 변화	15.1	13.4	18.9	11.2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	17.9	24.4	11.5	10.6	
기타	2.7	0.0	7.5	0.0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2024년 출산모의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여건

2024년 출산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엄마인 '본인'인 경우가 74.0%로 약 2/3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기관에 맡김(13.0%)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순위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첫 출산아에서는 조부모의 도움(7.4%)이, 추가 출산아에서는 외부(공공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3.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아에서는 주 돌봄자가 본인인 경우 첫째아보다 적었고, 기관에 맡기는 비중이 첫째아보다 높았다. 추가로 다태아를 분석한 결과, 돌봄 형태로는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75.6%(24명), 기관 돌봄 18.4%(6명), 배우자 돌봄 3.4%(1명), 비동거 조부모 돌봄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1,003)	100.0(738)	100.0(265)	14.1
본인	74.0	75.0	71.3	
배우자	3.9	4.0	3.7	
동거 중인 (외)조부모	1.5	1.7	1.0	
비동거 중인 (외)조부모	5.3	5.7	4.4	
조부모 제외 친인척	0.7	0.6	1.2	
공공아이돌보미	1.0	0.5	2.3	
민간 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0.6	0.3	1.4	
기관에 맡김	13.0	12.4	14.7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양육의 어려운 점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이 48.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비용이 많이 듭(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다태아 포함)인 경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이 50.1%,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7%)’, ‘비용이 많이 듭(16.7%)’ 순이었다면, 추가 출산아의 경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이 45.2%, ‘비용이 많이 듭(21.6%)’,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어려움(18.0%)’ 순으로 나타나, 둘째아 이상에서 비용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17〉 양육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째아 출산	‘24년 둘째아 이상 출산	χ^2
전체(명)	100.0(1,003)	100.0(738)	100.0(265)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	48.8	50.1	45.2	11.9
아동을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듦	18.0	16.7	21.6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17.8	17.7	18.0	
아동을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7.2	7.6	5.9	
배우자의 가사·돌봄 부담 부족	5.3	5.0	6.2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2.5	2.7	1.7	
기타	0.5	0.1	1.3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자녀 출산 전후의 본인의 취업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52.7%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미취업’인 경력단절 여성은 25.1%, 미취업 상태 유지인 경우가 19.0%, 미취업→취업이 3.2%로 나타났다. 출산순위별로 보면, 첫 출산인 경우 취업 상태 유지가 55.1%, 경력단절이 25.9%였다면, 추가 출산의 경우 취업 상태가 46.3%, 미취업 상태 유지가 25.1%, 경력단절이 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첫째아 출산보다 일자리 이탈에 더 영향을 미쳐 많은 자녀수는 여성의 취업 이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18〉 2024년 출산 전후 취업 상태 변화(본인)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1,003)	100.0(738)	100.0(265)	
‘24년 말 경제활동 상태				
일하고 있음	60.5	63.1	53.3	7.9**
일하지 않고 있음	39.5	36.9	46.7	
출산 전후 취업상태 변화				
취업 상태 유지(육아휴직 포함)	52.7	55.1	46.3	17.4***
미취업 상태 유지	19.0	16.8	25.1	
(출산 전) 취업 → (현재) 미취업	25.1	25.9	23.0	
(출산 전) 미취업 → (현재) 취업	3.2	2.3	5.6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비자발적 이유(16.9%)’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5.6%)’,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3.2%)’,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20.4%)’ 순이었다. 추가 출산아인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9.6%)’,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8.4%)’ 순으로 출산순위에 따라 일을 그만둔 이유의 비율이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육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의 비율 차이는 첫 출산아(20.4%)가 추가 출산아(11.5%)보다 약 2배 크게 나타났다.

〈표 4-19〉 2024년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째아 출산	‘24년 둘째아 이상 출산	χ^2
전체(명)	100.0(250)	100.0(190)	100.0(60)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26.3	25.6	28.4	6.6
회사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 후 복귀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이 어려워서	24.8	23.2	29.6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 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18.3	20.4	11.5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	16.9	16.3	18.6	
건강	5.6	5.9	4.5	
소득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 용이 큼	4.7	4.5	5.3	
배우자 등 가족이 원해서	1.0	0.6	2.3	
기타	2.6	3.4	0.0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에 반해 배우자의 경우에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순위에 따라 배우자의 취업 상태 변화의 차이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 간 노동시장 참여의 차이가 자녀의 출산 시점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0〉 2024년 출산 전후 취업 상태 변화(배우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째아 출산	‘24년 둘째아 이상 출산	χ^2
전체(명)	100.0(1,003)	100.0(738)	100.0(265)	0.7
취업 상태 유지(육아휴직 포함)	92.4	92.6	92.0	
미취업 상태 유지	1.9	1.7	2.5	
(출산 전) 취업 → (현재) 미취업	2.7	2.7	2.6	
(출산 전) 미취업 → (현재) 취업	3.0	3.1	2.9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2024년 출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본인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휴가가 74.6%, 육아휴직은 68.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이 두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7%, 유연근무제는 26.7%로 나타났다. 출산 횟수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제도의 활용률이 높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추가 출산보다는 첫 출산인 경우 사용할 비율이 더 높았다. 출산 횟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로, 첫 출산인 경우 76.4%, 추가 출산인 경우 69.2%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첫 출산인 경우보다는 추가 출산인 경우의 여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본인)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815)	100.0(617)	100.0(198)	-
출산 전후 휴가	74.6	76.4	69.2	4.1*
육아휴직	68.1	68.9	65.4	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7	29.2	35.5	2.8
유연근무제	26.7	26.8	26.3	0.0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제도를 사용한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전 취업 상태였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25.1%)’,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21.0%)’, ‘규정에 있지만 대체인력을 찾지 못해서(20.4%)’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횟수별로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인 경우 전체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28.1%)’, ‘규정에 있지만 대체인력을 찾지 못해서(25.8%)’,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22.0%)’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횟수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의 차이가 큰 항목은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로 첫째아 출산이 둘째아 이상 출산에 비해 약 8.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본인)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째아 출산	‘24년 둘째아 이상 출산	χ^2
전체(명)	100.0(138)	100.0(107)	100.0(31)	-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25.1	26.1	22.0	4.2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서	21.0	18.8	28.1	
규정에 있지만 대체인력을 찾지 못 해서	20.4	18.8	25.8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13.7	13.5	14.2	
실직의 위험 때문에	10.4	11.3	7.3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9.4	11.4	2.5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63.4%인 데 반하여 육아휴직은 29.3%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약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육아휴직이 68.1%임을 고려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15.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4.0%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횟수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만 출산 횟수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65.8%)인 경우가 둘째아 이상 출산(56.9%)인 경우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제외한 3개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둘째아 이상 출산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배우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째아 출산	‘24년 둘째아 이상 출산	χ^2
전체(명)	100.0(983)	100.0(725)	100.0(258)	-
배우자 출산휴가	63.4	65.8	56.9	6.4*
육아휴직	29.3	28.7	30.9	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0	12.7	17.4	3.4
유연근무제	15.7	14.9	17.9	1.3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제도를 사용한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배우자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관례인 경우가 24.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급여가 줄기 때문(23.3%), 실직의 위험(15.2%) 순이었다. 출산 횟수에 관계 없이 사유는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배우자)

(단위: %(명))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694)	100.0(516)	100.0(178)	-
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	1.5	1.7	1.0	12.7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24.0	24.9	21.2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23.3	24.5	19.6	
실직의 위험 때문에	15.2	15.0	15.8	
기타(비임금근로자)	10.2	8.5	15.3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8.1	8.9	5.7	
규정에 있지만 대체인력을 찾지 못해서	7.6	6.7	10.2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5.2	5.0	5.8	
잘 모르겠음	4.9	4.8	5.3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3시간이고, 첫 출산 38.2시간, 추가 출산 38.6시간이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인 경우가 60.6%로 사실상 휴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36~40시간이 17.4%, 36시간 미만 12.5%, 41시간 이상이 9.6% 순이었다. 출산순위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으나 첫 출산의 육아휴직은 62.8%이고, 추가 출산은 53.7%로 첫 출산에 비해 추가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았다. 또한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첫 출산(11.0%)보다 추가 출산(16.9%)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표 4-25〉 주 평균 근로시간(본인)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565)	100.0(427)	100.0(138)	-
평균	38.28	38.16	38.59	
36시간 미만	12.5	11.0	16.9	4.9
36~40시간	17.4	17.1	18.2	
41시간 이상	9.6	9.1	11.2	
육아휴직	60.6	62.8	53.7	

주: 평균 및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1.4시간, 첫 출산 42.0시간, 추가 출산 39.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41시간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36~40시간(34.6%), 36시간 미만(15.0%) 육아휴직(12.1%) 순이었다.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 순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추가 출산(10.7%)보다 첫 출산(12.6%)인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근로시간을 일하였다.

〈표 4-26〉 주 평균 근로시간(배우자)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956)	100.0(705)	100.0(251)	-
평균	41.41	42.03	39.68	
36시간 미만	15.0	13.3	19.9	6.7
36~40	34.6	34.8	33.9	
41시간 이상	38.3	39.3	35.5	
육아휴직	12.1	12.6	10.7	

주: 평균 및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인의 평균 가사 및 돌봄 담당 비율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출산자의 72.8%가 본인이 가사 및 돌봄을 담당하였으며, 첫 출산의 경우에는 73%, 추가 출산의 경우는 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70~80%의 여성 분담이 25.8%, 80~90% 19.4%, 60~70%, 18.1%, 50% 이하가 17.5% 순이었다. 출산순위별로도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7〉 본인의 평균 가사 및 돌봄 담당 비율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956)	100.0(705)	100.0(251)	-
평균	72.8	73.0	72.2	
50 이하	17.5	16.6	19.9	1.8
50 초과 ~ 60 이하	10.7	10.8	10.4	
60 초과 ~ 70 이하	18.1	18	18.2	
70 초과 ~ 80 이하	25.8	26.5	24	
80 초과 ~ 90 이하	19.4	19.6	18.8	
90 초과	8.5	8.4	8.7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일·가정 양립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38.8%), 만족(37.9%), 불만족(23.3%)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순위별로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7.0%p)과 불만족하는 비율(3.9%p) 모두 첫 출산보다 추가 출산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표 4-28〉 일·가정 양립 만족도(현재 취업 중인 응답자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출산자)	’24년 첫 출산	’24년 추가 출산	χ^2
전체(명)	100.0(222)	100.0(158)	100.0(64)	-
불만족	23.3	22.2	26.1	2.3
보통	38.8	42.0	31.1	
만족	37.9	35.9	42.9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절 저출생 정책별 인지도 및 중요도

1. 2024년 출산자의 정책 체감도 변화

매년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추가 출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출산 시와 그 직전 출산 시기를 비교하여 정책의 주관적 체감도를 확인했다. 첫 출산과 비교하여 2024년 추가 출산 시기의 정책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제도는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79.5%),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74.5%), 건강/의료지원(71.1%) 순이었다. 첫 출산 때와 똑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제도는 직장어린이집(67.1%), 산전후 휴가/유사

산 휴가(60.6%)였다. 모든 정책에서 첫 출산 시기보다 현재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대 3.5%로 전체 비율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주거 지원정책(3.5%)이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29〉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2024년 추가 출산자 대상 이전 출산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나빠짐	똑같음	좋아짐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	1. 건강/의료지원(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30)	1.3	27.6	71.1
	2.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지자체)	(248)	2.0	18.5	79.5
	3. 주거 지원정책(신생아 특례대출,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	(234)	3.5	31.8	64.7
	4. 공공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28)	1.8	37.9	60.3
	5.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	(250)	2.3	23.3	74.5
양육·교육·돌봄 지원	6. 미취학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47)	2.7	43.8	53.5
	7.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시간제 보육 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보미))	(232)	1.8	45.7	52.5
	8.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방과후, 늘봄학교, 키움센터 등)	(205)	2.0	44.9	53.2
	9. 틈새 돌봄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172)	2.3	46.0	51.7
	10. 자녀세액 기본공제	(180)	2.5	45.7	51.9
일·가정 양립 지원	11.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152)	1.4	36.5	62.2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25)	2.3	58.0	39.8
	13. 산전후 휴가/유사산 휴가	(219)	1.3	60.6	38.0
	14. 배우자 출산휴가	(241)	2.2	45.0	52.9
	15. 육아휴직	(249)	2.3	46.8	50.9
	16. 유연근무(탄력근로, 시차 출퇴근제 등)	(215)	3.3	59.9	36.9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22)	3.1	57.6	39.3
	18. 직장어린이집	(209)	1.4	67.1	31.5
	19.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	(199)	1.7	55.9	42.5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2024년 출산자의 정책 인지도 분석

다음으로 저출생 정책별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 인지한 시점, 그리고 현재의 시점별 정책 인지도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2024년 출산자의 출산순위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4년 이전까지 무자녀였던 응답자(1) 중 2024년 첫 출산한 집단(1-1)과 무자녀 유지 집단(1-2), 2024년 이전까지 유자녀였던 응답자(2) 중 2024년 추가 출산한 집단(2-1)과 2024년 추가 출산하지 않은 집단(기존 유자녀)(2-2)으로 구분하여, 2024년 첫 출산자와 추가 출산자의 정책 인지도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정책

전체 응답자들의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표 4-30>과 같다. 건강/의료지원(89.3%), 주거 지원정책(82.3%), 공공산후도우미(79.7%),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77.1%)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비율의 특성은 제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났다. 건강/의료지원 인지도는 2024년 이전에 무자녀였던 집단(1)이 유자녀 집단(2)보다 높았다. 주거 지원정책, 공공산후도우미 사업,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은 2024년 출산 집단(1-1, 2-1)이 미출산 집단(1-2, 2-2)보다 높았다. 첫만남 이용권 등은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로 최근 출산자가 미출산자보다 17.2~20.8%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시기로는 2024년 첫 출산 집단(1-1)은 '2024년'에 집중되고, 2024년 무자녀 집단(1-2)과 유자녀 집단(2-1, 2-2)은 '2023년 및 이전'

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첫 출산 집단은 출산과 동시에 제도를 이용하면서 2024년 제도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유자녀 집단은 이미 제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2024년 무자녀 집단은 제도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 정도는 출산 집단(1-1, 2-1)이 미출산 집단(1-2, 2-2)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지하였다. 최근 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첫만남 이용권 제도에서 출산 집단(1-1, 2-1)이 미출산 집단(1-2, 2-2)에 비해 ‘매우 잘 알고 있음’의 비율이 38%p 이상 차이가 나, 출산 경험 여부에 따른 제도의 인지 정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표 4-30〉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전체		100.0	100 (728)	100 (279)	-	100(265)	100(782)	-
1. 건강/의료지원(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지도		89.3	92.1	90.2	1.2	86.9	88.8	0.2
인지 시기	2023년 및 이전	72.0	45.1	47.9	40.3 ***	82.0	82.0	0.6
	2024년	21.9	51.7	38.7		16.0	14.1	
	2025년	6.0	3.2	13.4		2.0	3.9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9.3	8.2	8.6	10.6+	9.1	9.6	9.3 ***
	대략 알고 있음	74.8	63.5	70.9		63.1	77.4	
	매우 잘 알고 있음	15.9	28.3	20.6		27.8	13.0	
2. 주거 지원정책(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 인지도		82.3	91.1	83.8	13.2 **	88.2	81.0	1.8 **
인지 시기	2023년 및 이전	62.1	34.3	44.7	65.4 ***	65.8	70.3	5.9
	2024년	29.6	63.4	43.0		33.0	22.1	
	2025년	8.3	2.3	12.3		1.2	7.6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0.7	6.5	8.5		9.4	11.8	
	대략 알고 있음	70.3	64.3	68.6	7.7	58.7	71.7	9.0 ***
	매우 잘 알고 있음	19.0	29.2	22.9		31.9	16.5	
3. 공공 산후도우미(산모 신 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지도		79.7	91.0	70.8	66.9 ***	86.0	81.7	0.7
인지 시기	2023년 및 이전	68.8	26.2	38.1		75.7	81.0	
	2024년	23.4	71.9	41.4	148.3 ***	22.3	14.1	3.4 **
	2025년	7.8	1.9	20.5		2.0	4.9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2.3	7.5	15.2		7.6	12.0	
	대략 알고 있음	60.9	54.9	57.4	26.8 **	40.8	63.0	19.0 ***
	매우 잘 알고 있음	26.8	37.7	27.5		51.6	25.0	
4.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 려금(지자체) 인지도		77.1	94.3	73.5	76.7 ***	93.8	76.6	9.0 ***
인지 시기	2023년 및 이전	66.3	35.1	35.7		82.3	78.5	
	2024년	27.3	64.0	46.2	93.4 ***	16.8	18.0	1.3
	2025년	6.5	0.8	18.2		0.9	3.6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6.8	1.8	11.6		2.4	5.9	
	대략 알고 있음	54.4	26.2	55.8	221.7 ***	23.1	57.7	36.0 ***
	매우 잘 알고 있음	38.8	72.0	32.7		74.5	36.5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제도의 인지 여부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양육·교육·돌봄 지원정책

양육·교육·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표 4-31>과 같다.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은 자녀양육 현금 지원(93.3%),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87.4%), 초등학교 돌봄서비스(86.3%),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79.8%), 자녀세액 기본공제(72.8%),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63.4%), 틈새 돌봄서비스(54.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현금 지원,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인지 비율은 2024년 무자녀 집단(1-2)를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인지 시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수급 가능한 서비스의 이용 시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자녀 집단(2-1, 2-2)과 2024년 무자녀 집단(1-2)은 2023년 및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각각 74.9~92.0%와 43.1~51.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2024년 첫 출산 집단은(1-1)은 2024년에 인지한 비율이 67.9~69.3%이었다. 2024년 첫 출산 집단은 출산과 동시에 제도를 이용하면서 2024년 제도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 정도도 2024년 추가 출산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자녀세액 기본공제,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틈새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자녀의 수급 가능 연령 여부, 다자녀 여부, 수급 가능성 등에 따라 인지도나 인지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1〉 양육·교육·돌봄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전체(명)			100.0 (728)	100.0 (279)	-	100.0 (265)	100.0 (782)	-
1. 자녀양육 현금 지원(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93.3	96.9	85.1	38.6***	94.5	95.7	0.2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8.1	28.6	48.0	153.9***	85.2	90.7	3.1**
	2024년	17.4	69.3	36.6		14.3	7.8	
	2025년	4.5	2.1	15.4		0.6	1.5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3.9	2.5	11.8	193.5***	2.1	1.8	10.2***
	대략 알고 있음	49.5	35.7	62.1		25.3	47.5	
	매우 잘 알고 있음	46.6	61.9	26.1		72.6	50.8	
2.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87.4	90.2	68.0	76.3***	93.3	93.4	0.0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0.7	21.8	51.7	178.8***	85.6	92.0	3.5+
	2024년	14.6	69.0	33.4		12.5	6.2	
	2025년	4.6	9.2	15.0		1.9	1.9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5.7	6.7	19.6	67.2***	2.7	2.3	2.3*
	대략 알고 있음	50.4	55.8	58.7		37.7	48.3	
	매우 잘 알고 있음	43.9	37.5	21.8		59.6	49.3	
3.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방과후, 늘봄학교, 키움센터 등)		86.3	69.8	81.9	27.8***	77.8	89.2	7.1***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69.4	30.8	57.8	99.3***	67.8	75.3	2.4*
	2024년	22.8	59.3	29.2		27.5	18.5	
	2025년	7.8	10.0	13.0		4.7	6.2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8.2	21.3	15.0	19.3*	14.6	5.1	8.7***
	대략 알고 있음	56.6	58.1	71.8		53.9	51.9	
	매우 잘 알고 있음	35.2	20.6	13.2		31.5	42.9	
4.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시간제 보육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79.8	80.9	63.0	44.7***	88.1	85.1	0.4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4.2	19.6	43.1	132.7 ***	74.9	85.8	8.9 ***
	2024년	8.5	67.9	36.0		23.3	10.6	
	2025년	7.3	12.6	21.0		1.8	3.7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1.3	13.6	22.3	19.3* ***	9.7	8.4	2.7* ***
	대략 알고 있음	63.6	63.8	61.6		53.3	64.4	
	매우 잘 알고 있음	25.2	22.6	16.2		37.0	27.2	
5. 자녀세액 기본공제		72.8	70.2	63.5	6.2* ***	68.3	76.2	1.8*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8.9	29.3	63.5	193.1 ***	76.6	86.7	5.3 ***
	2024년	16.3	64.3	25.2		21.3	10.4	
	2025년	4.7	6.5	11.3		2.1	2.9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7.3	8.7	12.2	9.4 ***	10.1	5.8	1.5 ***
	대략 알고 있음	56.3	61.1	64.7		49.4	53.8	
	매우 잘 알고 있음	36.4	30.2	23.1		40.6	40.4	
6.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63.4	59.0	66.6	7.8* ***	58.4	62.8	0.4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0.8	25.8	62.5	158.4 ***	63.1	77.2	7.8 ***
	2024년	20.8	63.8	26.0		32.0	15.6	
	2025년	8.4	10.4	11.6		4.9	7.2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5.4	17.5	20.8	13.0* ***	9.2	13.5	4.1** ***
	대략 알고 있음	66.4	62.0	66.8		58.4	66.7	
	매우 잘 알고 있음	18.3	20.5	12.4		32.4	19.8	
7. 틈새 돌봄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54.7	59.0	38.9	51.2 ***	65.7	59.4	0.9+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63.0	18.1	38.8	98.4 ***	69.5	71.4	0.1 ***
	2024년	26.6	64.0	36.3		23.7	21.8	
	2025년	10.4	17.9	24.9		6.8	6.8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2.2	18.6	15.2	15.4 ***	10.4	11.1	2.9* ***
	거의 알지 못함	66.9	60.6	70.8		57.3	66.8	
	대략 알고 있음	20.9	20.8	14.1		32.3	22.1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제도의 인지 여부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표 4-32>와 같다.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은 육아휴직(95.9%), 배우자 출산휴가(93.8%), 직장어린이집(84.1%), 유연근무(81.1%), 산전후 휴가/유사산 휴가(77.9%),¹³⁾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7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74.2%),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73.8%)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집단에서 인지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 비율은 2024년 출산 집단(1-1, 2-1)이 2024년 미출산 집단(2-1, 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지 시기는 2023년 이전에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원정책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지 정도는 모든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2024년 출산 집단(1-1, 2-1)이 2024년 미출산 집단(2-1, 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실제 활용 가능성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3) 산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인지 비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음.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만 있었다면 인지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임.

〈표 4-3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전체(명)			100(728)	100(279)	-	100(265)	100(782)	
1. 육아휴직		95.9	96.2	96.0	0.0	94.3	95.8	0.3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7.7	89.5	93.9	4.1 **	89.5	93.9	4.1 **
	2024년	9.3	10.0	4.4		10.0	4.4	
	2025년	2.9	0.6	1.7		0.6	1.7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3.6	2.8	4.9	58.2 ***	4.4	3.2	2.7 **
	대략 알고 있음	49.1	38.3	57.7		36.1	47.5	
	매우 잘 알고 있음	47.3	58.8	37.4		59.5	49.4	
2. 배우자 출산휴가		93.8	95.5	93.2	2.7	91.1	94.0	0.8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3.3	87.9	90.9	2.6*	87.9	90.9	2.6*
	2024년	12.5	11.5	6.6		11.5	6.6	
	2025년	4.2	0.6	2.5		0.6	2.5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6.9	5.0	8.1	54.0 ***	5.7	6.7	7.2 ***
	대략 알고 있음	53.9	42.1	59.1		36.2	53.6	
	매우 잘 알고 있음	39.2	52.9	32.8		58.2	39.7	
3. 직장어린이집		84.1	77.3	76.5	0.1	79.5	87.3	2.97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9.1	89.7	94.3	2.8*	89.7	94.3	2.8*
	2024년	8.4	9.1	4.1		9.1	4.1	
	2025년	2.6	1.3	1.6		1.3	1.6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2.5	13.8	19.7	16.8*	10.7	10.3	3.9 **
	대략 알고 있음	60.5	55.3	58.8		48.5	61.7	
	매우 잘 알고 있음	27.0	31.0	21.5		40.8	28.1	
4. 유연근무(탄력근로, 시차 출퇴근제 등)		81.1	87.0	81.1	7.3*	82.0	80.6	0.07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0.4	84.4	89.3	2.7*	84.4	89.3	2.7*
	2024년	15.8	15.0	8.7		15.0	8.7	
	2025년	3.8	0.6	2.0		0.6	2.0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9.6	9.4	11.2	16.9 **	7.9	9.1	2.4*
	대략 알고 있음	58.2	51.2	60.3		49.3	58.3	
	매우 잘 알고 있음	32.2	39.4	28.5		42.9	32.6	

17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구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1)			'24년 이전 유자녀(2)		
			'24년 첫 출산 (1-1)	'24년 무자녀 (1-2)	T/x ²	'24년 추가 출산 (2-1)	기존 유자녀 (2-2)	T/x ²
5. 산전후 휴가/유사산 휴가		77.9	87.3	75.8	23.9 ***	82.8	77.7	0.8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2.9	86.0	91.2	1.9+	86.0	91.2	1.96 +
	2024년	13.3	12.6	7.4		12.6	7.4	
	2025년	3.8	1.5	1.4		1.5	1.4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5.9	4.9	8.2	49.8 ***	4.7	5.2	10.3 ***
	대략 알고 있음	57.8	42.3	58.2		38.8	59.6	
	매우 잘 알고 있음	36.3	52.9	33.6		56.5	35.1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75.8	89.8	76.9	31.9 ***	85.4	74.2	3.6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9.2	86.8	88.9	2.1+	86.8	88.9	2.1+
	2024년	15.6	12.6	8.3		12.6	8.3	
	2025년	5.2	0.6	2.8		0.6	2.8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6.6	5.6	7.3	22.8 **	4.5	6.5	9.1 ***
	대략 알고 있음	58.5	45.4	56.7		43.4	60.8	
	매우 잘 알고 있음	34.9	49.0	36.0		52.1	32.7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4.2	85.9	66.6	55.6 ***	84.2	75.6	2.2 **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78.4	84.5	87.3	1.3	84.5	87.3	1.3
	2024년	16.3	14.0	9.9		14.0	9.9	
	2025년	5.3	1.5	2.9		1.5	2.9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8.8	5.9	12.0	36.5 ***	6.9	8.2	3.7 **
	대략 알고 있음	56.5	49.7	58.2		45.7	57.0	
	매우 잘 알고 있음	34.6	44.4	29.8		47.4	34.8	
8.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		73.8	73.6	68.6	3.7	75.9	75.5	0.01
인지 시기	2023년 이전	82.2	86.4	90.1	2.3*	86.4	90.1	2.3*
	2024년	13.4	12.5	7.3		12.5	7.3	
	2025년	4.4	1.1	2.7		1.1	2.7	
인지 정도	거의 알지 못함	10.6	10.1	14.0	18.5*	7.0	9.8	4.1 **
	대략 알고 있음	60.9	57.2	64.0		49.8	60.5	
	매우 잘 알고 있음	28.5	32.7	22.0		43.2	29.8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제도의 인지 여부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정책 인지도와 2024년 출산 결정

앞서 살펴본 정책별 2023년 인지도가 2024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정책 인지도가 출산 의사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보다는 둘 간의 상관관계를 몇 가지 제약을 고려하고 살펴본다는 것이다. 정책 인지도는 2024년이나 가까운 시기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인식이 높은 집단의 1년 후 출산 확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역인과에 가까울 수 있다. 일부 정책의 효과도 있겠지만 출산을 앞둔 사람이 평균적으로 정책 인지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정책에 대해서는 동시에 인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책별 인지도와 출산 결정 관계에서 기대와 다른 부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정책 인지가 정책 활용을 통해서 출산 의지나 결정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까지 보기에는 본 조사의 범위에서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24년 출산 여부와 주요 정책 인지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출산자와 미출산자 간의 정보 접근성 및 정책 관심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유사 정책을 묶어 현금지원(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돌봄지원(돌봄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 주거 및 세제 정책, 건강·의료지원으로 구분하였고, 2023년 인지 여부를 기준(1 또는 0)으로 5개의 정책군별 평균 인지도를 산출하였다. 대체적으로 2024년 무자녀자가 2024년 첫 출산자보다 2023년 정책 인지도는 낮지 않고, 2024년 이전 유자녀자들의 인지도는 2024년 이전 무자녀자들보다 높은 편이다.

〈표 4-33〉 집단별 2023년 정책 평균 인지도

(단위: %)

'23년 정책군별 평균 인지도	전체	'24년 이전 무자녀		'24년 이전 유자녀	
		'24년 첫 출산	'24년 무자녀	'24년 추가 출산	기존 유자녀
전체	61.38	33.42	42.01	66.96	69.80
정책군 1. 현금 지원	62.00	30.40	33.54	78.81	73.40
정책군 2. 돌봄 지원	56.02	16.91	31.15	61.05	67.12
정책군 3. 일·가정 양립 지원	68.21	46.77	52.11	73.37	75.05
정책군 4. 주거/세제	51.14	22.35	39.78	49.07	57.16
정책군 5. 건강의료 지원	59.58	32.70	35.10	68.16	69.53

주: 〈표 4-29〉의 1~19번 정책을 5개 정책군으로 구분함. 정책군 1(1. 첫만남 이용권, 5. 영아수당 등), 정책군 2(6. 보육비 지원, 7. 양육 지원, 8. 돌봄서비스, 9. 틈새 돌봄), 정책군 3(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3. 산전후 휴가, 14. 배우자 출산휴가, 15. 육아휴직, 16. 유연근무,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 직장어린이집, 19. 가족돌봄휴가), 정책군 4(3. 주거 지원, 10. 자녀 세액공제, 11. 다자녀 인센티브), 정책군 5(1. 난임시술 등, 4. 신생아 건강관리).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모형 1),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2024년 출산 확률이 낮아졌고, 정책 인지도와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 정책 및 건강/의료 지원정책의 인식이 높을수록 2024년 출산 확률이 높아졌으나, 돌봄 정책과 주거/세제 지원의 인지도와는 기대와 달리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금이나 건강/의료 지원과 같이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제도는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돌봄이나 주거/세제 지원 정책은 역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높거나 돌봄 부담 등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도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이용하기 어렵거나 체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첫 출산 결정(모형 2)과 추가 출산 결정(모형 3)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현금 지원정책과 건강/의료 지원정책이 첫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돌봄 지원정책은 추가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출산에서는 돌봄 및 주거 등의 부담이, 추가 출산에는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분석은 2023년 정책 인지도가 2024년 출산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관관계 정도로 해석해야 하며, 정책 인식, 정책의 실질적 활용, 그리고 출산 의사 및 행동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첫 출산은 경제적·정서적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추가 출산에서는 여성 중심의 돌봄 부담 편중이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질적 활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4-34〉 2023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2024년 출산에의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수= '24년 출산 여부)	모형 1 ('24년 출산)		모형 2 ('24년 첫 출산)		모형 3 ('24년 추가 출산)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모의 연령	0.80*** (0.20)	0.04*** (0.01)	0.68*** (0.26)	0.09*** (0.03)	0.67** (0.34)	0.02* (0.01)
모의 연령 제공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동거 연차	-0.06*** (0.02)	-0.00*** (0.00)	-0.04 (0.03)	-0.01 (0.00)	-0.20*** (0.04)	-0.00*** (0.00)
부의 연령	-0.02 (0.02)	-0.00 (0.00)	-0.02 (0.03)	-0.00 (0.00)	0.02 (0.03)	0.00 (0.00)
'24년 이전 자녀수	-1.06*** (0.12)	-0.06*** (0.01)	- -	- -	-0.97*** (0.23)	-0.02*** (0.01)
정책군 1. 현금 지원	0.75*** (0.24)	0.04*** (0.01)	1.27*** (0.33)	0.17*** (0.04)	-0.17 (0.41)	-0.00 (0.01)
정책군 2. 돌봄 지원	-0.81*** (0.25)	-0.05*** (0.01)	-1.90*** (0.39)	-0.25*** (0.05)	0.75** (0.36)	0.02** (0.01)
정책군 3. 일·가정 양립 지원	-0.08 (0.21)	-0.00 (0.01)	0.12 (0.27)	0.02 (0.04)	-1.06*** (0.37)	-0.02*** (0.01)
정책군 4. 주거/세제 지원	-1.17*** (0.23)	-0.07*** (0.01)	-1.84*** (0.34)	-0.24*** (0.05)	-0.15 (0.35)	-0.00 (0.01)
정책군 5. 건강/의료 지원	0.64*** (0.23)	0.04*** (0.01)	1.15*** (0.34)	0.15*** (0.04)	-0.24 (0.33)	-0.01 (0.01)
상수항	-12.15*** (3.29)	-	-10.35** (4.27)	-	-8.51 (5.60)	-
Pseudo R ²	0.2395		0.1152		0.2153	
# of obs.	2,027		993		1,034	

주: 1) 〈표 4-29〉의 1~19번 정책을 5개 정책군으로 구분함. 정책군 1(1. 첫만남 이용권, 5. 영아수당 등), 정책군 2(6. 보육비 지원, 7. 양육 지원, 8. 돌봄서비스, 9. 틈새 돌봄), 정책군 3(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3. 산전후 휴가, 14. 배우자 출산휴가, 15. 육아휴직, 16. 유연근무,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 직장어린이집, 19. 가족돌봄휴가), 정책군 4(3. 주거 지원, 10. 자녀 세액공제, 11. 다자녀 인센티브), 정책군 5(1. 난임시술 등, 4. 신생아 건강관리).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저출생 정책의 중요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저출생 대책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3.89~4.49점). 높은 중요도라고 응답한 저출산 대책은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4.49점)’,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4.49점)’,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4.44점)’, ‘부부 간 가사/ 양육의 동등한 분담 등(4.44점)’이었다.

자녀수별 저출산 대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가 다르며, 특히 다자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가 자녀수별 가구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2자녀 이상의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해당 집단이 저출생 대책의 중요성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저출생 대책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중요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F
전체(명)		100.0 (2,064)	100.0 (1,054)	100.0 (772)	100.0 (238)	-
일·가정 양립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61 (0.69)	4.64 (0.79)	4.60 (0.64)	4.59 (0.54)	0.5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4.49 (0.71)	4.54 (0.83)	4.47 (0.64)	4.45 (0.56)	1.7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49 (0.76)	4.51 (0.87)	4.47 (0.71)	4.49 (0.60)	0.3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F
교육·돌봄 환경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4.44 (0.75)	4.47 (0.88)	4.46 (0.67)	4.36 (0.63)	1.6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4.38 (0.76)	4.38 (0.89)	4.40 (0.69)	4.32 (0.59)	0.9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4.29 (0.83)	4.30 (0.98)	4.31 (0.75)	4.21 (0.68)	1.2
주거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4.40 (0.78)	4.40 (0.92)	4.54 (0.62)	4.09 (0.70)	23.0***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4.40 (0.80)	4.34 (0.96)	4.43 (0.71)	4.43 (0.65)	1.9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예: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등)	4.29 (0.89)	4.14 (1.15)	4.50 (0.69)	4.12 (0.72)	27.2***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4.18 (0.87)	4.13 (1.07)	4.20 (0.77)	4.22 (0.67)	1.0
	결혼 친화적 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3.89 (1.00)	3.87 (1.23)	3.95 (0.88)	3.79 (0.79)	2.5+
사회/구조적 원인	부부간 가사/양육의 동등한 분담 등	4.44 (0.75)	4.43 (0.88)	4.46 (0.69)	4.43 (0.57)	0.3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사교육비 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	4.34 (0.82)	4.33 (0.93)	4.42 (0.73)	4.18 (0.70)	6.2**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4.26 (0.82)	4.26 (0.94)	4.31 (0.71)	4.18 (0.71)	1.6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4.18 (0.88)	4.15 (1.07)	4.21 (0.77)	4.16 (0.70)	0.5
	수도권 집중 완화	4.06 (0.94)	4.02 (1.10)	4.09 (0.85)	4.08 (0.77)	0.7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4절 향후 출산 의향 및 최근 가치관 변화

1. 25~44세 여성의 향후 출산 의향

전체 응답자를 2025년 8월 현재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로 구분하고 향후 출산 의향을 살펴본 결과, ‘의향이 없음’이 6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의향이 있음’이 21.7%, ‘잘 모르겠음’이 15.3%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출산 의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무자녀인 경우 49.1%로 약 절반에 가까웠고, 1자녀(25.8%), 2자녀 이상(6.1%) 순이다. 이와 반대로 출산 의향이 없다는 집단은 2자녀 이상(82.6%), 1자녀(56.5%), 무자녀(31.1%) 순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집단에서도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이 31.3%로 나타나 기혼 무자녀 가구 비율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자녀 집단이 19.7%, 1자녀 17.8%, 2자녀 이상 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6〉 향후 출산 의향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전체(명)	100.0(2,064)	100.0(1,054)	100.0(772)	100.0(238)	-
의향이 있음	21.7	25.8	6.1	49.1	394.2 ***
의향이 없음	63.1	56.5	82.6	31.3	
잘 모르겠음	15.3	17.8	11.3	19.7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출산 시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1년 이내(58.0%)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년 이내

(25.1%), 3년 이내(11.9%) 순이었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무자녀-1자녀-2자녀 이상 순으로 1년 또는 2년 이내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37〉 향후 출산 시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전체(명)	100.0(409)	100.0(288)	100.0(27)	100.0(94)	-
1년 이내	58.0	54.5	36.1	62.5	17.6
2년 이내	25.1	26.3	26.6	24.0	
3년 이내	11.9	15.5	33.9	7.3	
4년 이내	3.0	2.1	0.0	4.0	
5년 이내	2.0	1.6	3.5	2.2	

주: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향후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는 1명이 78.6%로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2명으로 19.0%였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를 '1명'으로 응답한 비율은 2자녀 이상 집단(98.6%), 1자녀 집단(96.3%), 무자녀 집단(56.2%) 순이었다. 무자녀 집단은 추가 출산 희망자녀수를 '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다.

〈표 4-38〉 향후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전체(명)	100.0(588)	100.0(396)	100.0(72)	100.0(120)	-
1명	78.6	96.3	98.6	56.2	143.0 ***
2명	19.0	3.4	1.1	38.8	
3명	1.8	0.3	0.3	3.5	
4명	0.0	0.0	0.0	0.0	
5명	0.7	0.0	0.0	1.5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의향 ‘없음’으로 응답한 여성들이 향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나/배우자의 연령이 많아서(28.7%)’,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되어서(25.3%)’,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1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1자녀 집단은 연령(24.7%), 양육 비용 부담(23.7%), 양육 스트레스(16.4%) 순으로 나타났고, 2자녀 이상 집단은 연령(34.1%), 양육비용 부담(27.6%),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14.6%) 순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집단은 양육비용(19.9%), 연령(16.9%), 양육 스트레스(16.3%) 순이었다. 무자녀 집단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 비율이 2자녀 이상 가구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 양육하는 것과 별개로 자녀 양육이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문화적 분위기가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9〉 향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전체(명)	100.0 (1,476)	100.0(658)	100.0(700)	100.0(118)	-
나/배우자의 연령이 많아서	28.7	24.7	34.1	16.9	208.0 ***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되어서	25.3	23.7	27.6	19.9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 스트레스가 높음 등	12.4	16.4	8.9	16.3	
현재 자녀가 형제자매를 원하지 않아서/현재 자녀(무자녀 포함) 수로 충분해서	9.5	5.0	14.6	0.0	
자녀로 인해 나의 일·생활 균형이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8.3	11.9	5.6	10.3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5.6	6.4	3.1	13.7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4.9	5.2	2.7	13.6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배우자의 가사 및 돌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4.6	6.4	3.1	5.8	
기타	0.7	0.3	0.2	3.4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70.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3명 이상(13.9%), 1명(13.7%), 없음(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2자녀 이상 집단에서 '3명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2.6%), 1자녀 집단에서 '2명(72.5%)'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 집단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9.0%)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집단별 이상적인 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40〉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χ^2
전체(명)	100.0(2,064)	100.0(1,054)	100.0(772)	100.0(238)	
0(없음)	2.4	1.4	0.2	9.0	236.9 ***
1명	13.7	19.6	7.5	17.3	
2명	70.0	72.5	69.7	66.2	
3명 이상	13.9	6.6	22.6	7.5	

주: 1) 비율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1〉과 같다. 출산 결정에 높은 영향을 주는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이 4.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 정도(4.63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4.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전반의 출산 분위기'는 3.88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출산 결정에 영향에 차이가 있는 조건은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나 사람의 가능성',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가능성', '자녀를 낳고자 하는 본인/가족의 출산 의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녀 집단과 유자녀 집단(1명, 2명 이상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무자녀 집단은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나 사람의 가능성',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자녀를 낳고자 하는 본인/가족의 출산 의지'가 유자녀 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 집단이 출산을 결정할 때 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2자녀 이상 집단의 경우 이미 출산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표 4-41〉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F
전체(명)	(2,064)	(1,054)	(772)	(238)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안정적인 일자리)	4.71 (0.54)	4.69 (0.67)	4.72 (0.49)	4.71 (0.41)	0.339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 정도	4.63 (0.62)	4.63 (0.75)	4.61 (0.56)	4.64 (0.46)	0.212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4.62 (0.61)	4.64 (0.71)	4.57 (0.58)	4.68 (0.44)	2.962 +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가능성(유연근무, 재택근무, 돌봄휴가 사용 등)	4.58 (0.64)	4.63 (0.71)	4.53 (0.60)	4.58 (0.52)	3.236 *

구분	전체	현재 1자녀	현재 2자녀+	현재 무자녀	F
자녀를 양육할 만한 안정적인 고 안전한 주거	4.58 (0.64)	4.57 (0.77)	4.57 (0.59)	4.63 (0.48)	1.064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근무시간 단축 등)	4.55 (0.64)	4.59 (0.75)	4.49 (0.62)	4.62 (0.44)	4.491 *
나/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4.55 (0.66)	4.54 (0.81)	4.54 (0.59)	4.60 (0.49)	0.682
배우자의 (공평한) 가사 및 돌 봄 참여 가능성	4.54 (0.65)	4.55 (0.81)	4.52 (0.60)	4.56 (0.47)	0.301
자녀를 낳고자 하는 본인/가 족의 출산 의지, 가족계획(이 상적인 자녀수 등)	4.50 (0.69)	4.45 (0.86)	4.50 (0.61)	4.59 (0.50)	3.416 *
믿고 맡길 만한 기관(어린이집) 이나 사람(아이돌보미) 가능성	4.49 (0.68)	4.49 (0.85)	4.45 (0.64)	4.58 (0.43)	3.443 *
미래 사회 여건(경기, 고용 등) 에 대한 전망	4.32 (0.76)	4.30 (0.94)	4.30 (0.70)	4.39 (0.54)	1.488
가족(부모 등)의 육아지원 가 능성	4.03 (0.90)	4.10 (1.10)	4.00 (0.81)	3.98 (0.70)	1.970
사회 전반의 출산 분위기(도래· 친구 등 영향)	3.88 (1.03)	3.86 (1.19)	3.94 (0.91)	3.78 (0.86)	1.837

주: 1) 5점 만점.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가중치 적용함.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혼인, 자녀, 성역할 가치관의 최근 변화

가. 결혼에 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은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결혼은 해야 한다', '인생에서 결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항목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무자녀 집단에서는 시기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자녀 집단과 2자녀 이상 집단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필수적’에서 ‘선택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였다.

결혼 가치관은 2자녀 이상 집단-1자녀 집단-무자녀 집단 순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점차 선택의 경향성을 보였다.

〈표 4-42〉 결혼에 관한 인식(2025년 현재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결혼은 해야 한다								
2024년	3.33	(1.12)	3.35	(1.33)	3.41	(0.98)	3.11	(0.92)
2025년	3.17	(1.18)	3.20	(1.47)	3.18	(1.03)	3.11	(0.91)
T	-7.66	***	-4.23	***	-7.95	***	-0.16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								
2024년	3.64	(1.10)	3.67	(1.32)	3.73	(0.97)	3.41	(0.89)
2025년	3.52	(1.16)	3.54	(1.41)	3.55	(1.06)	3.39	(0.88)
T	-6.49	***	-4.17	***	-5.73	***	-0.41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2024년	2.28	(1.27)	2.30	(1.55)	2.36	(1.12)	2.06	(0.97)
2025년	2.12	(1.27)	2.13	(1.54)	2.17	(1.14)	1.99	(0.96)
T	-7.52	***	-5.06	***	-5.74	***	-1.47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2024년	2.85	(1.18)	2.86	(1.43)	2.94	(1.06)	2.62	(0.90)
2025년	2.72	(1.24)	2.70	(1.51)	2.78	(1.12)	2.62	(0.93)
T	-5.84	***	-4.23	***	-4.87	***	0.09	

주: 1) 5점 만점 기준.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가중치 부여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자녀에 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도 결혼 가치관과 동일하게 2024년에 비해 2025년 다소 완화된 형태를 보였으나, 일부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느낀다’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보면, 1자녀 집단에서는 전체 경우와 동일한 항목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줄어들었고, 2자녀 이상 집단에서는 ‘자녀는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느낀다’, ‘자녀가 많을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느낀다’ 항목의 점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변에서 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느낀다’의 항목은 1자녀 집단과 무자녀 집단의 점수가 높아졌는데 반하여 2자녀 집단에서는 낮아진 점수를 보여 2자녀 이상의 집단에서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자녀 집단에서는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점수가 높아졌고,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무자녀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점수가 올랐고, 1자녀 및 2자녀 이상 집단에서 자녀 인식 점수가 낮아져 대비적인 현상을 보였다.

〈표 4-43〉 자녀에 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자녀는 있어야 한다				
2024년	3.46 (1.22)	3.46 (1.47)	3.77 (0.98)	2.77 (0.94)
2025년	3.44 (1.20)	3.47 (1.44)	3.65 (1.02)	2.91 (0.95)
T	-1.06	0.29	-4.10***	2.60**
자녀가 있어야 가정의 완성된다고 느낀다				
2024년	3.36 (1.28)	3.42 (1.48)	3.67 (1.06)	2.54 (0.96)
2025년	3.33 (1.29)	3.42 (1.47)	3.54 (1.12)	2.69 (1.03)
T	-1.28	0.02	-4.03***	2.85**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2024년	3.53 (1.04)	3.51 (1.26)	3.39 (0.97)	3.85 (0.71)
2025년	3.45 (1.09)	3.38 (1.33)	3.34 (1.01)	3.84 (0.71)
T	-3.78***	-4.52***	-1.80	-0.23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2024년	3.88 (0.96)	3.71 (1.19)	3.89 (0.86)	4.18 (0.65)
2025년	3.89 (1.03)	3.73 (1.32)	3.90 (0.90)	4.16 (0.68)
T	0.54	0.76	0.47	-0.44
자녀가 많을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느낀다				
2024년	2.67 (1.16)	2.60 (1.40)	2.86 (1.05)	2.37 (0.83)
2025년	2.60 (1.22)	2.52 (1.48)	2.76 (1.12)	2.39 (0.89)
T	-3.08**	-2.04*	-2.96**	0.33
주변에서 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느낀다				
2024년	3.28 (0.99)	3.29 (1.18)	3.33 (0.93)	3.17 (0.72)
2025년	3.26 (1.07)	3.32 (1.25)	3.25 (1.00)	3.20 (0.82)
T	-0.86	1.02	-2.45*	0.55

주: 1) 5점 만점 기준.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가중치 부여함.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대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성역할에 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2024년에 비해 2025년 다소 완화된 형태를 보였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1자녀 집단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가 유의미하였고, 2자녀 이상은 전체 집단과 동일한 항목이, 무자녀 집단은 성역할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 집단을 비교하면 2자녀 이상, 1자녀, 무자녀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자녀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4〉 성역할에 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024년	2.67 (1.10)	2.72 (1.36)	2.77 (0.97)	2.37 (0.80)
2025년	2.64 (1.12)	2.66 (1.36)	2.72 (1.02)	2.42 (0.83)
T	-2.34*	-2.05*	-2.60**	1.31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024년	1.97 (1.01)	1.96 (1.27)	2.03 (0.90)	1.83 (0.74)
2025년	1.93 (1.02)	1.92 (1.27)	1.97 (0.91)	1.84 (0.78)
T	-3.26**	-1.96	-3.28**	0.49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2024년	2.09 (1.08)	2.06 (1.32)	2.19 (0.99)	1.93 (0.78)
2025년	2.05 (1.08)	2.04 (1.31)	2.11 (0.99)	1.92 (0.79)
T	-3.08**	-0.70	-3.95***	-0.11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이상	무자녀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2024년	2.15 (1.10)	2.15 (1.39)	2.23 (0.99)	1.96 (0.77)
2025년	2.13 (1.11)	2.15 (1.37)	2.19 (1.02)	1.94 (0.78)
T	-1.34	-0.11	-1.46	-0.69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2024년	4.01 (1.00)	4.02 (1.20)	4.00 (0.93)	4.01 (0.73)
2025년	3.99 (1.07)	3.98 (1.30)	4.00 (1.01)	4.00 (0.74)
T	-0.90	-1.53	-0.02	-0.06

주: 1) 5점 만점 기준.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가중치 부여함.

2) * $p<0.05$, ** $p<0.01$, *** $p<0.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향후 출산 의향과 정책 및 가치관의 관계 분석

2025년 응답자의 특성과 정책 인지도가 향후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2025년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향후 출산 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인지도와 출산 의향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크게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인지도와 출산 의향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책의 체감 효과나 이용 가능성,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2년 이내의 출산 의향(모형 2)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건강/의료 지원과의 관계가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세제 지원은 인지도와 실제 의사결정에의 직접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인지도 수준이 출산 의향의 직접적 결정 요인이기 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일 시점의 인식과 의향의 상호 영향성으로 실제 정책 인지도와 출산 실현과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출산 의향은 인식수준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실질적 제도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4-45〉 2025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향후 출산 의사와의 관계

(종속변수= 향후 출산 의향 유무)	모형 1 (향후 출산 의향 유)		모형 2 (2년 이내 출산 의향)		모형 3* (향후 출산 의향 유)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모의 연령	-0.65** (0.31)	-0.08** (0.04)	0.07 (0.34)	0.01 (0.03)	-0.77** (0.34)	-0.10** (0.04)
모의 연령 제곱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동거 연차	-0.14*** (0.03)	-0.02*** (0.00)	-0.19*** (0.04)	-0.02*** (0.00)	-0.15*** (0.03)	-0.02*** (0.00)
부의 연령	-0.01 (0.03)	-0.00 (0.00)	0.03 (0.03)	0.00 (0.00)	0.00 (0.03)	0.00 (0.00)
'25년 현재 자녀수	-0.90*** (0.14)	-0.12*** (0.02)	-1.24*** (0.18)	-0.11*** (0.02)	-0.93*** (0.19)	-0.12*** (0.02)
정책군 1. 현금 지원	0.25 (0.42)	0.03 (0.05)	-0.21 (0.52)	-0.02 (0.05)	0.15 (0.27)	0.02 (0.03)
정책군 2. 돌봄 지원	-0.18 (0.37)	-0.02 (0.05)	-0.61 (0.42)	-0.05 (0.04)	-0.12 (0.25)	-0.02 (0.03)
정책군 3. 일·가정 양립 지원	0.10 (0.45)	0.01 (0.06)	1.41*** (0.53)	0.12*** (0.05)	0.28 (0.23)	0.04 (0.03)
정책군 4. 주거/세제 지원	-0.26 (0.31)	-0.03 (0.04)	-0.62 (0.38)	-0.05 (0.03)	0.40 (0.27)	0.05 (0.03)
정책군 5. 건강/의료 지원	0.33 (0.38)	0.04 (0.05)	1.04** (0.44)	0.09** (0.04)	-0.16 (0.24)	-0.02 (0.03)
상수항	14.48*** (5.51)		-2.30 (5.78)		15.44** (6.09)	
Pseudo R ²	0.2847		0.2979		0.2879	
# of obs.	1,640 (모르겠음 제외)		1,640		1,424	

주: 1) 모형 1, 2는 정책 변수로 정책별 인지 여부, 모형 3은 정책별 인지 정도(3점 만점)를 사용.

2) 〈표 4-29〉 1~19번의 정책을 5개 정책군으로 구분함. 정책군 1(1. 첫만남 이용권, 5. 영아수당 등), 정책군 2(6. 보육비 지원, 7. 양육 지원, 8. 돌봄서비스, 9. 틈새 돌봄), 정책군 3(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3. 산전후 휴가, 14. 배우자 출산휴가, 15. 육아휴직, 16. 유연근무,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 직장어린이집, 19. 가족돌봄 휴가), 정책군 4(3. 주거지원, 10. 자녀 세액공제 11. 다자녀 인센티브), 정책군 5(1. 난임시술 등, 4. 신생아 건강관리).

3) * p<0.10, ** p<0.05, *** p<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자녀와 성역할 가치관에 따른 향후 출산 의향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다자녀를 선호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남성 부양 인식과 주변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면 단기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명확할수록 단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돌봄에 대한 공평 분담의 동의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 결과는 학력이나 취업 여부 등의 추가 통제가 미포함된 결과이며, 가치관과 실제 행동 간의 다른 매개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4-46〉 2025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책 인지도의 향후 출산 의사에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 향후 출산 의향 유무)	모형 1 (향후 출산 의향 유)		모형 2 (1년 이내 출산 의향)		모형 3 (2년 이내 출산 의향)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모의 연령	-0.44 (0.35)	-0.05 (0.04)	0.51 (0.39)	0.03 (0.03)	0.42 (0.37)	0.03 (0.03)
모의 연령 제곱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0.00 (0.00)
동거 연차	-0.14*** (0.03)	-0.02*** (0.00)	-0.20*** (0.05)	-0.01*** (0.00)	-0.18*** (0.04)	-0.01*** (0.00)
부의 연령	0.00 (0.03)	0.00 (0.00)	0.06* (0.04)	0.00* (0.00)	0.05 (0.03)	0.00 (0.00)
'25년 현재 자녀수	-1.27*** (0.18)	-0.15*** (0.02)	-1.41*** (0.25)	-0.09*** (0.02)	-1.59*** (0.22)	-0.13*** (0.02)
자녀 가치관 1. 자녀는 있어야 한다	0.62*** (0.13)	0.07*** (0.02)	0.26 (0.16)	0.02 (0.01)	0.18 (0.15)	0.01 (0.01)
자녀 가치관 2.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느낀다	-0.16 (0.12)	-0.02 (0.01)	0.04 (0.15)	0.00 (0.01)	0.19 (0.14)	0.02 (0.01)

(종속변수= 향후 출산 의향 유무)	모형 1 (향후 출산 의향 유)		모형 2 (1년 이내 출산 의향)		모형 3 (2년 이내 출산 의향)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계수 (표준오차)	dy/dx
자녀 가치관 3.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0.07 (0.10)	0.01 (0.01)	-0.05 (0.12)	-0.00 (0.01)	0.01 (0.11)	0.00 (0.01)
자녀 가치관 4. 자녀는 부모에게 경 제적 부담이 크다	-0.05 (0.10)	-0.01 (0.01)	0.23 (0.15)	0.02 (0.01)	-0.06 (0.12)	-0.00 (0.01)
자녀 가치관 5. 자녀가 많을수록 삶 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느낀다	0.31*** (0.09)	0.04*** (0.01)	0.12 (0.11)	0.01 (0.01)	0.22** (0.10)	0.02** (0.01)
자녀 가치관 6. 주변에서 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느낀다	0.07 (0.09)	0.01 (0.01)	0.22* (0.11)	0.01* (0.01)	0.13 (0.11)	0.01 (0.01)
성역할 가치관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0.06 (0.10)	0.01 (0.01)	0.30** (0.14)	0.02** (0.01)	0.21* (0.12)	0.02* (0.01)
성역할 가치관 2.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0.09 (0.16)	-0.01 (0.02)	-0.05 (0.17)	-0.00 (0.01)	-0.34* (0.18)	-0.03* (0.01)
성역할 가치관 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0.03 (0.15)	-0.00 (0.02)	-0.25 (0.20)	-0.02 (0.01)	0.00 (0.18)	0.00 (0.02)
성역할 가치관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 야 한다	0.16 (0.15)	0.02 (0.02)	0.11 (0.18)	0.01 (0.01)	0.14 (0.17)	0.01 (0.01)
성역할 가치관 5. 맞벌이 부부는 집안 일도 공평히 분담해 야 한다	-0.08 (0.09)	-0.01 (0.01)	-0.17 (0.11)	-0.01 (0.01)	-0.20** (0.10)	-0.02** (0.01)
상수항	8.42 (6.13)		-13.75** (6.94)		-9.55 (6.56)	
Pseudo R ²	0.3558		0.3039		0.3359	
# of obs.	1,640		1,640		1,640	

주: * p<0.10, ** p<0.05, *** p<0.01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2024년 출산자 1,003명과 2024년 미출산자(비교 집단) 1,061명 등 총 2,064명의 사실혼 및 법률혼 25~44세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출산 결정 원인 및 양육 여건, 정책 인지도 및 가치관 차이, 향후 출산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24년 출산 집단(평균 33.41세)은 미출산 집단(평균 37.92세)에 비해 평균연령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2024년 출산 집단은 미출산 집단보다 혼인 연차가 짧고, 첫 출산 집단은 무자녀 집단보다 혼인 연차가 더 짧았다. 이는 출생통계상의 평균 출산연령이 33.1세이며 실제 결혼생활-출산 간의 평균 기간도 약 3.62년이었던 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2024년 출산 집단의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일을 하는 비중 자체는 더 낮았으나, 2024년 출산 집단의 상용 근로자 비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직장 유형별로도 정부기관 및 민간 대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 여건 등이 양호한 집단에서 출산 결정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2024년 출산자들의 출산 결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본인의 출산 의지(5점 만점에 4.24점), 배우자의 출산 의지(4.20점), 본인/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4.09점) 순이었다. 경제적 안정성 및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가능성 등은 첫 출산자에게 더 큰 영향이 있었으며, 추가 출산자에게는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이나 돌봄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출산자 중 90.8%는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추가 출산자의 경우 정책 지원이 시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11.5%)이 첫 출산자(8.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현금성 지원(3.63점)이 출산 결정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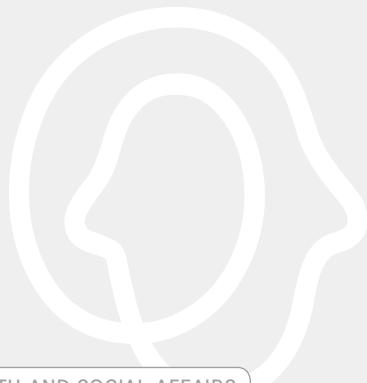
지원(3.28점), 돌봄 지원(3.18점) 순이었다. 정부 정책 중 ‘건강/의료 지원’과 ‘현금 지원’이 추가 출산보다 첫 출산 결정에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산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4년 출산자 중 약 8.7%이며, 이 중 첫 출산자의 경우 동거-혼인신고 간의 기간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혼인신고와 출산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출산아의 주 돌봄자는 엄마인 본인인 경우가 74.0%로 가장 많았다. 양육의 어려운 점은 육체적·정신적 힘들(48.8%)과 비용(18.0%) 및 일·가정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이 높은 순을 차지했으며, 추가 출산자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첫 출산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출산모 중 25.1%가 경력 단절(취업→미취업)을 경험했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첫째아 출산보다 일자리 이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출산 이후 일자리 유지 및 복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 일·가정 양립 활용 어려움(24.8%) 순으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시 취업 상태였던 응답자의 출산 전후 휴가 사용률은 74.6%, 육아휴직은 68.1%였다. 반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9.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24.0%), 급여 감소(23.3%) 우려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출산자의 72.8%가 본인이 가사 및 돌봄을 담당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출산 집단(2024년 출산 경험)이 미출산 집단보다 2024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2023년에 출산 의

향이나 향후 출산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 출산 경험, 자녀수, 자녀의 연령대별 정책 지원 수급 자격, 정책 이용 경험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따른 인지 격차가 나타났다. 추가 출산 집단을 대상으로 첫 출산 때와 비교하여 저출생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달라졌는지 조사한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본인의 첫 출산 때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현금성 지원(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의 개선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체 25~44세 여성 응답자 중 향후 출산 의향 있음은 약 21.7%로, 현재 자녀수 및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며, 출산 의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25년 현재 무자녀 집단(49.1%)이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28.7%)과 양육비용 부담(25.3%)이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출산 의사 없음 비율이 유자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양육에 대한 문화적 스트레스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출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5점 만점에 4.71점),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4.63점),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가능성(4.62점), 안전한 주거(4.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비해 2025년 결혼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된 형태를 보였다.



제5장

2024년 출산율 반등 원인 분석 - 동태패널모형 구축 및 분석

제1절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제2절 지역별·연령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제3절 소결

제 5 장

2024년 출산율 반등 원인 분석 - 동태패널모형 구축 및 분석

제1절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1. 개요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생통계의 시계열적 변화 외에 2015년 이후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경제·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2015~2024년간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2024년 출산율 반등의 통계적 유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2024년 출산율 반등을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이후 변화를 포착해야 하지만, 현재 시계열이 2024년까지 있는 상황으로 2024년까지의 변화와 주요 거시변수들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거시변수를 포함한 출산율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고 있는데, 인구학적 경로에서는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 연령의 상승,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교육 경쟁 심화, 높은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잔존하는 돌봄 공백,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으로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규범 및 제도, 청년층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우해봉 외, 2025 발간 예정).

혼인과 출산의 경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혼인율이 중요한 출산결정요인이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유배우율의 하락을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출산율의 하락은 초혼으로의 이행 감소 외에도 유배우 무자녀에서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의 영향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철희, 2019; 계봉오 외, 2022; 이철희, 2023a; 김은정 외, 2025 발간 예정).

경제·사회구조적 요인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관계는 주로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된 국가들에서 여성 고용과 출산의 관계가 정(+)으로 바뀌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육아휴직 제도 사용 등의 제약, 출산 전후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출산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OECD, 2024). 또한 실업률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출산율 하락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24).

다음으로 2015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등은 결혼 및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하고 지역별 출산율 격차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4). 특히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 기피 현상의 심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박진백, 이재희, 2016; 김민영, 황진영, 2016; 박진백, 2021; 박진백, 2022). 박진백(2022)에서는 2000년 대비 2020년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약 2배)은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 포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은 0.002명이 감소하고 향후 7년간의 합계출산율을 약 0.014명을 낮추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최근 OECD(2024)의 분석에서는 한국의 사교육비와 돌봄 부담이 높은 사회구조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과

출산,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결혼 및 출산 연기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국가별 출산율 변화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은 국가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Fluchtmann et al., 2023; OECD, 2024; Gauthier & Gietel-Basten, 2025),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 요인들과 분리하여 저출생 정책만의 효과를 파악한 국내 선행연구는 축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방법론

박종서 외(2015), 박진백(2022), Fluchtmann et al.(2023)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국가별·지역별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주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령대별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 형태의 거시동태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은 시계열 모형과 비교하여 연령별 이질성을 포착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연령별 차등효과 등을 식별하는 한편, 짧은 시계열로 인한 모형의 불안정성도 완화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율은 전기 출산율의 영향을 받는 자기 지속성이 높고, 출산율을 구성하는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의 구조적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구성하였다.¹⁴⁾ 2015~2024년을 주 분석 기간으로 삼는다고 할 때 시계열이 최소 10개밖에 되지 않아 단순 시계열 분석에서는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연도별·출생순

14) 통계방법론에 대해서는 민인식, 최필선(2019)의 pp.99-122를 참고하고, 생성형 AI의 분석 프로그래밍 코딩 제안을 참조하였음.

위별로 구분한 21개 집단(5세 단위 7개×3순위)별 시계열을 패널로 구성하여 관측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자기 상관성과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산율(ASFR)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ASFR_{i,t} = \alpha + \rho ASFR_{i,t-1} + \beta' X_{i,t-1} + \mu_i + \epsilon_{i,t}$$

ASFR는 연령대별 출생순위별 출산율, X 는 설명변수, μ_i 는 집단별 고정효과, ϵ_{it} 는 오차항

출산율은 전기의 출산율과 강한 자기 상관을 가지므로, 위 식에서 우변의 전기($t-1$)의 출산율은 개체별 고정효과와 상관되어 내생성 편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Arellano & Bond(1991)가 제안한 차분 GMM 모형¹⁵⁾을 기본 모형으로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1차 차분을 통해 개체 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종속변수의 시차항 내생성을 도구변수를 이용해 보정함으로써 자기 상관과 내생성을 동시에 완화하여 동태적 구조의 안정적 추정치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 길이가 짧고 패널 단위가 크지 않은 본 연구의 자료 특성에도 적합하다. 차분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ASFR_{i,t} = \rho \Delta ASFR_{i,t-1} + \beta' \Delta X_{i,t-1} + \Delta \epsilon_{i,t}$$

다만, 차분 후에도 여전히 우변의 차분한 전기의 출산율과 차분한 오차

15)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항 간의 내생성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기 이상의 과거 시점의 출산율을 유효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 수는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연도별 더미와 거시변수(혼인율 등)는 외생변수로 처리할 수 있다. 모형의 타당성과 도구의 적합성은 Arellano-Bond 자기상관 검정(AR(2))과 Hansen 과식별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차분 GMM 모형 외에 시스템 GMM(system GMM) 모형과 고정효과(FE) 모형의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시스템 GMM 모형은 Blundell & Bond(1998) 등이 제안한 것으로, 차분 GMM 모형에서 시계열 변동이 작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약한 도구(instruments)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준식(level equation)을 추가하여 차분식과 동시에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잠재적 효율성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구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식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은 비교적 단순하고 해석이 직관적이나, 종속변수의 시차항과 고정효과 간의 상관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출산율 반등의 구조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연도별 고정효과를 직접 포함하지 않고, 2015년 이후 출산율의 추세적 변화를 단계별로 반영하기 위해 3개 시기 더미(post2015(2016~2020년), post2020(2021~2023년), yr2024)를 이용한 준 시간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연도별 변동보다 출산율의 구조적 추세 변동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연령·출산순위별 출산율의 시계열적 종속성과 시기별 추세 전환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시기 더미에 30대 연령의 교호항을 포함하여 전체 출산율 변화가

특정 연령층의 집중적 하락 또는 회복에 의해 주도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SFR_{i,t} = & \alpha + \rho ASFR_{i,t-1} + \beta' X_{i,t-1} \\ & + \gamma_1 post2015_t + \gamma_2 post2020_t + \gamma_3 yr2024 \\ & + \gamma_4 (post2015_t \times Age30s_i) + \gamma_5 (post2020_t \times Age30s_i) \\ & + \gamma_6 (yr2024_t \times Age30s_i) + \mu_i + \epsilon_{i,t} \end{aligned}$$

연령별·출생순위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X)으로는 혼인율,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 주거부담률,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비중 및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족 정책 관련 변수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주요 설명변수들은 여성의 5세 단위 연령별로 구분이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활용하였고 출생순위별 구분은 자료의 제약으로 불가하여 연령별로 동일한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가족 정책 변수 등은 모든 연령별로 단일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1〉 주요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 출처
출산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종속변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각각 (1) 15~19세 (2) 20~24세 (3) 25~29세 (4) 30~34세 (5) 35~39세 (6) 40~44세 (7) 45~49세 연령대별 여성인구 수 대비 출생아 수(1천 명당 명)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 및 주민등록 연앙인구
인구학적 요인	연령대별 혼인율	연령대별 여성인구 수 대비 혼인 전수(1천 명당 건)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통계 및 주민등록 연앙인구
	수도권 인구비중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인구 비중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주민등록통계 연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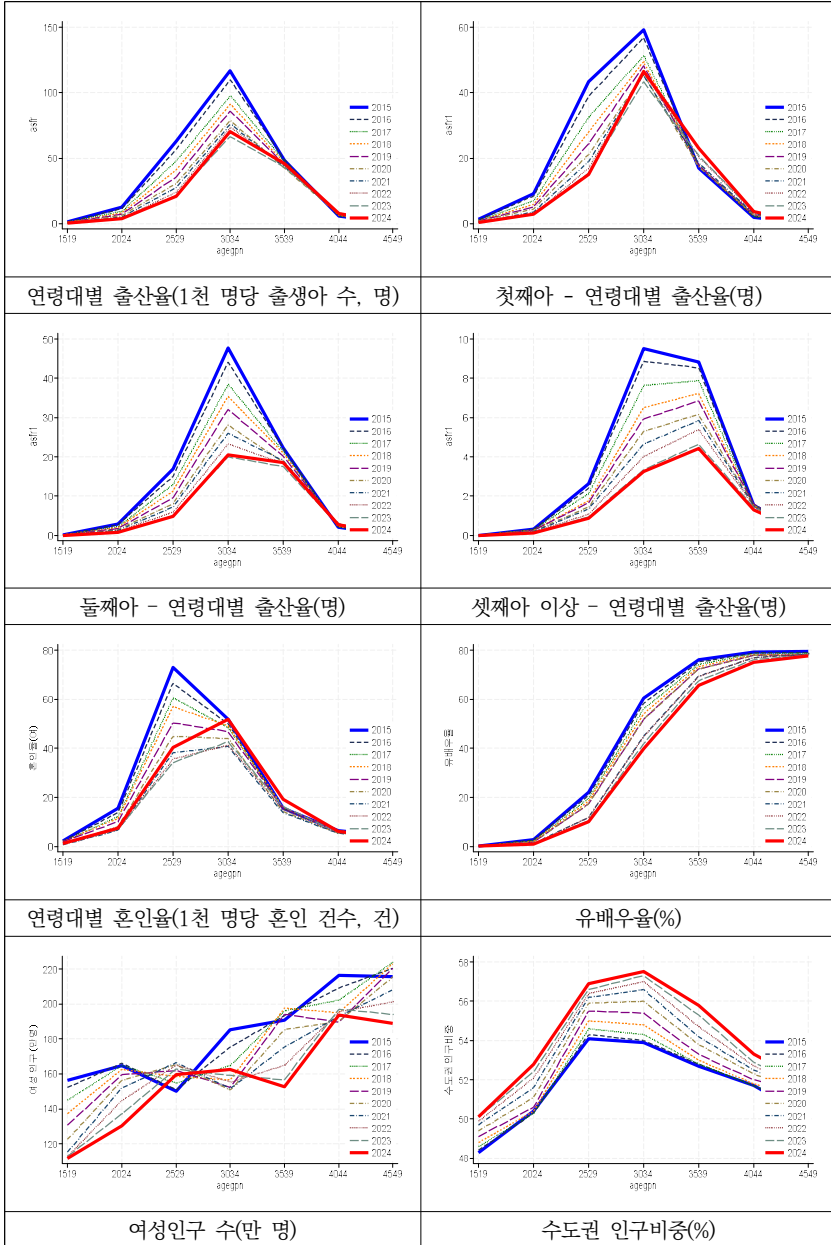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 출처
경제· 사회적 요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고용률	연령대별 고용률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연령대별 실업률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택부담률	가처분소득 혹은 경상소득 대비 주거지출(전세의 월세화 포함)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제공) 및 가구원(제공)
	사교육비 증감률	1인당 사교육비(실질가격)의 전년대비 증감율	국가데이터처,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제공)
	결혼 가치관	결혼에 대한 긍정 비율(미혼)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건강/교육과훈련/범죄 와안전/가족/생활환경 (제공)
	자녀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긍정 비율(여성)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건강/교육과훈련/범죄 와안전/가족/생활환경 (제공)
정책적 노력	가족정책 지출 비중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Family database

주: 해당 자료를 통합하여 제5장의 표와 그림을 구성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함.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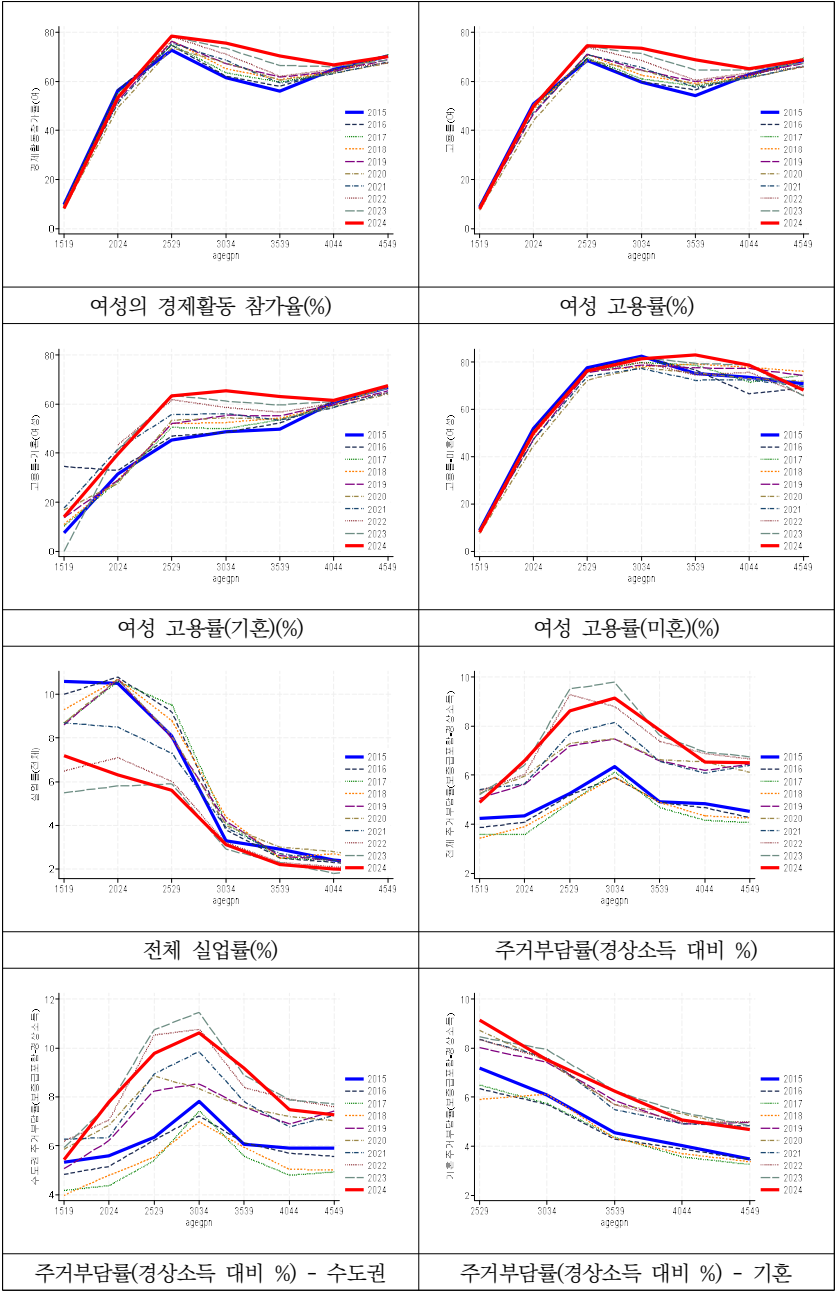
주요 변수별 2015년 이후의 추이를 확인해 보면, 주 분석 기간인 2015~2024년간 연령대별 출산율 및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은 34세 이하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아 이상은 4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연령대별 혼인율은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20대에서는 크게 하락하고 30대에서는 2015년 이후 감소하다 최근에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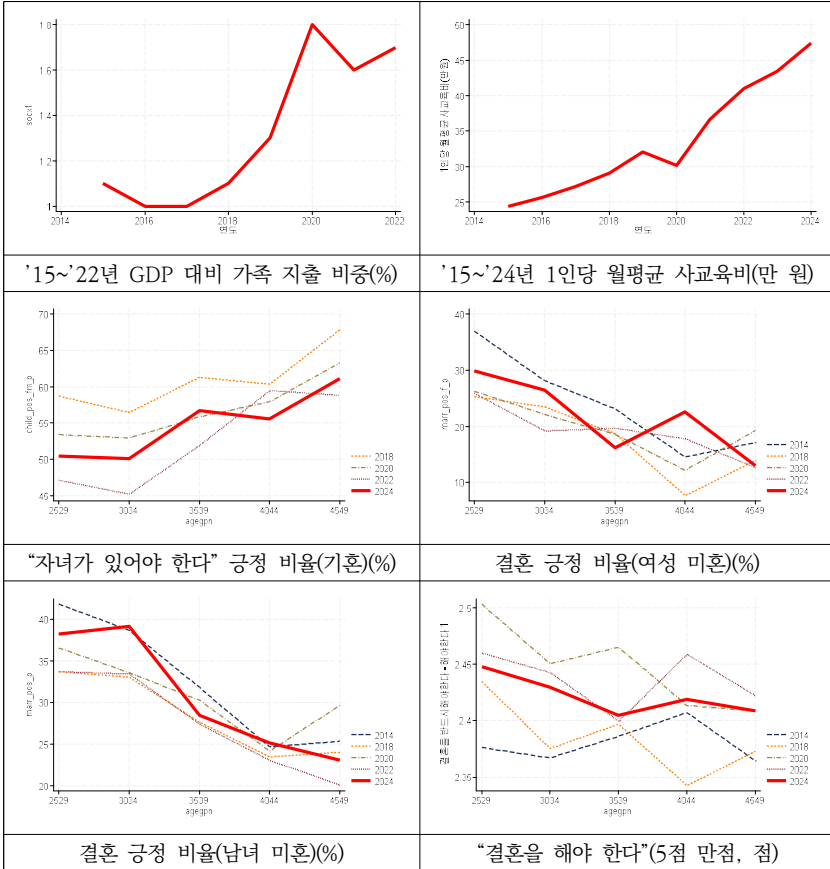
할 수 있다. 다만, 유배우율은 전 연령에서 낮아지고 있으며, 유배우 여성 출산율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인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에코붐 세대의 영향으로 2024년에는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 인구수가 소폭 증가했으며, 수도권 인구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25~39세, 특히 30대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기혼 고용률은 4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관찰된다. 최근의 고용률 및 실업률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인구에서의 비경활 인구(특히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부담과 사교육비도 2015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기혼의 주거비 부담률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다양한 저출생 대책 등의 시행으로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도 2년 전 대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연도별 연령대별 주요 변수 추이



208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주: 파란 선 = 2015년, 붉은 선 = 2024년.
출처: 제1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모형 분석 결과

먼저 장기 시계열상에서 출산율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0~2024년의 출산율로 구성된 패널 자료 기반의 모형 적합 결과, 차분 GMM 모형(모형 1-1)에서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1%p 높아지면 약 1.13%p 높아지는 자기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2016~2020년

기간 동안의 출산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30대에서는 출산율이 2.38%p 더 하락한 것으로 보였다. 2021~2023년 기간에는 2015년보다 하락세가 약화되었으나 유의성은 크지 않았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대 출산율은 약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4년 기간 내 출산율의 추세에서 2024년 반등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30대 출산율이 1.6%p 증가하며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스템 GMM 모형(모형 1-2)에서도 출산율의 강한 지속성이 나타났다고, 내생성을 보정한 영향으로 계수는 조금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인 경향성은 모형 1-1과 유사하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졌다. 고정효과 모형(모형 1-3)에서는 2015년 이후 30대 출산율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 30대 출산율 하락이 구조적 추세로 보여진다. 비교 모형(모형 1-2와 1-3)에서는 2024년 반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30대를 30~34세, 35~39세로 추가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 1의 결과와 유사하게 출산율의 자기상관이 크게 나타났고, 2015년 이후의 구조적 하락기에서 30~34세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세가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팬데믹 기간에는 30~34세 출산율의 추가 하락이 있었으며, 2024년의 단기 반등 신호는 35~39세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0~34세에서도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으나 모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표 5-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분석기간(2000~2024년)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30대)			모형 2(30~34세, 35~39세 구분)		
	모형 1-1 차분GMM (lag3 4)	모형 1-2 시스템GMM (lag3 4)	모형 1-3 고정효과	모형 2-1 차분GMM lag(3 4)	모형 2-2 시스템GMM lag(2 5)	모형 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1.13*** (0.13)	0.72*** (0.09)	0.93*** (0.03)	1.13*** (0.14)	0.98*** (0.05)	0.93*** (0.03)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30대)			모형 2(30~34세, 35~39세 구분)		
	모형 1-1 차분GMM (lag3 4)	모형 1-2 시스템GMM (lag3 4)	모형 1-3 고정효과	모형 2-1 차분GMM lag(3 4)	모형 2-2 시스템GMM lag(2 5)	모형 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2015년 이후 추세(급락세)	-0.04 (0.19)	-0.19 (0.27)	-0.24 (0.23)	-0.05 (0.19)	0.01 (0.06)	-0.27 (0.23)
30대		4.63 (3.28)				
30~34세					0.74 (3.47)	
35~39세					1.29*** (0.42)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2.38** (0.93)	-0.63 (0.94)	-1.64* (0.82)			
2015년 이후 급락세/30~34세				-3.17** (1.48)	-1.19 (3.91)	-2.86** (1.09)
2015년 이후 급락세/35~39세				-1.69*** (0.60)	-2.49 (2.58)	-0.29 (0.36)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00 (0.14)	-0.28 (0.34)	-0.10 (0.15)	-0.01 (0.14)	-0.25 (0.44)	-0.14 (0.15)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86* (0.47)	-0.44 (1.36)	-1.28* (0.72)			
2020년 이후/ 30~34세				-1.48** (0.67)	1.20 (6.63)	-2.45** (0.89)
2020년 이후/ 35~39세				-0.32 (0.25)	-1.44 (2.01)	-0.04 (0.58)
2024년 반등	0.04 (0.11)	-0.27 (0.33)	0.06 (0.10)	0.04 (0.11)	-0.05 (0.26)	0.01 (0.08)
2024년 반등/30대	1.60** (0.65)	0.87 (1.44)	0.21 (0.47)			
2024년/30~34세				2.27* (1.29)	5.92 (9.73)	-0.24 (0.65)
2024년/35~39세				1.00*** (0.31)	-3.35 (6.83)	0.72 (0.70)
상수항		0.53 (0.43)	0.61* (0.30)		-0.06 (0.19)	0.70** (0.27)
AR(1) p-value	0.073	0.054	Within R ² = 0.9574	0.074	0.049	Within R ² = 0.9599
AR(2) p-value	0.183	0.164		0.196	0.145	
Hansen p-value	0.123	0.251		0.129	0.546	
# of Instruments	8	11		11	17	
# of obs.	483	504	504	483	504	504
집단 수	21	21	21	21	21	21
기간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또는 $p < 0.1$),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 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제1절의 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기간을 2012~2024년으로 축소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모형 3), 출산율의 2015년 이후 하락은 30대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모형별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팬데믹 기간에는 30대에서 추가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였다. 2024년 반등은 차분GMM 모형(모형 3-1)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30대에서 시작된 출산율의 약한 회복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30대를 30~34세와 35~39세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모형 4)도 모형 3과 유사하며, 2015년 이후의 출산율 하락을 주도한 것은 30~34세이고, 35~39세의 하락은 30~34세보다는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의 30~34세의 출산율의 추가 하락은 모형별로 일관되게 관측되었다. 2024년 반등은 차분 GMM(모형 4-1)에서는 30~34세, 35~39세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약한 회복 신호 정도로 보이며 확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표 5-3〉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분석기간(2012~2024년)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3(30대)			모형 4(30대 세분화)		
	모형 3-1 차분GMM lag(2 3)	모형 3-2 시스템GMM (lag3 3)	모형 3-3 고정효과	모형 4-1 차분GMM lag(2 3)	모형 4-2 시스템GMM lag(2 4)	모형 4-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1.07*** (0.03)	0.93*** (0.02)	0.95*** (0.02)	1.07*** (0.03)	1.00*** (0.09)	0.94*** (0.02)
2015년 이후 추세(급락세)	-0.50* (0.25)	-0.39** (0.18)	-0.28 (0.20)	-0.50* (0.26)	0.13 (0.25)	-0.30 (0.20)
30대		2.28** (0.83)				
30~34세					2.22 (7.41)	
35~39세					1.52* (0.77)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1.80*** (0.66)	-1.81*** (0.61)	-1.85*** (0.69)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3(30대)			모형 4(30대 세분화)		
	모형 3-1 차분GMM lag(2 3)	모형 3-2 시스템GMM (lag3 3)	모형 3-3 고정효과	모형 4-1 차분GMM lag(2 3)	모형 4-2 시스템GMM lag(2 4)	모형 4-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2015년 이후 급락세/30~34세				-2.50* (1.26)	-3.71 (4.56)	-2.69** (1.15)
2015년 이후 급락세/35~39세				-1.13* (0.58)	-1.61 (3.57)	-1.01** (0.42)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33* (0.18)	-0.24** (0.09)	-0.11 (0.10)	-0.33* (0.18)	0.62 (0.63)	-0.15 (0.10)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53 (0.34)	-1.31** (0.46)	-1.45** (0.54)			
2020년 이후/ 30~34세				-1.15* (0.57)	-5.06 (10.57)	-2.19** (0.88)
2020년 이후/ 35~39세				0.05 (0.25)	-1.40 (2.76)	-0.75 (0.47)
2024년 반등	-0.15 (0.12)	-0.08* (0.04)	0.06 (0.07)	-0.16 (0.12)	0.56 (0.76)	0.01 (0.07)
2024년 반등/30대	1.68*** (0.53)	0.43 (0.35)	0.06 (0.26)			
2024년/30~34세				2.14** (0.96)	-1.98 (7.33)	0.05 (0.19)
2024년/35~39세				1.23*** (0.31)	-0.18 (8.28)	-0.01 (0.45)
상수항		0.17** (0.08)	0.54** (0.25)		-0.48* (0.23)	0.67** (0.24)
AR(1) p-value	0.082	0.084	Within R ² = 0.9532	0.081	0.095	Within R ² = 0.9557
AR(2) p-value	0.116	0.106		0.172	0.195	
Hansen p-value	0.726	0.824		0.695	0.532	
# of Instruments	8	10		11	16	
# of obs.	273	273	273	273	273	273
집단 수 (순위별/연령대별)	21	21	21	21	21	21
기간	'12~'24	'12~'24	'12~'24	'12~'24	'12~'24	'12~'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또는 $p < 0.1$),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 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제1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후 기본 모형(모형 3)을 기준으로 2012년 이후의 거시변수들의 영향을 포함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¹⁶⁾ 거시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2015년 이후의 구조적 변화 및 30대의 출산율 변화, 출산율 감소세가 2024년에는 팬데믹 영향기보다는 악화된 것이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추가로 거시변수들과 출산율의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3에 혼인율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모형 5), 혼인율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혼인율과 출산율과의 양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두 변수가 장기적 하락 추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추세 공선성)(모형 5). 모형 6에서는 전기의 전년 대비 혼인율의 변화(혼인율의 차분)를 추가하였는데, 혼인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관찰되었다. 장기적으로는 혼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추세가 제거되면 단기적으로는 혼인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포함한 모형(모형 7)에서는, 2년 전 혼인율의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용률은 계수 부호가 일관되게 음(-)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주거비 부담률을 추가한 모형(모형 8)에서는 주거부담률이 출산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9에서는 모형 8에 GDP 대비 가족 지출의 비중을 추가하였다. 혼인율과 고용률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거부담률은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보여 주거비 상승과 출산율 감소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양(+),의 효과를 보여 저출생 정책의 지출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모형의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혼인율 변화를 추가한 모형 10에서

16) 모형별 적합 결과는 부표 참고

도 가족 지출의 양(+)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총계를 활용하여 가족정책의 다양한 서비스별 효과는 살펴보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계수의 방향성만을 확인하였다. 모형 11에서는 사교육비를 추가하였는데,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 비용을 높여 다음 해의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에서는 가족 지출 비중 확대는 출산율에 2년의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 12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가치관 점수의 단위(5점 만점)로 인해서 계수가 커 보이나 실제 변동 폭은 작아 방향만이 의미 있다고 보이며, 혼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에 대한 가치 약화가 출산율 하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4〉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차분GMM 결과) - 거시변수 추가

(종속변수=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5 (혼인율)	모형 6 (혼인율 변화)	모형 7 (고용률)	모형 8 (주거 부담률)	모형 9 (가족지출 비중 1)	모형 10 (가족지출 비중 2)	모형 11 (사교육비)	모형 12 (결혼 가치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출산율	1.07*** (0.03)	1.05*** (0.04)	0.97*** (0.08)	0.71*** (0.11)	0.69*** (0.06)	0.83*** (0.05)	1.02*** (0.02)	1.04*** (0.03)
2년 전 혼인율	-0.07*** (0.02)		0.00 (0.04)	0.06 (0.06)	0.09 (0.05)			
t-1 전년 대비 혼인율 증감		0.03* (0.02)				0.02 (0.03)	0.05** (0.02)	0.05* (0.03)
전년도 고용률			-0.13* (0.07)	-0.03 (0.04)	-0.03 (0.03)	-0.24*** (0.07)	-0.12** (0.05)	-0.09 (0.05)
전년도 주거부담률				-0.10** (0.05)	-0.09** (0.03)			
t-2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0.62* (0.35)	0.94** (0.40)	2.19*** (0.79)	1.04** (0.47)

(종속변수=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5 (혼인율)	모형 6 (혼인율 변화)	모형 7 (고용률)	모형 8 (주거 부담률)	모형 9 (가족지출 비중 1)	모형 10 (가족지출 비중 2)	모형 11 (사교육비)	모형 12 (결혼 가치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결혼 가치관 (궁정)								7.29* (4.07)
사교육비 증가율							-0.03** (0.01)	
2015년 이후 추세(급락세)	-0.88* (0.42)	-0.89* (0.43)	0.01 (0.35)	-0.29 (0.27)	-0.58** (0.27)	-0.48 (0.33)	-0.47 (0.35)	-0.68 (0.47)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1.59** (0.70)	-1.46* (0.69)	-1.48 (0.86)	-1.12 (0.86)	-0.98* (0.57)	-1.48** (0.52)	-1.98*** (0.54)	-1.87*** (0.58)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78* (0.39)	-0.61* (0.34)	-0.17 (0.27)	-0.22 (0.22)	-0.54** (0.24)	-1.03* (0.50)	-1.51** (0.68)	-1.07 (0.63)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25 (0.41)	-0.29 (0.39)	-0.28 (0.53)	-0.48 (0.82)	-0.29 (0.47)	-0.18 (0.37)	-0.51* (0.29)	-0.46 (0.33)
2024년 반등	-0.56* (0.32)	-0.34 (0.25)	0.02 (0.25)	-0.08 (0.15)	-0.39* (0.19)	-0.78 (0.45)	-1.61** (0.71)	-0.82 (0.53)
2024년 반등/ 30대	2.13*** (0.63)	1.82*** (0.57)	1.69** (0.80)	0.76 (0.72)	1.28* (0.70)	2.48*** (0.78)	2.19*** (0.72)	2.06*** (0.69)

주: 1) 상세한 결과는 부표 참고.

2) * p<0.10, ** p<0.05, *** p<0.01

출처: 제1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출생순위별 출산율별로도 2024년 반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을 적합한 결과(모형 13) 출산율의 강한 자기 지속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 충격 후에도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이후 전체적으로 출산율의 하락세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에서 음의 계수가 나타나 첫째아와 둘째아 중심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고, 팬데믹 기간에도 하락 효과가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의 반등 정도는 낮은 편이나 첫째아 출산율은 뚜렷하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이

첫째아 출산 증가에서 크게 기인했다는 기초 통계분석 등의 실증적 근거와 일치한다. 즉 팬데믹 이후 혼인 후 첫 출산의 회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4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설명변수를 추가했는데, 여기에서도 2024년 첫째아의 회복 신호가 관측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나 정책지표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변화보다는 팬데믹 이후의 혼인 이후 첫 출산 시점의 정상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5-5〉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출생순위별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3(출생순위별)			모형 14(출생순위별+추가변수)		
	모형13-1 차분GMM lag(1 2)	모형13-2 시스템GMM lag(2 4)	모형13-3 고정효과	모형14-1 차분GMM lag(2 4)	모형14-2 시스템GMM lag(2 4)	모형14-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0.92*** (0.04)	0.94*** (0.03)	0.97*** (0.02)	0.83*** (0.05)	0.96*** (0.03)	0.93*** (0.03)
전년도 혼인율 증감				0.02 (0.03)	0.03 (0.07)	0.08* (0.05)
전년도 고용률				-0.17*** (0.06)	-0.02 (0.02)	-0.15** (0.05)
2년 전 GDP 대비 SOCX 비중				0.90** (0.38)	0.09 (0.30)	0.50* (0.26)
2015년 이후 급락세	-0.14* (0.08)	-0.25 (0.15)	-0.31* (0.16)	-0.10 (0.13)	-2.49 (1.93)	-0.09 (0.14)
첫째아		0.59 (1.06)			-0.61 (0.97)	
둘째아		0.39 (0.46)			-2.31 (2.96)	
2015년 이후 급락세/ 출생순위-첫째아	-1.27 (0.81)	-0.48 (1.55)	-1.15 (0.77)	-1.60* (0.85)	1.62 (1.74)	-1.38* (0.74)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3(출생순위별)			모형 14(출생순위별+추가변수)		
	모형13-1 차분GMM lag(1 2)	모형13-2 시스템GMM lag(2 4)	모형13-3 고정효과	모형14-1 차분GMM lag(2 4)	모형14-2 시스템GMM lag(2 4)	모형14-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2015년 이후 급락세/ 출생순위-둘째아	-1.12* (0.56)	-0.69 (0.56)	-0.81 (0.62)	-1.11* (0.58)	3.54 (4.22)	-1.00 (0.58)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09 (0.07)	-0.26 (0.16)	-0.30* (0.16)	-0.48** (0.19)	-3.61 (2.87)	-0.28 (0.24)
'21~'23년 구조변화/ 출생순위-첫째아	-0.66 (0.53)	-0.00 (0.97)	-0.39 (0.56)	-0.99 (0.65)	3.13 (2.59)	-0.62 (0.53)
'21~'23년 구조변화/ 출생순위-둘째아	-0.55 (0.34)	-0.45 (0.44)	-0.58 (0.51)	-0.58 (0.38)	6.07 (6.32)	-0.86* (0.47)
2024년 반등	0.06 (0.04)	-0.16* (0.09)	-0.18* (0.10)	-0.14 (0.23)	-5.10 (4.23)	0.14 (0.38)
2024년/출생순위 -첫째아	0.55 (0.54)	0.50 (0.60)	0.47** (0.19)	0.21 (0.61)	5.65 (4.87)	0.36 (0.59)
2024년/출생순위 -둘째아	0.32 (0.23)	0.08 (0.20)	0.05 (0.18)	0.23 (0.42)	10.01 (9.41)	-0.17 (0.38)
상수항		0.21 (0.13)	0.49 (0.35)		2.71 (1.88)	9.47** (3.43)
AR(1) p-value	0.079	0.085	Within R ² = 0.9472	0.074	0.082	Within R ² = 0.9548
AR(2) p-value	0.93	0.730		0.910	0.534	
Hansen p-value	0.528	0.129		0.961	0.174	
# of Instruments	11	18		14	19	
# of obs.	315	315	315	270	270	270
집단(순위별/연령대별)	21	21	21	18	18	18
기간	'10~'24	'10~'24	'10~'24	'10~'24	'10~'24	'10~'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또는 $p < 0.1$),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 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추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제1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2절 지역별·연령별 출산율 모형 구축 및 분석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은 광주, 강원도,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고, 2023년 대부분의 시도에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다(세종 제외, 충북은 2022년 역대 최저치 기록). 2024년 2사분기 때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24년 4분기에는 전체 시도에서 전년 동기비 증가를 기록했고, 2025년 1사분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5-6〉 시도별 출생아 수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출생아 수 (전년비)	43.8 0.7%	40.6 -7.3%	35.8 -11.9%	32.7 -8.7%	30.3 -7.4%	27.2 -10.0%	26.1 -4.3%	24.9 -4.4%	23.0 -7.7%	23.8 3.6%	-20.0 -45.7%
시도별 출생아 수(만 명)											
서울 (전년비)	8.3 -0.8%	7.6 -9.0%	6.5 -13.4%	5.8 -11.2%	5.4 -7.6%	4.7 -11.6%	4.6 -4.0%	4.3 -6.4%	3.9 -7.4%	4.2 5.4%	-4.1 -49.9%
부산 (전년비)	2.7 1.7%	2.5 -6.5%	2.1 -13.8%	1.9 -10.8%	1.7 -11.0%	1.5 -11.7%	1.4 -4.1%	1.4 -2.2%	1.3 -9.0%	1.5 1.5%	-1.4 -51.6%
대구 (전년비)	1.9 0.4%	1.8 -5.9%	1.6 -12.9%	1.4 -9.7%	1.3 -8.1%	1.1 -15.4%	1.1 -4.8%	1.0 -4.9%	0.9 -7.1%	1.0 7.4%	-0.9 -46.8%
인천 (전년비)	2.5 -1.1%	2.4 -7.4%	2.0 -13.4%	2.0 -1.8%	1.9 -7.8%	1.6 -13.4%	1.5 -6.8%	1.4 -3.2%	1.4 -5.6%	1.5 11.5%	-1.0 -39.1%
광주 (전년비)	1.2 -2.3%	1.2 -6.9%	1.0 -12.6%	0.9 -10.0%	0.8 -8.1%	0.7 -12.5%	0.8 8.7%	0.7 -6.4%	0.6 -17.1%	0.6 -2.2%	-0.6 -49.7%
대전 (전년비)	1.4 -1.3%	1.2 -9.7%	1.1 -12.7%	0.9 -14.0%	0.8 -9.9%	0.7 -11.0%	0.7 -0.9%	0.8 3.5%	0.7 -6.3%	0.7 1.0%	-0.7 -48.1%
울산 (전년비)	1.2 1.5%	1.1 -7.0%	0.9 -14.0%	0.8 -13.1%	0.8 -7.5%	0.7 -12.2%	0.6 -7.4%	0.5 -11.9%	0.5 -5.9%	0.5 3.9%	-0.7 -56.0%
세종 (전년비)	0.3 101.5%	0.3 21.8%	0.4 6.3%	0.4 5.7%	0.4 3.1%	0.3 -9.2%	0.4 2.9%	0.3 -10.1%	0.3 -14.0%	0.3 4.9%	0.0 -3.5%
경기 (전년비)	11.3 1.2%	10.6 -6.9%	9.4 -10.9%	8.8 -6.3%	8.3 -5.6%	7.8 -6.6%	7.6 -2.1%	7.5 -1.1%	6.9 -8.6%	7.1 3.6%	-4.2 -36.9%
강원 (전년비)	1.1 2.5%	1.0 -8.0%	0.9 -10.9%	0.8 -6.8%	0.8 -0.8%	0.7 -5.4%	0.8 -6.1%	0.7 -1.1%	0.7 -8.1%	0.7 -1.4%	-0.4 -40.1%

220 2024년 출생아 수 변동 원인 분석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충북	1.4	1.3	1.1	1.1	0.9	0.9	0.8	0.7	0.8	0.8	-0.6
(전년비)	1.5%	-6.1%	-10.6%	-7.1%	-11.8%	-7.8%	-4.8%	-9.0%	1.7%	-0.5%	-46.1%
충남	1.9	1.7	1.6	1.4	1.3	1.2	1.1	1.0	0.9	1.0	-0.9
(전년비)	2.2%	-7.0%	-9.4%	-8.2%	-8.0%	-9.7%	-8.1%	-6.9%	-7.7%	4.4%	-48.1%
전북	1.4	1.3	1.1	1.0	0.9	0.8	0.7	0.7	0.7	0.7	-0.7
(전년비)	-1.0%	-9.9%	-10.6%	-11.9%	-10.3%	-9.0%	-8.5%	-5.9%	-5.8%	2.4%	-51.6%
전남	1.5	1.4	1.2	1.1	1.1	1.0	0.8	0.8	0.8	0.8	-0.7
(전년비)	1.6%	-7.2%	-11.6%	-9.0%	-3.6%	-10.1%	-13.4%	-6.4%	-0.8%	5.1%	-45.2%
경북	2.2	2.1	1.8	1.6	1.4	1.3	1.2	1.1	1.0	1.0	-1.2
(전년비)	1.1%	-7.6%	-12.9%	-10.5%	-10.0%	-11.0%	-6.4%	-6.1%	-9.9%	1.4%	-53.0%
경남	3.0	2.7	2.4	2.1	1.9	1.7	1.6	1.4	1.3	1.3	-1.7
(전년비)	-0.8%	-8.1%	-12.1%	-11.0%	-9.3%	-12.6%	-7.5%	-9.9%	-6.9%	0.1%	-56.4%
제주	0.6	0.5	0.5	0.5	0.5	0.4	0.4	0.4	0.3	0.3	-0.3
(전년비)	1.3%	-1.9%	-8.3%	-5.1%	-5.9%	-11.4%	-6.5%	-3.5%	-10.5%	-2.0%	-47.4%
시도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명))											
서울	1.00	0.94	0.84	0.76	0.72	0.64	0.63	0.59	0.55	0.58	-0.42
부산	1.14	1.10	0.98	0.90	0.83	0.75	0.73	0.72	0.66	0.68	-0.46
대구	1.22	1.19	1.07	0.99	0.93	0.81	0.79	0.76	0.70	0.75	-0.47
인천	1.22	1.14	1.01	1.01	0.94	0.83	0.78	0.75	0.69	0.76	-0.46
광주	1.21	1.17	1.05	0.97	0.91	0.81	0.90	0.84	0.71	0.70	-0.51
대전	1.28	1.19	1.08	0.95	0.88	0.81	0.81	0.84	0.79	0.79	-0.49
울산	1.49	1.42	1.26	1.13	1.08	0.98	0.94	0.85	0.81	0.86	-0.63
세종	1.89	1.82	1.67	1.57	1.47	1.28	1.28	1.12	0.97	1.03	-0.86
경기	1.27	1.19	1.07	1.00	0.94	0.88	0.85	0.84	0.77	0.79	-0.48
강원	1.31	1.24	1.12	1.07	1.08	1.04	0.98	0.97	0.89	0.89	-0.42
충북	1.41	1.36	1.24	1.17	1.05	0.98	0.95	0.87	0.89	0.88	-0.53
충남	1.48	1.40	1.28	1.19	1.11	1.03	0.96	0.91	0.84	0.88	-0.60
전북	1.35	1.25	1.15	1.04	0.97	0.91	0.85	0.82	0.78	0.81	-0.54
전남	1.55	1.47	1.33	1.24	1.23	1.15	1.02	0.97	0.97	1.03	-0.52
경북	1.46	1.40	1.26	1.17	1.09	1.00	0.97	0.93	0.86	0.90	-0.56
경남	1.44	1.36	1.23	1.12	1.05	0.95	0.90	0.84	0.80	0.82	-0.62
제주	1.48	1.43	1.31	1.22	1.15	1.02	0.95	0.92	0.83	0.83	-0.65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수도권('24년 기준, 전체 출생아 수의 53.7%)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도 2024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출생아 수는 비수도권보다 약 6천 명 높고,

합계출산율 수준은 비수도권보다 낮았다. 이후 2015~2024년간 수도권
의 출생아 수는 42.3% 감소, 합계출산율은 0.4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에서는 출생아 수는 49.0% 감소, 합계출산율은 0.53명 감소하여 비수도
권에서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러나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연령별
출산율 기준으로는 2015~2024년의 수도권에서의 감소가 비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났다. 25~29세 모(母)의 출생아 수는 2015~2024년간 약
66.1% 감소, 출산율은 1천 명당 37.0명 감소(69.9% 감소), 30~34세 모
(母)의 출생아 수는 45.5% 감소, 출산율은 46.7명 감소(42.1% 감소)했
다.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25~29세 모(母)의 출생아 수는 64.2% 감소, 출
산율은 48.3명 감소(63.7% 감소), 30~34세 모(母)의 출생아 수는 49.0%
감소, 출산율은 44.5명 감소(36.0%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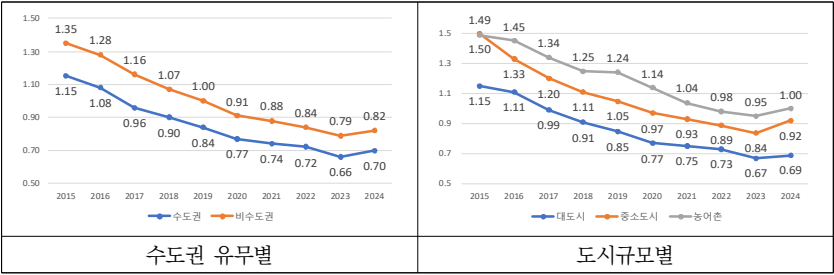
〈표 5-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출생아 수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0
(전년비)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45.7%
수도권 유무별 출생아 수(만 명)											
수도권	22.2	20.5	18.0	16.6	15.5	14.1	13.7	13.2	12.2	12.8	-9.4
(전년비)	0.1%	-7.7%	-12.1%	-7.6%	-6.6%	-9.1%	-3.3%	-3.1%	-7.9%	5.1%	-42.3%
비수도권	21.6	20.1	17.8	16.0	14.7	13.1	12.4	11.7	10.8	11.0	-10.6
(전년비)	1.2%	-6.9%	-11.7%	-9.8%	-8.2%	-11.0%	-5.5%	-5.8%	-7.4%	1.9%	-49.0%
수도권 유무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명))											
수도권	1.15	1.08	0.96	0.90	0.84	0.77	0.74	0.72	0.66	0.70	-0.45
전년차	0.03	-0.07	-0.12	-0.07	-0.06	-0.07	-0.02	-0.02	-0.06	0.04	
비수도권	1.35	1.28	1.16	1.07	1.00	0.91	0.88	0.84	0.79	0.82	-0.53
전년차	0.05	-0.07	-0.13	-0.09	-0.07	-0.09	-0.03	-0.04	-0.05	0.03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
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로 도시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도시('23년 기준, 전체 출생아 수의 69.1%), 중소도시(24.3%), 농어촌(6.5%)에서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팬데믹 기간에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율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석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합계출산율 수준이 0.75로 상당히 낮은 상태였음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지역 구분별 합계출산율 추이(2015~2024년)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1993~2024),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B040M5_1&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8〉 도시 규모별 분석 결과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출생아 수 (전년비)	43.8 0.7%	40.6 -7.3%	35.8 -11.9%	32.7 -8.7%	30.3 -7.4%	27.2 -10.0%	26.1 -4.3%	24.9 -4.4%	23.0 -7.7%	23.8 3.6%	-20 -45.7%
도시 규모별 출생아 수(만 명)											
대도시	30.3	28.5	24.9	22.7	20.9	18.8	18.2	17.5	16.1	16.5	-13.8
전년비	0.5%	-5.9%	-12.7%	-8.9%	-7.7%	-10.2%	-3.1%	-4.0%	-7.8%	2.3%	-45.7%
중소도시	10.5	9.2	8.2	7.6	7.0	6.4	6.1	5.8	5.4	5.8	-4.7
전년비	1.6%	-12.2%	-10.5%	-7.9%	-7.2%	-8.9%	-5.4%	-4.2%	-8.0%	7.9%	-44.9%
농어촌	3.0	2.9	2.6	2.4	2.3	2.0	1.8	1.6	1.5	1.6	-1.5
전년비	-0.4%	-4.3%	-9.0%	-8.5%	-4.8%	-11.8%	-12.0%	-9.1%	-5.1%	2.4%	-48.0%
도시 규모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명))											
대도시	1.15	1.11	0.99	0.91	0.85	0.77	0.75	0.73	0.67	0.69	-40.3%
전년차	0.03	-0.04	-0.12	-0.07	-0.06	-0.08	-0.02	-0.03	-0.06	0.02	-0.46
중소도시	1.50	1.33	1.20	1.11	1.05	0.97	0.93	0.89	0.84	0.92	-38.9%
전년차	0.05	-0.17	-0.13	-0.09	-0.07	-0.08	-0.04	-0.03	-0.05	0.08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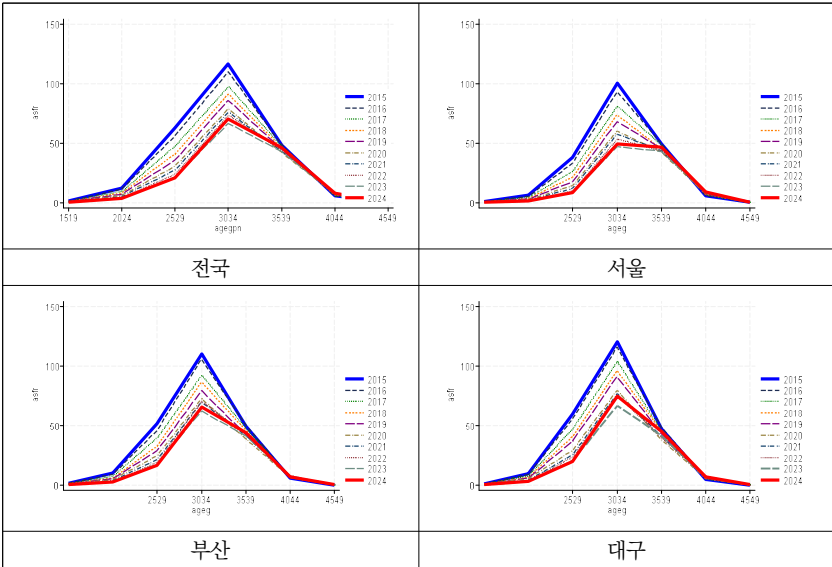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24 증감
농어촌	1.49	1.45	1.34	1.25	1.24	1.14	1.04	0.98	0.95	1.00	-33.0%
전년차	0.02	-0.05	-0.11	-0.08	-0.02	-0.10	-0.10	-0.06	-0.03	0.05	-0.49

주: 대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2024년 현재 대도시 기준 적용), 농어촌은 시군구 구분상 '군' 지역.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 연간자료 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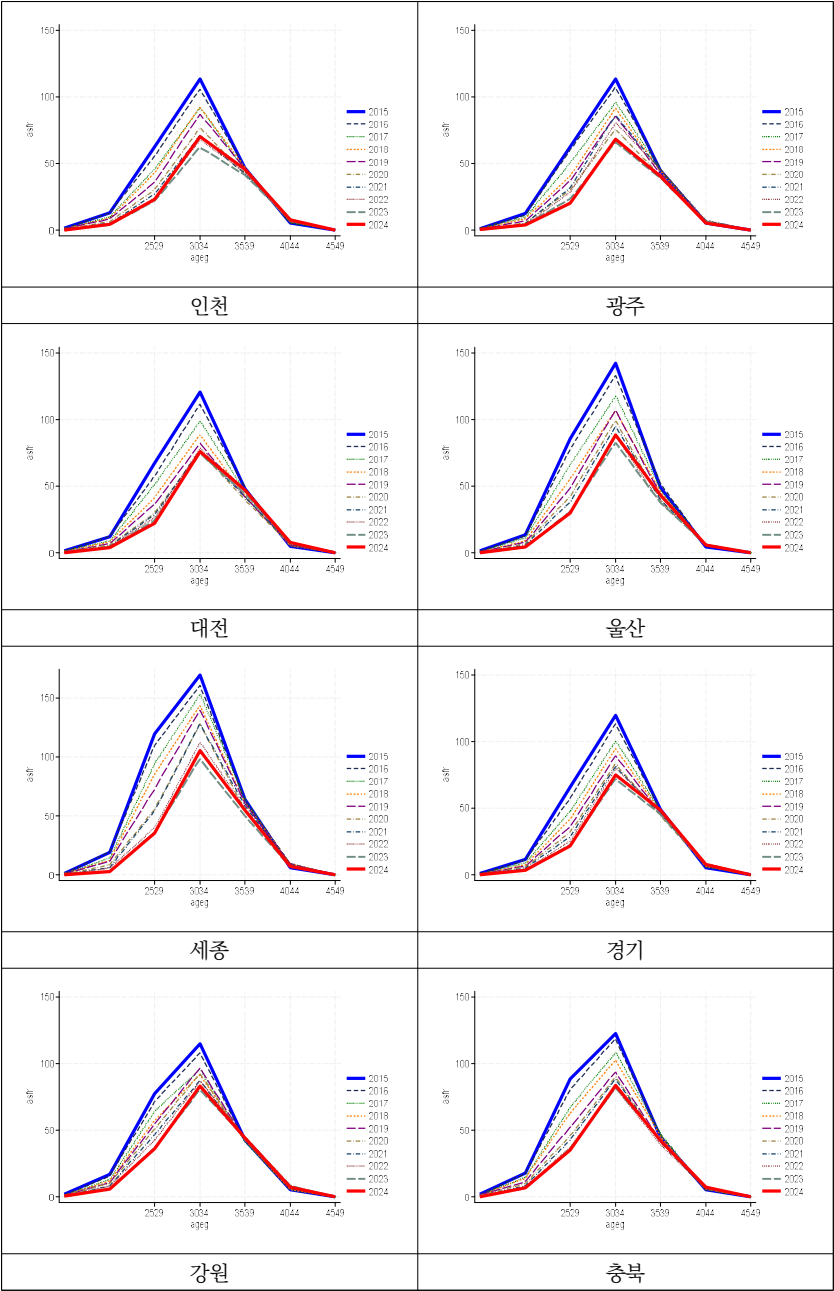
시도별 연령대별 출산율을 기반으로 앞의 결과 유사한 동태패널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도별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이후 17개 시도별 모든 연령대별 출산율은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0대에서 소폭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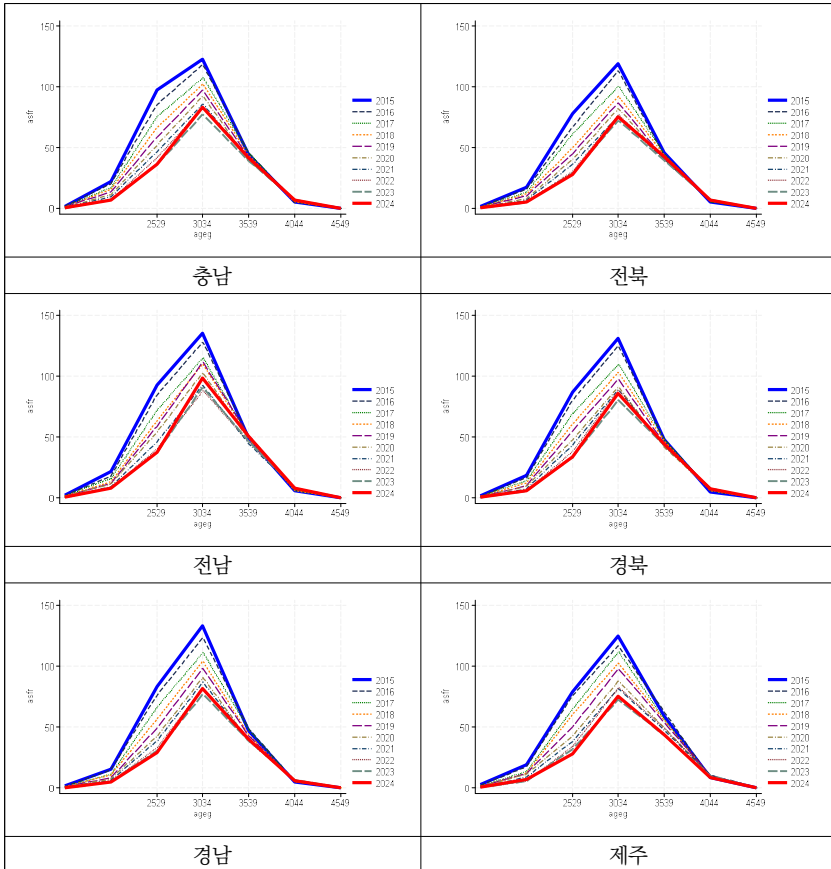
[그림 5-3] 연도별 시도별 연령대별 출산율

(단위: 해당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명)



224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출생 연간자료 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5.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모형 1), 2015년 대비 전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6~2020년 기간 동안 30대의 출산율 하락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2024년의 하락 폭은 축소되어 부분적 회복 혹은 반등의 신호가 보이며, 30대의 출산율 하락 폭도 현저히 완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혼인율을 추가한 모형(모형 2)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혼인율로 인해 출산율의 자기 지속성이 약간 낮아져 혼인율이 일부 출산율 지속 효과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GMM 모형(모형 2-2)에서는 혼인율의 선행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2016~2024년까지 연도별 더미의 계수에서 2015년 대비 하락을 보였으나, 2024년의 계수값은 작아져 하락세가 완화되거나 부분적 반등의 신호가 유지되었다. 30대의 출산율 하락도 모형 1과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표 5-9〉 출산율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지역별 출산율 활용

(종속변수=지역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			모형 2(혼인율 추가)		
	모형 1-1 차분GMM lag(3 4)	모형 1-2 시스템GMM lag(3 4)	모형 1-3 고정효과	모형 2-1 차분GMM lag(2 4)	모형 2-2 시스템GMM lag(2 4)	모형 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지역별 연령대별 출산율	0.78*** (0.02)	0.79*** (0.02)	0.88*** (0.02)	0.69*** (0.08)	0.61*** (0.04)	0.84*** (0.04)
2년 전 혼인율	-	-	-	0.15 (0.13)	0.30*** (0.05)	0.07 (0.06)
연도별_2016년	-1.88*** (0.54)	-1.94*** (0.57)	-1.83*** (0.59)	-1.54*** (0.67)	-1.42*** (0.51)	-1.71*** (0.64)
2017년	-2.99*** (0.67)	-3.09*** (0.69)	-2.82*** (0.68)	-2.81*** (0.72)	-2.90*** (0.65)	-2.76*** (0.71)
2018년	-3.07*** (0.65)	-3.06*** (0.66)	-2.56*** (0.64)	-2.81*** (0.74)	-2.76*** (0.62)	-2.48*** (0.68)
2019년	-2.95*** (0.69)	-3.01*** (0.70)	-2.32*** (0.65)	-2.65*** (0.81)	-2.64*** (0.66)	-2.19*** (0.72)
2020년	-3.47*** (0.76)	-3.53*** (0.77)	-2.67*** (0.71)	-3.11*** (0.95)	-3.10*** (0.76)	-2.52*** (0.81)
2021년	-3.17*** (0.64)	-3.14*** (0.64)	-2.21*** (0.56)	-2.70*** (0.88)	-2.49*** (0.61)	-2.00*** (0.68)
2022년	-3.56*** (0.78)	-3.57*** (0.78)	-2.49*** (0.70)	-2.92*** (1.13)	-2.61*** (0.74)	-2.20*** (0.87)
2023년	-3.45*** (0.71)	-3.42*** (0.70)	-2.26*** (0.61)	-2.67*** (1.14)	-2.16*** (0.63)	-1.90*** (0.81)
2024년	-3.09*** (0.64)	-3.07*** (0.63)	-1.83*** (0.54)	-2.30*** (1.09)	-1.78*** (0.56)	-1.46*** (0.76)

(종속변수=지역별 연령대별 출산물)	모형 1			모형 2(혼인을 추가)		
	모형 1-1 차분GMM lag(3 4)	모형 1-2 시스템GMM lag(3 4)	모형 1-3 고정효과	모형 2-1 차분GMM lag(2 4)	모형 2-2 시스템GMM lag(2 4)	모형 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30대	-	16.06*** (1.65)	-	-	24.58*** (2.45)	-
연도별/30대_2016년	-5.73*** (1.51)	-3.65*** (1.19)	-6.43*** (1.54)	-5.53*** (1.37)	-3.83*** (0.85)	-6.31*** (1.45)
2017년	-9.03*** (1.66)	-6.97*** (1.35)	-9.61*** (1.62)	-9.19*** (1.64)	-7.76*** (1.13)	-9.65*** (1.62)
2018년	-7.65*** (1.69)	-5.49*** (1.35)	-7.74*** (1.70)	-8.22*** (1.82)	-7.17*** (1.11)	-7.98*** (1.77)
2019년	-7.65*** (1.56)	-5.83*** (1.30)	-7.49*** (1.56)	-8.50*** (1.87)	-7.87*** (1.06)	-7.87*** (1.72)
2020년	-10.09*** (1.83)	-7.77*** (1.39)	-9.81*** (1.81)	-11.29*** (2.35)	-10.62*** (1.21)	-10.34*** (2.06)
2021년	-7.38*** (1.73)	-5.13*** (1.25)	-6.73*** (1.68)	-8.94*** (2.48)	-8.78*** (1.30)	-7.43*** (2.00)
2022년	-7.62*** (2.08)	-4.79*** (1.46)	-7.01*** (2.08)	-9.15*** (2.74)	-8.47*** (1.27)	-7.68*** (2.37)
2023년	-10.51*** (2.16)	-7.97*** (1.70)	-9.78*** (2.07)	-12.07*** (2.81)	-11.56*** (1.40)	-10.49*** (2.38)
2024년	-4.43*** (1.63)	-2.38** (1.18)	-3.32** (1.61)	-6.41** (2.72)	-6.67*** (1.09)	-4.24** (2.06)
상수항	-	4.61*** (0.81)	6.34*** (1.03)	-	1.52** (0.60)	5.95*** (1.02)
AR(1) p-value	0.000	0.000	Within R ² = 0.9215	0.006	0.004	Within R ² = 0.9220
AR(2) p-value	0.913	0.959		0.916	0.856	
Hansen p-value	0.456	0.102		0.749	0.370	
# of Instruments	20	23		21	24	
# of obs.	1071	1190	1190	1071	1190	1190
집단(순위별/연령대별)	119	119	119	119	119	119
기간	'15~'24	'15~'24	'15~'24	'15~'24	'15~'24	'15~'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또는 $p < 0.1$),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 GMM 모형 추정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추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제1절의 2.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를 포함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는 연구의 범위 및 지역별 가용 변수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다. 지역 간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도권 여부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보여왔고 수도권의 출산율이 비수도권보다 계속 낮은 수준에서 변동 폭도 비수도권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별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 효과 등의 이질성을 충분히 통제하고 지역 분석에 적합한 분석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출산율과 혼인율의 추세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된 출산의 일부 회복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소결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및 출산 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학적, 거시경제적, 사회·정책적 요인들이 개인의 혼인과 출산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개인 단위 미시 패널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근 출산자의 행태적 특성 분석에 적합한 미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정책 변수 등의 집계 단위도 개인 단위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등의 제약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출산순위별, 연도별로 집계된 출산율을 활용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연령 집단의 평균 행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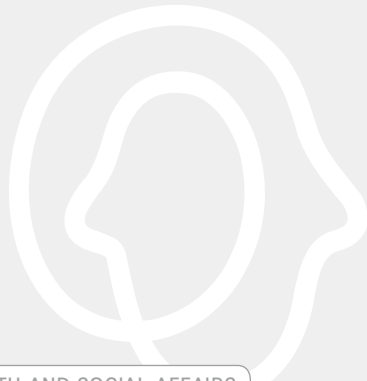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출산율의 감소세가 완화되었고, 2024년에는 일부 연령·순

위대에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2015년 이후 출산율 하락에 있어서는 30대의 출산율 하락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팬데믹 기간에도 추가 감소가 보였으나, 2024년에는 모형별로 상이하나 팬데믹 기간보다는 하락 폭이 감소하고 소폭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2년 전 혼인율, 혹은 전년도 혼인율 증감과 출산율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혼인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GDP 대비 가족 지출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으나, 계수가 대체로 양(+)의 방향을 보여 정책 지원 확대의 출산율 하락 완화 효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출산율 변화에서는 30대 초반 여성과 첫째아 출산율의 회복이 두드러져,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혼인과 출산의 보상 효과와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연령×출산순위 집계 패널로 평균적 출산 행태를 추정했으나, 경제·사회·문화적 구조적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나 2024년 전후 정책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인구동태조사, 행정데이터(건강보험, 혼인·출생신고) 등을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혼인-출산 이행 모형을 구축하고 출산 결정의 개인 내 이질성(가치관, 고용 형태, 주거 형태 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출산율의 추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향후 지역별 저출생 정책, 주거·고용 여건, 사회인식 변화 등을 통합한 다층(지역·연령·가구) 분석이나 공간패널모형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전환인지, 일시적 보상 효과인

지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에도 혼인 및 출산 결정 분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및 장기패널 구축이 요구된다. 추가로, 현재 5세 단위 패널 형태를 1세 단위로 확장, 전체 인구 대비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이행,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 등으로 출산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의 분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30대 초의 최근 혼인 및 출산 행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코호트 분석을 통해 다른 코호트와의 비교분석, 코호트가 경험한 사회·경제·정책적 요인 등의 영향에 따른 혼인-출산 이행 분석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급락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다. 제2장의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 분석 결과, 시계열 추세 모형을 기반으로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은 통계적으로 일시적 변동 범위 내의 반등, 혹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혼인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2023년에 발생한 일시적 저점에서 출생아 수가 추세상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약 8.3천 명)는 15~49세 가임여성 인구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 인구의 증가와 30대의 출산율 변화가 주도한 결과로 보인다. 세부 연령대별 분해 결과, 30대 초의 인구와 30대 연령대(30~34세, 35~39세)별 출산율 증가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출산이 2024년에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령대별 출산율은 팬데믹 전기 및 영향기와 비교했을 때 35~39세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으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연령대별 출산율 등의 지표가 2022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 대비 2024년의 소폭 증가는 기저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2~3년간의 추가 관찰치가 있어야 구조적 반등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무배우 및 유배우 여성 인구수 및 유배우율 등의 변화 등을 추정하여 2024년 출생아 수의 반등을

인구-혼인-출산을 변화로 분해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였는데,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 규모(약 8천명)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효과가 컸다. 다만, 이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은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효과로 상쇄되었다. 자녀수를 고려했을 때 유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와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로 설명된다. 20~49세 무배우 여성 출산율 증가 역시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전년 대비 약 2.5천 명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31% 기여).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혼인 연기가 해소되며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인구수가 증가했고 유배우 여성 중 자녀 출산 확률이 높은 신혼부부의 비율을 높여, 2024년 첫째아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배우 여성 인구의 유자녀 비율은 감소세에 있으나, 2024년에는 연기된 추가 출산이 재개되고 자녀 양육 여건이 양호한 집단의 선택성이 증가하여 추가 자녀 출산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2024년 출산자 대상 출산결정요인 조사 결과, 출생통계와 유사하게 2024년 출산자는 30대 및 동거·혼인 연차가 5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출산 결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 의지, 연령 및 건강, 육아 지원, 주거 및 경제적 안정 순이었다. 정책의 출산 결정에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그럼에도 정책 중에서는 현금성 지원(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안정성 및 일·가정 양립 제도는 첫 출산자에게, 보육시설/돌봄 지원은 추가 출산자에게 상대적

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2024년 출산아의 주 돌봄자는 여전히 응답자 본인(출생아의 모(母))인 경우가 74.0%로 나타나 여성에게 가사 및 돌봄이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출산모 중 25.1%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어려움을 꼽았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9.3%로 현저히 낮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직장 문화적 사유와 급여 감소 우려가 높았다.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25~49세 여성 응답자의 21.7%가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무자녀자 중 49.1%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육 비용 부담, 양육 스트레스 등이 출산 의향 저해요인이며, 출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 양육비/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 안전한 주거 등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의 2015년 이후 출산율을 설명하는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전반적인 출산율과 특히 30대 출산율의 하락이 컸으나 2020년 이후 하락 폭이 감소했고, 2024년에는 출산율 하락 폭이 팬데믹 기간보다는 감소했으며 30대 출산율의 유의한 회복이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의 회복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혼인과 출산의 보상 효과로 보인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경제, 정책 등의 거시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년 전 혼인율의 감소가 출산율 하락에 구조적인 요인임을 확인했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주거비 부담이 클 경우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가족 정책에 대한 확대나 결혼 가치관 등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거시변수들의 최근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고 시차를 두고 출산율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 시기상 2024년(일부 2025년 2사분기 포함)까지의 출생통계 시계열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2024년 반등이 구조적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 보상 효과인지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간의 추가 관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 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시변수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2024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출산자의 행태적 특성 분석에 적합한 개인 단위 미시 패널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미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개인 단위의 혼인 및 출산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함께 지역별 저출생 정책, 주거·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층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30대 초반의 인구수 변화와 함께 최근 혼인 및 출산 행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호트 분석을 통해 다른 코호트와의 비교분석 및 코호트가 경험한 사회·경제·정책적 요인 변화 등에 따른 혼인-출산 이행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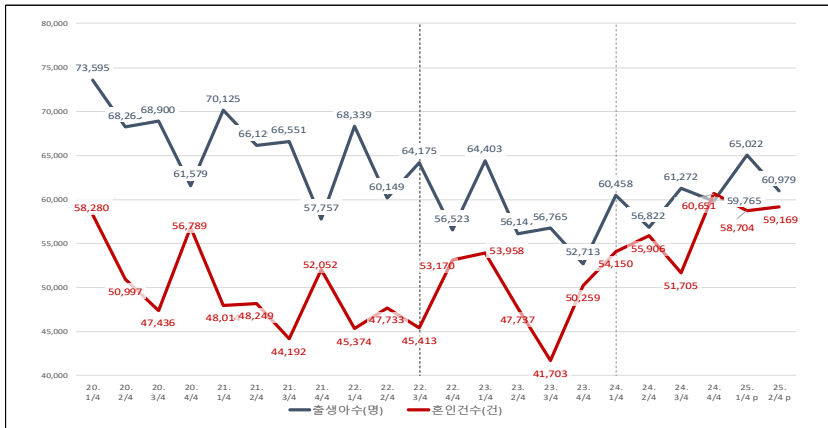
제2절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시사점

2024년 4월 이후 2025년 8월 현재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2. 26). 팬데믹 이후 연령대별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인구 수가 2030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2년 전 대비 개선되었고 저출생 대책 추가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어, 2024년 반등을 계기로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증가 추세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2024년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인 노동시장 요인, 주거 및 양육·교육비 부담 등의 거시변수들의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출생아 수 추세와 관련하여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추가로 살펴보고 추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비 증가세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2024년 2사분기부터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4년 4월 이후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얼마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2024년 연령별 혼인율은 남성 전 연령대에서(일반 혼인율 1.3명 증가),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일반혼인율 1.2명 증가)했고, 2024년 전체 혼인 건수 중 80%를 차지하는 남녀 초혼이 전년비 19.5% 상승하여, 혼인 중 출산 비중이 높

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 출산 연령대의 혼인율의 증가는 출생아 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연기되었던 혼인이 해소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 증가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다가 2023년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의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 이후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6-1]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추이(2020~2025년 2사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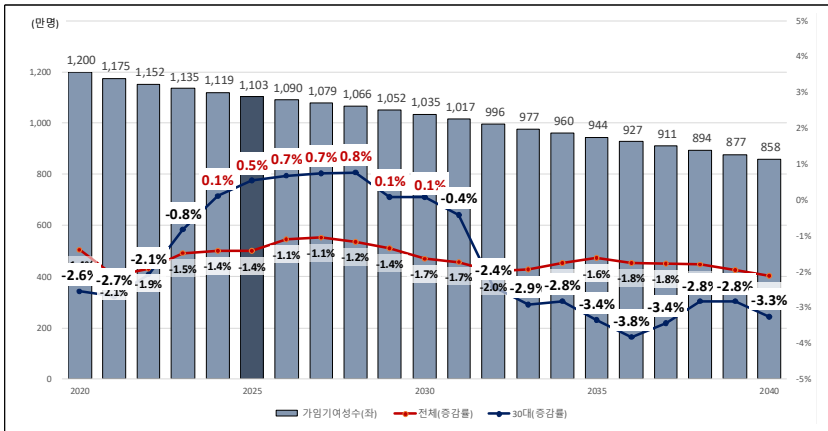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월, 분기.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10. 3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인구학적 요인 중의 하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인구수 증가이다. 가임여성 15~49세 인구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에코붐 세대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0~34세 여성인구 수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인구가 30대 후

반이 되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는 35~39세 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2] 가임기 여성 수의 변화(2020~2040년, 2022년 추계)



출처: “장래인구추계(전국).” 국가데이터처, 1960~2072,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30대 인구의 증가세는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연령대별 출산율이 203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성인구 수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1%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인구 증가가 없었다면 여성인구 수의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이나, 일시적인 30대 인구 증가로 출생아 수에의 인구 효과가 2025~2030년까지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결혼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2년 전보다 향상된 것도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특히 2년 전보다 미혼, 35세 이하 미혼 여성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2022년은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미혼 중 20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 비율이 2018년 이후 높아져 오고 있고, 30대의 긍정 비율은 2018~2022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2년 대비 2024년에는 긍정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30~34세의 긍정 비율이 2년 전 대비 5.8%p 증가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 34세 미만에서 2년 전 대비 증가한 것이 나타나나, 35~39세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6-1〉 “결혼해야 한다” 긍정 비율

구분	전체		미혼					미혼-여성	
	'24년	'22년 대비	'18년	'20년	'22년	'24년	'22년 대비	'24년	'22년 대비
전체	52.5%	2.5%p	30.1%	32.7%	30.6%	34.9%	4.3%p	26.0%	3.9%p
20세 미만	33.7%	4.6%p	28.4%	32.8%	29.1%	33.6%	4.5%p	23.7%	2.4%p
20~24세	39.5%	5.7%p	30.8%	32.7%	33.3%	39.2%	5.9%p	31.3%	7.2%p
25~29세	39.9%	3.8%p	33.7%	36.5%	33.7%	38.2%	4.5%p	29.9%	4.0%p
30~34세	43.8%	4.6%p	33.0%	33.6%	33.4%	39.2%	5.8%p	26.5%	7.3%p
35~39세	44.1%	2.1%p	27.7%	30.2%	27.4%	28.4%	1.0%p	16.1%	-3.6%p
40~44세	42.9%	1.7%p	23.4%	24.2%	23.0%	25.2%	2.2%p	22.6%	4.8%p

출처: “사회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2018-2024, 건강/교육과훈련/범죄와안전/가족/생활환경(제공), 2025. 9.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20006530.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녀에 관한 가치관에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2년 전 대비 3.1%p 증가했고, 미혼 연령대별로는 2018년 이후 30대에서 하락세가 관찰되었으나 2024년에는 40대 미만 전 연령대에서 2년 전 대비 증가가 관찰되었다. 특히 34세 이하 미혼 여성의 긍정 응답이 2년 전 대비 높아졌다. 다만,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실제 혼인 및 출산 의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는 추가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6-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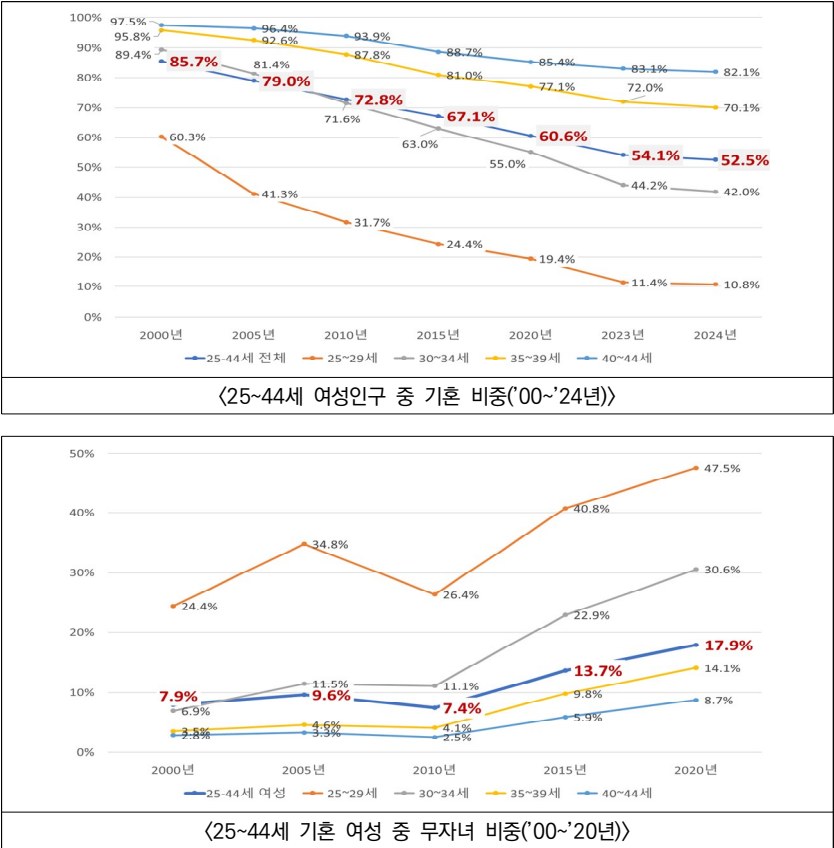
구분	전체		미혼					미혼-여성	
	'24년	'22년 대비	'18년	'20년	'22년	'24년	'22년 대비	'24년	'22년 대비
전체	68.4%	3.1%p	51.5%	39.4%	46.7%	52.1%	5.4%p	40.5%	6.5%p
20세 미만	45.6%	4.4%p	46.4%	44.2%	41.2%	45.6%	4.4%p	37.2%	4.1%p
20~24세	48.7%	6.3%p	47.1%	48.6%	42.2%	48.3%	6.1%p	40.0%	10.7%p
25~29세	53.3%	7.9%p	53.4%	53.1%	44.6%	53.1%	8.5%p	41.1%	9.2%p
30~34세	56.2%	4.3%p	56.8%	55.9%	51.9%	56.8%	4.9%p	42.6%	7.3%p
35~39세	59.9%	2.7%p	53.3%	62.7%	53.5%	55.5%	2.0%p	36.8%	-8.4%p
40~44세	61.4%	-1.3%p	58.4%	63.2%	56.6%	55.0%	-1.6%p	42.1%	-0.5%p

출처: “사회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2018~2024, 건강/교육과훈련/범죄와안전/가족/생활환경(제공), 2025. 9.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20006530.V2.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3년 이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2026~2030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정부의 대응 의지는 국가 지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여 혼인 및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출생아 수 추세 변화에 고려할 제약 요인도 있다. 최근 혼인율(전체 인구 중 혼인신고 인구)과 30대 인구의 증가가 출산율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대되나, 2000년 이후 25~44세 여성인구 중 기혼(유배우, 사별 및 이혼) 여성의 비중은 감소세에 있다. 그리고 기혼 중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증가세에 있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통계에서도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2019년 31.5%에서 2023년 35.9%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율(초혼)이 높아진다고 해도 유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6-3] 25~44세 여성인구 중 기혼 및 무자녀 여성 비중



주: 2000~2020년 5년 단위 표본조사(유배우는 사실혼 포함, 일반/집단/집단시설 가구 내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2023년과 2024년은 인구등록센서스(유배우는 법률혼, 내국인 대상) 기준임. 2000년과 2010년은 10% 표본, 2015년과 2020년은 20% 표본임.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MR2060&conn_path=I2;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2000-2024, 국가통계포털, 시군구 및 연령별/출생자녀 수별/총출산기간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시도.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O2007&conn_path=I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24년 출생아 수 증가를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를 관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이

다. 본 연구 제2장의 기초분석과 제3장의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이 이전 시기부터 진행된 인구학적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2023~2024년 20~49세 여성 전체 출생아 수의 83%에 달하는 약 6,800명의 출생아 수 증가를 발생시킨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자녀 가구 감소로 인해 무자녀 및 한 자녀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024년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는 2021년 이후 지연되었던 혼인이 해소되면서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신혼부부가 증가하며 인구구성이 첫째아 출산율 증가에 유리하게 변화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두 측면에서 2024년 출생아 수 증가가 장기적·지속적 반등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첫째,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구학적 요인이 사라지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나지 않거나 다시 줄어들 수 있다. 물론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출생아 수 증가를 전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의 효과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시행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공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현재 추세를 해석하기보다는 추세 유지를 위해 더 합리적·효과적 정책 방안을 찾아 추진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에 영향을 미친 인구학적 요인들은 당분간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겠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과 2025년 8월까지 혼인 건수는 늘고 있고, 2024년부터는 30대의 무배우 여성 혼인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유배우 여성 출산율 상승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이전 시기 누적된 결혼 지연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결혼의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정책적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결혼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유배우 여성 인구 가운데 무자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역시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비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점차 수렴되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의 추가 출산율의 비율은 2015년 7.3%에서 2023년 8.3%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 양(+)의 '구성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여건하에서 향후 출생아 수의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본 연구 결과 기반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4년의 출생아 수 반등이 30대 초의 인구 및 출산율 증가의 효과가 컸기 때문에 30대 초의 정책 수요에 대한 추가 발굴도 필요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연령과 생애 이행 단계, 출산순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25~29세에는 혼인 및 출산을 지연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30~34세에는 혼인 및 첫 출산이 집중되고, 35~39세에는 출산 지연으로 첫 출산이 많아지고 있고 추가 출산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연령대 및 출산순위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에서도 25~29세의 출산율 변화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25~29세 출산을 장려한다기보다는, 20대에 혼인과 출

산의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생애 이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학업-취업-결혼-출산의 생애 단계적/순차적 전환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와 일자리 탐색 등을 위해 졸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첫 일자리에서의 안정성과 가족 형성을 위한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데까지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경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전까지는 혼인 및 출산이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여 가족 형성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가로, 가족 형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빈곤 및 양육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유민상 외, 2022; 김은정 외, 2025 발간 예정).

30~34세는 혼인과 첫 자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제4장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 30대 초에는 혼인 및 출산 진입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혼인-출산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30대 출산율 상승은 우선 혼인율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첫 출산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 및 양육 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 역할 적응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선영 외(2023)에서는 자녀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후 일자리 복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단절의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활용이 가능한 일·가정 양립 정책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처음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30대 인구의 향후 몇 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코

호트를 분석하여 추가 정책 수요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35~39세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30대 중반 이후의 첫 자녀 출산이 증가하면서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난임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 관리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및 필수 성 재생산 건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5~39세는 자녀 출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육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주거나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 추가 출산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부담이 배가 되는 만큼 돌봄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영유아 돌봄 서비스 외에도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 틈새 돌봄 등 학령기를 마칠 때까지 공적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이 높은 만큼 기존 아동수당 등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 전후는 여성 일자리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중장기 일·가정 양립의 성평등한 생애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추가 출산자는 경력단절로 인한 위험이 누적되는 만큼 재취업, 경력복귀 지원정책도 살필 필요가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혼인 외 출생아의 증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소득수준 등 계층/집단별 출산율 격차에 대한 분석과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계봉오(2025 발간 예정)에서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상위 30% 이상의 소득 집단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 등 정책적 개입의 결과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중위 소득 이하의 집단에서의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혼인 및 출산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반등이 구조적 전환인지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간의 추가 관찰치가 필요하며, 2025년 이후의 혼인 및 출산 결정 분석,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속 모니터링 및 현재의 자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장기패널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최근 출산을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30대 초반 코호트(에코붐 세대)가 인구수에서만이 아닌 혼인 및 출산 행태가 다른 코호트와 구별되는 양상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별 출산을 변화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해서 행정 자료 연계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자료, 국세청 자료, 국가데이터협의의 인구동향 자료 등 다양한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출산 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출생 현황 파악, 혼인-출산 이행 분석, 코호트 분석, 정책 효과 검증, 지역별 비교 연구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유용하므로, 건강보험 DB 내에 출산 관련 항목을 별도로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접근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출산을 반등에의 정책 효과성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책 수혜 여부, 결혼 및 출산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인구 현상 분석 및 정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패널 자료에는 매년 신규 출산자를 포함하기 어렵고 현행 출생신고서를 통해 수집하는 출생통계상에서도 출산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어, 매년 출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횡단면 조사도 병행된다면 패널 자료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 (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한국인구학**, 45(4), 71-92.
- 계봉오. (2025 발간 예정).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 국가데이터처. (1960-2072). 장래인구추계(전국).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1993-2024). 인구동향조사.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00-2020).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 교육상태별 인구(6세이상, 내국인)-시군구.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MR2060&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00-2024). 인구총조사. 시군구 및 연령별/출생자녀수별/총 출산기간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O2007&conn_path=I3
- 국가데이터처. (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인구(제공). 마이 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

N.10001503.V1.1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인구동향조사. 이혼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13502.V3.1>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인구동향조사. 출생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72.V2.1>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인구동향조사. 출생_연간자료_B형(제공). 2025. 10.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322.V2.1>

국가데이터처. (2010-2024). 인구동향조사. 혼인_연간자료_A형(제공).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10013504.V3.1>

국가데이터처. (2014-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인가용). 2025. 9. 3.

검색. <https://doi.org/10.23333/PN.50149167.V2.9>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

앙인구(1993~2024). 2025. 9. 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_1&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

앙인구.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

순위별 출생. 2025. 8. 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연령(5세)별 혼인. 2025. 9. 5.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3&conn_path=I2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

별)/전국. 2025. 9.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

- 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10.3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18-2024). 사회조사 원자료. 건강/교육과훈련/범죄와안전/가족/생활환경(제공). 2025. 9. 1. 검색. <https://doi.org/10.23333/PN.20006530.V2.1>
- 국가데이터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제공) 및 가구원(제공).
- 국가데이터처. (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2025. 9.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제공). 2025.10.3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DMT_ZTITLE%26list_id%3DDH1_10_005%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PE202%26vw_cd%3D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01%26.
- 국가데이터처. (2025. 2. 26).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정책브리핑** [보도영상]. 2025. 10. 21. 검색. <https://ebrief.korea.kr/briefing/65736>
- 국토교통부. (2023. 11. 24). **청년 주거안정 강화방안** [보도자료]. 2025. 9. 3. 검색.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074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 김은정, 이지혜, 조선미, 김은지. (2025 발간 예정).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현, 유해미, 김문정. (2024).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

식조사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민인식, 최필선. (2016). **시계열 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 민인식, 최필선. (2019).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 박종서, 김문길, 김은정, 이상림, 조성호, 양지윤. (2015).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이지혜, 정희선, 이소영, 장인수, 최선영, 이해정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진백, 이재희. (2016).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0(3), 51-69.
- 박진백. (2021).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65-92.
- 박진백. (2022).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WP 22-29.
- 성평등가족부. (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성평등가족부.
- 우해봉 외. (2025 발간 예정).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림, 이지혜. (2018).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보건복지 ISSUE & FOCUS**, 350, 1-8.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5(1), 37-77.
- 이철희. (2022).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이질성 분석: 현금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의 소득분위별 효과. **한국경제포럼**, 15(3), 53-85.

- 이철희. (2023a). 일자리 질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 제조업 고용 비율의 효과. **한국경제연구**, 41(2), 5-33.
- 이철희. (2023b).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 이철희, 권정현, 김태훈. (2025).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2023).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보도자료]. 2025. 10. 21. 검색.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
- 최선영, 이원진, 권영지, 윤태영. (2023).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rellano, M. &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277-297.
- Andreev, E. M., Shkolnikov, V. M., & Begun, A. Z. (2002). Algorithm for decomposition of differences between aggregate demographic measures and its application to life expectancies, healthy life expectancies, parity-progression ratios and total fertility rates. *Demographic Research*, 7, 499-522. <http://www.jstor.org/stable/26348070>
- Blundell, R. & Bond, S. (1998).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87(1), 115-143.
- Choi, S., Ham, S., Yang, Y., & Pareliussen, J. (2024).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in Korea: A literature review.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825. DOI: 10.1787/

ac53879e-en.

- Das Gupta, P. (1993).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Rates: A User's Manual*.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23-18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Fluchtmann, J., van Veen, V., & Adema, W. (2023).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99. DOI: 10.1787/326844f0-en.
- Gauthier, A. H., & Gietel-Basten, S. (2025). Family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Evidence and Reflec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1(1), 125-161.
- Kitagawa, E. M.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272), 1168-1194
- OECD. (n.d.).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2025. 10. 21. 검색. <https://oecd/fdb>
-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부록 1] 조사표(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요인 파악 및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소요 시간은 20~30분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가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 인구정책연구실 이지혜 부연구위원 문의 : 최인선 연구원 ☎ 044-287-8367	수령 기관	담당자 : 김보미 부서장 실사 백지연 프로(☎)
----------	---	----------	-------------------------------

A. 인구학적 특성

[※ 본 조사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된 조사로, 2024년 12월 경험을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성 → 설문종단
- 2. 여성

A2. 귀하의 생년월은 어떻게 됩니까?

_____년 _____월

A2-1. 만 나이(2024년 12월 기준) (자동계산 : 2024-생년) //

- 1. 만 ()세

A3. 2024년 12월 기준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 2. 법률혼 (혼인신고 함)
- 3. 미혼 또는 이혼/사별

A4. **현재**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따로 사는 미혼, 기혼 자녀까지 포함) ()명

A4-1. 해당 자녀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순으로 기입해주세요.

[위에서 나온 응답 수만큼 칸 구현]

구분	자녀 출생 연도 및 월	자녀의 성별
첫째	()년 ()월	1. 남자 2. 여자
둘째	()년 ()월	1. 남자 2. 여자
셋째	()년 ()월	1. 남자 2. 여자
넷째	()년 ()월	1. 남자 2. 여자

A4-2. 2024년 출생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1. 없음
- 2. 1명
- 3. 2명 이상

258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A10. 배우자의 생년월은?

1. _____년
2. _____월
3. 잘 모름

A11.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 졸업 이상

A12. 2024년 12월 기준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 가구원이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근무, 학업, 군복무, 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 직계가족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반면, 분가한 기혼 자녀 및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 자녀는 제외합니다.

A13. 2024년 12월 기준 귀하의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빌라 포함) 및 다세대주택
4.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상가, 공장 등)
5. 오피스텔(주거용)
6. 기타

A14. 2024년 12월 기준 귀하의 주택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 ()

A15. 2024년 12월 기준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일함(육아휴직, 무급가종사자 포함)
2. 일하지 않음 (무직, 전업주부, 학생 등)

*무급가종사자는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A15-1. 2024년 12월 기준 종사상 지위

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함)
4. 상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5. 임시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6. 일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앱을 이용한 배달, 택배, 기술제공 등 플랫폼노동자 등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A15-2. 2024년 12월 기준 직장유형

1.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2.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3.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4. 민간 중기업(50~299인)
5. 민간 소기업(5~49인)
6. 개인사업체(5인 미만)
7. 기타 ()

A15-3. 2024년 12월 기준 직장에 취업한 시기(사업 시작)

1. ()년 ()월

A15-4. 2024년 12월 기준 주당 평균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실제 근무)

1. 주당 ()시간

A15-5. 2024년 **세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을 작성해주십시오)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200만원 미만
3. 월 200~300만원 미만
4. 월 300~400만원 미만
5. 월 400~500만원 미만
6. 월 500~600만원 미만
7. 월 600~700만원 미만
8. 월 700~800만원 미만
9. 월 800~900만원 미만
10. 월 900~1,000만원 미만
11. 월 1,000만원 이상

260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A16.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일함(육아휴직, 무급가종사자 포함)
2. 일하지 않음 (무직, 전업주부, 학생 등) → A17

A16-1.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 총사상 지위

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함)
4. 상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5. 임시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6. 일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형설계사, 학습지교사, 앱을 이용한 배달, 택배, 기술제공 등 플랫폼노동자 등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A16-2.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 직장유형

1.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2.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3.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4. 민간 중기업(50~299인)
5. 민간 소기업(5~49인)
6. 개인사업체(5인 미만)
7. 기타 ()

A16-3. 배우자의 2024년 세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을 작성해주시시오)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200만원 미만
3. 월 200~300만원 미만
4. 월 300~400만원 미만
5. 월 400~500만원 미만
6. 월 500~600만원 미만
7. 월 600~700만원 미만
8. 월 700~800만원 미만
9. 월 800~900만원 미만
10. 월 900~1,000만원 미만
11. 월 1,000만원 이상
12. 모름

A17. 2024년 기준 귀댁의 **1년 총 가구 소득(세후)**은 얼마였습니까? (※ 전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 소득(친인척 도움, 정부 지원금) 등의 합계)

- | | |
|--------------------------|-------------------------|
| 1. 연 1,000만원 미만 | 2. 연 1,000~2,000만원 미만 |
| 3. 연 2,000~3,000만원 미만 | 4. 연 3,000~4,000만원 미만 |
| 5. 연 4,000~5,000만원 미만 | 6. 연 5,000~6,000만원 미만 |
| 7. 연 6,000~7,000만원 미만 | 8. 연 7,000~8,000만원 미만 |
| 9. 연 8,000~9,000만원 미만 | 10. 연 9,000~10,000만원 미만 |
| 11. 연 10,000~15,000만원 미만 | 12. 연 15,000만원 이상 |

A18. **2024년 12월** 기준 귀하 가구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B. 출산 결정 이유 및 양육 여건(2024년 출생아 경험 기준)

※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 응답

[※ 2024년에 자녀가 출생한 응답자만 조사]

B1. 2024년 출산이 계획 임신이었습니까?

- 1. 계획했다
- 2. 계획하지 않았다
- 3. 모르겠다

B2. 코로나19가 2024년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1.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을 미루었다.
- 2. 아니오, 출산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B3. 2024년 출생 자녀 기준, 다음 요인들이 해당 자녀 출산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2	3	4	5	8
1. 본인 출산 의지(가족계획, 희망)						
2. 배우자의 출산 의지(가족계획, 희망)						
3. 본인·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4. 경제적 안정(소득, 고용 등)						
5. 주거 안정						
6.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부담 지원						
7. 가족/친인척의 돌봄 지원 (예: 조부모 육아도움)						
8. 본인 직장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가능성(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2024년 직장을 다니지 않은 경우 8. 해당없음 선택)						
9.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등)						
10. 정부의 저출생 정책(부모급여, 보육료/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등)						
11. 사회적인 분위기, 주변(친구, 동료)의 출산 분위기						
12.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B4. 귀하의 가구가 2024년 출산을 결정할 때에 다음 정부 정책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정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통이 다	영향을 미쳤다	매우 영향을 미쳤다
	1	2	3	4	5
1.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사업 대출 지원 등)					
2. 주거 지원(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임대 등)					
3. 의료 지원(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4. 현금성 지원(출산축하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5. 돌봄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6.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B5. 정부 정책 지원이 2024년 출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예, 정부 정책지원으로 출산 시기를 늦췄다. (예시: 23년에 낳으려고 했는데 24년에 출산)
- 예, 정부 정책지원으로 출산 시기를 앞당겼다. (예시: 25년에 낳으려고 했는데 24년에 출산)
- 아니오, 출산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B6. 지난 3개월 기준 주중 낮 시간동안에 해당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본인
- 배우자
- 동거중인 (외)조부모
- 비동거중인 (외)조부모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가족, 친척, 친구, 이웃 포함)
- 공공아이돌보미
-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 기관에 맡김
- 기타 ()

B7. 지난 3개월 기준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아동을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 아동을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듦
- 배우자의 가사·돌봄 부담 부족
- 아동을 키우는 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체력 부담, 나를 위한 휴식 시간 부족 등)
-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제도사용 어려움, 경력단절 위험 등)
-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정보 부재 등)
- 기타 ()

B8. 2024년 출산 전후 취업상태 변화가 있었습니까?

- 취업상태 유지 (육아휴직 포함)
- 미취업 상태 유지
- (출산 전) 취업 → (현재 시점) 미취업 상태
- (출산 전) 미취업 → (현재 시점) 취업 상태

264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B9. 현재 일자리는 2024년 출산 이전과 동일 일자리(회사) 입니까?

1. 예, 동일 일자리(회사)
2. 아니오, 다른 일자리(회사)

B9-1. 다른 일자리(회사)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육비용(교육비, 보육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소득이 더 높은 일자리로 옮김
2. 출산 이전 직장이 근로 시간이 길고 야근/주말근무/교대 근무 등으로 육아 병행의 어려움
3. 육아휴직 복귀가 어려워 자발적 이직
4. 자발적으로 더 나은 경력 개발/조건을 위해
5.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
6. 기타()

B10. 2024년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소득 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
2.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3.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많지 않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서)
4. 건강 때문에
5. 회사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 후 복귀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워서
6. 배우자 등 가족이 원해서
7.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
8. 기타()

B11. 2024년 출산 이후 일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양육비, 생활비 등 소득을 벌기 위해서
2. 일을 계속하며 경력을 개발/유지하고 싶어서
3.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황이 마련되어서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친인척 돌봄 지원 등)
4. 기타 ()

B12. 2024년 출산 이후 배우자의 취업상태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취업상태 유지 (육아휴직 포함)
2. 미취업 상태 유지
3. (출산 전) 취업 → (현재 시점) 미취업 상태
4. (출산 전) 미취업 → (현재 시점) 취업 상태

B13. **【B8번 1, 3, 4응답자】** 2024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귀하는 다음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 미만으로 단축

구분	있다	없다
	1	2
1.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출퇴근시간 조정제, 재택/원격 근무 등)		

B13-1. **【응답자-육아휴직 미사용】**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
2.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해서
4.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5. 실직의 위험 때문에
6.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 근로 의욕)
7.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8. 기타 ()

B14. **【B12번 1, 3, 4응답자】** 2024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는 다음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 미만으로 단축

구분	있다	없다
	1	2
1.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출퇴근시간 조정제, 재택/원격 근무 등)		

B14-1. **【배우자-육아휴직 미사용】** 귀하의 배우자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
2. 육아휴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해서
4.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5. 실직의 위험 때문에
6.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 근로 의욕)
7.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8. 기타 ()
9. 잘 모르겠음

[현재 알하는 경우만, B8번 문항 1, 4응답자만 응답, 나머지는 B16으로 이동]

B15. 지난 3개월 기준 귀하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1. 일함 → 주 평균 근로시간 ()시간
- 2. 육아휴직 중

[현재 알하는 경우만, B12번 문항 1, 4응답자만 응답, 나머지는 B17로 이동]

B16. 지난 3개월 기준 배우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1. 일함 → 주 평균 근로시간 ()시간
- 2. 육아휴직 중

B17. 지난 3개월 기준 귀하 그리고 배우자의 평균 가사·돌봄 분담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귀하와 배우자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분담 정도
1. 귀하	() %
2. 배우자	() %
합계	100%

B18. [B15번 1. 일함 응답자만] 지난 3개월 기준 귀하는 자신의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C. 향후 출산 의향

C1. 귀하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1. 임신 중
2. 임신 아님

C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임신 중인 경우, 복중 태아를 제외한 추가 출산 의향을 선택해주시시오)

1. 의향이 있다
2. 의향이 없다
3. 잘 모르겠다

C2-1. [문C2 1. 의향이 있다 응답자] 언제쯤 자녀를 가질 생각입니까?

1. ()년 이내
2. 아직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생각 중이다)

C2-2.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가질 생각하십니까?

()명

C2-3. [문C2 2. 의향이 없다, 3. 잘 모르겠다 응답자]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현재 자녀가 형제자매를 원하지 않아서/현재 자녀(무자녀 포함)수로 충분해서
2.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잘 키우기 힘들, 스트레스가 높음 등)
3.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 일(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4.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여가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5.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6.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7.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8.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9. 기타()

C3.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명 포함)

()명

C4. 귀하께서는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다음의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1	2	3	4	5
1. 배우자의 (공평한)가사 및 돌봄 참여 가능성					
2. 가족(부모 등)의 육아지원 가능성					
3. 믿고 맡길 만한 기관(어린이집)이나 사람(아이돌보미) 가능성					
4.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근무시간 단축 등)					
5.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6.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 가능성 (유연근무, 재택근무, 돌봄 휴가 사용 등)					
7.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 정도					
8.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안정적인 일자리)					
9. 자녀를 양육할 만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10. 나/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11. 자녀를 낳고자 하는 본인/가족의 출산 의지, 가족계획(이상적 인 자녀수 등)					
12. 미래 사회여건(경기, 고용 등)에 대한 전망					
13. 사회 전반의 출산 분위기 (또래·친구 등 영향)					

C5.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을 미루었다
-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을 앞당겼다
- 아니오, 코로나19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당시에는 출산계획이 없었다 (해당 없음)

C6. 위와 같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감염에 대한 불안
- 병원·산부인과 이용 어려움
- 경제적 불안정
- 돌봄·보육기관의 운영 중단
- 배우자 또는 가족의 반대
-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 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
- 기타 ()

D. 정책 체감도 및 영향

D1. 다음 정부 정책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언제 알게 되었으며,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정책		D1. 인지 여부	D1-1. (인지한 경우) 인지 시기	D1-2. (인지한 경우) 인지 정도 (※ 처음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1. 알고 있다 2. 알지 못한다	1. 2023년 경 또는 이전 2. 2024년 경 3. 2025년 경	1. 정책(수급액수, 수혜가능 여부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2. 정책(수급액수, 수혜가능 여부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안다. 3. 정책(수급액수, 수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매우 잘 안다
결혼·출산 및 주거 지원	1. 건강/의료지원(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지자체)			
	3. 주거지원 정책(신생아 특례대출,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등)			
	4. 공공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양육·교육·돌봄 지원	5. 자녀 양육 현금 지원(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6. 미취학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7.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시간제 보육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8.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방과후, 늘봄 학교, 키움센터 등)			
	9. 틈새 돌봄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10. 자녀세액 기본공제			
일·가정 양립 지원	11.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3.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14. 배우자 출산휴가			
	15. 육아휴직			
	16. 유연근무(탄력근로, 시차 출퇴근제 등)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 직장어린이집			
	19.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			

270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D2. 저출생 대책 중에서 다음의 영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전혀 중요하 지 않다 1	별로 중요하 지 않다 2	보통이 다 3	대체로 중요하 다 4	매우 중요하 다 5
일·가정 양 립	1.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2.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 육·돌봄 환경	4.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5.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6.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주거 등 결 혼·출산·양 육 지원	7.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8. 결혼 친화적 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9.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10.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 (예: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등)					
	11.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사 회/구 조 적 원인	12.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13.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14. 수도권 집중 완화					
	15.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사교육비 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					
	16. 부부간 가사/양육의 동등한 분담 등					

E. 혼인, 자녀, 가족 기능 관련 가치관

E1. 다음은 결혼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1년 전)과 2025년(현재)의 생각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illegible]

E2. 다음은 자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1년 전)과 2025년(현재)의 생각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illegible]

27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E3. 다음은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1년 전)과 2025년(현재)의 생각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illegible]

[부록 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부표 1〉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혼인율 포함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5(혼인율 포함)			모형 6(혼인율 변화 포함)		
	모형 5-1 diffGMM lag(2 .)	모형 5-2 시스템GMM lag(2 4)	모형 5-3 고정효과	모형 6-1 diffGMM lag(2 4)	모형 6-2 시스템GMM lag(3 3)	모형 6-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1.07*** (0.03)	0.96*** (0.03)	0.96*** (0.02)	1.05*** (0.04)	0.94*** (0.02)	0.94*** (0.02)
2년 전 혼인율	-0.07*** (0.02)	-0.02 (0.02)	-0.01 (0.01)			
전년도의 전년 대비 혼인율 증감				0.03* (0.02)	0.06** (0.02)	0.06 (0.04)
2015년 이후 급락세	-0.88* (0.42)	-0.65** (0.29)	-0.51 (0.34)	-0.89* (0.43)	-0.55** (0.24)	-0.42 (0.30)
30대		1.62* (0.83)			1.88** (0.73)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1.59** (0.70)	-1.53** (0.64)	-1.59* (0.76)	-1.46* (0.69)	-1.67** (0.63)	-1.62** (0.74)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78* (0.39)	-0.45** (0.20)	-0.30 (0.20)	-0.61* (0.34)	-0.27** (0.11)	-0.15 (0.16)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25 (0.41)	-0.99* (0.46)	-1.23** (0.58)	-0.29 (0.39)	-1.19** (0.45)	-1.30** (0.55)
2024년 반등	-0.56* (0.32)	-0.23* (0.13)	-0.07 (0.11)	-0.34 (0.25)	-0.08 (0.08)	0.00 (0.15)
2024년 반등/30대	2.13*** (0.63)	0.75 (0.44)	0.21 (0.30)	1.82*** (0.57)	0.52 (0.34)	0.06 (0.28)
상수항		0.55* (0.31)	1.00* (0.35)		0.23 (0.14)	0.89* (0.42)
AR(1) p-value	0.078	0.088	Within R ² = 0.9537	0.082	0.087	Within R ² = 0.9540
AR(2) p-value	0.151	0.112		0.111	0.105	
Hansen p-value	0.930	0.882		0.805	0.952	
# of Instruments	9	11		9	11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5(혼인율 포함)			모형 6(혼인율 변화 포함)		
	모형 5-1 diffGMM lag(2 .)	모형 5-2 시스템GMM lag(2 4)	모형 5-3 고정효과	모형 6-1 diffGMM lag(2 4)	모형 6-2 시스템GMM lag(3 3)	모형 6-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 of obs.	195	195	195	195	195	195
집단(순위별/연령대별)	15 (20~44세)	15 (20~44세)	15 (20~44세)	15 (20~44세)	15 (20~44세)	15 (20~44세)
기간	'12~'24	'12~'24	'12~'24	'12~'24	'12~'24	'12~'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0.05$),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0.1$ 또는 $p>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leq p\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 $p<0.10$, ** $p<0.05$, *** $p<0.01$
출처: 저자 작성.

〈부표 2〉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고용률 및 주거부담률 추가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7(고용률 추가)			모형 8(주거부담률 추가)		
	모형 7-1 차분GMM lag(2 .)	모형 7-2 시스템GMM lag(2 4)	모형 7-3 고정효과	모형 8-1 차분GMM lag(2 4)	모형 8-2 시스템GMM lag(3 5)	모형 8-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연령대별 출생순위별 출산율	0.97*** (0.08)	0.92*** (0.03)	0.98*** (0.01)	0.71*** (0.11)	0.80*** (0.09)	0.91*** (0.02)
2년 전 혼인율	0.00 (0.04)	0.00 (0.01)	-0.04** (0.01)	0.06 (0.06)	0.02 (0.04)	0.01 (0.01)
전년도 고용률	-0.13* (0.07)	-0.01 (0.01)	-0.15*** (0.06)	-0.03 (0.04)	0.00 (0.01)	0.01 (0.03)
전년도 주거부담률				-0.10** (0.05)	-0.12 (0.18)	-0.12** (0.05)
2015년 이후 급락세	0.01 (0.35)	-0.13 (0.20)	-0.40 (0.29)	-0.29 (0.27)	-0.10 (0.43)	-0.41 (0.26)
30대		2.16*** (0.63)			4.64 (2.75)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1.48 (0.86)	-1.92** (0.68)	-1.13** (0.58)	-1.12 (0.86)	-1.76* (0.93)	-1.50** (0.64)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17 (0.27)	-0.14 (0.15)	-0.52** (0.22)	-0.22 (0.22)	0.06 (0.23)	0.00 (0.15)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28 (0.53)	-1.48* (0.71)	0.02 (0.53)	-0.48 (0.82)	-1.48 (1.40)	-1.33* (0.70)
2024년 반등	0.02 (0.25)	-0.06 (0.10)	-0.02 (0.10)	-0.08 (0.15)	0.16 (0.15)	0.25** (0.10)
2024년 반등/30대	1.69** (0.80)	-0.02 (0.47)	2.01** (0.92)	0.76 (0.72)	0.12 (1.23)	0.13 (0.54)
상수항		1.03 (0.94)	10.4* (4.10)		0.73 (1.26)	1.03 (1.72)
AR(1) p-value	0.078	0.080	Within R ² = 0.9577	0.830	0.814	Within R ² = 0.9582
AR(2) p-value	0.803	0.981		0.071	0.107	
Hansen p-value	0.183	0.216		0.237	0.135	
# of Instruments	11	13		12	16	
# of obs.	270	270	270	198	216	216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7(고용률 추가)			모형 8(주거부담률 추가)		
	모형 7-1 차분GMM lag(2 .)	모형 7-2 시스템GMM lag(2 4)	모형 7-3 고정효과	모형 8-1 차분GMM lag(2 4)	모형 8-2 시스템GMM lag(3 5)	모형 8-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집단(순위별/연령대별)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기간	'10~'24	'12~'24	'12~'24	'12~'24	'12~'24	'12~'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저자 작성.

〈부표 3〉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 추가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9(가족 지출 비중 추가)			모형 10(가족 지출 비중 중심)		
	모형 9-1 차분GMM lag(2 4)	모형 9-2 시스템GMM lag(2 4)	모형 9-3 고정효과	모형 10-1 차분GMM lag(2 4)	모형 10-2 시스템GMM lag(2 4)	모형 10-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0.69*** (0.06)	0.83*** (0.06)	0.90*** (0.02)	0.83*** (0.05)	0.93*** (0.03)	0.94*** (0.03)
2년 전 혼인율	0.09 (0.05)	0.02 (0.01)	0.01 (0.01)			
전년도 혼인율 증감				0.02 (0.03)	0.01 (0.04)	0.05 (0.05)
전년도 고용률	-0.03 (0.03)	-0.00 (0.01)	-0.02 (0.02)	-0.24*** (0.07)	-0.01 (0.02)	-0.15** (0.07)
전년도 주거부담률	-0.09** (0.03)	-0.13 (0.10)	-0.08* (0.04)			
2년 전 GDP 대비 SOCX 비중	0.62* (0.35)	0.21 (0.23)	1.31** (0.47)	0.94** (0.40)	0.02 (0.21)	0.47 (0.32)
2015년 이후 급락세	-0.58** (0.27)	-0.23 (0.28)	-0.64* (0.32)	-0.48 (0.33)	-0.20 (0.22)	-0.42 (0.31)
30대		3.17** (1.11)			1.88*** (0.53)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0.98* (0.57)	-1.27* (0.72)	-1.41** (0.61)	-1.48** (0.52)	-1.67** (0.59)	-1.36** (0.57)
2020년 이후 구조변화	-0.54** (0.24)	-0.15 (0.21)	-1.02** (0.42)	-1.03* (0.50)	-0.21 (0.22)	-0.58 (0.35)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29 (0.47)	-1.09* (0.59)	-1.11* (0.63)	-0.18 (0.37)	-1.26* (0.60)	-0.39 (0.53)
2024년 반등	-0.39* (0.19)	-0.05 (0.16)	-0.89** (0.36)	-0.78 (0.45)	-0.12 (0.19)	-0.13 (0.29)
2024년 반등/30대	1.28* (0.70)	-0.02 (0.65)	0.41 (0.52)	2.48*** (0.78)	0.04 (0.49)	1.45 (0.92)
상수항		0.78 (1.04)	1.70 (1.36)		0.95 (0.99)	9.45** (4.38)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9(가족 지출 비중 추가)			모형 10(가족 지출 비중 중심)		
	모형 9-1 차분GMM lag(2 4)	모형 9-2 시스템GMM lag(2 4)	모형 9-3 고정효과	모형 10-1 차분GMM lag(2 4)	모형 10-2 시스템GMM lag(2 4)	모형 10-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AR(1) p-value	0.989	0.600	Within R ² = 0.9604	0.074	0.081	Within R ² = 0.9569
AR(2) p-value	0.060	0.061		0.834	0.952	
Hansen p-value	0.355	0.136		0.906	0.230	
# of Instruments	12	15		11	14	
# of obs.	198	216	216	270	270	270
집단(순위별/연령대별)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18 (20~49세)
기간	'10~'24	'10~'24	'10~'24	'10~'24	'10~'24	'10~'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저자 작성.

〈부표 4〉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 사교육비 및 결혼 가치관 추가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1(사교육비 추가)			모형 12(결혼 가치관 추가)		
	모형 11-1 차분GMM lag(2 4)	모형 11-2 시스템GMM lag(2 4)	모형 11-3 고정효과	모형 12-1 diffGMM lag(2 4)	모형 12-1 시스템GMM lag(2 4)	모형 1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년도 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1.02*** (0.02)	0.92*** (0.02)	0.92*** (0.02)	1.04*** (0.03)	0.93*** (0.02)	0.93*** (0.02)
전년도 혼인율 증가	0.05** (0.02)	0.07** (0.03)	0.09* (0.05)	0.05* (0.03)	0.08** (0.03)	0.09* (0.05)
전년도 고용률	-0.12** (0.05)	-0.01 (0.01)	-0.08 (0.05)	-0.09 (0.05)	-0.01 (0.01)	-0.08 (0.05)
전년도 GDP 대비 SOCX 비중	2.19** (0.79)	1.79** (0.62)	1.62*** (0.55)	1.04** (0.47)	0.74** (0.35)	1.07** (0.46)
결혼 가치관(긍정)				7.29* (4.07)	0.82 (1.86)	1.61 (1.63)
사교육비 증가율	-0.03** (0.01)	-0.03*** (0.01)	-0.03*** (0.01)			
2015년 이후 급락세	-0.47 (0.35)	-0.68** (0.29)	-0.54 (0.32)	-0.68 (0.47)	-0.61* (0.29)	-0.58 (0.34)
30대		2.14*** (0.30)			1.86*** (0.43)	
2015년 이후 급락세/30대	-1.98*** (0.54)	-1.63*** (0.49)	-1.40** (0.59)	-1.87*** (0.58)	-1.65*** (0.43)	-1.40** (0.60)
2020년 이후 구조변화	-1.51** (0.68)	-1.39*** (0.47)	-1.23** (0.48)	-1.07 (0.63)	-0.78* (0.41)	-1.11* (0.53)
2020년 이후 구조변화/30대	-0.51* (0.29)	-1.13** (0.41)	-0.74 (0.49)	-0.46 (0.33)	-1.10*** (0.36)	-0.69 (0.49)
2024년 반등	-1.61** (0.71)	-1.58*** (0.50)	-1.28** (0.50)	-0.82 (0.53)	-0.73* (0.37)	-0.94* (0.47)
2024년 반등/30대	2.19*** (0.72)	0.52 (0.38)	0.84 (0.68)	2.06*** (0.69)	0.56* (0.32)	0.90 (0.69)
상수항		-0.66 (0.44)	4.47 (3.19)		-1.63 (4.44)	1.19 (3.77)

(종속변수=순위별 연령대별 출산율)	모형 11(사교육비 추가)			모형 12(결혼 가치관 추가)		
	모형 11-1 차분GMM lag(2 4)	모형 11-2 시스템GMM lag(2 4)	모형 11-3 고정효과	모형 12-1 diffGMM lag(2 4)	모형 12-1 시스템GMM lag(2 4)	모형 12-3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AR(1) p-value	0.081	0.093	Within R ² = 0.9556	0.079	0.064	Within R ² = 0.9552
AR(2) p-value	0.217	0.134		0.179	0.099	
Hansen p-value	0.756	0.977		0.800	0.209	
# of Instruments	12	15		12	15	
# of obs.	234	234	234	234	234	234
집단(순위별/연령대별)	18	18	18	18	18	18
기간	'12~'24	'12~'24	'12~'24	'12~'24	'12~'24	'12~'24

주: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① 1차 자기상관 존재 확인(AR(1): $p < 0.05$), ② 2차 자기상관 없음 확인(AR(2) $p > 0.1$ 또는 $p > 0.05$ (약한 가능성)), ③ 도구변수 과식별 여부 확인(Hansen test $0.1 \leq p \leq 0.9$), ④ 도구의 과다 여부 판단(도구 수 < 집단 수)이며, 차분/시스템GMM 모형 추정 시 표준오차 보정 및 도구 축약 적용함. 일부 모형에서 30대 더미는 기준집단 처리 과정에서 collinearity로 생략됨. * $p < 0.10$, ** $p < 0.05$, *** $p < 0.01$
출처: 저자 작성.



Abstract

An Analysis of the Drivers of the Rebound in Live Births in 2024

Project Head: Lee, Jihye

South Korea recorded 238,000 live births in 2024, a 3.6% year-on-year increase and the first rebound in nine years, following a long-term decline since 2015. This unexpected rise has drawn attention to whether the low-fertility trend may be shifting. Although earlier accounts tentatively attribute the rebound to pandemic-related base effects, rising marriage rates in 2022-2023, the Echo-boom cohort's entry into key reproductive ages,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nd recent policy measures, the true driver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rebound remain unclear. This study examines the demographic, behavioral, and policy-related factors underlying the 2024 increase using vital statistics, decomposition analyses, results from a survey of women aged 25-44, and dynamic panel models.

The 2024 birth statistics show increases in births and fertility among women aged 30-34, a record-high number of non-marital births, slight shortening of the marriage-to-birth interval due to the resolution of pandemic-related postponements, and continued rises in maternal age. Time-series analysis sug-

gests that the 2024 rebound partially offset the pandemic-induced decline relative to trend, although additional years of data are needed to assess structural change.

Decomposi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rease of approximately 8,000 births was primarily driven by higher fertility among women in their 30s (+15,000) and growth in the 30-34 female population (+2,000). Declines in the 35-39 female population and lower fertility among women aged 25-29 reduced births by about 3,500 combined. Further analysis shows that married fertility (+20,000) and nonmarital fertility (+2,500) increased, while a declining share of married women and a slight decrease in the reproductive-age female population exerted downward pressure. First-birth and second-birth fertility among married women contributed most to the increase, influenced partly by pandemic-delayed marriages and possible selection effects among those with stronger fertility intentions.

Survey evidence from 2,064 women (including 1,003 who gave birth in 2024) indicates that fertility decisions were shaped by personal and spousal intentions, age and health, domestic labor support, economic stability, and housing. Additional-birth mothers placed greater importance on childcare availability and policy support. For future fertility, respondents emphasized job stabilit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s, work-family balance policies, housing, and time availability.

Dynamic panel analysis suggests that although fertility has

declined since 2015, the downward trend moderated during the pandemic and further slowed in 2024, with notable recovery in first-birth fertility among women in their early 30s. This pattern is consistent with the release of postponed births and potentially improving social or policy environments.

Looking ahead, rising marriage numbers, increasing populations of women in their 30s until around 2030, and improved perceptions of marriage and parenthood could support short-term birth increases. However, sustained recovery will require addressing structural barriers such as delayed marriage, rising childlessness among married women, economic and housing insecurity, and gender inequality in work-family arrangements. Policy priorities should include life-course-specific support: alleviating socioeconomic risks among women aged 25–29, enabling smooth marriage and childbirth transitions for women in their early 30s, and expanding medical and care support for women in their late 30s. Enhancing longitudinal and cohort-based data infrastructure is also essential for accurately measuring policy impacts and understanding future fertility dynamics.

Key words: Low Fertility, Live births, Fertility Rebound, 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Determinants of Fertility